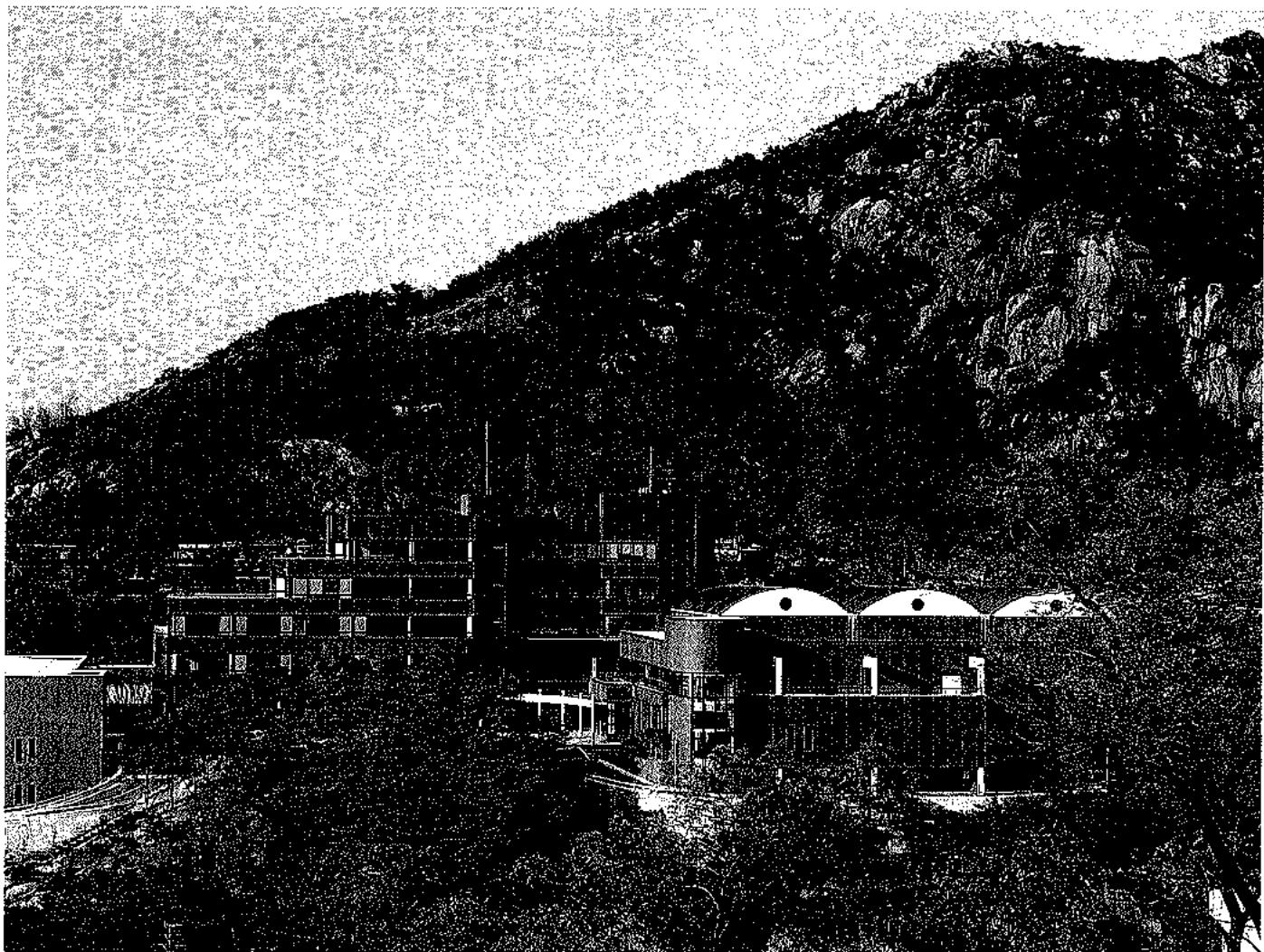


KOREAN ARCHITECT

# 建築土

대한건축사협회발행 1996년 2월호 통권322호



월간 건축사 1996년 2월호 통권 322호(마침 5일 발행)발행 · 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등록 · 1967년 3월23일 등록번호 · (서)리 - 26 1985년 12월31일 제3종우편물(나)급인가

February

2

칼럼  
관행 / 김인철

건축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3) / 최찬환

회원작품  
동대문 U빌딩 / 김인석  
여성공동의 창 / 지·주  
대전 가톨릭 성당 / 정림건축  
분당감리교회 / 윤주연  
글라스탁워 / 김장수+박승+한상운  
이태원소방파출소 / 한상운

작품노트  
우편통다천장 / 송광섭

기획언제  
한국의 건축가 – 정인국(2) / 박길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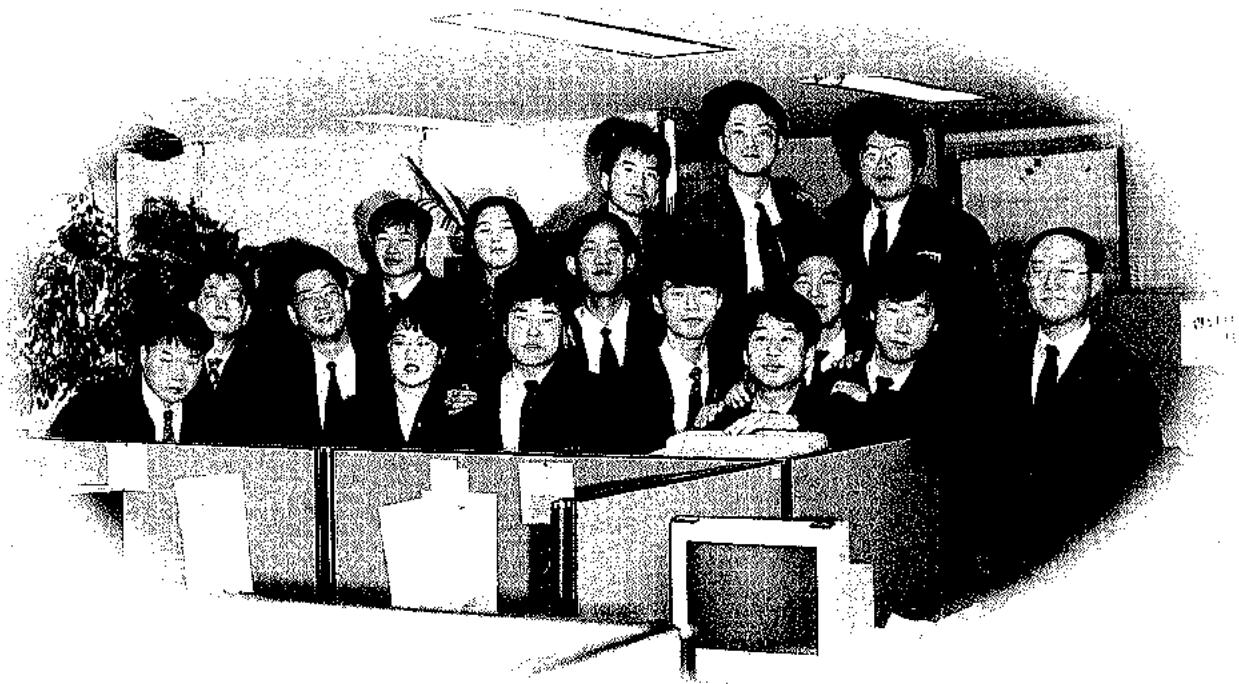
건축 기행  
중국 건축기행(2) / 박재환

전통 건축  
한국 유교건축의 재조명(6) / 김지민

해외건축  
프랑스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10) / 박효순  
법령  
건축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주)건캐드

건축과 컴퓨터의 이상적인 만남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 신뢰로 자라납니다.

수많은 컴퓨터회사 중에서  
건축설계의 전문적인 지식과 고도의 컴퓨터 활용기술을  
갖춘 전문회사만이 믿을수 있는 건축CAD의 TOTAL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건축CAD전문회사인 (주)건캐드  
그간 250여개사의 성공적인 건축CAD시스템 구축한 풍부한 경험과 차원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신의 정보와 지속적인 기술을 지원하여  
고객의 실질적인 만족과 이익을 제공합니다.

성공을 향한 신뢰의 선택 (주)건캐드!

### ■ 하드웨어



- 최상의 고성능 컴퓨터486 SYSTEM
- 저렴하고 다양한 CAD SYSTEM 보유
- 겸용한 호환성과 뛰어난 확장성
- LAN, PLOTTERS, PRINTER, MONITOR 등

### ■ 소프트웨어



- 최고의 건축CAD설계지원시스템 CADPOWER Ver 60
- 건축설비지원시스템 MECADPOWER
- AutoCAD R11, R12 진한판 등 판매

### ■ CAD기술연구소



- 효율적인 건축CAD활용 기술연구
- 건축CAD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 건축설계산식 프로그램 응용
- 건축CAD 3D 펜더링, 모델링 응용

### ■ 건축CAD교육센터



- 건축설계실무에 바탕으로한 교육
- 체계적인 단기간의 건축CAD교육
- 대량한 시민대의 전문과정 개설
- 건축CAD설계자 양성 및 취업알선

### ■ 아프티서비스



- 신뢰, 성실의 아프티서비스 제공
- 당시전 신속한 서비스 제공구축
- 고객 인수 학습의 연속성 유지체계
- 설무자의 시스템 관리 능력 교육

건축CAD전문회사

**(주) 건 캐 드**

서울·서초구 서초1동 1444-2 (풍원빌딩 4층)  
대표전화: (02) 584-6480 팩스: (02) 587-1803

**(주)건축CAD기술연구소**

서울·서초구 서초1동 1444-15 (중문빌딩 5층)  
대표전화: (02) 598-1486 팩스: (02) 598-1487

# 입고는 즉시 출고는 38초

## 삼성셔틀파킹

삼성이 만든 차세대 주차설비, 셔틀파킹

1978년 국내최초로 기계식 입체주차설비를 제작 설치한 삼성이  
드디어 미래형 주차설비인 셔틀파킹을 선보입니다.

### 연속적인 동시 입출고

삼성셔틀파킹의 가장 큰 특징은 입고실과 출고실을  
분리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입출고시에 다음 팔레트가 동시에 대기하고 있으므로  
입출고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 팔레트 대기시간 제로

셔틀파킹의 최대 비밀은 팔레트 교환시스템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고속 승강기로  
옮겨갈 때, 다음 차를 위한 빈 팔레트가 동시에 대기하고 있으므로  
입고실에 대기하므로 종래시스템에서 문제시되던  
입고대기시간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 분당 120m의 고속 승강기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입고되면 고속 승강기를  
통해 지시된 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삼성 셔틀파킹은 1분에 120m를 승강하는 고속  
승강기를 내장,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신속하게  
자동차를 원하는 층으로 이동시킵니다.

### 분당 300m의 고속이동대차

셔틀파킹 시스템의 고속성능 발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속이동대차는 1분에 약 300m의 속도로  
주행하며, 정확한 정지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 기계식 주차장의 5배 공간효율

셔틀파킹의 한 유니트(Unit)는 3단 기준으로 평균  
138대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선박은 최고  
6단까지 설치가능하고, 유니트를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 대규모 주차도 가능합니다. 바다면적 대비 설비  
가동효율과 주차공간 활용면에서 종래의 기계식  
주차장에 비해서 5배 이상 효율적입니다.

### 문열림 사고방지 시스템 채택

기계식 주차설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자동차  
문열림 사고—이러한 사고는 자동차의 과순은 물론,  
전체 주차시스템의 불안스러움을 낸다. 셔틀파킹은  
팔레트에 자동차의 문열림 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 삼성 주차설비의 종류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 수직순환방식

 대형체인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케이지(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  
시키면서 입출고하는 시스템.

#### 엘리베이터 방식

 엘리베이터에 차를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 하는 시스템.

#### 다중순환방식

 콘베이어 원리를 이용 팔레트를  
상, 하층으로 이동시키면서 입출고  
하는 시스템.

#### 수평순환방식

 주차공간에 팔레트를 평면으로  
배열하고 간단히 평면 이동시키는  
시스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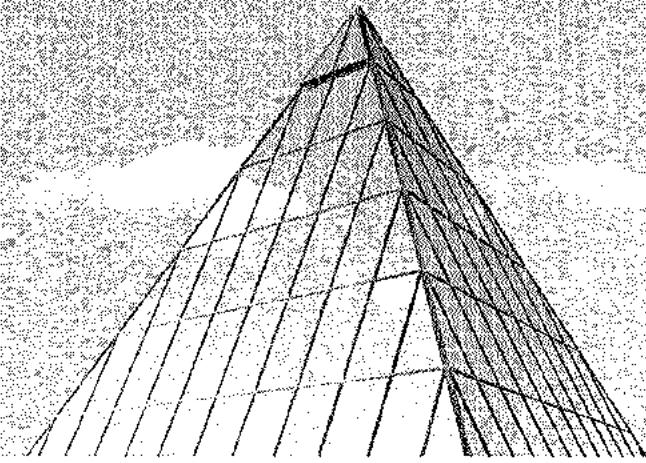


세계 1등품질에 도전한다

SAMSUNG

삼성중공업

# 이건창호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창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건 FACADE SK60으로 시공된  
독일의 스카이라이트 컨스트럭션  
(SKYLIGHT CONSTRUCTION)  
최고급 커튼월(CURTAIN WALL)로서,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조망을입니다.

창은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 삭막함을 희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창이 없는 도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침침한 무덤과도 같을 것입니다.  
도시의 창은 하늘의 푸른 빛을  
반사시키고, 구름의 느린 움직임, 찬란한 햇볕을  
우리의 가슴속에 남기웁니다.  
도시에서 희망을 느끼는 것은 아름다운  
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창호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창을 만들고 싶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건창호는 아름다운 '창'을 만듭니다.  
가능적으로 완벽한 향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까지 아름다워지는 창.  
이건의 소중한 자산이며, 이건이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이건창호는 고객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전시장에 오시면 창에 관한 모든 기술적인 상담과 시스템 선정,  
설계서비스, 그리고 건적서비스를 자세히 제공해드립니다.

독일 창호전문업체 - 슈코(SCHÜCO)사와 기술제휴

## 이건창호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09 · 전화 563-2071 · 팩스 563-5523  
이건산업(주) · 이건신립제품(주) · 이건자원개발(주)  
FORESTAL LAUTARO S.A.



차세대 건축용 내화피복재 등장!

# 에스코트 AF

■ 에스코트 AF는

환경무해성과 최대 내화성능을 함께 실현한  
획기적인 퍼라이트 내화피복재입니다.

## 에스코트 AF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입니다.

에스코트 AF는 Non Asbestos, Non Mineral fiber, Non Vermiculite로 설계하였으며 시공시 또는 마감후의 분진문제해결은 물론 환경무해성을 실현한 제품입니다.

## 에스코트 AF는 최고의 내화피복재입니다.

에스코트 AF는 최소의 내화두께(1시간 내화 20mm, 2시간 내화 30mm, 3시간 내화 40mm)로 최대의 내화성능을 보장하고 철골부식방지효과가 뛰어나며 또한 시공성을 극대화하여 공기단축, 총 공사비 절감을 이룩한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 에스코트 AF 내화구조 지정내용

구조	내화시간	에스코트 AF		지정
		프로트재 (mm)	금질용	
보·기둥	1시간	20	15	제 1995-18 호
	2시간	30		
	3시간	40		

에스코트는 국내 제일의 퍼라이트 전문회사 (주)삼손이 인간존중의 정신으로 만든 새로운 흡음단열, 내화피복재입니다.

- 분사식 흡음단열 마감재인 **에스코트 AT**와 산업용 내화피복재인 **에스코트 IF**도 있습니다.



본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21 청합빌딩  
TEL.(02)563-8181 FAX(02)538-2589  
영업부 : TEL.(02)552-8181 FAX(02)552-6224  
부산자점 : TEL.(051)512-8181 FAX(051)516-9343  
광주자점 : TEL.(062)268-8181 FAX(062)268-8186



(주)중앙창호

본사 : 경기 인천시 서구 석남2동 223-40  
문제사업부 (032) 571-7771 Fax 575-6655  
건구사업부 (032) 582-7771 Fax 571-7744  
시스템창호사업부 (032) 583-7771 Fax 571-7744  
서울전시점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0-9  
기린건축자재백화점 102호  
(02) 548-8033 Fax 549-9234

## 창호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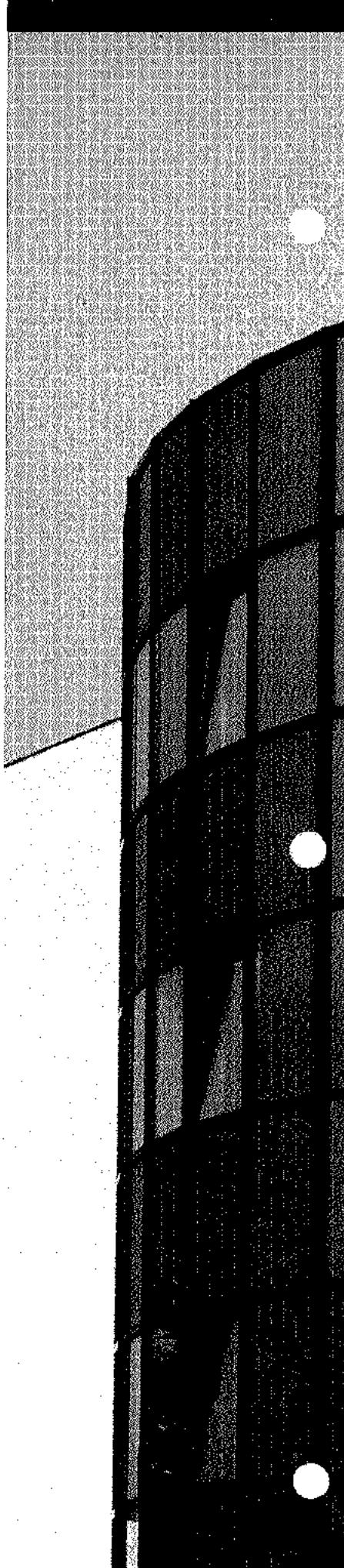
독일 HARTMANN 社의 정통시스템 창호 — 중앙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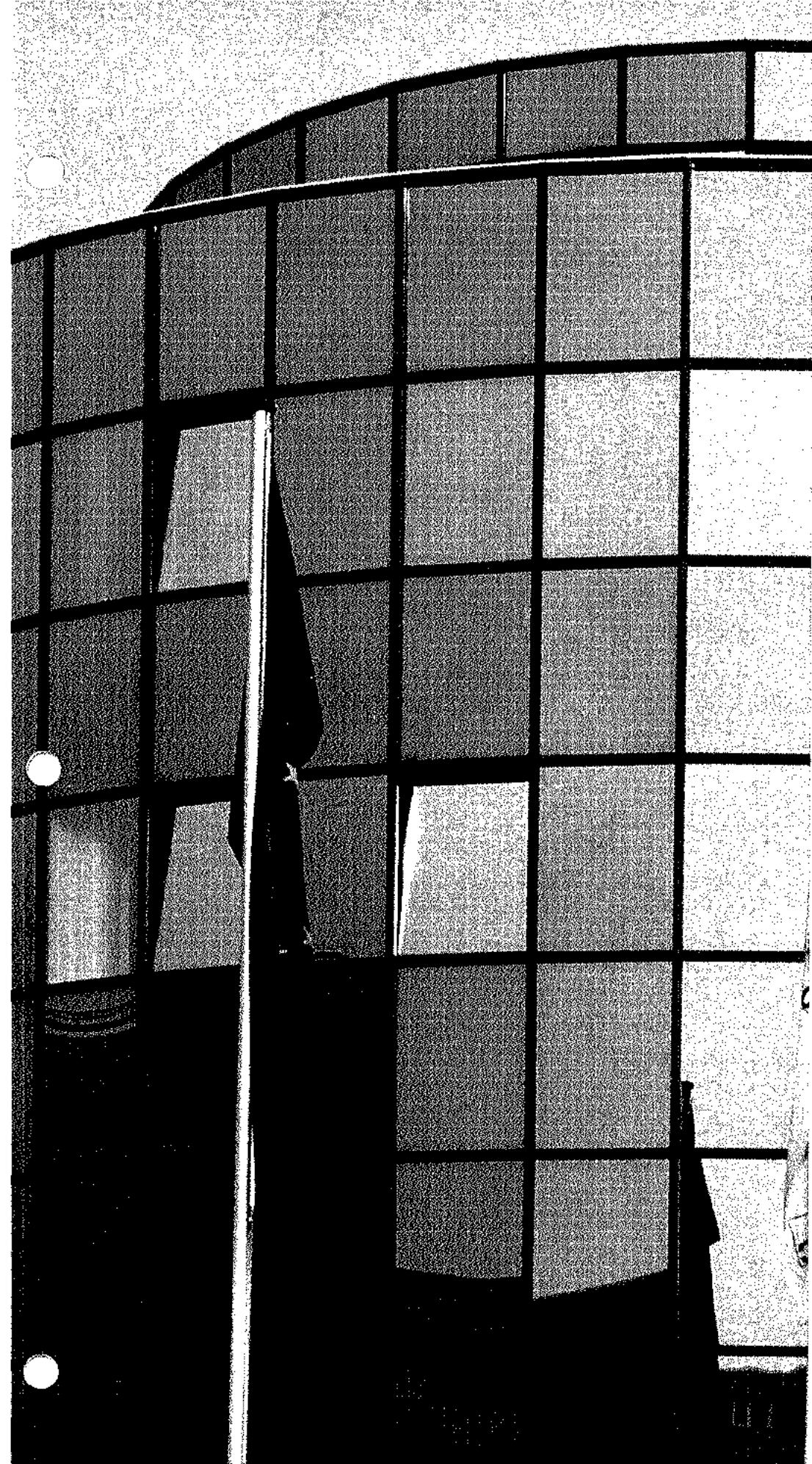
고급 특수목 가공으로 명품의 창호, 건구, 가구를 제작 시공해온  
목재의 명문 중앙창호가 독일 하트만사의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만나  
커튼월과 시스템 창호의 새로운 세계를 엽니다.

중앙창호의 모든 커튼월과 시스템창호는 엄격하기로 이름난  
독일 DIN 규정의 폴리아미드 단열바와 하드웨어 등을  
사용함으로써 뛰어난 방음효과, 탁월한 단열효과, 완벽한 결로방지,  
다양한 개폐방식 등 . . .  
독일의 합리성과 견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독일 하트만사의 수백가지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다채로운 색상은  
건축가가 원하는 어떠한 디자인의 건축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알루미늄 커튼월과 시스템 창호는 고급특수목의 건구,  
가구와 함께 설계부터 제작, 시공까지 완벽하게 해결해드리는  
중앙창호와 상의해 주십시오.  
모든 건축물과 주거공간을 한층 돋보이게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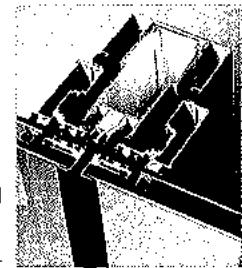
시가  
설명

신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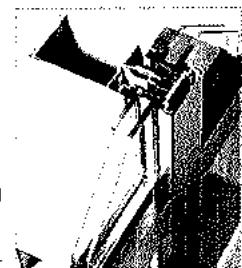
신민학

기술이 다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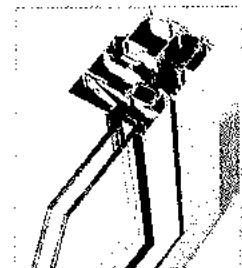
가치도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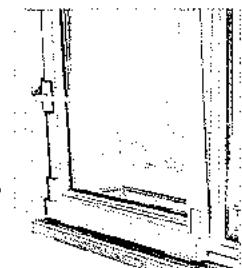
S-500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단열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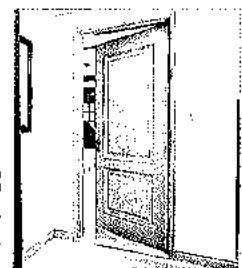
S-400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단열바



S-3000  
단열창호T/T  
(알루미늄+단열바, Tilt Turn)



## 알루우드PST (Parallel Sliding & tilt) 알루미늄+목재



원목DOOR  
목재창호, 건구,  
가구, 시스템키친도  
생산합니다.

# CIMCAD 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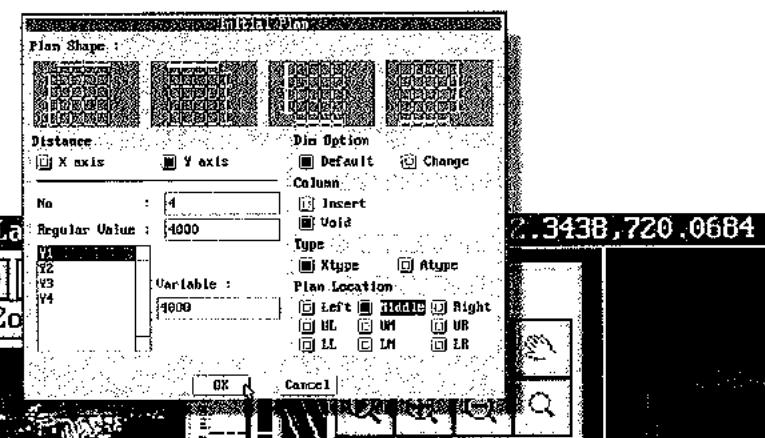
## 건축설계 자동화프로그램

### 주요 기능

CIMCAD 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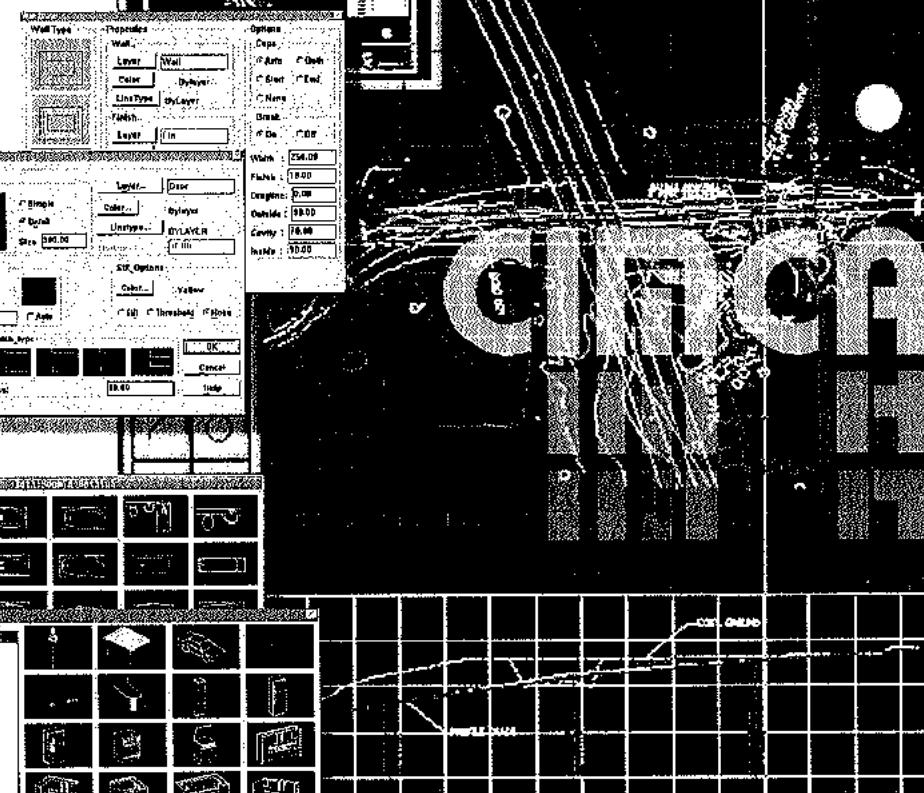
#### ■ 도면 초기화

DCL을 보면서 Center, 열, Number, Column을 편집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Bubble 및 치수를 필요한 부분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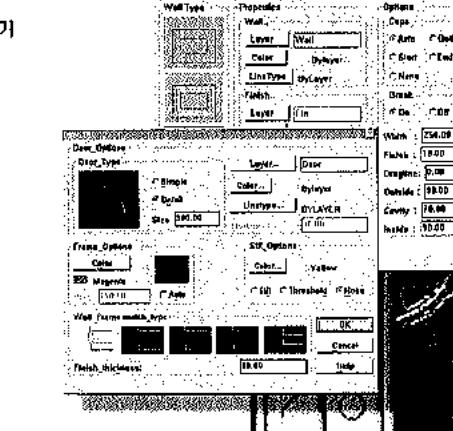
#### ■ 다양한 플랫폼 지원

AutoCAD R12, R13 DOS & Windows, AIX 4.1(R/S 6000)  
플랫폼을 함께 지원하므로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 ■ Lisp에서 ADS로의 전환

기존의 Lisp에서 ADS로 전환하여 속도의 최적화를 이루었으며 향후 버전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모든 구성을 모듈화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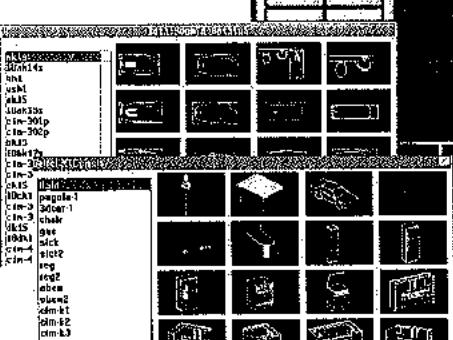
#### ■ Wall, Door 기능의 향상

마감 동시 표현, 편집 기능이 보강되어 Drawing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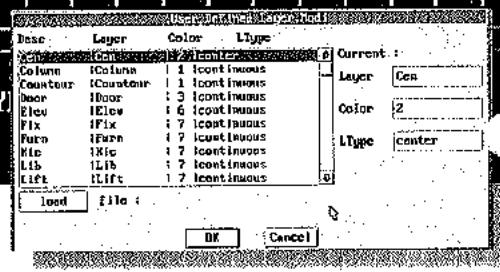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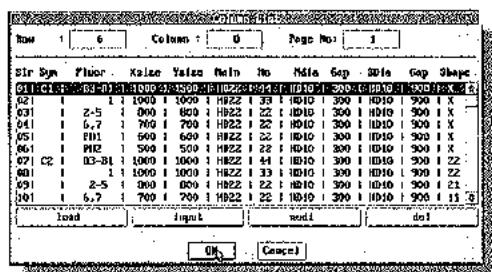
#### ■ 건축 Symbol 150여개 추가

건축 관련 Symbol을 정리하여 사용하기 편리하게 ICON화 하였으며 600여개의 Symbol 제공으로 건축 업무에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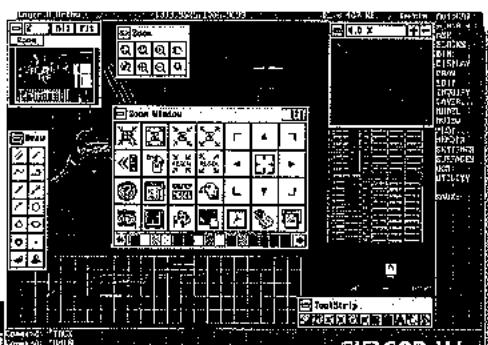


#### ■ 자동 치수 기입

축선의 선택만으로 자동 치수 기입이 완료됩니다.



AutoCAD 사용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축설계자동화 프로그램 CIMCAD가  
보다 나은 기능으로 Upgrade되어 여러분 앞에 선을 보입니다.  
건축 실무진들이 요구하는 기능들을 수렴, 대폭 보강하였고  
건축사가 직접 제작에 참여, 직관적인 작업의 흐름을 유도 하였으며  
프로젝트 관리 및 도면 검색, 관리 기능과 실질적인 건축설계작업에 필요한  
기능들을 보다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CIMCAD는  
최적의 건축설계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 CIM View AutoCAD Display Driver

### ■ Bird's Eye View

원하는 부분을 신속히 볼 수 있고  
빠른 속도로 화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 ■ Spy G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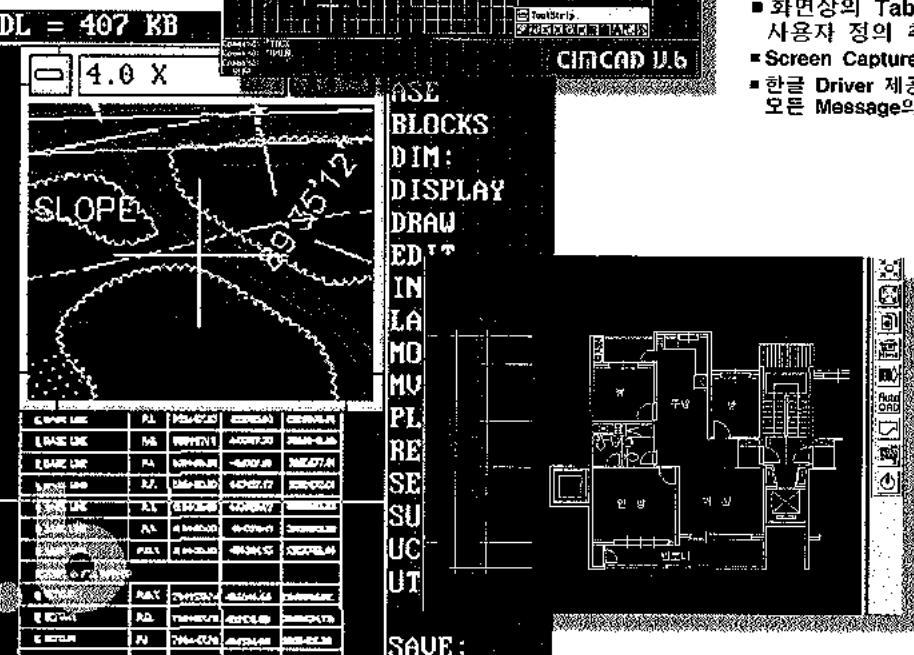
도면을 확대하지 않고 커서의  
움직임만으로 디테일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 ■ Fast Zoom, In, Out, Fast Pan, Fast Redraw 기능

화면상의 Tablet Menu를 제공하며  
사용자 정의 추가 삭제가 가능합니다.

### ■ Screen Capture기능

한글 Driver 제공으로  
모든 Message의 한글 출력력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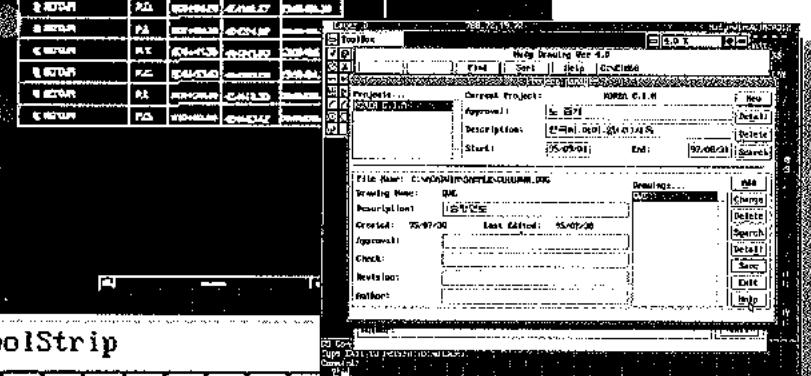
## View Master

도면 검색 프로그램

### ■ DOS용과 ADS 버전을 함께 공급

- DOS 용 : AutoCAD 없이  
도면 검색 가능

- ADS 용 : 도면 검색 및  
Insert, Xref 기능



## CIM Drawing Manager

프로젝트 및 도면관리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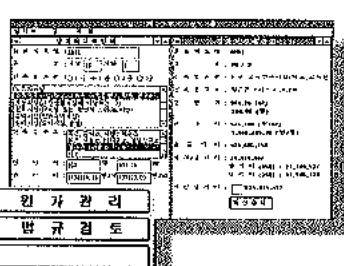
■ 프로젝트 관리자 및 실무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만들어지는 모든 도면을 Data Base화  
하여 누구나 손쉽게 도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 CIM View에서 한글 Driver를 설치했을 경우  
한글로 Data Base 구축이 가능합니다.

Slide Manager - Library 구축에 필요한 Slide 관리

Block Manager - 작업 중에 발생하는 Block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File Manager - 도면 File 및 모든 File을 복사,  
삭제 등이 가능.



## 설계정보 프로그램

### ■ 산출 내역

총 공사비 설계 감리비, 제안 용역비를  
평과 m<sup>2</sup>로 자동 산출해 준다.

■ List의 Mouse만 클릭해 주면 건축물에  
맞는 표준 평당 공사비가 입력, 계산

**CM 한국사아이엘(주)**  
**Axon(주) 아론 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2-22 균동빌딩 3층  
TEL : 515-3167(대), FAX : 515-3169

신기술 혁신으로 안전을 생각합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  
필

실용신안등록 제076984호  
PUMA상표등록 제281348호  
일본국(출) 평성4년 3718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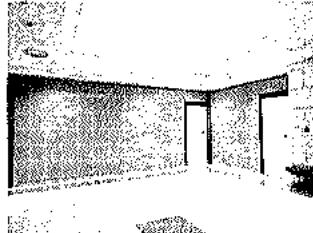
# “푸마방화셔터는 별도 방화문이 필요 없습니다.”

?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래의 방화문, 방화셔터의 2종  
구조를 하나의 방화셔터 시스템  
으로 통합했습니다.

경제성·절대마찰·인성·편의성  
등 민족 시기며 세계최초로  
방화셔터를 “푸마”의 신기술로  
완성시켰습니다.



푸마 방화 셔터만이 당신에게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 푸마방화설치업체

- 미도파 상계점
-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 롯데쇼핑 본점, 청량리점
- 대구 동이쇼핑
- 신세계 영등점
- 강동필 프라자
- 부산 리베라 소공
- 명동 SS페션재정
- 대한투자신탁사옥
- 제일은행 구본점
- 하이앳트호텔
- 조선호텔
- 위커힐호텔
- 속초아남하이츠
- 세브란스빌딩
- 엠도 구청사
- 아주대 부속병원
- 제주증양병원
- 보령제약사옥
- 중앙대학교
- 이화여대
- 외 100여 업체 시공

## 시제품·시연제 출품

- '93동경 GOLD LIVING SHOW
- '93 서울 국제건축설진
- '94 경향 히우징페어

- 푸마 방화셔터 국내 총판
- 전문건설업·창호·철물면허보유
- 국내유일 설계·제작·설치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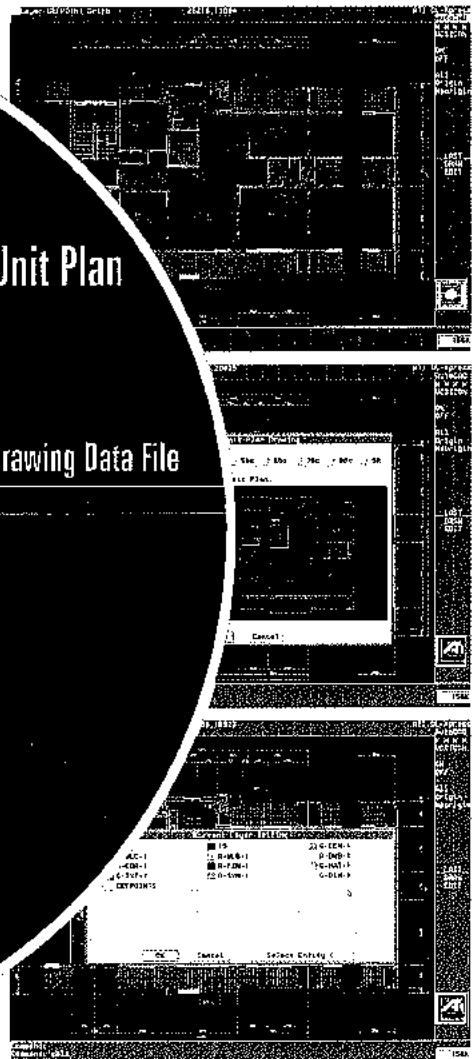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東樂產業株式會社**

본사 : 서울特別市 九老區 九老6洞 98-6  
TEL : 838-4545 (代)

FAX : 838-0474

공장 :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동공단 156-14B/L

제조원 : 아 주 셔 터 공 사



# 아파트 평면도를 삼권 CD

주택 120채의 아파트를 쉽게 배울 수 있다

## AutoCAD Drawing Data File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모음집120선은 10평대에서 80평대에 이르는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도 120개를 선정하여 AutoCAD 도면화일로 CD에 수록한 자료집입니다.

아파트 설계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세대 평면도를 선정하여 치수표기, 실 면적표기, 건축요소에 따른 레이어설정, 색상등을 통일된 조정작업을 하였으며, 도면화일과 함께 Kfont한글유필리티등을 제공합니다.

건축설계사무소, 건설회사, 컨설팅 회사, 건축전공 학생등이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을 설계하거나 검토할 때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자료집입니다.



(주)청우시스템  
02-587-5168/9

# “적산업무 전산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품실적**

조달청, 총무처(시설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서울시지하철공사,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체신부조달사업부, 법무부, 한국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 육군본부,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수협중앙회 데이콤 현대건설(주), 공영토건(주), (주)기산, (주)대명건설,  
 신동아종합건설(주), (주)대동주택, (주)우양건설, (주)삼환기업, (주)삼환끼류, 성일건설(주), 경향건설(주) 동국산업(주)  
 신화건설(주), 라이프종합건설(주), 삼성엔지니어링(주), (주)대륙건설, 그랜드종합건설(주), 한주개발(주), (주)씨엠기업, (주)한솔건설  
 삼안기술공사(주), 동보건설(주), (주)한국종합건축, 승도종합건축, 한강종합건축, 서울주택개발(주), 미주실업(주), (주)법한  
 거양개발(주), 부성건설(주), 진로건설(주), 두산건설(주), 삼경건설(주), (주)창조종합건축, (주)신한, 서울건축(주)  
 엄이건축(주), 유일종합건축(주), (주)세미종합건축, 토당건축, 보람종합건축, 한국조형건축, 진화건축  
 (주)이공건축, 미래건축(주), 동명기술공단(주), 가전종합건축, 도화종합기술공사(주)  
 한양적산연구소, (주)세원엔지니어링, (주)한국산업경영연구소, 성진건축  
 삼안건설기술공사(주), 서인적산연구소, 외 500개 업체.

## 견적비가 설계비의 5%도 안된다고 신경을 못쓰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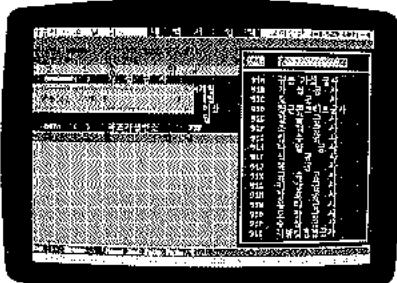
시장개방을 맞아 머지않아 기획에서 설계, 견적, 시공에 이르는 전문 분야를 연계하는  
 CIC구축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 “이전 적산업무를 외주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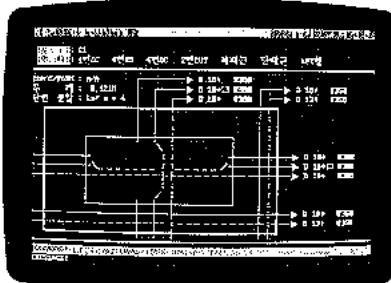
고려전산의 견적관리 프로그램이 **설계사무소** **관공서** **시공회사** 에서 많이  
 사용하고, 평가가 좋은 이유를 아십니까?

초보자도 사용하기 쉽고, 설계예산 내역서에서부터 발주처 시공회사까지 DATA가 연계처리  
 되며 사용하면 할수록 빛이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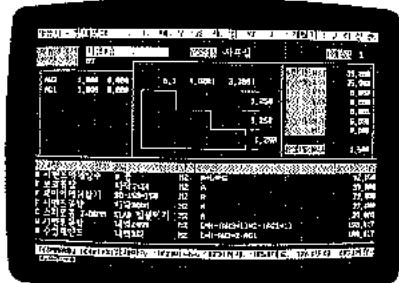
| EMS-I(내역관리)



| R.C(골조물량산출)



| K-FIN(마감물량산출)



| **효과:** ① 외주비 절감 ② 신뢰도 증가 ③ 다양한 분석 및 기술축적

| **특장:** ① 사용하기 편리하다(도움말/화면메뉴/팝업메뉴방식)

- ② 최소의 입력으로 최대의 출력과 집계분석
- ③ 물량산출시 내역으로 자동연결됨
- ④ 자재코드, 일위대가 제공
- ⑤ 설계변경/기성내역 작성이 용이하다.
- ⑥ 관공서(발주처) 전산내역 입찰과 연결
- ⑦ 통신을 이용한 완벽한 아프터 서비스

### S/W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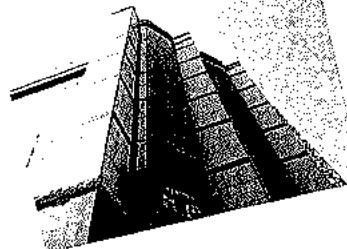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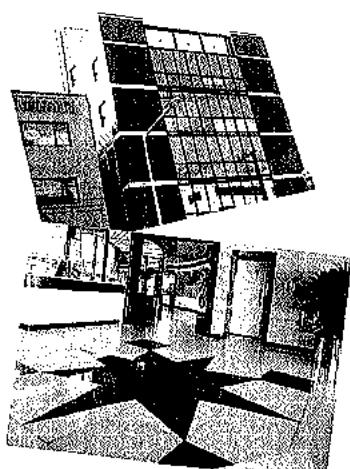
- EMS-I 내 역 관 리 SYSTEM
- EMS-II 전기내역관리 SYSTEM
- EMS-III 설비내역관리 SYSTEM
- EMS-IV 토 목 내 역 SYSTEM
- R.C 골조물량산출 SYSTEM
- K-FINISH 마감물량산출 SYSTEM
- M.M.S 자 재 관 리 SYSTEM
- P.M.S 공 사 관 리 SYSTEM
- A.M.S 건설회계관리 SYSTEM
- P-PMS 인사/급여관리 SYSTEM



# 이태리풍의 미래형 건축내외장재- 대림 미라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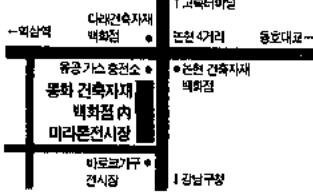
고객신뢰의 대림이 국내 최초로  
ITALY BRETON사의  
세계특허공정으로 만든 미래형  
첨단건축 FASHION 내외장재-  
아름답고 한차원 높은 품격을 요구하는  
건축물에는 미라톤을 꼭 사용하세요.



## 대림 미라톤의 특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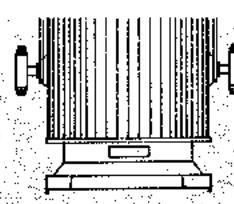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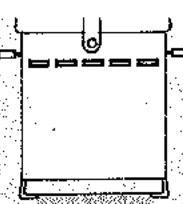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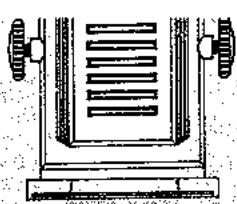
- 천연석이 표출 할 수 없는 색상과 질감을 낼수 있습니다.
- 충격이나 마모, 화학물질에 강합니다.
- 두께: 12mm, 15mm, 20mm, 30mm  
크기: 3m×1.2m 범위 내
- 건축물 뿐만 아니라 INTERIOR FURNITURE(씽크대, 세면대, 탁자등)에도 좋습니다.

대림미라톤 상설전시장 OPEN  
TEL.(02)516-5826



대림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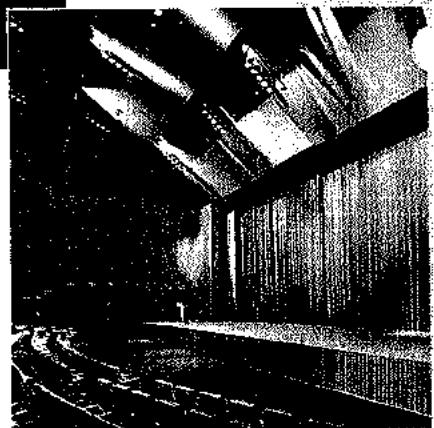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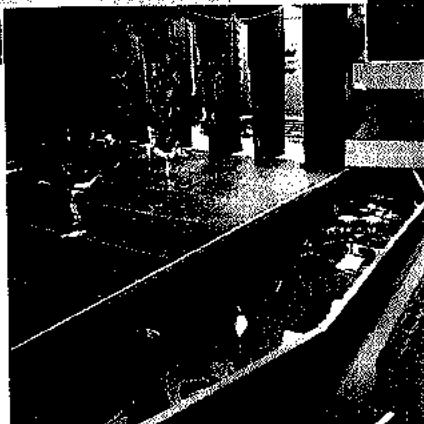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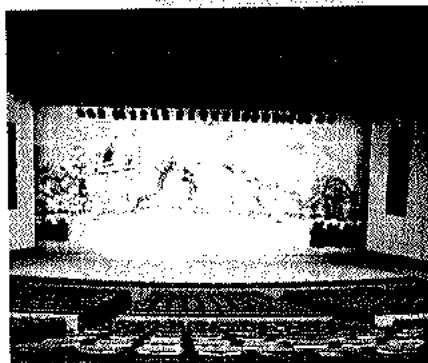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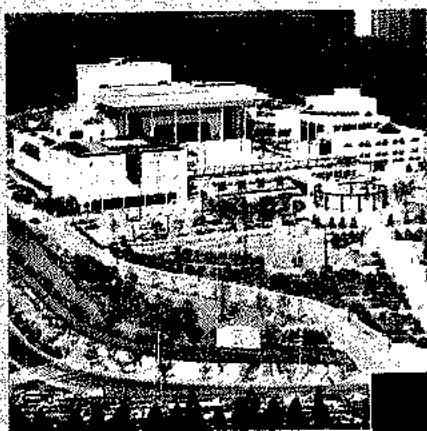
본사: TEL (02) 725-3501~9 공장: TEL (0415) 62-8101~4



무  
대  
기  
계

무  
대  
조  
명

영  
상  
설  
비



기획 · 설계 · 시공

**SSE** (주)성스테이지엔지니어링

SUNG STAGE ENGINEERING CO., LTD.

본사·공장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0-8(시화공단2나 209)  
TEL : (0345)499-8100~4, FAX : (0345)499-8105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술은 역사 20년-

#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야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 주요 공사실적

- 세종문화회관
- 유관순기념관
- 국립극장
- 충현교회본당
- 세라톤워커힐
- 문화예술진흥원(문화회관)
- 롯데호텔
-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 부산문화예술회관
- 서울·제주 신라호텔
- 이화여대강당
- 수안보와이키키관광호텔
- 과천시민회관
- 원주치악문화예술회관
- 안양문화예술회관
- 중앙대 예술대학강당
- 계몽 센터 예술극장
- 육군박물관
- 대전시민회관
- 강원대학교
- 충북문화 예술회관

## 주요 생산품목

- STAGE & STUDIO
- CONFERENCE ROOM
- BASIC EQUIPMENT SYSTEMS
- SCHOOL STAGE
- THEATRE STAGE
- DESIGN & ENGINEERING
- TELEVISION STUDIO
- MANUFACTURE
- OPERA HOUSE
- TURN-KEY PROJECTS



大雅工電株式會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 332-4500(代表), (02) 335-4642(代表)  
FAX. (02) 392-2751

工場：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阜面 山209-1 松麻里 山209-1  
TEL. (034) 987-4184, (02) 632-0216

# “깨끗한 도면, 살아있는 글자체”(한글·영문)

## 세계최초 전원이 필요없는 최첨단 레터링 프로터

아직도 글씨를 손으로 쓰고 계십니까?

설계도면 및 레터링 작업시 빠르고 깨끗하게 쓸수있는 레터링 프로터.  
자, 이제는 말기십시오!



### CAD LINER CD - 950

#### ■ 특 징

- 세계최초로 개발된 전원이 필요없는 최첨단 레터링 프로터로 정전시에나 현장등 어느곳에서나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7가지 영문체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도면 사양에도 적합합니다.
- 더욱 깨끗하고 새로워진 한글체도 기본으로 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 기존제품 보다 훨씬 다양해진 기능과 사용하기에 더욱 편리해진 컴퓨터식 보턴.

#### ■ 용 도

- 기계 도면 제도, 건축 도면 제도, 전기 도면 제도, 전자 도면 제도, 토목 도면 제도, 측량 도면 제도, 설비 도면 제도, 연구 논문 작성, OHP 필름작성, CAD 원도작성, 기타 서류 작성 등.
- 각종 설계도면의 내용 표기, 글자, 기호등 표기.
- 정확하고 깨끗한 글씨는 설계도면의 품위와 신뢰도를 높여 줍니다.

# CADLINER CD-950

**MAX**

수입원 : 유미교역  
서울 중구 북창동 93-3  
(삼육빌딩 603호)  
TEL (02) 776-2252  
FAX (02) 776-2253  
H. P. 011-272-1929

설계제도의 필수품 - 레터링 플로터

# 한글 스크라이버 NED-316

신제품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ABCabc012 ABCabc012 ABCabc  
012 ABCabc012 ABCabc012  
**ABCabc012 ABCabc012 ABCabc**  
012 ABCabc012 ABCabc012

## 한글 스크라이버가 새롭게 선보입니다.

도면작업의 효율화를 이루고 설계도면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설계·제도용 OA기기-한글 스크라이버 NED-316 한글, 영문, 숫자, 기호 등의 레터링은 물론 각종 도형을 프로그램하여 저장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플로터가 복합된 첨단 레터링 플로터입니다. 또한 CAD와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더욱 경제적입니다.

### NED-316의 특징

- 한글4가지, 영문 10가지 기본서체 내장
- 문자크기 최대40mm, 메모리 8000자로 확장
- 단축키 사용으로 간편한 조작

(주)삼아 테크시스템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6-17 장흥빌딩

제품구입  
A/S문의

**Robbins** ロビンス

Premium Hardwood Flooring



원목 바닥재의 명품 - 로빈스

# 새로운 목재문화의 창조

(국제 라이센스 DIN 독일규격 합격)



올림픽이 증명한

최상급의 바닥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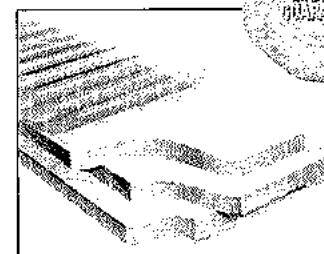
로빈스 우드프로링!

100년 전통을 자랑합니다.

(88 서울올림픽, 92 바르셀로나 올림픽  
실내경기장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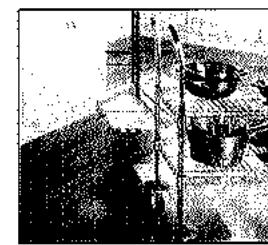
(5년간 품질보증 마크)



(도장의 극치)



(Permacushion Maple system)



(Maple Natural)



(Oak Chablis)

규격/주거용 10/12mm × 57/76mm × 1219mm

상업용 19mm × 57/83mm × R/L

체육관용 20/27mm × 57mm × 2130mm

수종: Oak, Maple      시공: Glue down or Nail down



동양목재공업주식회사

본      사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2-45

TEL: 032-763-1321 ~4 FAX: 032-762-0015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8-1 금정빌딩 6층

TEL: 514-5411 (교환) 641-4 FAX: 546-8175

546-8174 (직통)

## 취급품목

건축마루재/고무바닥재/PVC바닥재/세라믹타일/무늬목



일제 최초 신기술, 인정 KTI 마크 획득

① 93. 소재국산화 및 임산화 시장업체 선정(통상산업부)

② 94. 일련특허 제77184호, 제77185호 획득(특허청)

③ 94. 신기술 창업자금 지원 대상업체 선정(지정부)

④ 95. 국산 신기술(KTI 마크 획득) 기술(과학기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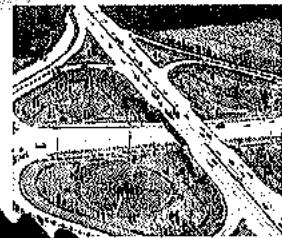
국산신기술획득업체

고품질 콘크리트 균열방지 압축성유보강재 —

슈퍼스트롱 콘.화이버®

SUPER STRONG

(주)에스에스산업의 신기술, 신소재—  
슈퍼스트롱 콘.화이버® 는 현재 국내 및  
수입 외제품 콘크리트 보강용  
합성섬유 중에서도 뛰어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최고의 제품입니다.



#### ■ 특징

- 건조수축 균열 억제.
- 충격, 파손, 마모, 저항력 증대.
- 투수성 감소(절근부식 감소)
- 동결 및 응해 손상감소.
- 메탈라스 및 와이어 매쉬 대체.
- 슷크리트 리바운드 감소



(주)에스에스산업

•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3동 779-10(석암B/D)

TEL : (02)836-2233(대표) FAX : (02)836-2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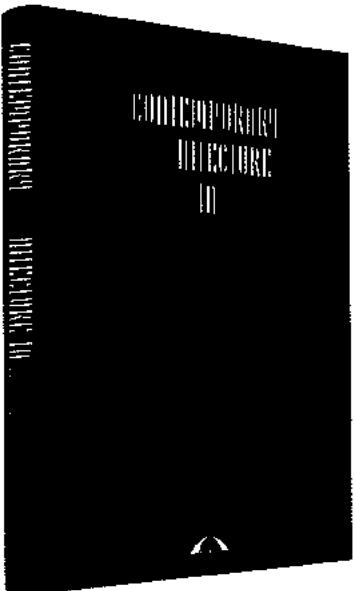
• 공장 :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소내리 213-1

TEL : (0334)72-0789 FAX : (0334)73-0789

영업종목 : 슈퍼스트롱 콘.화이버® / 아스콘 화이버®

발언  
조형예술 전반에  
관한  
새 책을  
만듭니다.

#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ASIA



발언에서 전세계 건축인들에게 아시아건축을 알린다.

- 영문본
- 대한건축사협회 지음
- Size : 235×310mm 양장본
- 아시아 15개국의 83개 작품 수록
- 풍부한 화보, 도면, 해설(비평)
- 전세계 출판사 및 서점망을 통해 배포
- 가격 : 35,000원

아시아 15개국의 유명한 건축가들의 빼어난 걸작 83개 작품에 대한 사진, 도면과 비평이 실려 있는 책이다.

이번 단행본에는 주로 아직 건축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도, 중국, 파키스탄 등의 건축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 특히 그들 특유의 재료와 디자인으로 계획된 이색적인 것들이 눈에 띈다.

해설 또한 단순한 건물의 형상이나 디테일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어찌면 어렵기도 한 주제를 쉽게 서술한 점이 이책의 특징이다.

아시아 건축의 현재 모습을 파노라마로 보면서 오늘날 우리 건축의 질적 수준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중요한 필독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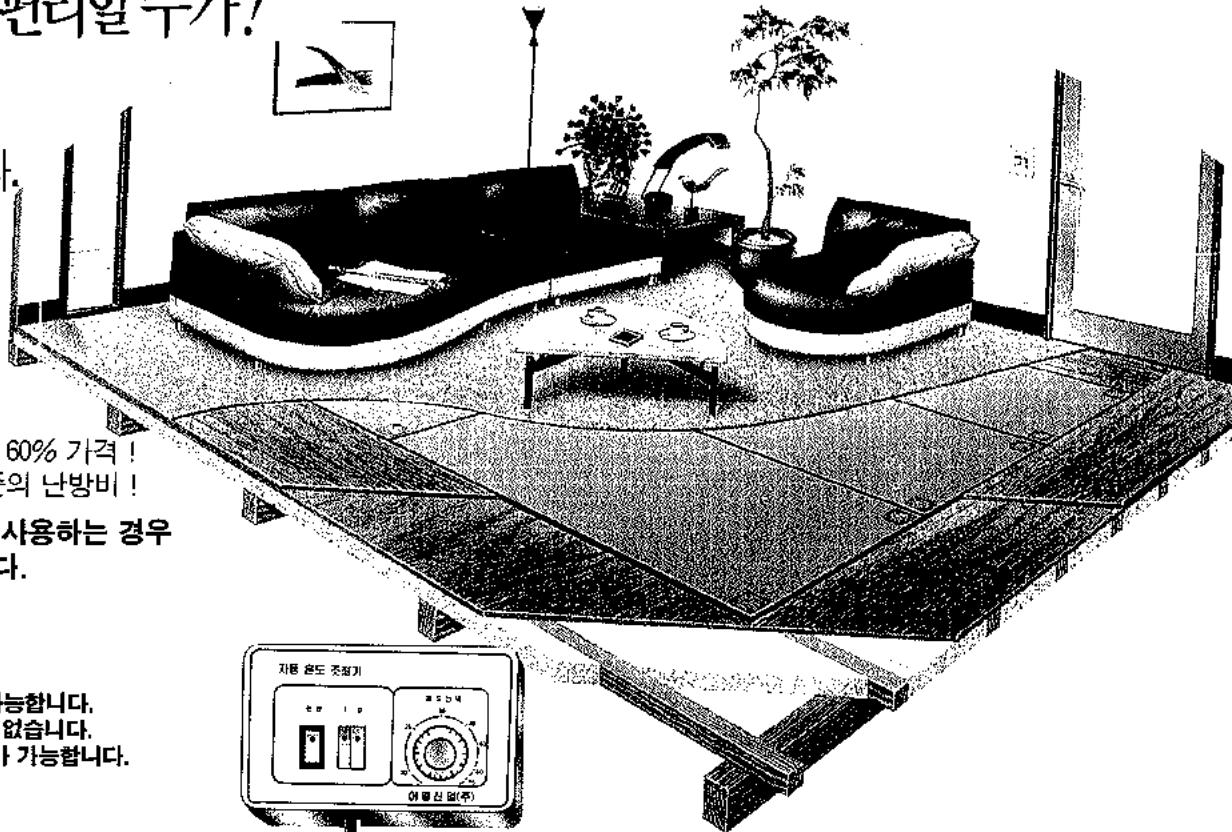
이책에는 한국건축으로 김종성, 김석철, 김원, 등의 작품이 소개되어 있다.

저자:ARCASIA  
가격:35,000원

# 이일 전기 온돌판넬

이렇게 따뜻하고 편리할 수가!

당일시공, 당일난방,  
보일러가 필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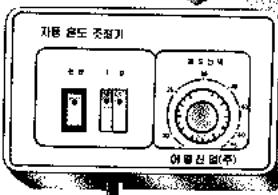
시공비는 가스, 기름보일러의 60% 가격!  
가스, 기름값보다 저렴한 수준의 난방비!

일반용 전기나 산업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연료보다도 경제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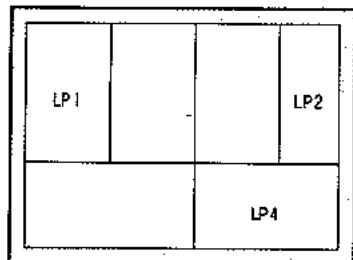
1. 시공이 간편합니다.
2. 경제적입니다.
3. 스위치 작동 후 5분이면 난방이 가능합니다.
4. 깨끗한 공간, 소음, 연기, 냄새가 없습니다.
5.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이전 설치가 가능합니다.

## 설치장소

일반 주택은 물론 별장, 여관, 기도원, 절,  
놀이방, 현장숙소, 빌딩대기실, 휴게실,  
콘테이너 하우스 등의 난방, 특히 음식점,  
독서실, 유아원, 공장 기숙사의 온돌 난방에  
아주 좋습니다.



■ 설치프랜  
例



공진청 형식승인 제 3-7-4527  
실용신안권출원 제 91-11674호  
실용신안권 출원 제 92-18466호  
의장권 출원 제 91-10816호

\* 본 제품은 1억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방면적 10.2m<sup>2</sup>/난방면적 7.5m<sup>2</sup>/부설율 73.5%
- 소요자재
  - 온돌판넬 LP1 (220V/240W) × 4장
  - 온돌판넬 LP2 (220V/120W) × 1장
  - 온돌판넬 LP4 (220V/180W) × 1장
  - 온도조절기(중탕) × 1대
  - 전기용량소요 1.25kw
  - 전기요금예상 1.25kw × 10hr/일 × 0.7 × 59원/kwh = 520원/일  
520원 × 30일/월 = 15,600원/일
  - 1일 10시간 사용, 통전률 70%, 전기요금(일반용 전기)단가 59원/kwh의 월간전기요금임.



본사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69-4(덕암빌딩 402호)  
TEL. 521-9417~8 FAX. 521-9419  
공장 :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동공단 94블럭 14롯트  
TEL. (032)813-5407 812-8798

## 지방자치 총판

대전 : (042)628-2845 강원 : (0392)33-0917  
부산 : (051)248-8933 광주 : (062)225-0064  
대구 : (053)753-4848 제주 : (064)44-4520

# 建築士

대한건축사협회발행 1996년2월호 통권322호

發 行 人 : 金圭泰  
 編 輯 企 劃 : 編纂委員會  
 委 員 長 : 趙正相  
 編 輯 · 取 材 : 事業部 / 梁元錫, 鄭孝相,  
                   趙漢國, 尹泰日  
 發 行 處 : 大韓建築士協會  
                   (協會創立日: 1965년 10월 23일)  
 住 所 :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 便 番 號 : 137-070  
 電 話 : 代表 (02)581-5711~4  
 팩 시 밀 리 : (02)586-8823  
 登 錄 番 號 : 서울 라-26(月刊)  
 登 錄 : 1967年 3月23日  
 U. D. C : 69/72(054.2) : 0612(519)  
 印 刷 人 : 李鳳秀/正文社

Publisher : Kim Gyu-Tae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Cho Jeong-Sang  
 Assistant Editor : Business Expansion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4  
 Fax : (02)586-8823  
 Registered Number : Seoul Ra-26  
 Registered Date : March 1967  
 U. D. C : 69/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 및 복사  
 를 금합니다.

## 차례

1996년 2월호 통권 322호

卷頭	
관행 / 김인철	24
논단	
건축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3) / 최찬환	26
회원작품	
동대문 U빌딩 / 함인선	28
여성 공동의 장 / 지 순	36
대전 가톨릭성당 / 정림건축	42
분당 감리교회 / 윤주현	48
글라스티워 / 김창수+박 승+한상복	52
이태원 소방파출소 / 한상운	55
개화작품	
장안빌딩 / 문성운	58
회원설명회	
겨울(40F) / 이상은	60
겨울 / 김석환	61
일하며 생각하며	
왜 건축을 하느냐고 묻거든 / 이필훈	62
기고	
건축제도의 정상화 방향 / 박순종	64
작품토론	
옥련동 다천장 / 송광섭	66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 정인국(2) / 박길룡	70
건축기행	
중국건축기행(2) / 박재환	76
전통건축	
한국 유교 건축의 재조명(6) / 김지민	82
해외건축	
프랑스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10) / 박효순	90
현상설개정기	
동명중학교	100
상무고등학교	102
리포트	
제8차 아카시아 포럼	104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증개정령	115
통계	
1995년도 12월 분 설계도서신고 현황	122
회원소식	
	124



표지사진 / 여성 공동의 장(지 순)

## CONTENTS

VOL 322. FEBRUARY 1996

### COLUMN

Customs / Kim In-Churl	24
------------------------	----

### PLATFORM

The Improvement of the Architectural Law & System(3) / Choi Chan-Hwan	26
---	----

### WORKS

Tongdaemun U-Building / Hahm In-Sun	28
Common Forum for Women / Chi Soon	36
Church, Taejeon Catholic Univ. / Junglim Architects & Engineers	42
Pundang Church / Yun Ju-Hun	48
Glass Tower / Kim Chang-Soo, Park Seung & Han Sang-Mook	52
Itaewon Fire Station & Residential Police Box / Han Sang-Woon	55

### PROCESS WORK

Chang-An Building / Moon Seong-Woon	58
-------------------------------------	----

### GALLERY

Winter(40F) / Lee Sang-Eun	60
Winter / Kim Seok-Hwan	61

### ESSAY

If You are Asked the Reason of Doing Architecture / Lee Pill-Hoon	62
---	----

### FEATURE

Normalization of The Architectural System / Park Soon-Chong	64
---	----

### WORK NOTE

Ongnyeon-dong Dhachun Residence / Song Kwang-Sub	66
--	----

### SERIAL

Korean Architect Cheong In-Kuk(2) / Park Kil-Ryong	70
--	----

### ARCHITECTURE TRAVEL

The Travel of Chinese Architecture(2) / Park Chae-Hwan	76
--	----

### TRADITIONAL ARCHITECTURE

A Study on the Confucian Architecture in Korea(6) / Kim Chi-Min	82
---	----

### OVERSEAS ARCHITECTURE

Catholic Church & Monastery Building in France(10) / Park Hyo-Soo	90
---	----

### COMPETITION

Tongmyeong Middle School	100
Sangmoo High School	102

### REPORT

ARCASIA Forum 8	104
-----------------	-----

LAW & ORDINANCES	115
------------------	-----

STATISTICS	122
------------	-----

KRA NEWS	124
----------	-----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서대문분회/33-6411 · 관악분회/882-6744 · 도봉분회/903-3425 · 영등포분회/632-2143 · 강동분회/484-6840 · 강서분회/604-7168 · 성동분회/416-5244 · 동대문분회/923-0158 · 종로분회/735-0905 · 마포분회/333-5251 · 송파분회/423-9158 · 중구분회/279-1416 · 용산분회/717-6607 · 서초분회/562-8468 · 은평분회/388-1486 · 동작분회/815-3026 · 강남분회/517-3071 · 노원분회/933-8076 · 양천분회/653-2892 · 증평분회/437-7356 · 성북분회/922-5117 · 구로분회/852-2275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256-9350~4

#### ■경기도건축사회/(031)47-6129~30

직할분회/(031)43-6662 · 안양분회/(0343)49-2698 · 부천분회/(032)664-1554 · 성남분회/(0342)755-5445 · 의정부분회/(0351)876-0468 · 송탄분회/(033)666-6153 · 고양분회/(0344)63-8902 · 구리분회/(0346)63-2337 · 이천분회/(0336)635-0545 · 광명분회/(02)684-5845 · 안산분회/(0345)80-9130 · 시흥분회/(032)694-4121

#### ■충원도건축사회/(0361)54-2442

원주분회/(0371)43-7290 · 강릉분회/(0391)41-7371 · 속초분회/(0392)33-5081 · 삼척분회/(0394)31-8708 · 영월분회/(0373)374-2659

#### ■충청북도건축사회/(043)56-2752 · 53-7342

충주분회/(041)847-3082 · 청천분회/(0443)43-6253 · 옥천분회/(0475)33-350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천안분회/(041)551-4551 · 흥성분회/(0541)32-2755 · 부여분회/(0463)835-2217 · 대천분회/(0452)34-3367 · 서산/(045)64-0500

#### ■전라북도건축사회/(0652)87-6007~8

무주분회/(0653)52-3798 · 군산분회/(0654)452-3815 · 남원분회/(0671)33-2000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46-7567 · 33-9944

목포분회/(0631)72-3349 · 순천분회/(0661)743-2457 · 여수분회/(0662)33-2000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2-8317~8

포항분회/(0562)44-6029 · 경주분회/(0561)772-4710 · 구미분회/(0546)51-1537~8 · 인동분회/(0571)54-4832 · 김천분회/(0547)434-2541 · 영주분회/(0572)34-5560 · 청송분회/(0581)53-6677 · 상주분회/(0582)32-5668 · 경산분회/(053)812-6721 · 달성분회/(053)634-6303 · 영천분회/(0536)34-8256

#### ■경상남도건축사회/(0551)46-4530~1

울산분회/(0522)74-8836 · 진주분회/(0591)745-6403 · 충무분회/(0557)645-7420 · 김해분회/(0525)35-5692 · 밀양분회/(0527)355-4948 · 거창분회/(0598)43-6090 · 양산분회/(0523)84-3050 · 거제분회/(0558)635-3432 · 삼천포분회/(0563)33-9779

####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서귀포분회/(064)62-2223

세상살이를 살펴보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에 습관과 선입관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알게 모르게 편리한 기준들이 마련되어 통상적인 규범이 된다. 그것은 시대적인 상황과 조건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거나 수용하게 되는 사회여건의 도움으로 결국 고정관념으로 자리잡는다.

## 관행 Customs

김인철 / (주)아르카움 건축사사무소  
by Kim In-Chul

하나의 고정관념은 시대적 요건이 변하지 않는 한 익숙한 관행으로서 사회의 불문율로 작용한다. 서로가 서로의 관행을 존중하고 대접하는 여건속에서 그것은 미풍양속이라 불리어지기도 하며 또한 그 속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그 규칙들을 이용하여 안정된 활동을 보장받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시대적 여건이 고정적이 아니라 변환적이라는 것에 있다. 그때는 그것이 옳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옳다는 변화는 항상있게 마련이다. 특히나 사회의 발전이 급속히 진행되는 과도기적인 환경에서는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의 가치관이 공존하기도 한다. 새로운 개념과 관습적 개념이 이분법적인 갈등으로 다투게 되면 그로인한 혼란은 수 없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게 되지만 어쩔수 없다.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따른 새로운 가치관에 합의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기왕의 것을 고집하는 보수와 새로운 것을 주장하는 개혁이 서로를 설득하는 논리를 갖지 못할 때는 영원한 평행선이 될 것이고 결국은 제삼의 힘에 의한 해결로 귀결되고 만다. 옛날의 역사를 참조하는 것은 그래서이다. 온건과 강경, 기성과 신진, 우파와 좌파 등등으로 구분짓는 것외에도 원칙론, 형식론, 명분론 등등의 논리들도 한없이 나열되게 마련이다. 이도저도 아닌 중도론과 방관론까지 가세하면 그야말로 앞과 뒤를 가리지도 못할 지경이 되고 만다.

올바른 규칙과 정확한 가치관이 우리의 사회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삐꺽거리고 있는 여건은 원칙적인 무엇인가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잇따른 사고이후에 사회의 각계에서 들고 일어난 문제제기를 우리가 얼마나 능동적, 적극적, 합리적으로 대응하였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몇몇이 뛰어다닌다고 될일이 아닌 것은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내부적인 합의로 받쳐주지 못한 결과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인 요구의 무게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의 한계를 축소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가시키려는 자세는 결국 비겁한 모양새를 만들었고, 상황의 변화에는 아랑곳없이 기왕의 관행에 안주하여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고집은 우둔함으로 보여지게 되었다. 합리적이며 적절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한 가운데 일방통행적인 법이 만들어지자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 역시 한두번 그래왔던 것이 아닌 우리의 관행이므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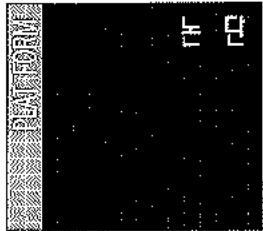
익숙한 우리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의 전개는 대략 다음과 같이 벌어질 것이다. 새로이 시행되는 규정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거나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부류, 내용에 대하여 비분강개하고 누군가를 탓하기는 하여도 나서지는 않으며 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류, 규정을 소상히 살펴 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한 뒤 빠져나갈 길만 열심히 연구하는 부류, 모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속에서 새로운 장사꺼리를 하루빨리 찾아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부류 등등으로 나타날 것이다. 당연히 사후약방문격의 뒷북 두드리기

를 위한 회의는 수도 없이 열리게 된다.

어쨌거나 다양해진 현대사회의 여건과 요구를 근대이전의 단순한 규범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이 무모하다는 생각을 한다. 법의 체계 역시 단순하며 획일적이다. 수 없는 개별적 사안들을 하나의 규범으로 묶어 둠으로써 발생되는 모순은 결과적으로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되어 융통성 부재로 인한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관행을 계속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대응방법 또한 미시적이다. 나서서 말하는 것마다 한결같이 자신의 경우와 입장뿐이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임에도 자기만의 이야기만 있다. 같은 의미를 서로 다르게 말한다. 결국 결론은 총론이고 원론일 뿐 각론은 만들지 못한다.

구태의연한 원론의 규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시콜콜한 세부지침이 만들어져야만 하는 시점이다. 우리가 어린아이 여서가 아니라 사회의 요구와 이시대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이다. 기획, 계획, 기본, 실시, 감리, 감독 등등의 모든 것들이 한계와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제각기 제각각의 경우에 비추어 제각각의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 가치의 기준이 똑바른지 뒤집어졌는지 비틀어졌는지 조차 모를 혼란속에서 무엇이 만들어 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친김에 혼돈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가다 보면 끝이 있을 것이고 그 끝에 새로운 세상이 있을지도 알 수 없다. 크게 건축을 생각하여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관행이 만들어지기 위해 어쩔수 없이 치루어야 하는 과정이 지금이라면 차라리 더욱 격렬한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것도 방법일 터이다.



# 건축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3)

The Improvement of the Architectural Law & System

## 예외인정제도

최찬환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by Choi Chan-Hwan

법규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이기 때문에 법규에서 정한 규정이나 설정한 기준이 계획적 적정기준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하는데도 획일적 그리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실제적으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 조건에 따라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별적인 특수성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규 정은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상황을 근거로 하여 마련하고 형평성을 내세워 이를 모두 지키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건축법규의 규정이나 기준이 어떤 경우이거나 그리고 어떤 여건에서도 모두 지켜야 할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건축물이 부동산으로서 가지는 일반적 특성인 위치의 고정성과 환경에 따른 개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내구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적용해야 할 법규정도 매우 다양해야 하고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융통

성을 지녀야 할 당위성이 있다. 대체로 보아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예외적 규정과 적용의 특례, 타법과의 상치된 내용에 대한 적용의 배제 그리고 적용의 완화규정이 널리 채택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국한해서 적용되는 것일 뿐 폭넓게 일반화된 예외인정제도이기에는 아직도 부적합하다.

### 예외인정규정의 현황

#### 1) 적용의 특례 및 적용의 완화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건축법에 적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하층설치, 건축선지정,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82년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

의 시행으로 도로와 건축선, 용도지역지구제,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하여 도시기능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규정을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외인정제도는 그 적용사례가 매우 미미하여 일부 기존건축물의 특례조항으로 특수한 경우에 국한되어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현행건축법 제5조에서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건축관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 2)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현행법 제5조의2에서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법 적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득권인정을 포함하는 예외인정제도이다.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 개정 그리고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도로의 설치, 건축선지정(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으로 법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완화적용할 수 되어 전제조건으로는 새로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고 그 건축으로 인하여 기존건축물을 포함한 당해 건축물이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하도록 제한적 그리고 조건부 완화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기존건축물이 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도 특례적으로 인정한 기득권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보며 법 적용의 특례적 완화는 극히 한정된 범위에 국한되어 있다.

### 예외인정제도의 도입필요성

법규정이 경직스럽게 운용됨으로서 오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다양한 지역 여건을 획일적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고 예외적 법규정이 요구된다. 이를 다음의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도시계획과 건축과의 연계와 조정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은 거시적 광역적(Macro)이며 포괄적이다. 토지이용을 위한 구역설정과 용도지역지구제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한과 밀도규정(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공지확보, 높이제한 등의 위치 및 형태규제 등을 정하고 이를 미세한(Micro)필지에 실현하기 위해서 건축법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도시계획과 건축은 공간적 범위, 내용 등이 상호 다르나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도시라는 거시적으로 설정한 개념과 공간질서의 틀을 건축에서는 필지단위로 실행하고 이를 조합하여 도시를 구성하는 상하의 체계를 상호연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연한 예외인정이 필요하다.

## 둘째는 대지와 건축물과의 상호연계성과 조정이 필요하다.

대지에 관한 사항은 지적관련법규에서 규정하며 이는 소유권, 지적관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물을 담는 용기에 해당되므로 그목적과 내용이 다르고 상호 관련성이 적다. 건축에서 법적규제의 기준이 되는 대지의 규모와 형태 그리고 지적선을 지적법에서 건축물과 무관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축물과 대지와의 상호조정 및 정비가 요구되며 지적에서 발생된 문제가 건축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성때문에 건축에서 일반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획일화하여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예외인정이 필요하다.

## 셋째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기득권의 인정이 필요하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건축당시에 합법적으로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야하며 영속성과 내구성이 있는 대지와 건축물의 특수한 조건과 여건에 따라 수시로 계정, 개정되는 법규정 및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등의 여러 변화요인을 상호조화롭게 조정해야한다는 점에서 법규의 유연성(Flexibility)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즉, 건축물 및 대지라는 Hardware상호간은 물론 제도라는 Software가 일치하게 되려면 유연성이 꼭 필요하다.

## 넷째는 특수성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다양한 토지수요에 대한 건축기준의 융통성확보와 민간의 개발활력 및 개발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제도운용이 필요하고 일반적인 법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적합성, 합리성 그리고 탄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유연성있는 예외 인정제도가 필요하다.

## 예외인정제도의 도입방안

예외인정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서 다음의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적용특례(Variance)의 확대방안이다.

기존의 건축법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용의 특례와 적용의 완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다. 현행건축법에서 건축관계자가 허가권자에게 법규완화적용을 요청하고 이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재량권을 부여해야지만 현재의 감사제도와 기능, 공무원의 전문성의 부족, 자의적인 법규해석의 가능성 그리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운용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가지고 윤용하기 위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도 유용하다. 다만 건축관계자

와 허가권자가 이를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 둘째, 특별허용 및 인정제도(Special Exception and Permission)의 도입방안이다.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면 기존의 법규정을 벗어나 특별히 허용을 하는 방안으로서 여전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데 현행 계획적 개발을 하는 신개발, 재개발, 도시설계지구등에서 특별한 예외인정등이 있다. 특별한 지역지구에서 별도의 종합적 계획이 수립되면 기존법 규정에 부분적으로는 부적합한 것이 있다하여도 전체적인 견지에서 최선의 것이라면 이를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특별허용해주는 방법이다.

### 셋째, 규제보다는 유인책을 도입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규제위주의 제도운용을 해왔으나 이제는 유인장려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강압적 선택이 아닌 자유의사에 의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폭넓은 유연성과 합리성을 가질 수 있다. Incentive 또는 Bonus제도로 일컬어지며 현행 공개공지확보와 건축밀도완화등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개발권이양(Transfer and Development Rights) 등의 새로운 제도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적정기준으로 법규정하고 이를 Incentive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최대한도까지 허용함으로서 Incentive제도적용을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축주는 사업성에 집착하여 지나친 고밀개발을 요구하며 따라서 설계자가 수준높은 설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이로인하여 과밀개발과 함께 환경이 열악해지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저밀개발보다는 고밀개발에 따른 이익을 증대시킴으로서 건축주가 고밀개발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무질서한 고밀개발을 조장하고 환경악화를 부추기는 제도운용을 혼운 셈이다. 대표적인 예가 지나친 건폐율과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허용함으로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위임하고 있지만 건교부에서 설정한 허용한계가 지나치게 높을 뿐아니라 현실적으로 주민과 개발업자의 과밀개발의 압력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한 기준을 설정할 수가 없어 최대허용한계를 채택하게 됨으로서 그 부작용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건교부가 최대허용한계를 적정기준에 가깝게 하여 Incentive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행 건축법에서 예외인정제도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종전보다는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이번에 건축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없이 주관적 그리고 개념적으로 설정한 규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더나아가 외국에서 시행되는 여러 새로운 예외인정제도에 대하여 면밀한 연구를 거쳐 우리나라의 제도로서 도입을 검토할 수 있어야겠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개방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마당에 규제 일변도의 비합리적이고 유연성없는 경직된 제도와 처벌위주의 규정을 가지고는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며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하루빨리 보다 새로운 예외인정제도가 도입되고 확대시행되기를 기대한다.

# 동대문 U빌딩

Tongdaemun U-Building

함인선 /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우

Designed by Hahm In-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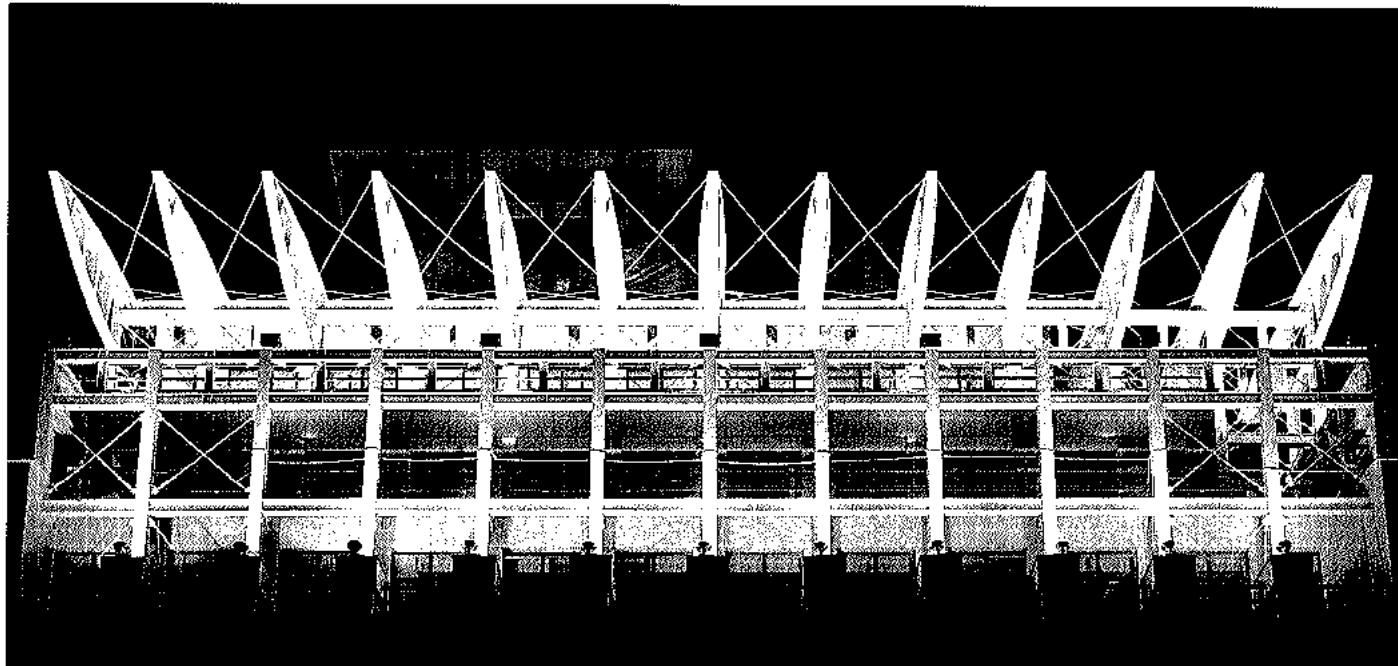
서쪽 야경

위치 / 서울시중구 신당동 213-8  
대지면적 / 1,580.00m<sup>2</sup>  
건축면적 / 831.02m<sup>2</sup>  
건폐율 / 52.59%  
용적률 / 604.78%  
연면적 / 17,938.14m<sup>2</sup>  
규모 / 지하8층, 지상1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무강판)

외부마감 / 회강암 판석, 복합페널  
구조설계 / 민우구조  
기계설비 / 일봉엔  
조경설계 / 인우건축  
설계기간 / 92.8~93.6  
시공기간 / 93.6~96.1  
시공자 / (주)나산종합건설

Location / 213-8, Shindang-dong, Chung-gu,  
Seoul  
Site Area / 1,580.00m<sup>2</sup>  
Bldg. Area / 831.02m<sup>2</sup>  
Bldg. Coverage Ratio / 52.59%  
Gross Floor Ratio / 604.78%  
Gross Floor Area / 17,938.14m<sup>2</sup>  
Bldg. Scale / 8 Stories Below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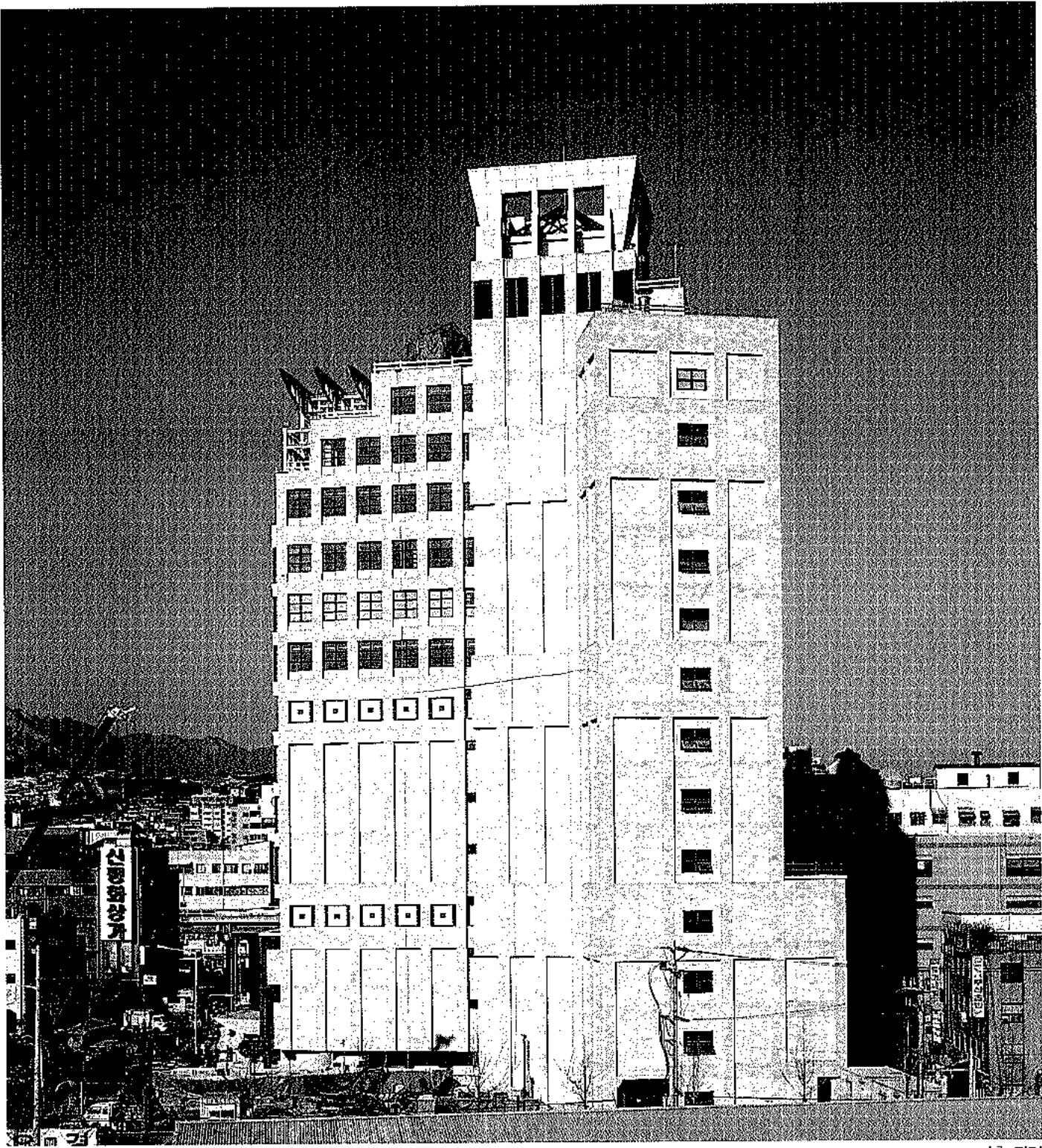
14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Granite  
Structural Design / Minwoo Structure  
Mechanical Services / Ilbung Eng.  
Landscaping / Inwoo Architecture  
Construction Term / 93.6~96.1  
Constructor / Nasan Cons. Co., Ltd



철구조물 상세 (야경)



로비



남측 전경

남대문과 동대문 근방에 밀집되어 있는 의류 도매 시장은 규모면에서 기히 세계적이다. 밤 11시경부터 새벽까지 열리는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 전체의류의 80% 이상이 유통되며 최근에는 동남아 및 러시아에서 온 상인들까지 북적댄다.

반면 상업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1평단위로 나뉘어진 수천개의 매장으로 꽉 찬 건물군은 환경의 질은 고사하고 재난에도 무방비 상태이다.

이 건물은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의류도매상

기와 더불어 상업기능을 지원하는 식당, 휴게, 금융, 업무기능을 복합적으로 수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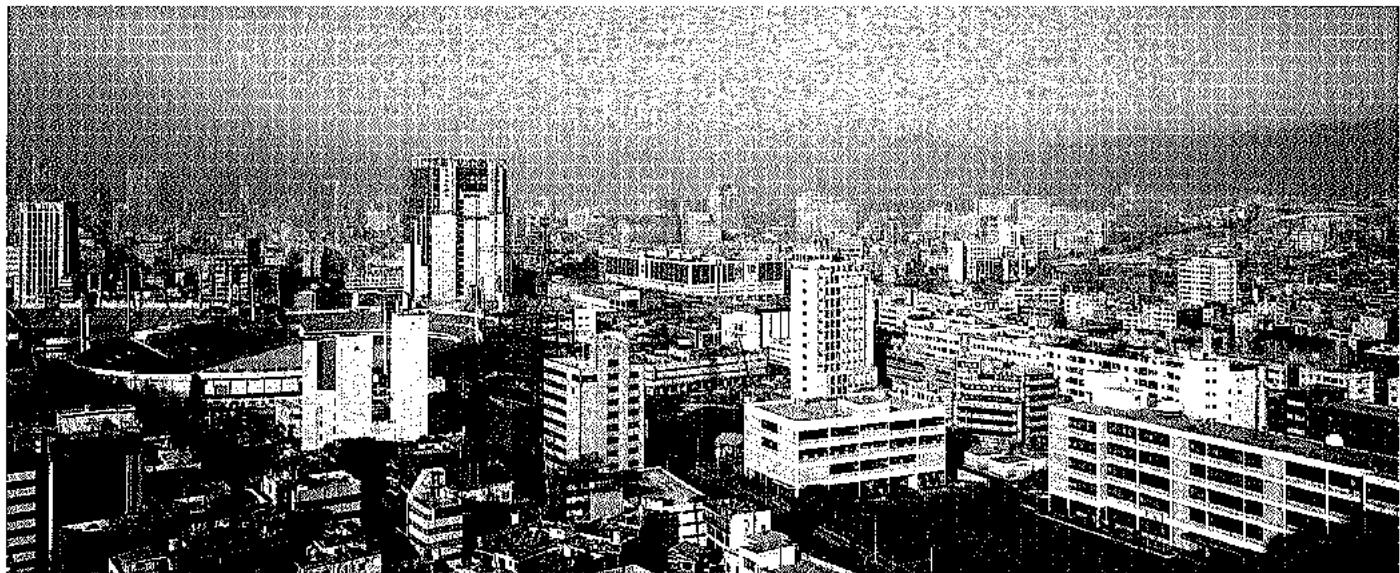
계획 단계에서의 과제는(법규가 허용하는 한) 최대의 용적률 달성을하면서 어떻게 건축적 질서를 아울러 성취해낼 수 있는가였다. 대지 경계선과 사선제한선에 의해 만들어진 볼륨에서 기본요소들을 추출하는 작업을 하여 매스의 중심 역할을 할 코아부분과 청계천이라는 도시 축에 대응하는 선형부분을 구성했다.

최대용적률 향한 내부로 부터의 분출을 건축 및 도시의 질서의 명목으로 밖으로 부터 제어

하는 일은 어느 프로젝트에서나 말썽 많고 긴장되는 작업이다. 건물 상부의 철골구조와 상가 부의 커튼월은 이러한 대립과 긴장의 변증법적 산물이다.

건물 상부에 일견 과도하게 보일 수도 있는 철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두 가지 의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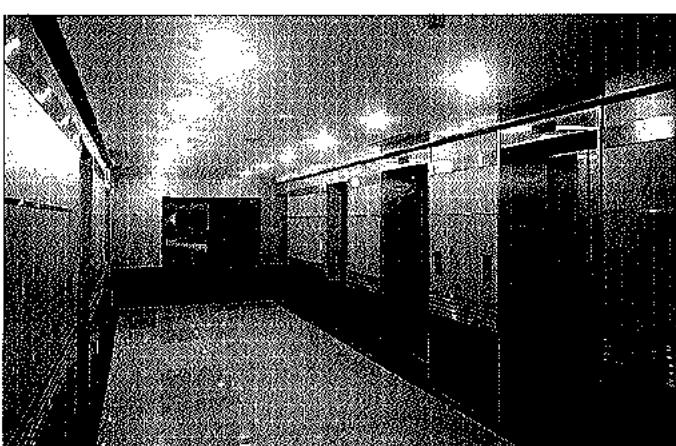
도로사선에 의해 건물 꼭대기가 계단식으로 절혀들어 간, 한마디로 '상업흔과 법규가 화간(和姦)하여 설계한' 건물 중 하나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 그 한 이유이고 구 도심의 동서 도시축에 강력하게 대응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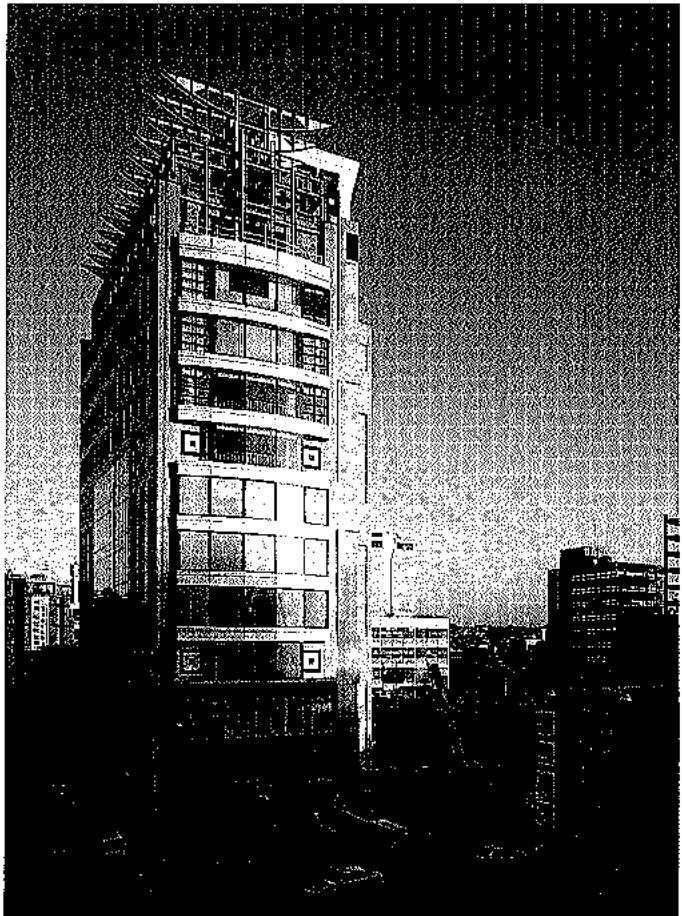
시내 전경



서측 상부 상세



엘리베이터 홀



서측 전경

'도시적 요구'가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특히 이 건물의 주 사용시간대가 야간인 만큼 조명을 쏘인 철구조물은 '도시의 밤을 떠다니는 구름'이 연상되기를 기대하였다.

상가부의 커튼월은 건물 북측의 광장에 대응하는 스케일을 가진다. 에스컬레이터를 여기에 위치시켜 광장에서는 이동의 다이나미즘을, 내부에서는 조망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였다. 상가부의 달협과 극적 대비를 이루는 열림을 강조하기 위해 8개층 높이의 커튼월을 설치하였으며 이에 대한 풍압을 처리하기 위해 트러스

에 4개층씩의 커튼월을 매다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평소 'Honest Structure' 어쩌고 하며 구조적 목적이 아닌 구조를 빙자한 장식은 죄악까지는 아닐지라도 의미없는 것이라고 말하던 입장에서 이 건물 옥상에 올린 100톤의 철구조물을 어떻게 합리화해야 되는지 고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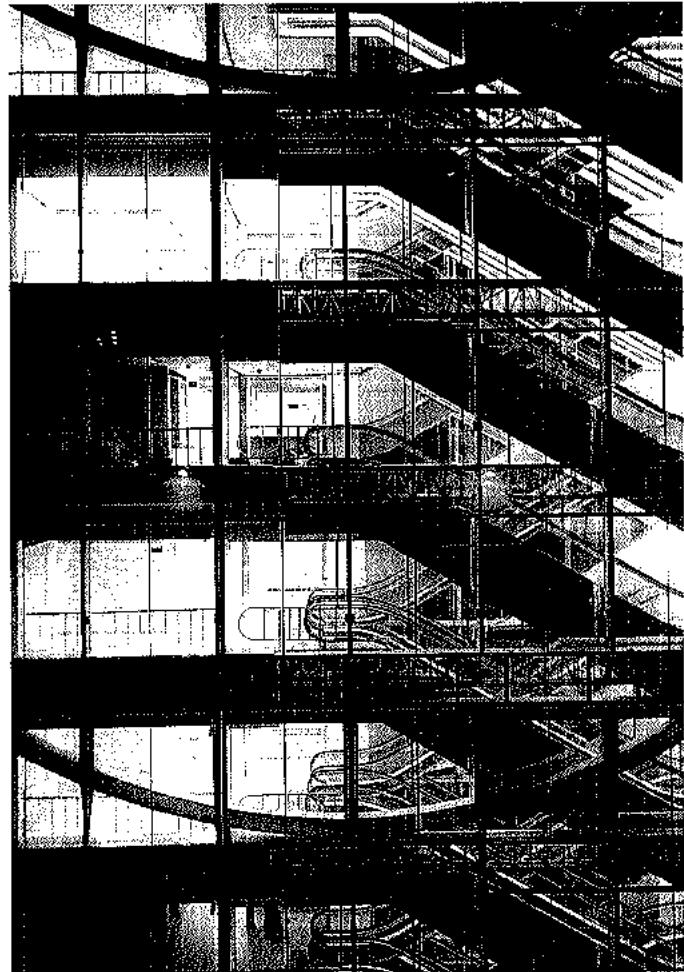
그것의 비용이 전체 공사비의 0.6% 밖에 안 된다는가, 앞서 말했듯이 건축적, 도시적으로 필요했다는가 하는 변명을 해보아야 개운치 않기는 미친가지이다. 이 딜레마는 무엇인가?

'기술'이 건축의 사회성과 진보성의 담보이었던 초기의 건강함을 잃고 이제는 누구보다 더 상업적 성공을 거두는 스타일리스트가 된 하이테크건축가들의 변신같은, 90년대 상황에의 적응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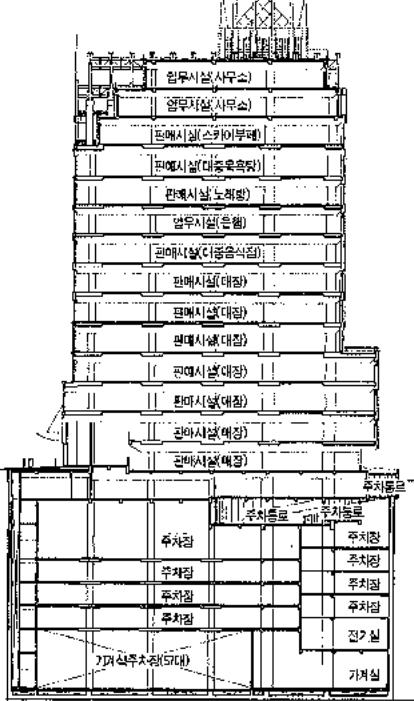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문제—세인트 폴 성당의 가짜 동구조에서부터 시드니오페라하우스의 가짜 웰에 이르는—형태와 구조간의 영원히 타협되지 않는 갈등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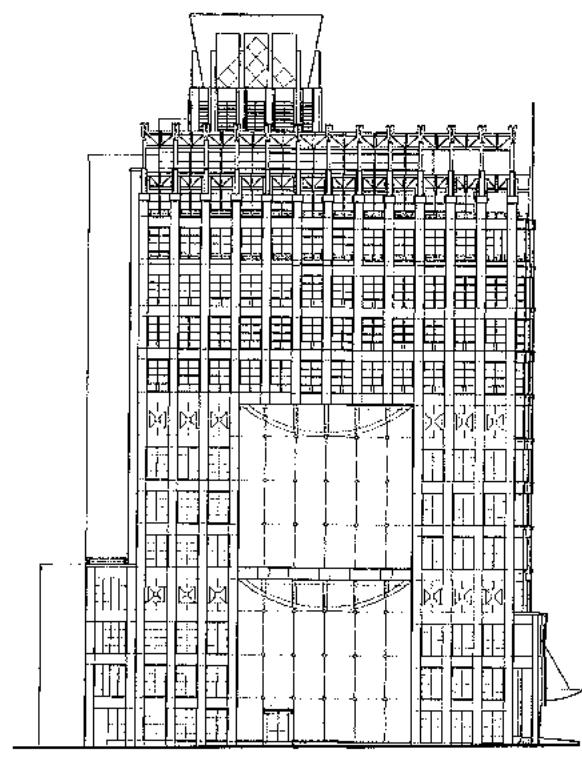
북서측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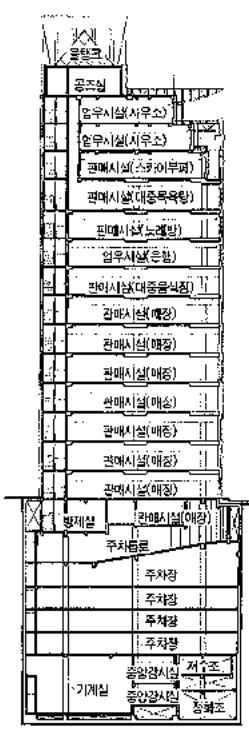
북측 창에서 본 계단실 상세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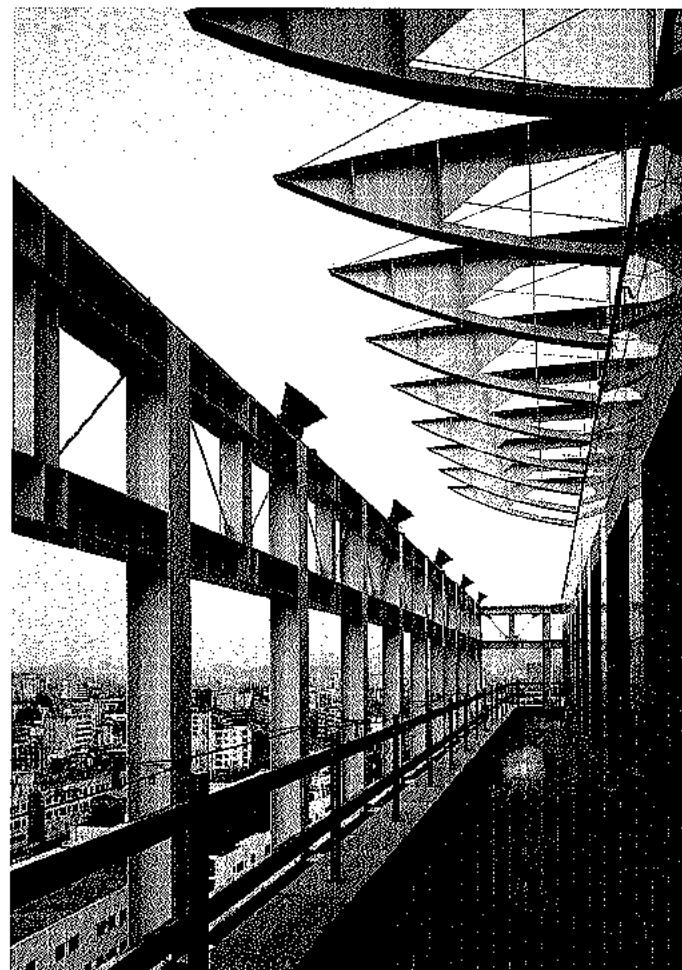
##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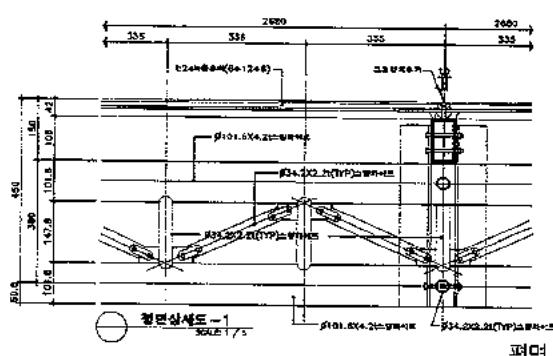
##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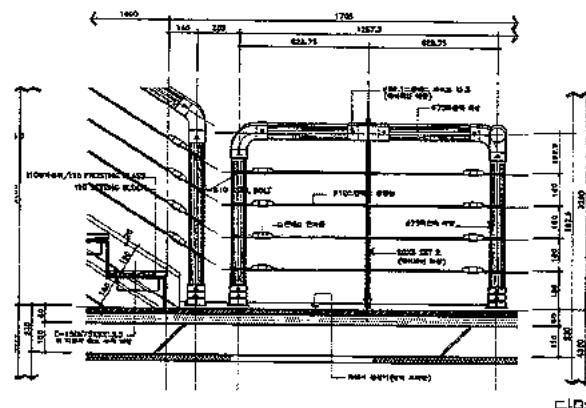
첨구조물 상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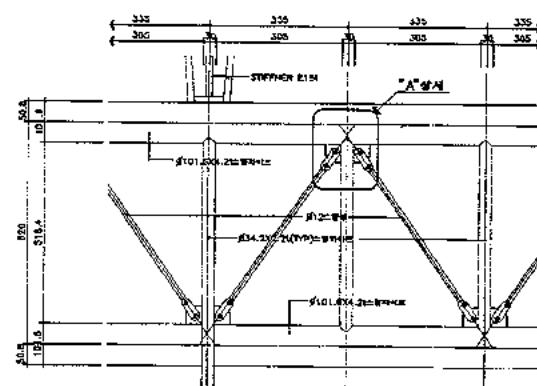
칠구조물 상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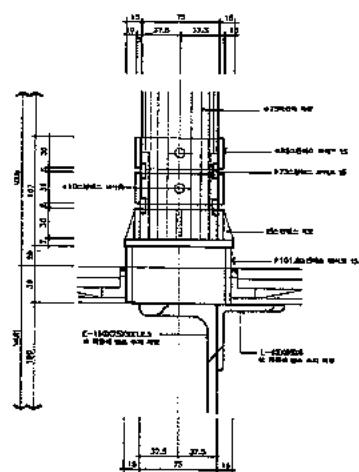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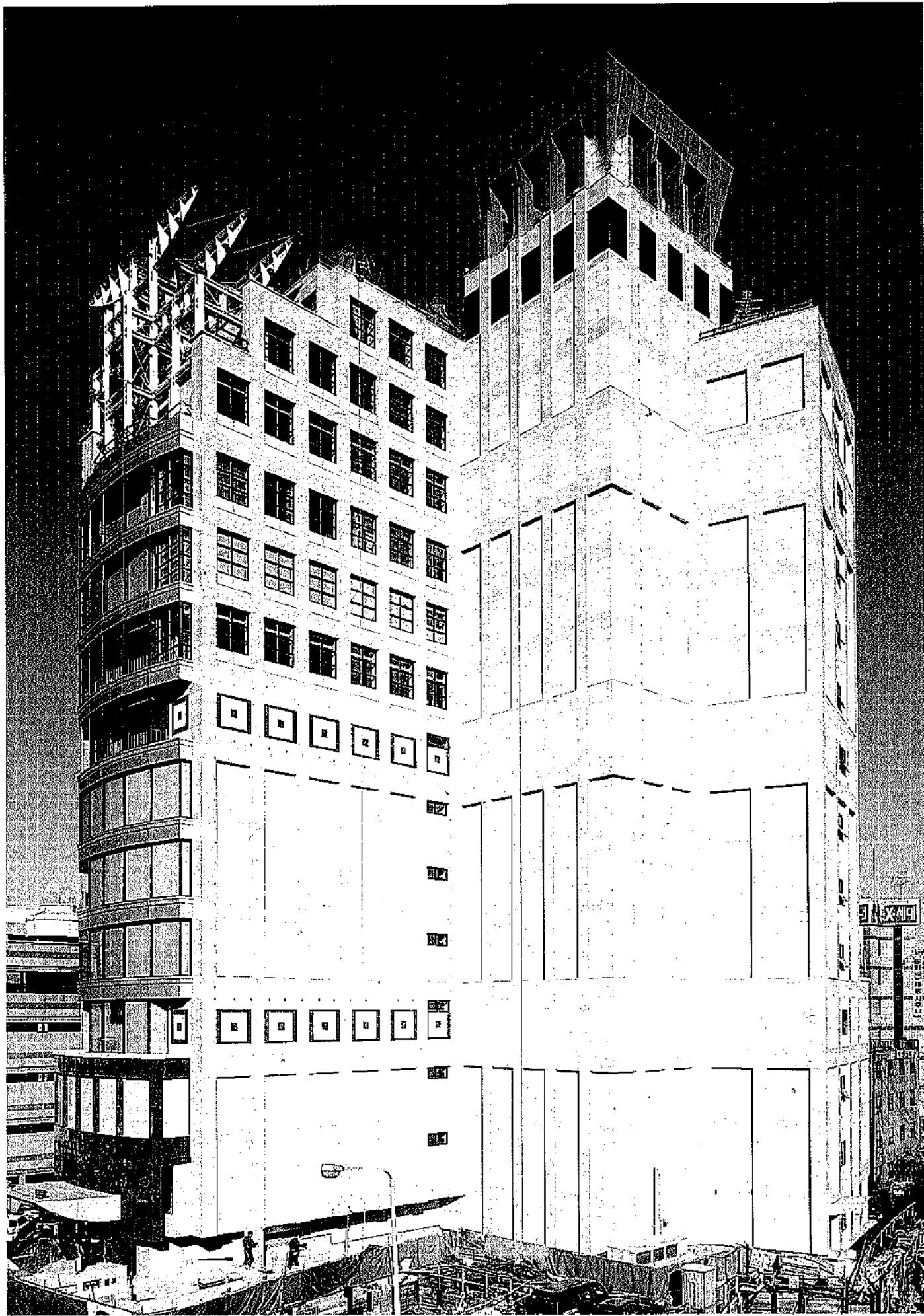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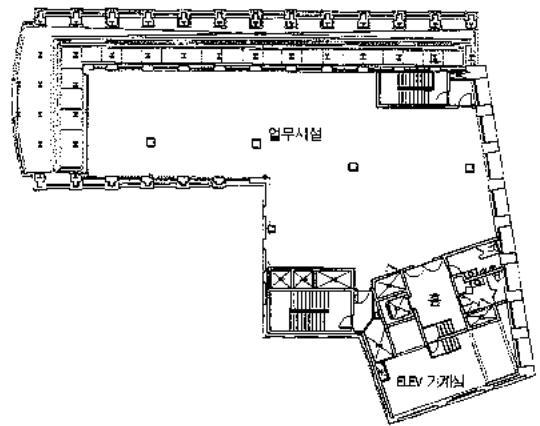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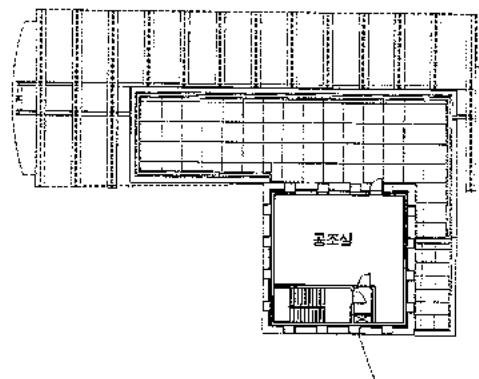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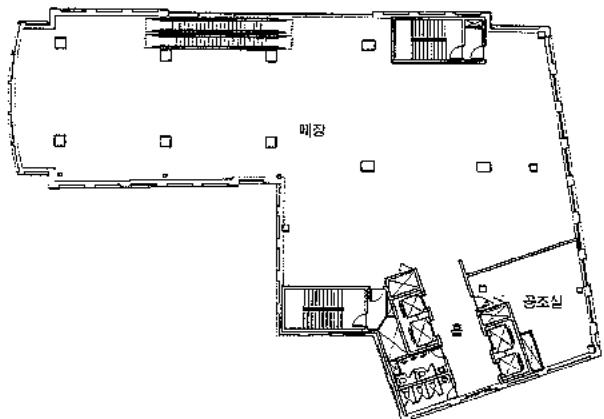
남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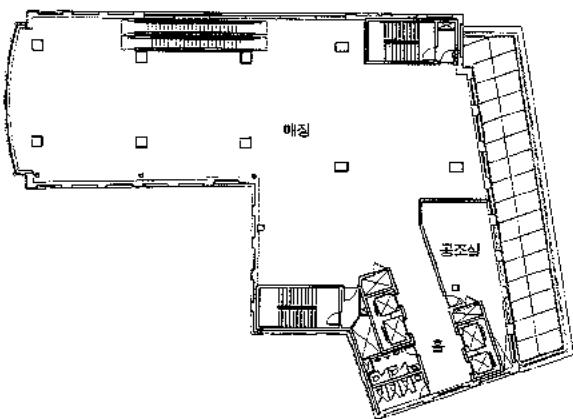
1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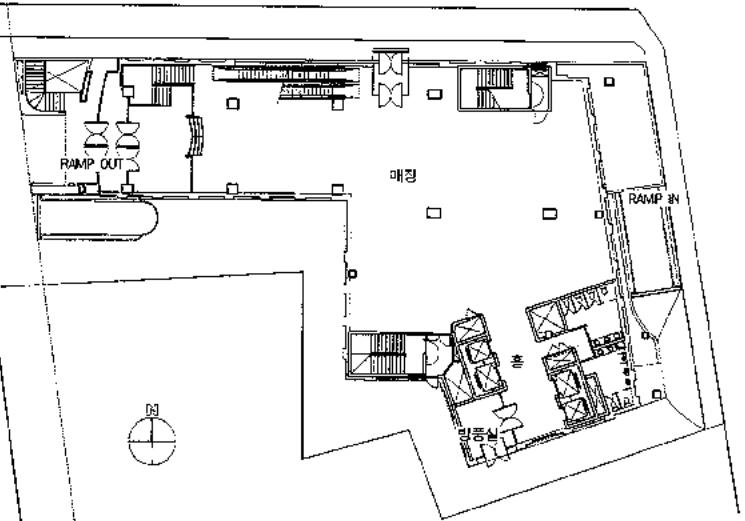
1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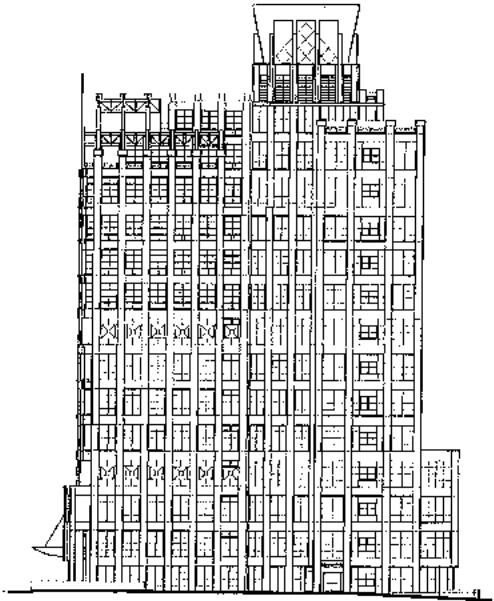
3층 평면도



5층 평면도



배치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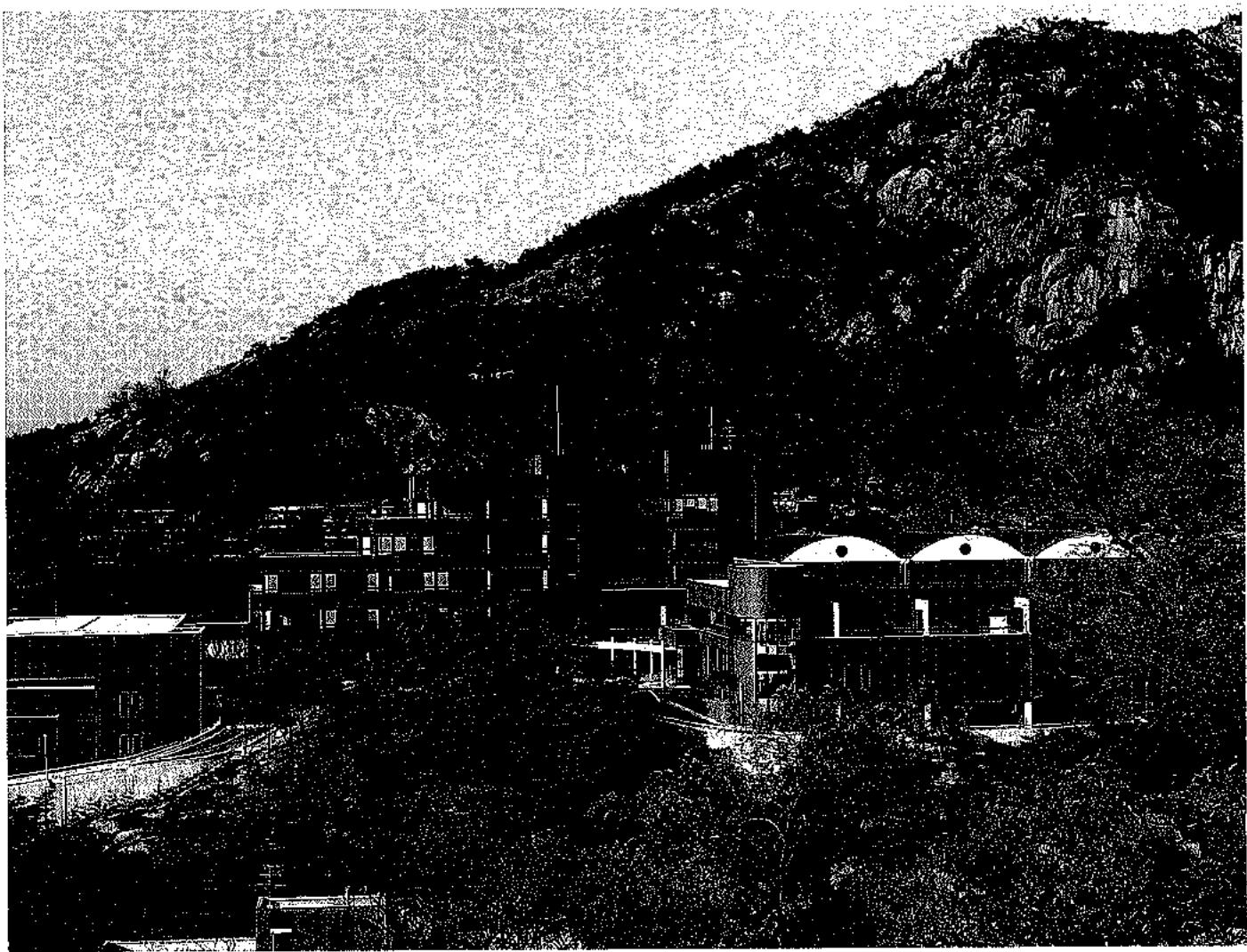
우측면도

# 여성공동의 장

Common Forum for Women

지 순 / (주)간·심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i Soon



전경

위치 / 서울 은평구 불광동 산 42-4

지역 · 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거환경비지구

대지면적 / 17,771.54m<sup>2</sup>

건축면적 / 2,780.42m<sup>2</sup>

연면적 / 7,589.30m<sup>2</sup>

건폐율 / 34.01%

용적률 / 88.25%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리에조

구조설계 / 한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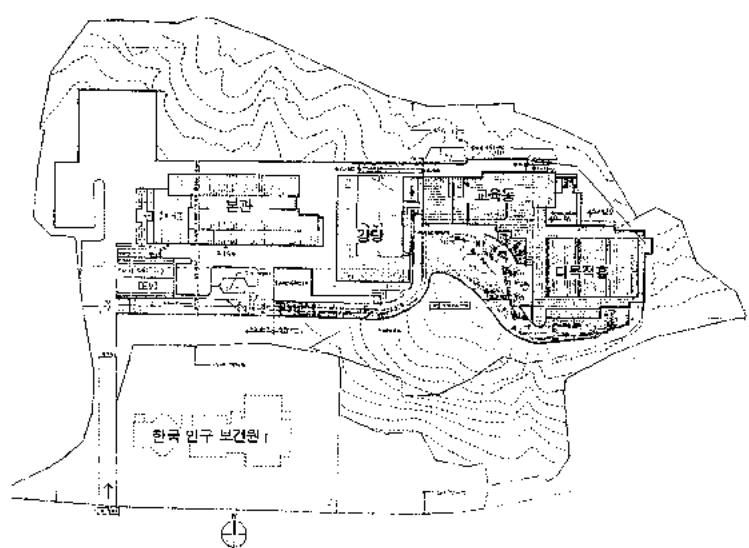
기계설비 / 우원설비

전기설비 / 우신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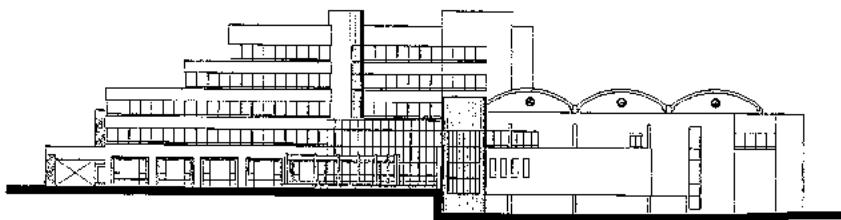
시공자 / (주)신한건설

시공기간 / 1993.1.10~1995.7.15

설계기간 / 1992.1~19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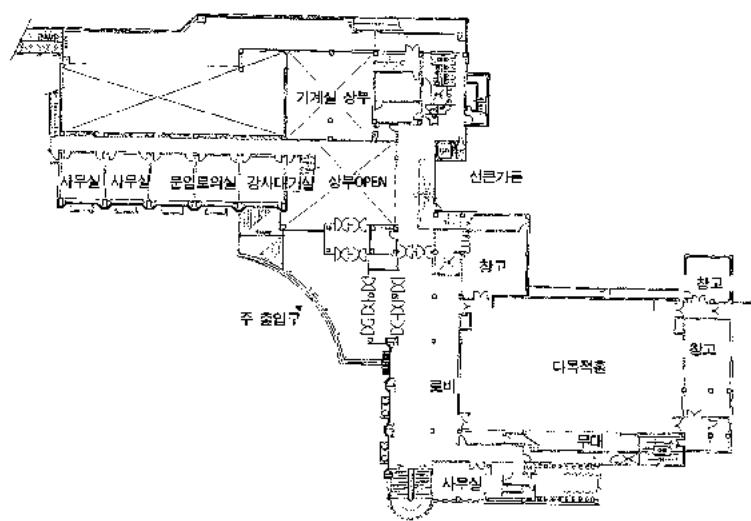
배치도



입면도



다목적 출



전체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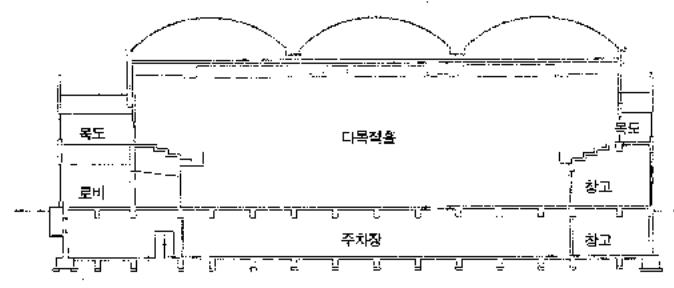
남서측에서 본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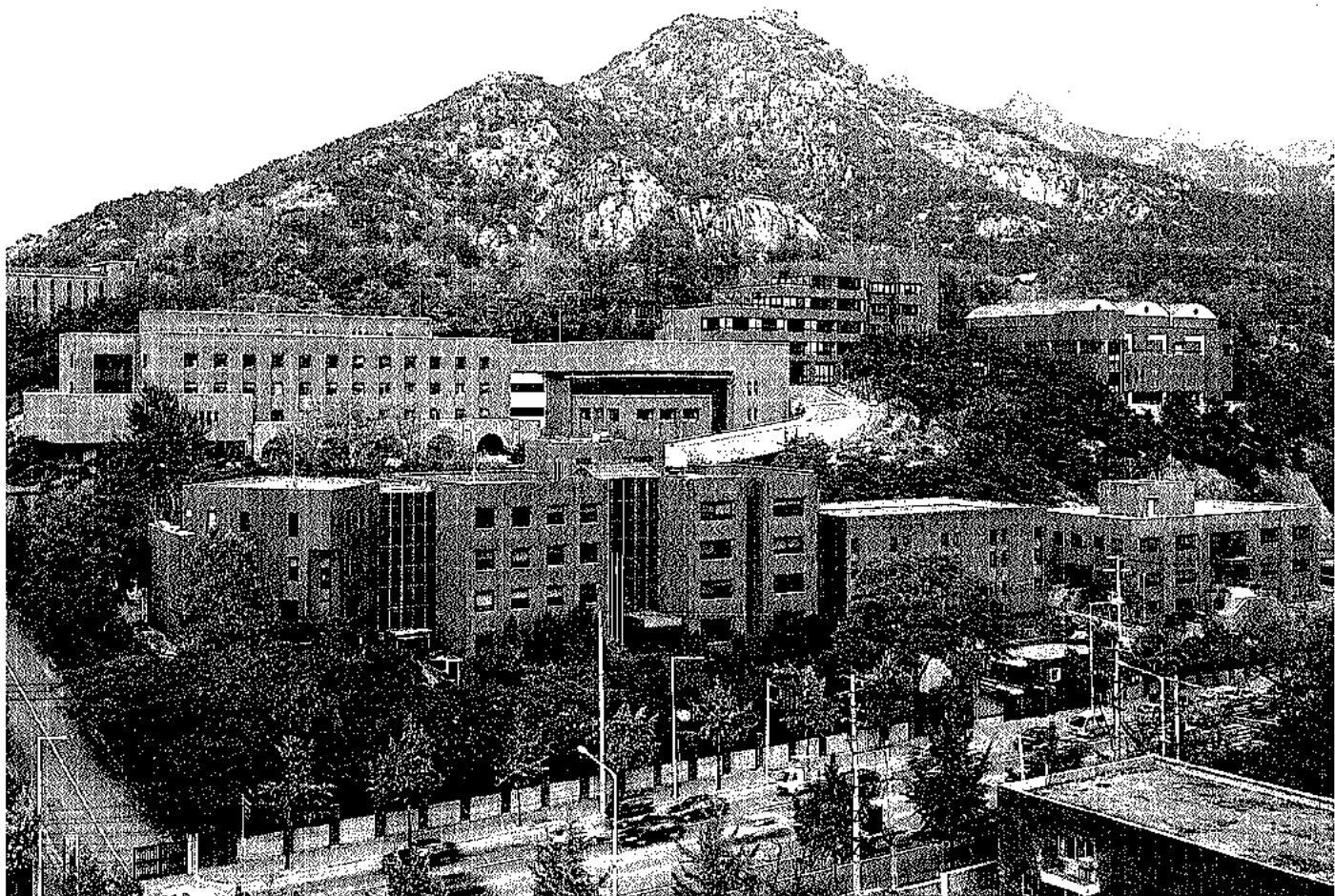
로비에서 본 선큰가든



다목적홀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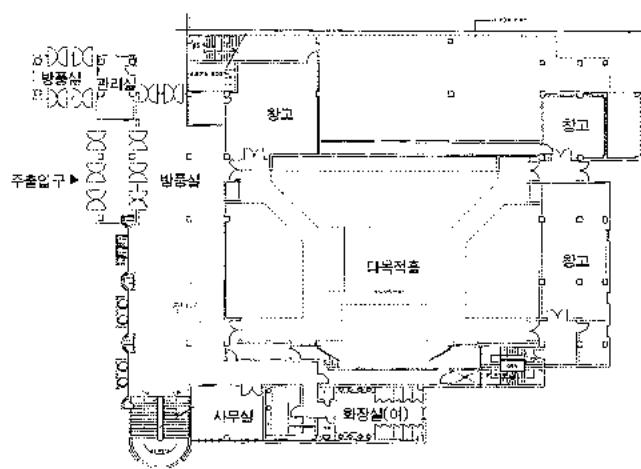
다목적홀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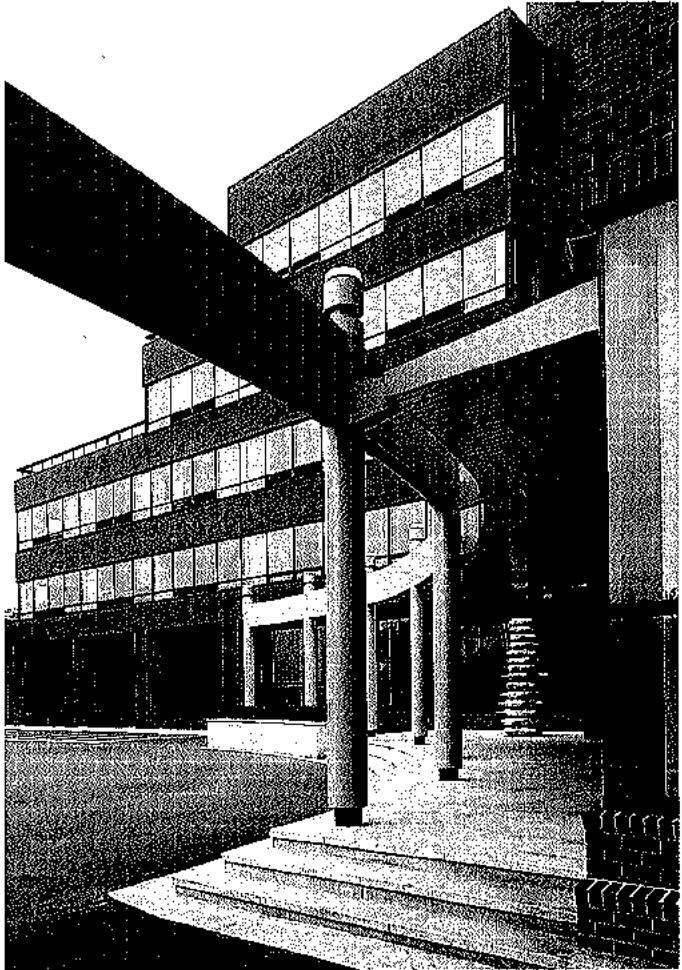
여성개발원 전체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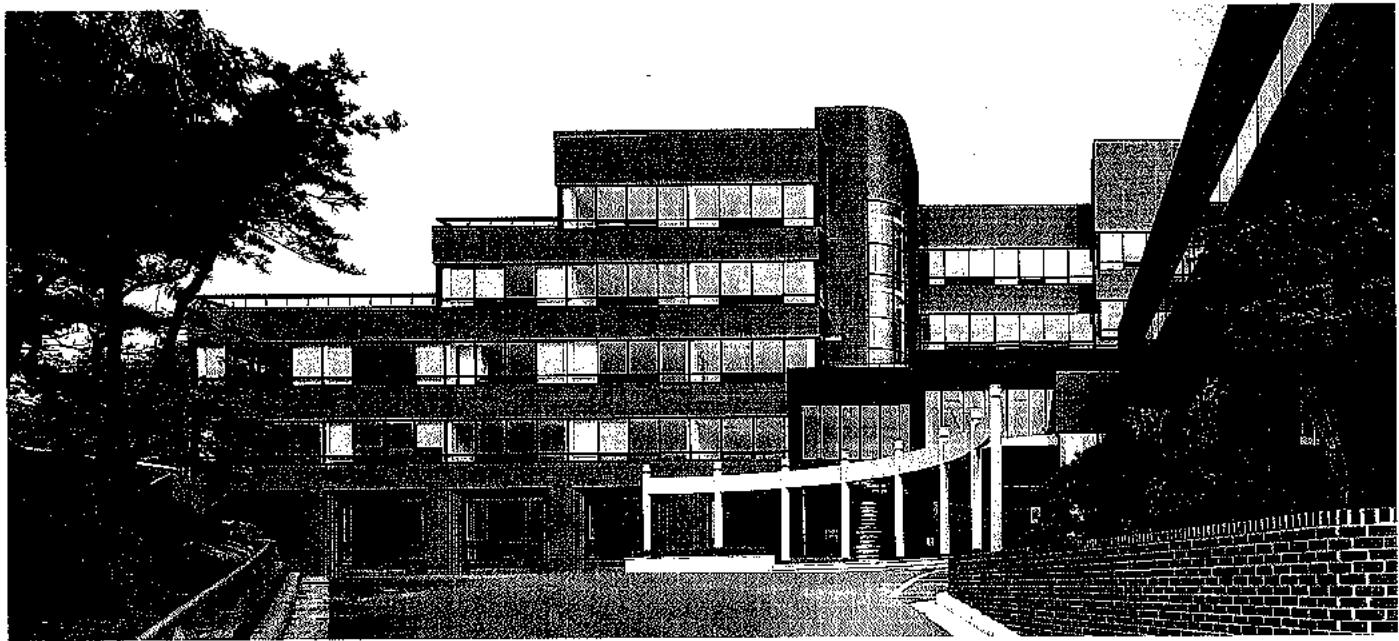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다목적홀 1층 평면도



주출입구 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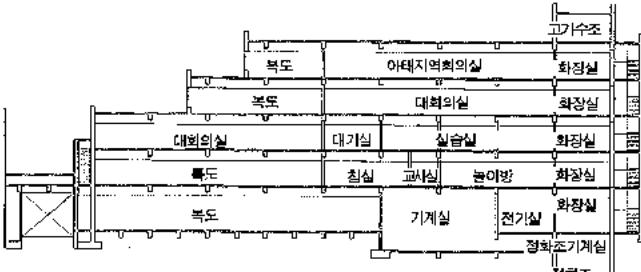
교육동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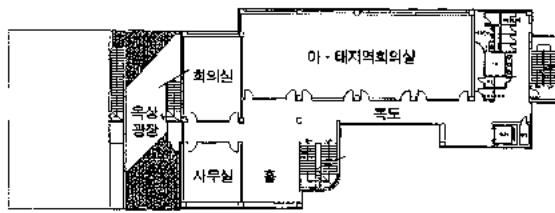
강당과 교육동의 연결 브릿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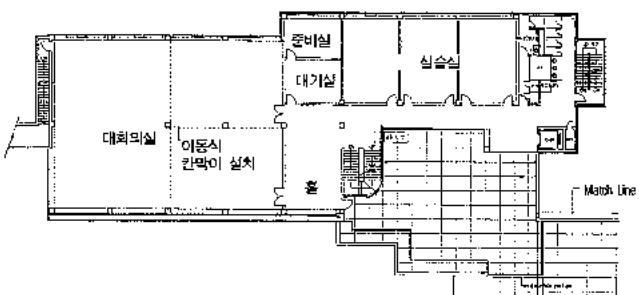
교육동 1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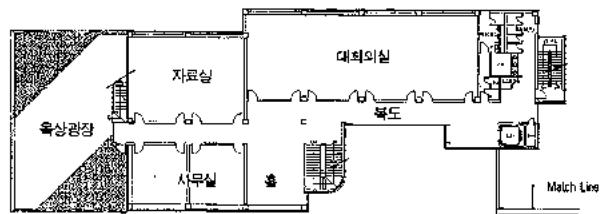
교육동 횡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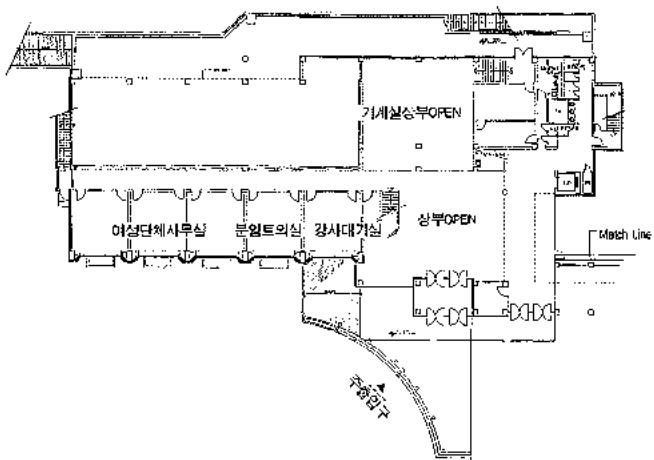
교육동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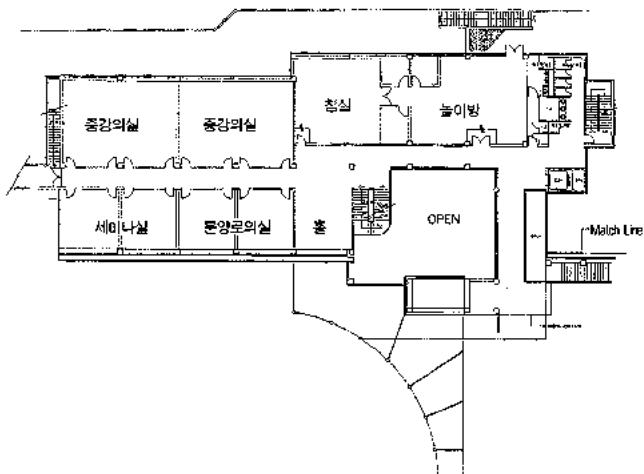
교육동 3층 평면도



교육동 4층 평면도



교육동 1층 평면도



교육동 2층 평면도

불광동 사거리에서 구기터널 방향으로 발길을 옮겨 가다보면 좌측 비봉 기슭 아래 초연히 자리잡고 있는 건축물에 시선의 교감을 접할 수 있다.

작년 9월 개관된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공동의 장」은 21c 한국여성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성의 교류 및 후견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 건축물이다. 또한 자연 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외장재료의 선택과 주변이 모두 석산인 대지경사에 따른 건축물의 배치에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으

나 여성의 쾌적한 교육, 연구 환경 조성과 편리한 동선체계 확보 및 신체 장애자들을 위한 공간의 적극적 방안에 접근,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과의 상호연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광장을 설치 Public 공간으로서 외부동선을 적극적으로 신축 건물에 유도, 서로 가능 이 다른 두개의 Mass를 분절이 없도록 연결함으로써, 내외부의 외장적 통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의 장」은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적 동선을 처리하기 위해, 중앙의 Hall

과 복도를 집중 배치, 상호기능의 유기적 연결성을 계획, Community 효율성을 높이며, 각 기능적으로 변화와 원충적 공간으로 Sunken Garden 계획, 각 층별 옥외 Deck와 휴게공간을 계획 내외부의 적극적 공간감을 확보하였다.

앞으로 이곳이 한국여성은 물론 세계여성의 「공동의 장」으로 여성들의 문화 창달과 국가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공간(마당)의 장으로 되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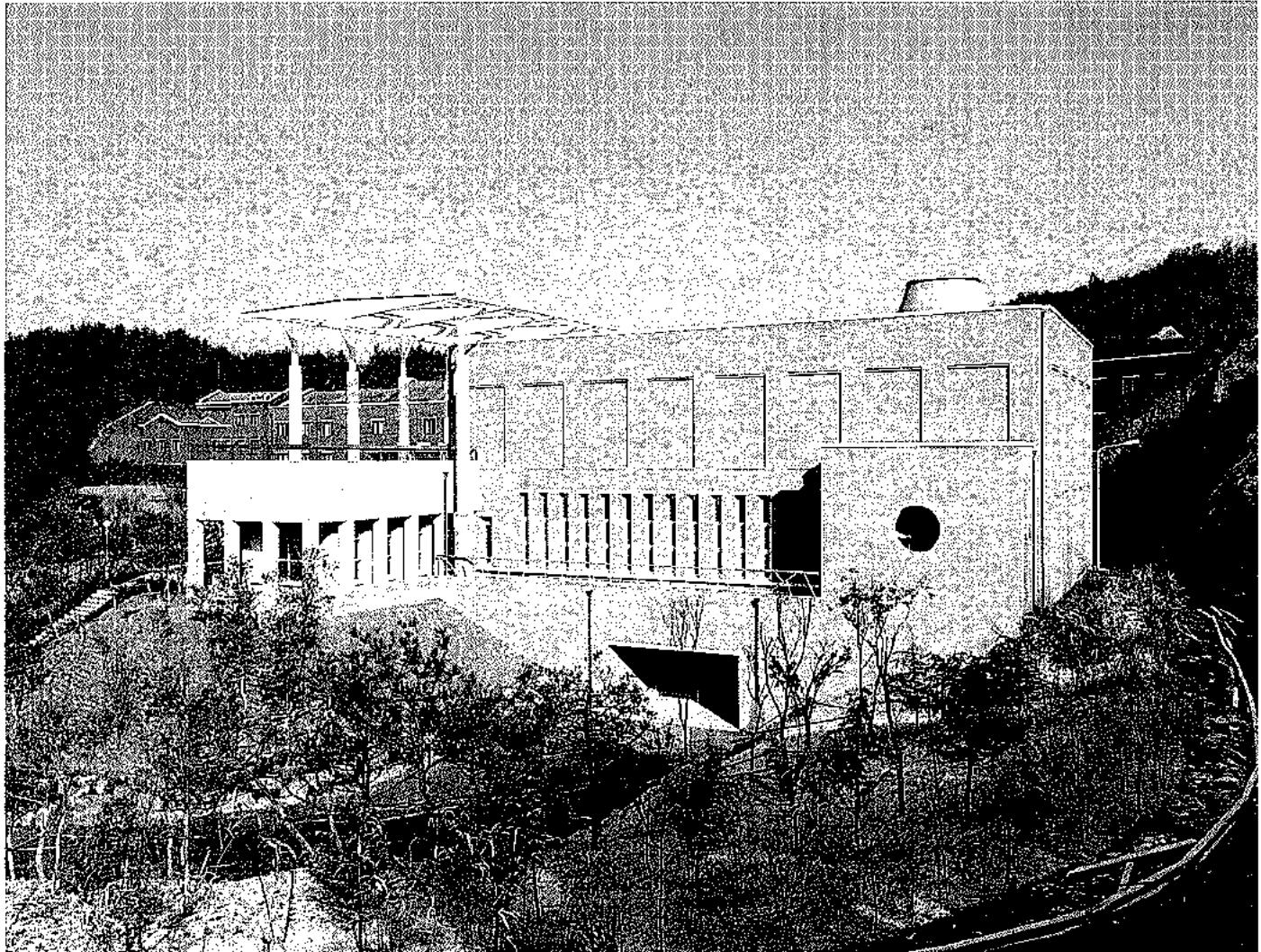


# 대전 가톨릭 성당

Church, Taejeon Catholic Univ.

(주)정림건축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s & Engineers



남측 전경

위치 / 충남 연기군 전의면

대지면적 / 79,000m<sup>2</sup>

건축면적 / 799.42m<sup>2</sup>

연면적 / 1,495.93m<sup>2</sup>

건폐율 / 10.89%

용적률 / 26.91%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 철근리阅历

주요용도 / 종교시설

외부마감 / 화강석 베니큐이, 동판접기, 콘크리트 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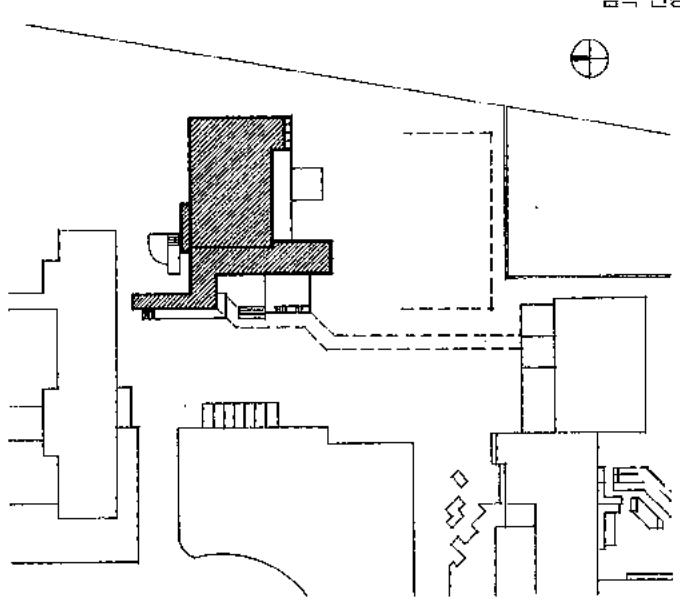
구조 / 샌구조 연구소

설비 / 우정엔지ニア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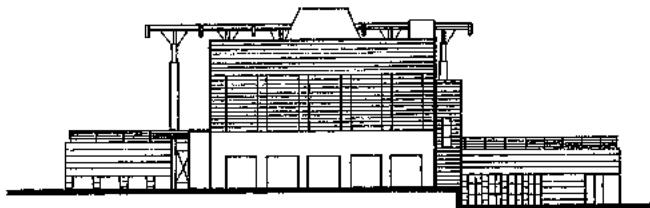
조경 / 정림조경부

시공 / 삼성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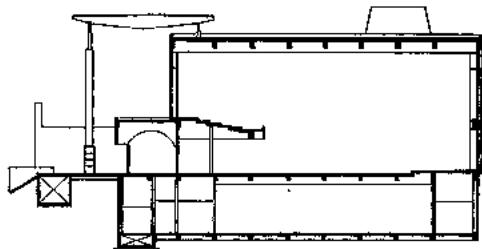
인테리어 / 정림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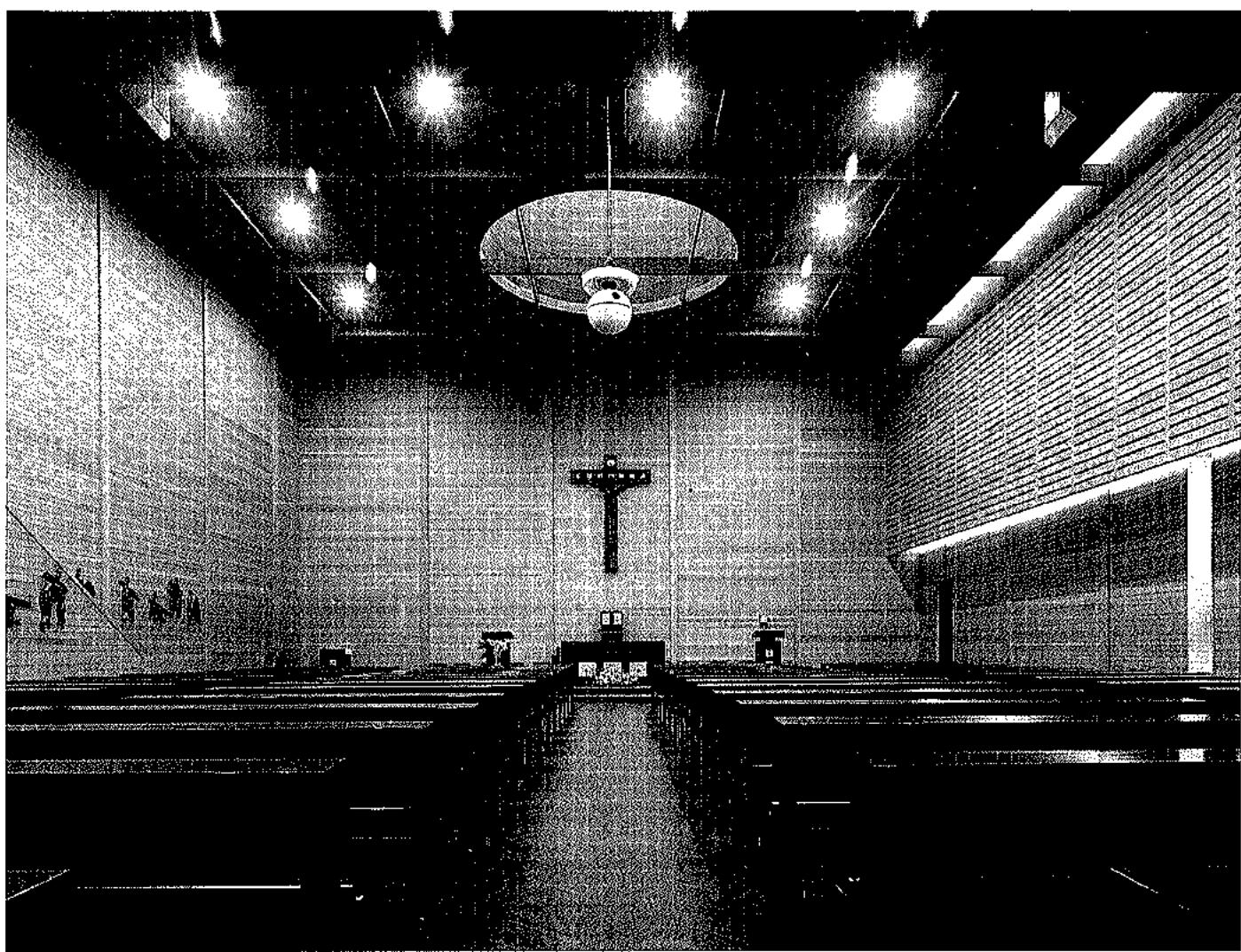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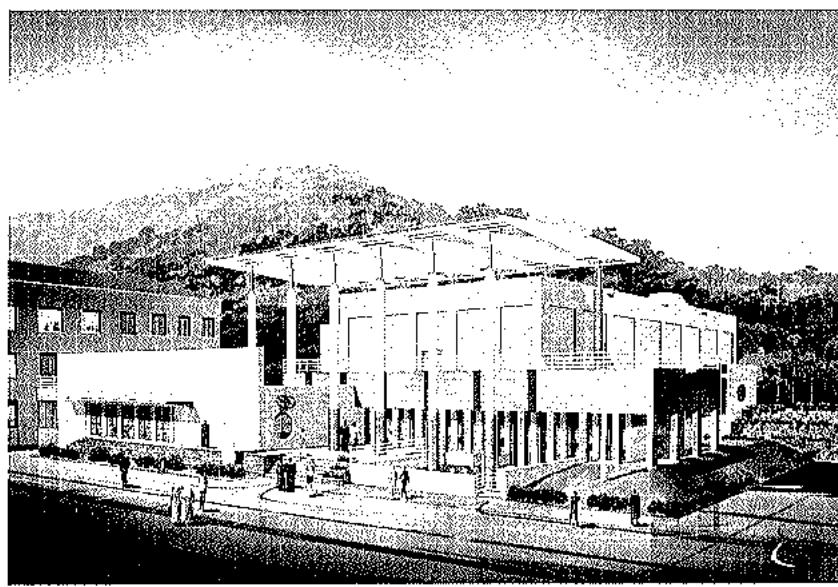
일면도



단면도



성당 내부



토시도

Location / Cheonui-myeon, Yeonki-gun,

Chungcheongnam-do

Site Area / 79,000m<sup>2</sup>

Bldg. Area / 799.42m<sup>2</sup>

Gross Floor Area / 1,495.93m<sup>2</sup>

Bldg. Coverage Ratio / 10.89%

Gross Floor Ratio / 28.91%

Bldg. Scale / 1 Stories Below Ground,  
2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Steel

Exterior Finish / Gran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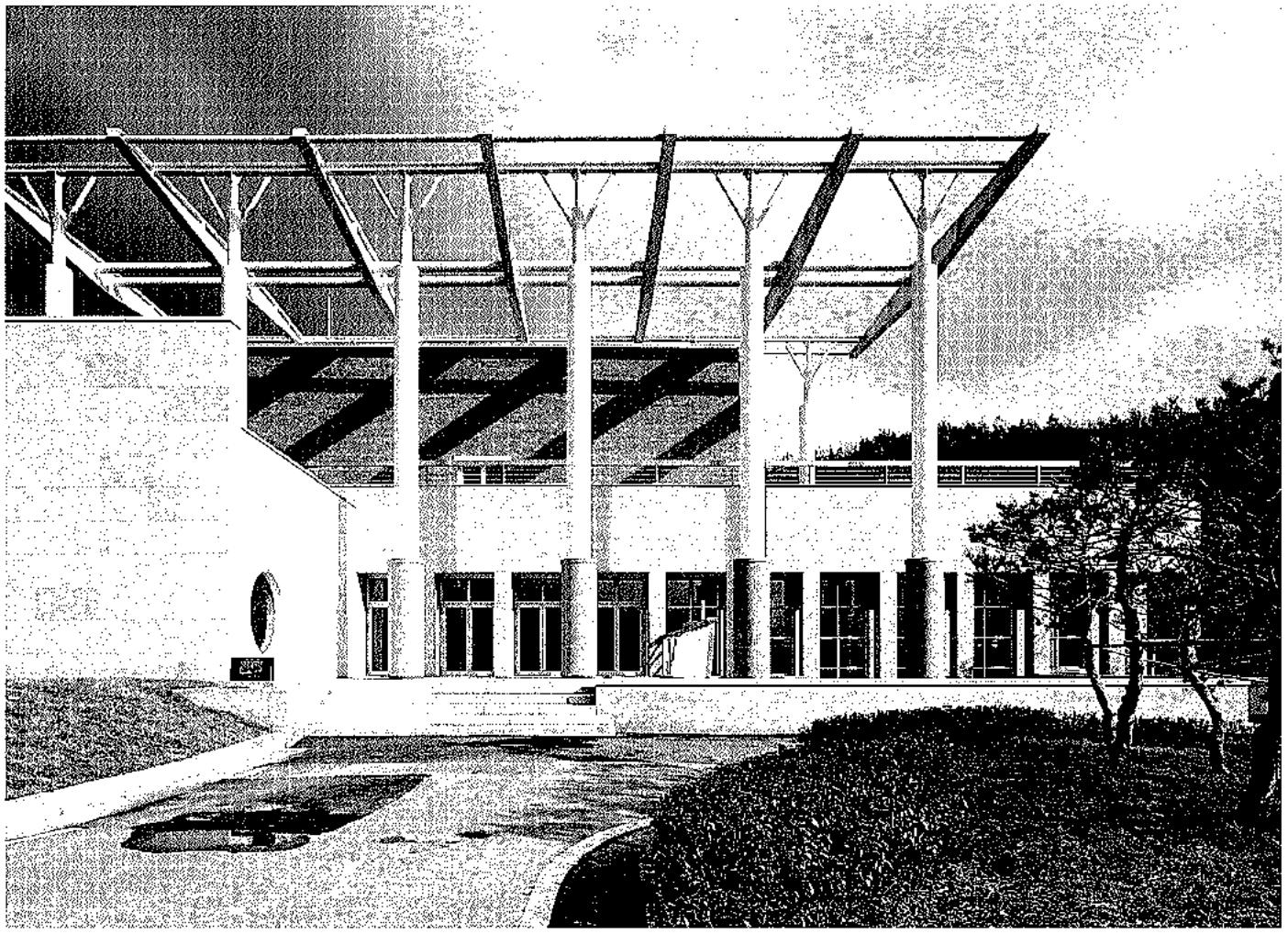
Structural Design / Sen

Mechanical Services / Wojeong Eng.

Landscaping / Junglim L.S.Part

Construction / Samyang Cons. Co., Ltd

Interior / Junglim A & E



주출입구 전경

공사비부족이라는 표면상의 이유로 결국 초기 암이 실시설계가 70% 진행된 뒤 계획자체가 하루아침에 백지화되고 이때부터 반년 이상 건축주와 정립간의 냉전의 시대를 맞는다. 단순한 형태로 재설계하여 부족한 재원을 수용하라는 신학교축 요청과 건축주의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 소재를 짚고 넘어가자는 정립측의 주장이 대립되었고, 결국 단순한 형태를 수용할 경우 작품구상에 대한 설계자의 고유권한을 인정하고 설계비나 설계기간에 대한 약간의 조건을 전제로 하여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새로운 형태를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통로공간의 처리방식이다. 새벽부터 저녁 미시까지 하루 다섯 번의 내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숙사와 성당을 회랑으로 연결하여야 했다. 거역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지만 두가지의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두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각각의 독자성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긴 회랑이 성당의 전면을 가리게 된다는 점이다. 그 해결방법은 '회랑은 회랑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것'과 '긴 회랑을 짧게 나누는 것'이었다. 회랑을 Z자 모양으로 꺾고, 분할되는 양쪽을 다른 형태, 재질, 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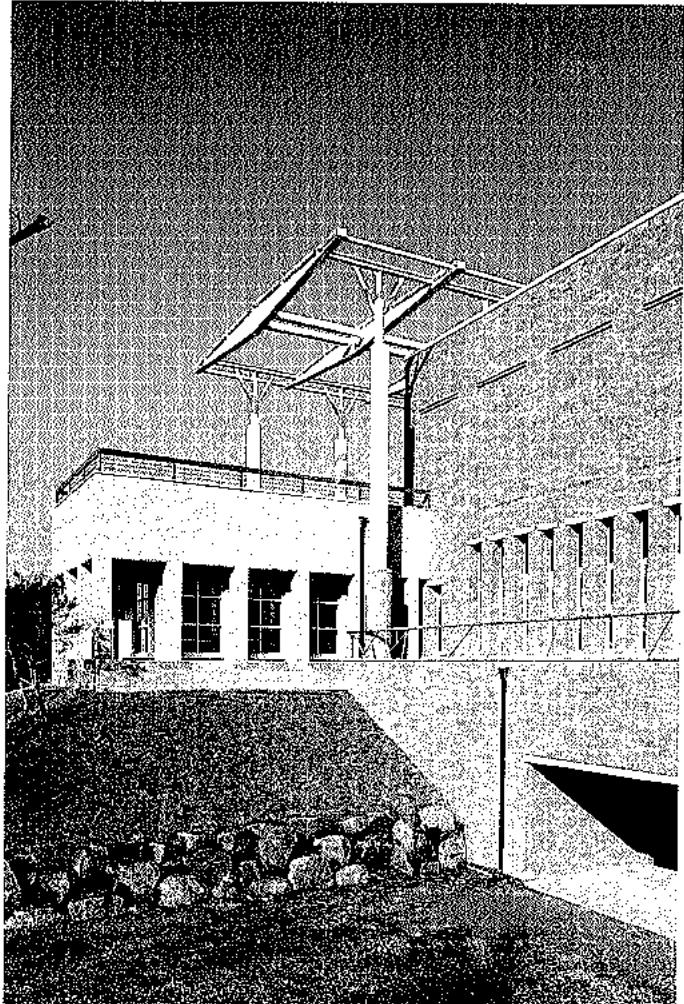
우선 기숙사와 가까운 한쪽 통로는 벽면을 상부로 연장해서 가벽처럼 처리하여 마치 높은 공

간이 뒤에 숨은 듯한 효과를 주며 성당마스와 통로마스 높이의 지나친 격차를 줄이도록 하였다. 다른 한쪽 통로의 외장재료는 동판접기를 하여 독특한 표면처리를 하고 연속된 개구를 형성하여 개방성을 부여한다. 상부에는 목제 손스침이 있는 철제 난간을 두어 성당 2층에서 옥외공간으로 나왔을 때 대형 테라스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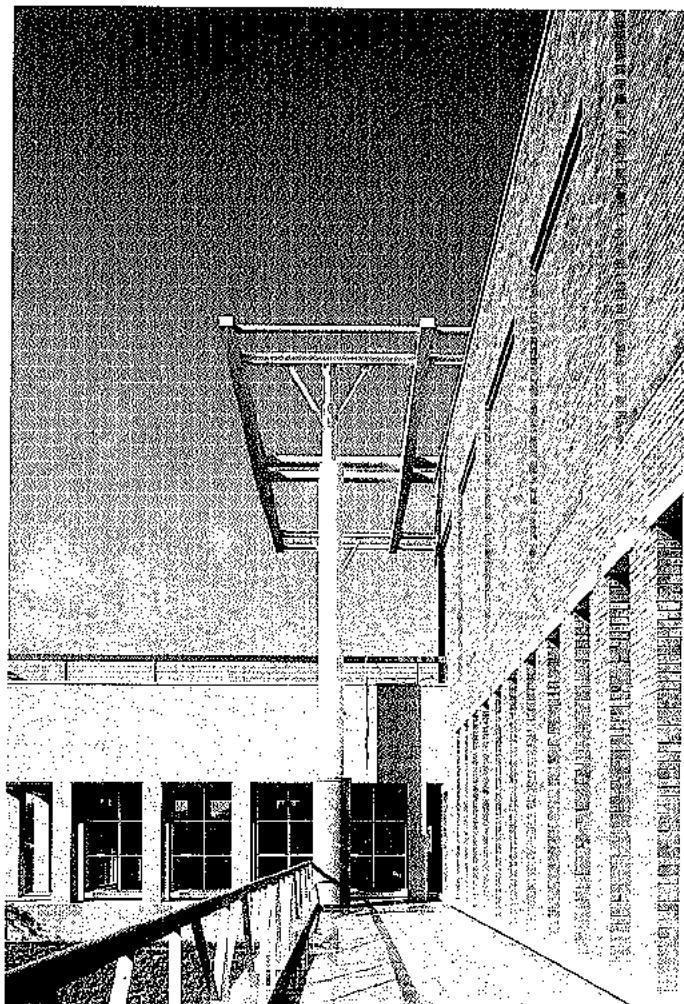
특히 이 우측은 기숙사동에서 시작된 연결통로의 일부로 장래 학사동까지 연계가 예비되어 있고 또한 성당의 나이브로 진입하기 전 공간인 나르텍스 역할도 한다. 통로의 이미지를 극복하고 나르텍스로서의 공간감을 확보해야 하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설계기간의 절반을 소비하고야 말았다. 나르텍스라는 전형적 공간을 단지 내부공간에서 외부공간으로 변형한 것일 뿐이다. 우리 서당이나 사찰에 있던 강당 공간의 변형일 수도 있고 혹 고대 신전의 포티코의 변용이라 할 수도 있는 덮개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결하였다. 다행히 이곳 신학교의 교수신부님들께서 자칫 사각형의 단순한 형태로 될 뻔 했던 당신들의 주문을 매력있게 해결했노라고 만족스러워 하셨다.

성당 내부 공간의 구성은 신학교 신부님들과 신학생들이 성당쪽으로 다가오면서 느끼는 일련의 건축적 경험이 촉작되어 제대앞에서 경험의 절정에 오르는 것을 시나리오로 삼았다. 기숙사

건물을 빠져나오면 연결통로에 이르기 전, 제일 먼저 작은 전실에 이른다. 이곳은 마디역할을 하는 감춰진 공간이며, '연결통로' 야지도 공간 전개상 연결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이어 연결통로에 이르면 정면의 원형창이 시선을 끌어 선큰가든 너머 성상에 머물게 하며 좌측에는 중정이 보이고 우측에는 서쪽의 열린 골짜기 사이에 기숙사 앞마당이 펼쳐진다. 천창의 목재 서까래가 발걸음을 느리게 해주며 연결통로 끝에서 좌로 꺾여지면 성당의 입구가 보인다. 성당 입구홀은 막 지나쳐온 연결통로와 같은 기능이나 천정 단면형태와 유입되는 빛의 양이 큰 차이가 있고, 특히 성당 출입구 상부는 천창이 놓여 외부의 대형 캐노피 하부 옥외공간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외부공간화된 나르텍스를 내부로 끌어들이게 된다. 낮고 어두운 성당 입구는 나이브의 중앙을 피하고 한쪽 모서리를 택하여 정적인 나이브를 동적인 사선으로 가로지르게 된다. 나이브공간은 고딕적 비례가 아닌 사각의 큐브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큐브의 단순함은 여러 방식으로 분해된다. 진입은 사선으로, 빛은 낮은 부분 및 고창과 제대위 전장으로 흐르며, 사이사이 인공조명이 벽감을 채워준다. 좌우측 벽면 상부는 내부로 들어온 베트리스가 만드는 벽감의 연속으로 리듬감을 갖고, 하부 벽면은 유일한 질서요소인 면으로 처리된다. 천장은 목재



남쪽에서 본 회랑과 캐노피



철제 난간 및 캐노피

들과 철제 파이프를 수직 방향으로 구성하며, 평천창 하부에 띄어 놓아 공간의 깊이를 주게 된다. 그밖에 2층 성가대석으로 오르는 계단은 하나의 가벽과 같이 가려져 있으며 그 자체가 빛면으로 서있고 성가대석 바닥의 한쪽은 보를 제외하고는 뚫려 있다. 이 속은 빛우물이 두곳에 마련되어 있다. 나이브 한쪽에 놓인 성수반 바로 위 성가대석 바닥이 뚫려 있고 지하층 박물관 입구홀은 사각 공간내에 6개의 원기둥이 원형의 작은 공간을 구성하며 그 상부는 빛의 유입보다는 공간확대의 의도로 처리된 광정이 있다.

재료선택의 어려움은 늘 겪는 흥역이다. 서로 어울리는 재료를 여러 가지 배합하고자 하는 하이브리드 의도를 갖고 시작하였으며, 시내 변화가의 성당이 아니라 아담한 자연으로 둘러싸인 신학교 경내에 위치한 까닭에 인공적 재료보다는 자연에 가까운 재료를 선택하고자 했다. 먼저 기단은 땅과 친화력이 있는 자연석을 쌓아 올렸다. 자연석도 성당전면의 아스콘, 좌측의 기존 기숙사 건물의 적벽들과 어울리도록 검은 색조를 띠는 온양석을 선택했다. 기단위에는 세가지의 주된 외장재료를 사용하였다. 먼저 성당 볼륨의 상부에 두루 쓰이게 되는 것은 도면 표기상 콘크리트페널로 되어있다. 평소 샌드스톤이나 라임스톤계열의 질감을 써보고자 하였는데 국산 인조샌드스톤은 아직 가격이 만만치 않고 라임

스톤 역시 용이하지 않았다. 우연히 알게 된 재미건축가 최두남씨의 주택작품에서의 질감이 호감이 가서, 벽신의 베드스톤이라는 계단판을 외벽재료로 사용하여 건식공법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건축주의 실험정신에 대한 경양과 관리상의 단점이 이유가 되어 대도벽돌의 토석으로 대체하였다. 두 번째 주요 외장재료로는 동판접기로, 앞서 언급한 이등분한 전면 회랑의 한쪽이 동판접기로 되어 있다. 지붕재료로 사용되는 동판은 독특한 품격이 있다.

현장감독으로 있던 영국대사관은 그간 10여 차례 지붕에 올라 점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토록 미려한 지붕을 평상시에 경험할 수 없고 게다가 높은 파라펫으로 가려놓은 사실이 안타깝곤 했다. 그 동판을 벽면에 사용함으로써 동판이 갖는 특이한 품격을 눈앞에 또 손앞에 느끼도록 한 것이다. 또다른 주요 외장재료는 문경석 흑두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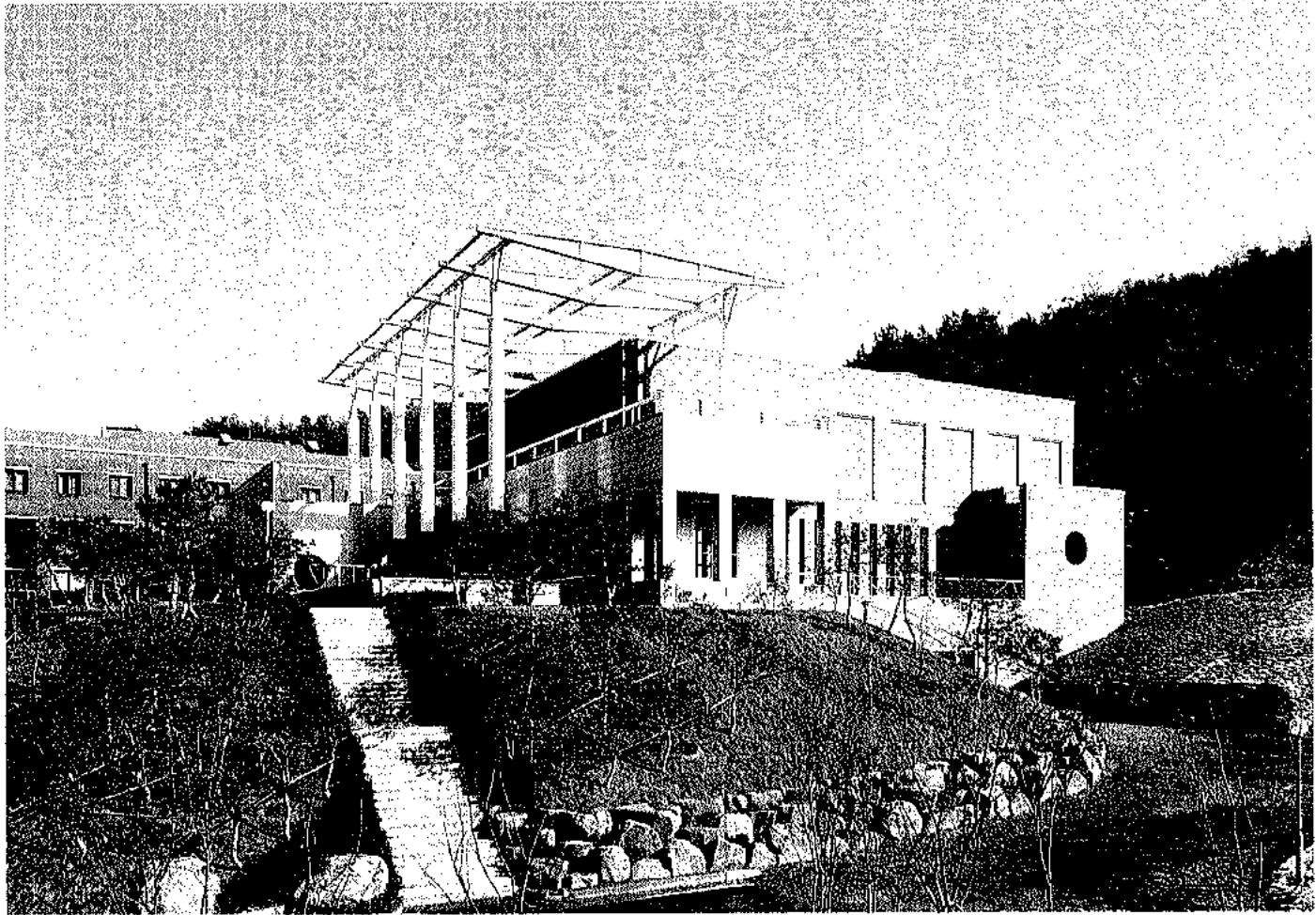
정면 회랑 다른 한쪽은 높은 가벽으로 처리하여 마치 하나의 건물로 읽히게 하였는데 거친 화강석 흑두기로 되어 있다. 그외의 외장재료의 특징은 친근감을 더하기 위해 캐노피 하부가 목재로 되어 있으며 캐노피를 지지하는 기둥은 노출 콘크리트로 하였다. 내장재료는 환색계열의 조리파트와 무늬목을 위 아래 간결하게 사용하여 재료의 특징보다 내부공간의 아티큘레이션과 인

공조명, 자연조명, 천정틀과의 연출을 보다 중요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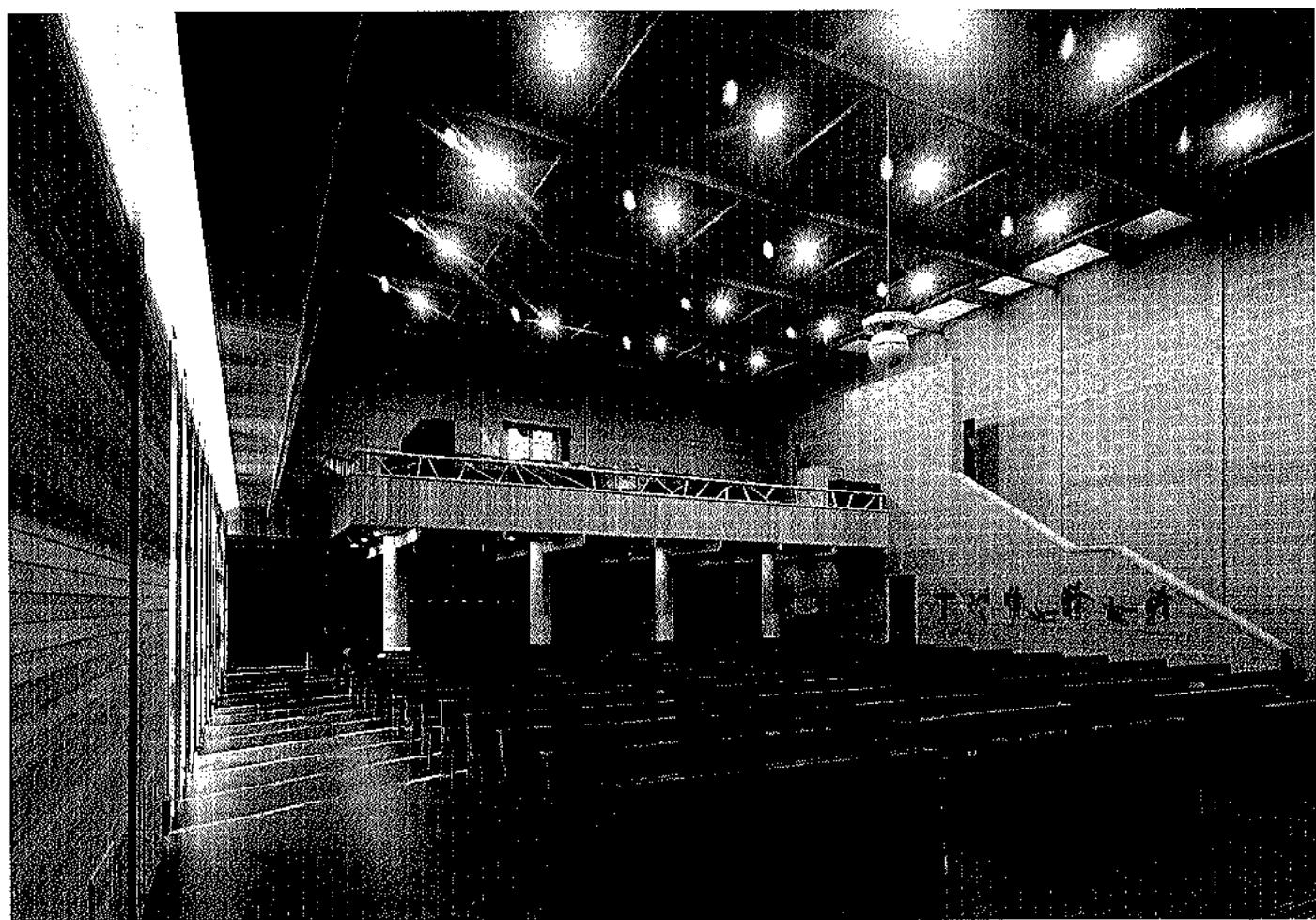
늘 그렇듯 여러 사람들의 조언과 정성이 결과물 이곳저곳에 스며있음을 발견한다. 초기안에는 KACI의 김계원씨가 많은 조언을 주었으며, 재료 특히 자연성 선정에는 하성한씨의 자료제공에 도움받고, 단조로운 내부 벽면에 벽감을 형성하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한 뉴질랜드에 이민간 임동빈씨, 설비와 전기의 컨설팅에는 가톨릭 신자인 오플승씨와 홍석씨가 신앙을 발휘해 주었다. 기본설계단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디테일처리와 도면완성을 맡아준 문상호씨의 도움에 힘입은 바가 크다.

대학시절 봉사활동을 통해 자연스레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고 출입논문 주제도 고민없이 잡게 되면서 막연히 성당 설계의 희망을 품게 되었는데 이제 현실로 나타난 결과는 온통 두려움뿐이다. 나자신의 회한과는 관계없이 이제 건물은 완성되고 하느님의 부름을 받은 젊은 예비성직자들이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에서 가장 늦은 시간까지 수없이 문고리를 훔들어 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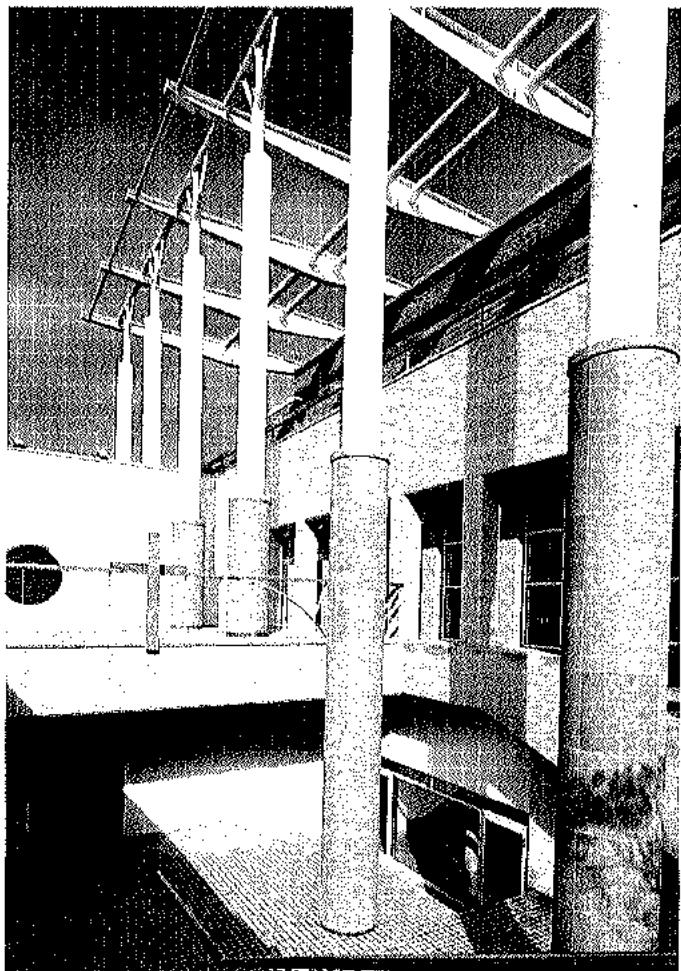
읽고 또 읽으면 과거의 성경이 늘 새로이 이해되는 것이 말씀의 살아있는 신비이듯, 들판과 나고하여 하느님의 집이 늘 새로운 화해와 찬미를 노래하는 살아있는 기도의 집이 되기를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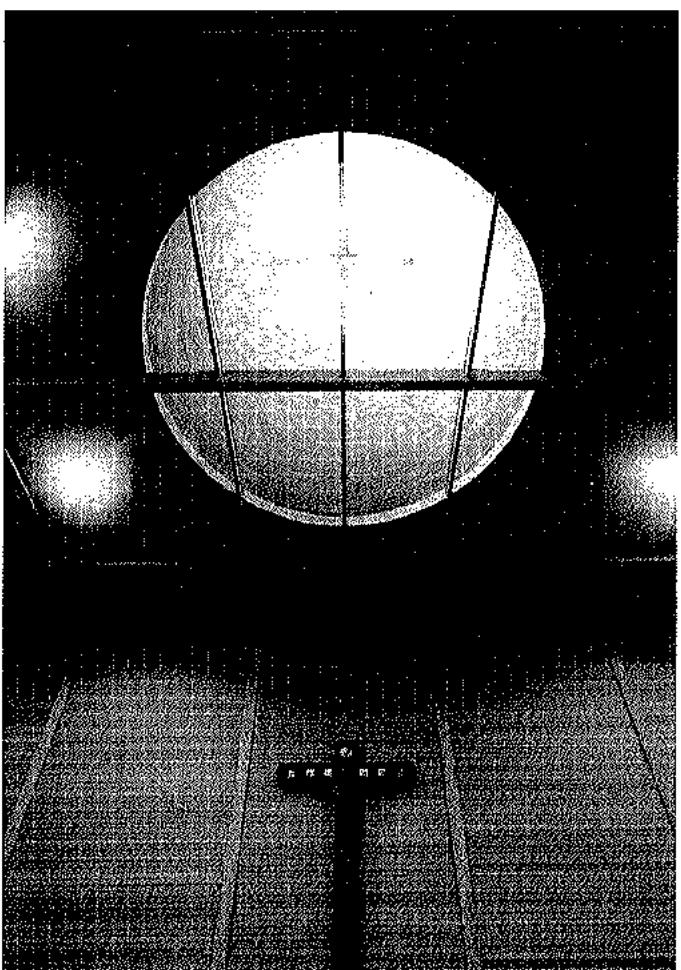
북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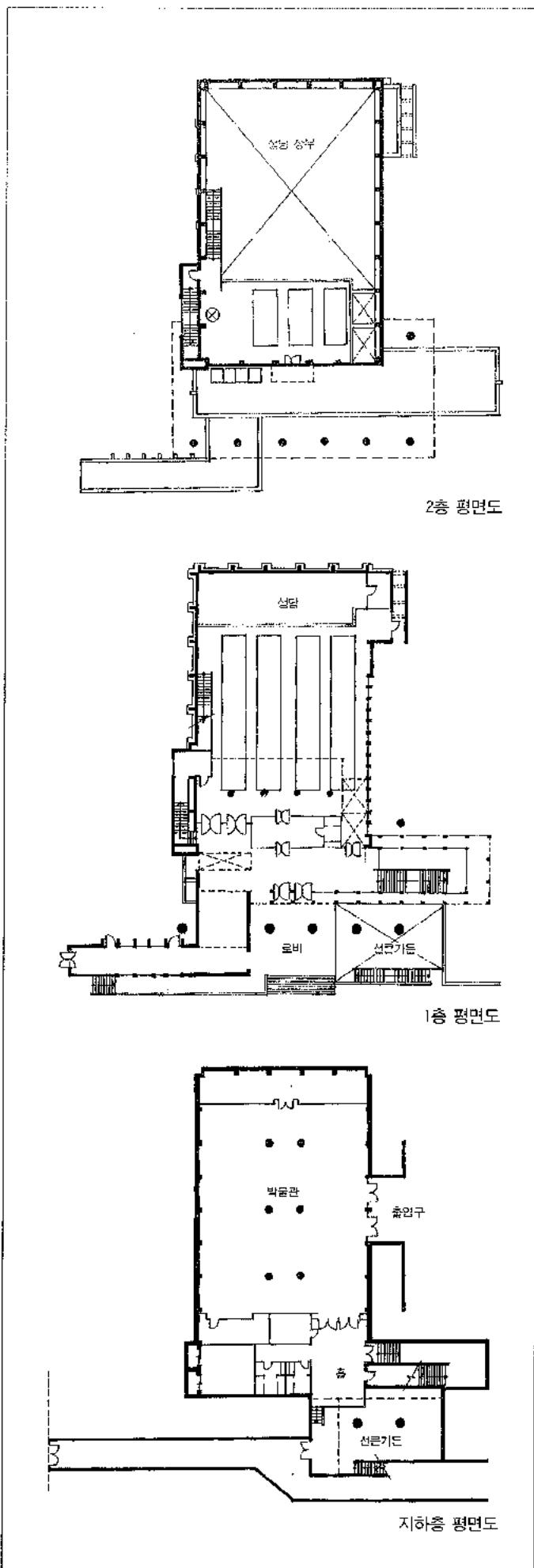
성당 내부



선관기동



성당내부 천장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회원작품

# 분당 감리 교회

Pundang Church

윤주현 / 내외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Yun Ju-Hun



북측 전경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산 56-1

지역 · 지구 / 일반주거지역, 도시설계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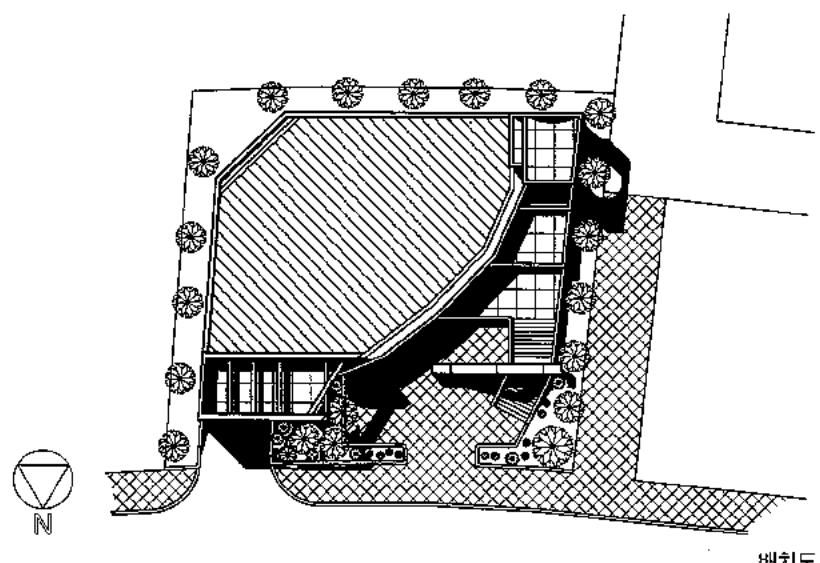
대지면적 / 1,400m<sup>2</sup>

건축면적 / 832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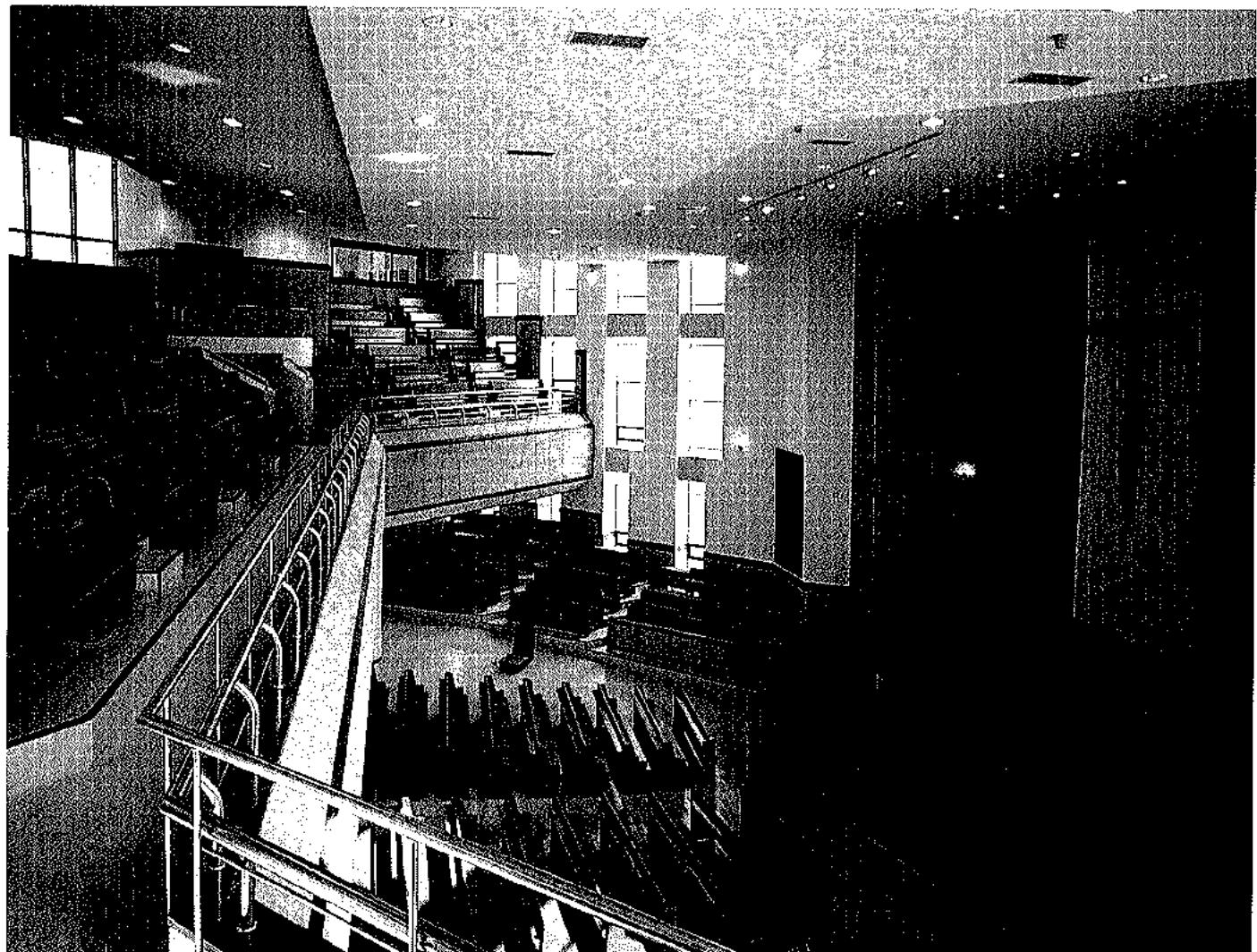
연면적 / 4,374m<sup>2</sup>

규모 / 지하2층, 지상4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배치도



예배실

Location / 56-1, Pundang-dong, Pundang-Ku, Seongnam-shi, Kyeonggi-do

District / Houses, Urban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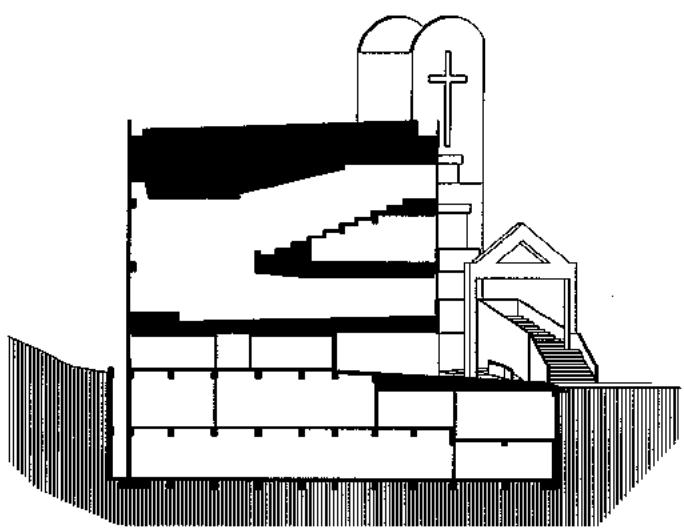
Site Area / 1,400m<sup>2</sup>

Bldg. Area / 832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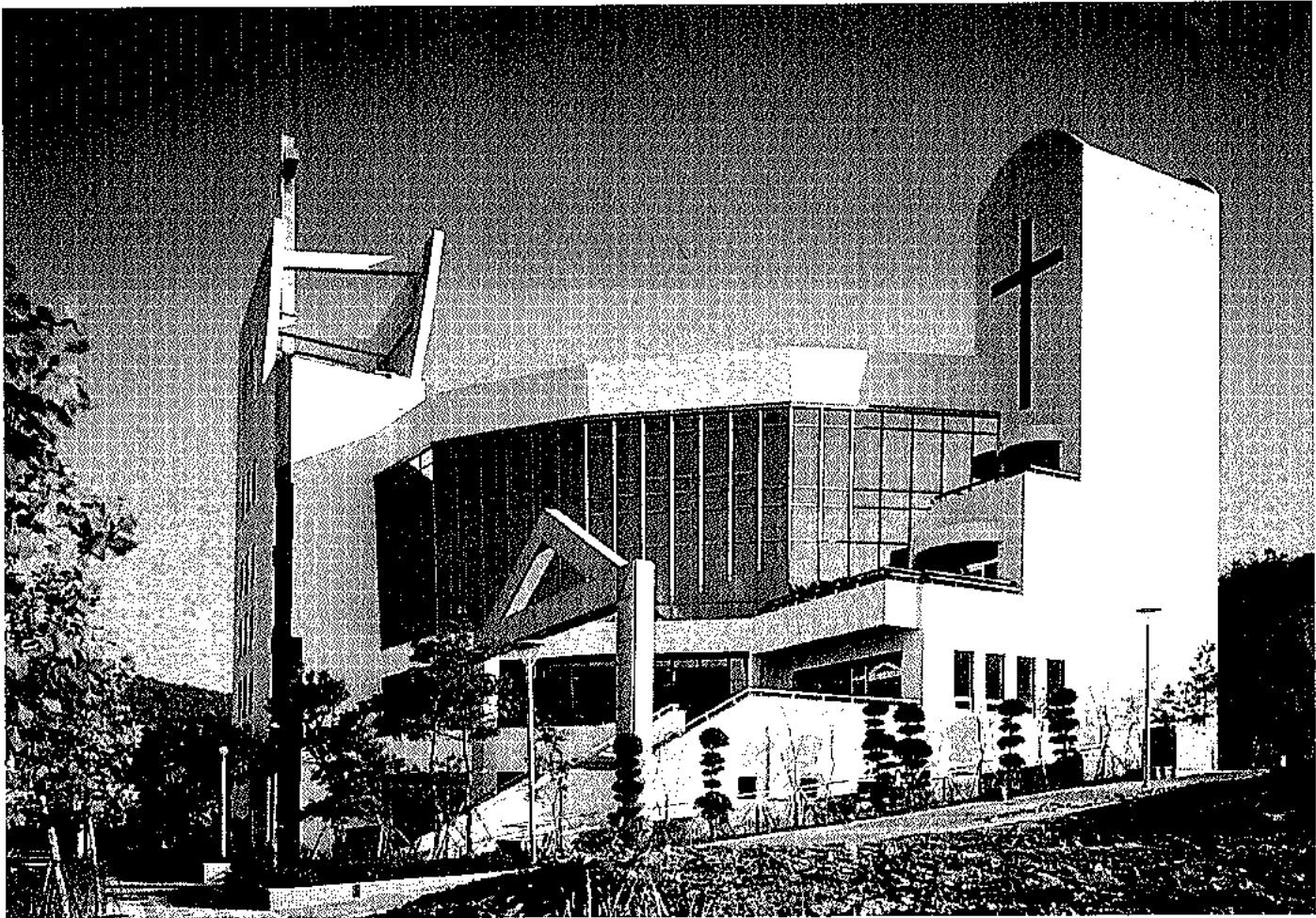
Gross Floor Area / 4,374m<sup>2</sup>

Bldg. Scale / 2 Stories Below Ground, 4 Stories Above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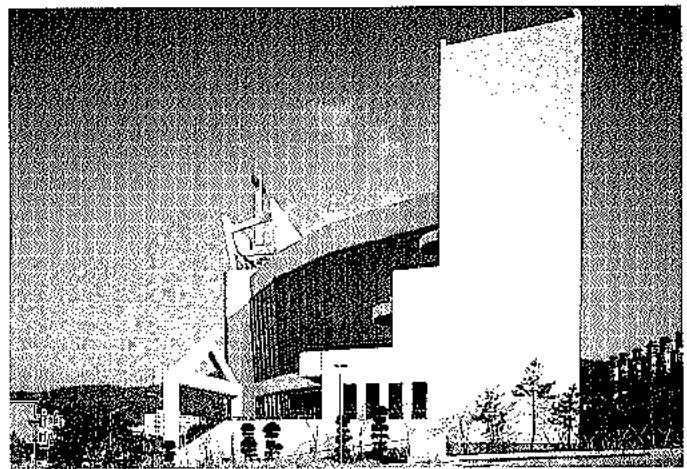
Structural / Reinforced Concre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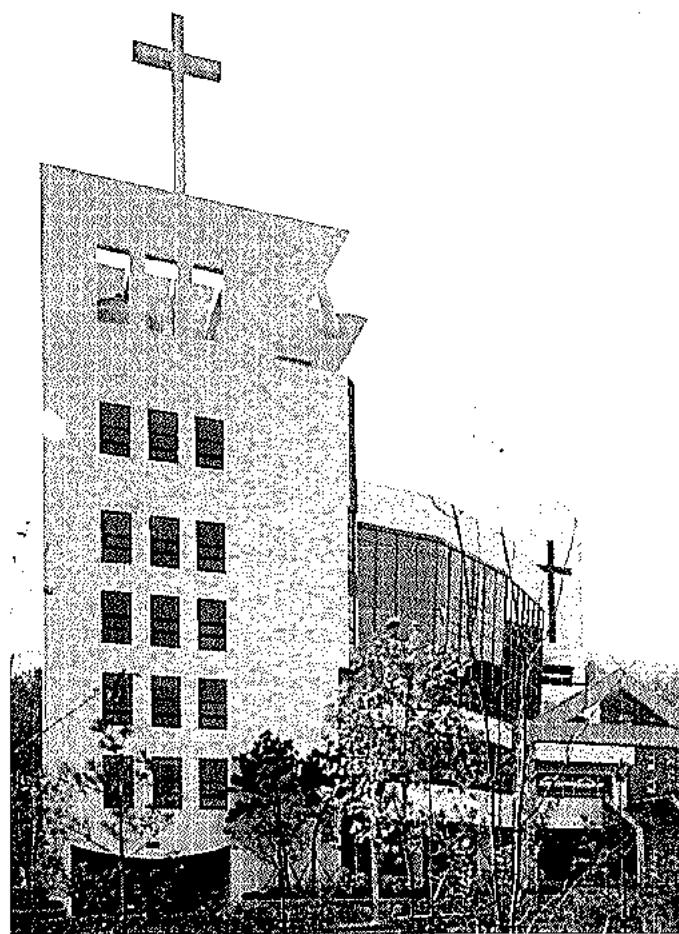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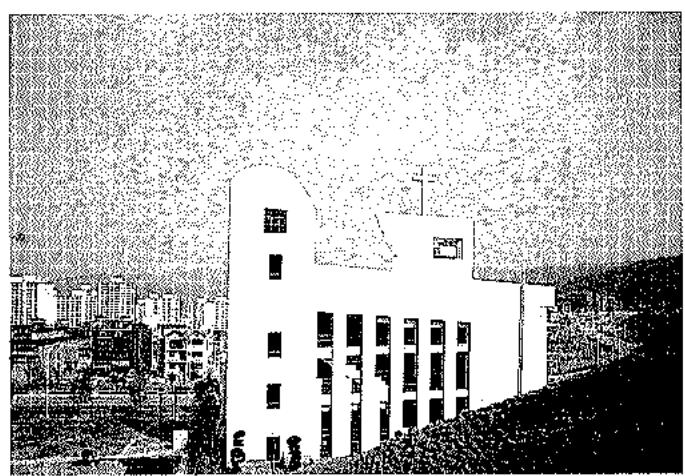
북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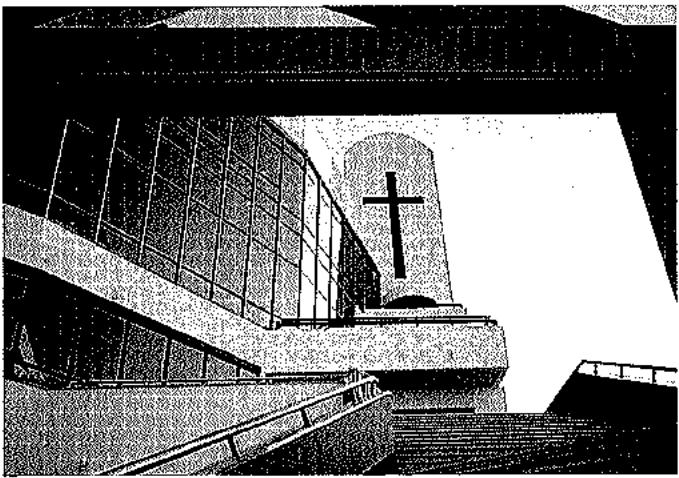
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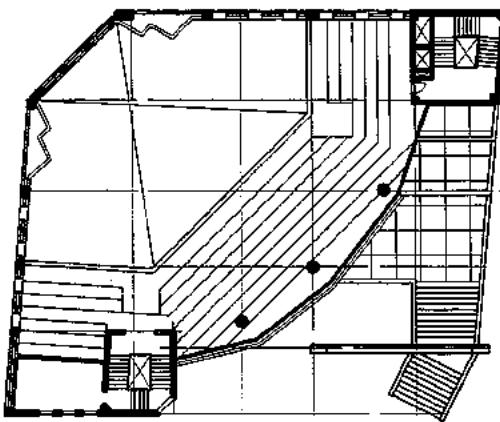
북동측에서본 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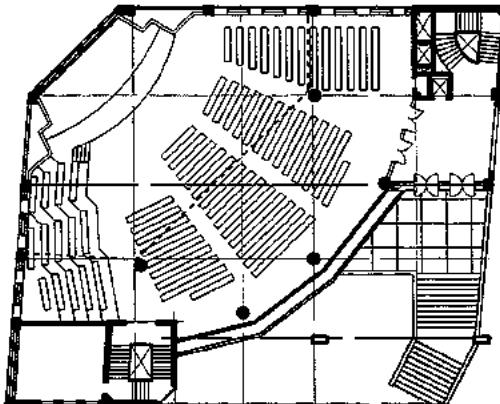
남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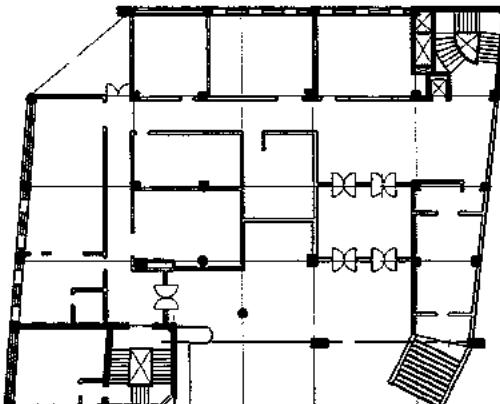
출입 계단에서 바라본 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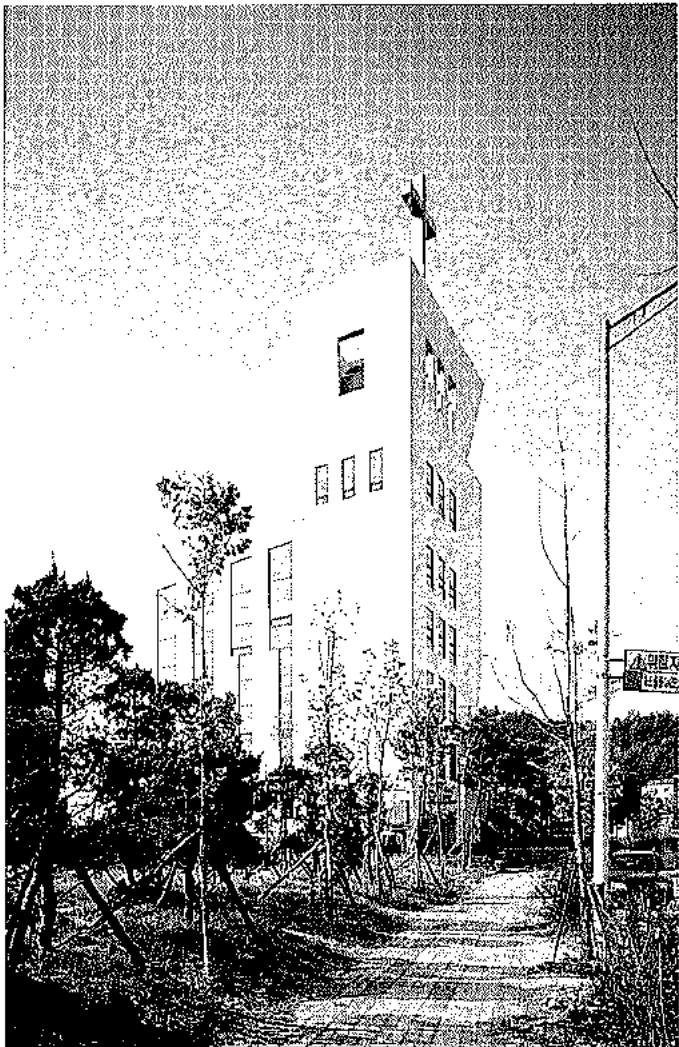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면

사회 각 분야가 전문화 되고 디지화 되어 소외와 상실을 호소하는 현대에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공간을 그려 본다.

전면 도로 건너편의 넓은 보행 도로에 건물의 축을 맞추어 접근 동선의 인지도를 높이고 건물을 최대한 뒤로 배치하여 서북측 도로변에 건물 진입의 전위 및 만남의 공간으로 앞마당을 활용하는 등 외부 공간 구성에 역점을 두었다.

2층 예배실로 진입하는 외부 계단은 동선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연장된 길의 개념으로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아무라도 도달할 수 있는 의미의 역동성 있는 상징으로의 역할을 기대하며 한가운데 설치된 대문 형식의 큰 아쉬는 종교 영역을 암시하며 적극적인 포용의 자세를 취한다.

다면을 이룬 정면은 여러 방향의 시각에 대면을 이루어 시간대와 위치에 따라 다양한 표정을 제공하며 전체 조형의 은유적 이미지와

함께 급속히 개발된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신도시 스카이 라인 일변에 아직도 살아 있는 인성(人性)의 기호로서 사회와 도시로 활짝 열린 종교 건물로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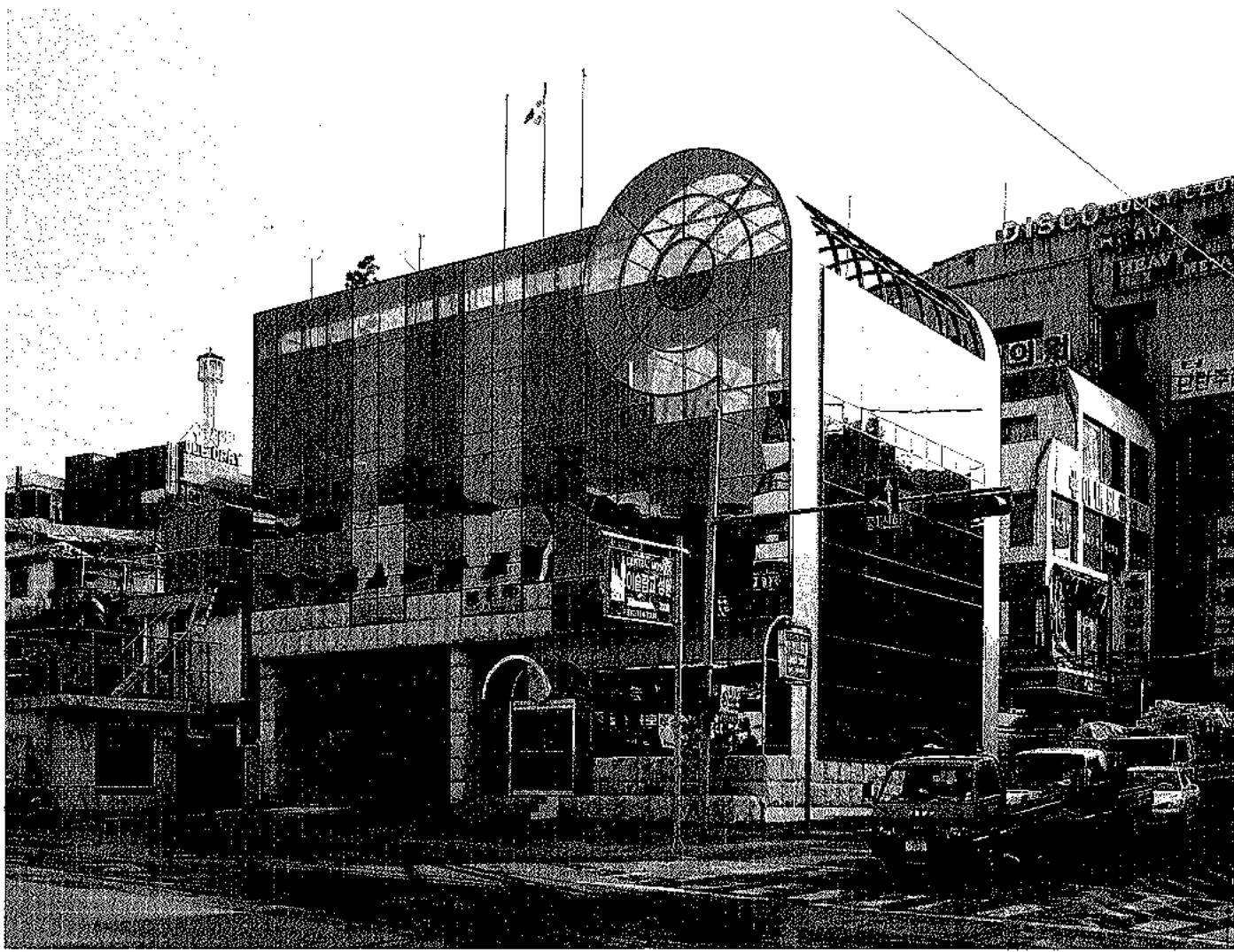
예배실 평면을 방사형으로 구성하여 예배의식에 일체감을 부여하고자 하였으며 층별로 셋백된 외부 테라스는 넓지 않은 앞마당에 확장의 효과를 기대하며 동시에 진입 동선에 부드러움과 상승감을 부여하기 위한 의도였다.

# 이태원 소방파출소

Itaewon Fire Station &amp; Residential Police Box

한상운 / 일신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Han Sang-Woon



전경

위치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26-13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주차장정비

대지면적 / 517.8㎡

건축면적 / 202.32㎡

연면적 / 686.06㎡

건폐율 / 49.8%

용적률 / 132.49%

규모 / 지하1층, 지상4층(옥탑포함)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18㎜ 벤사복층유리, 회강석,

드라이비트

시공 / (주)신세계토건

공사기간 / 95.6~95.11

설계담당 / 김희창, 한우주

감리담당 / 민준기

Location / 126-13, Itaewon-dong,

Yongsan-gu, Seoul

District / Semi-Residential

Site Area / 517.8㎡

Bldg. Area / 202.32㎡

Gross Floor Area / 686.06㎡

Bldg. Coverage Ratio / 49.8%

Gross Floor Ratio / 132.49%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4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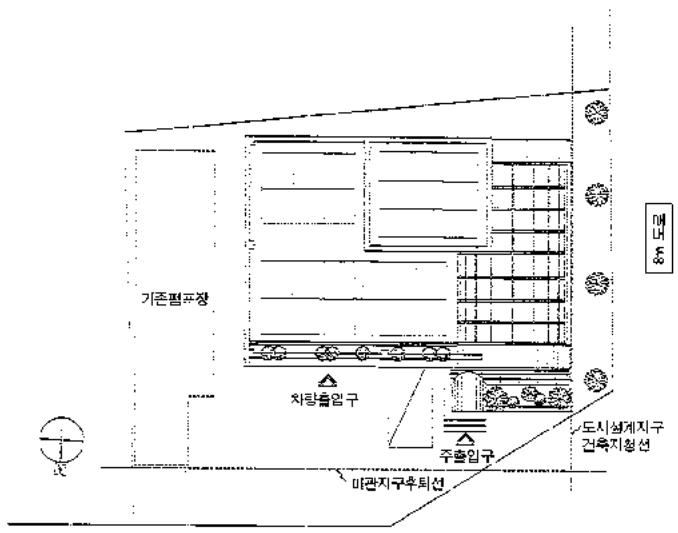
Constructor / Shinsegae Cons. Co., Ltd.

Construction Term / 95.6~95.11

Project Team / Kim Hee-Chang,

Han Ok-Joo &a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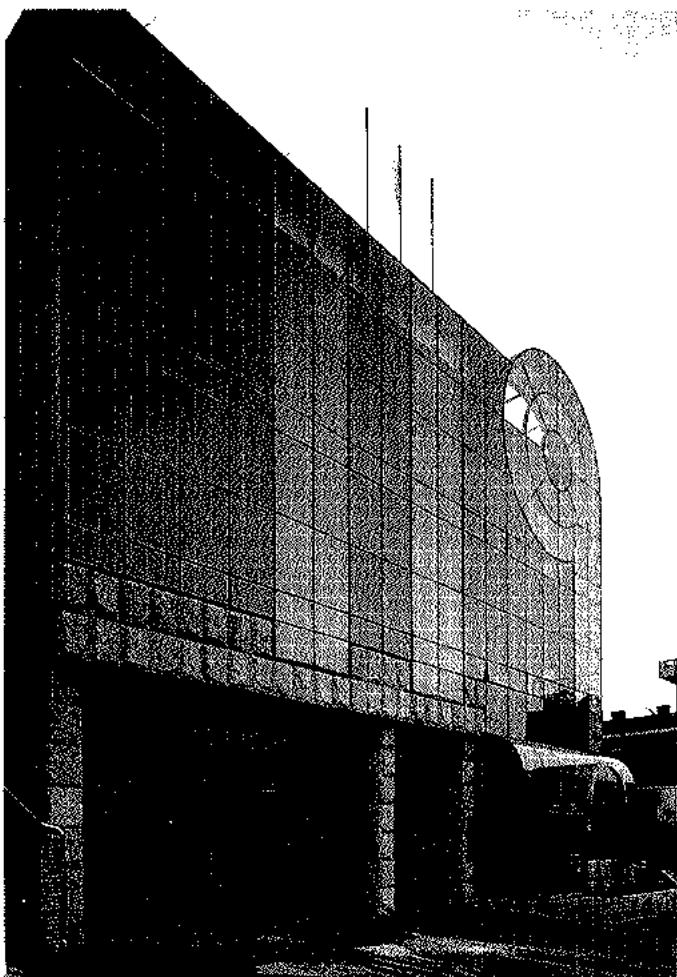
Min Chun-K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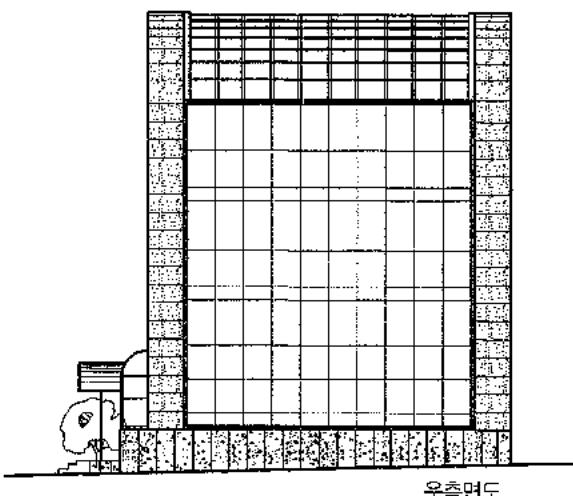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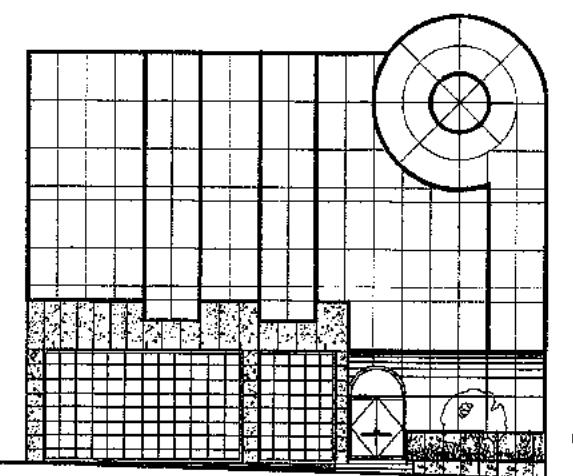
3층 아트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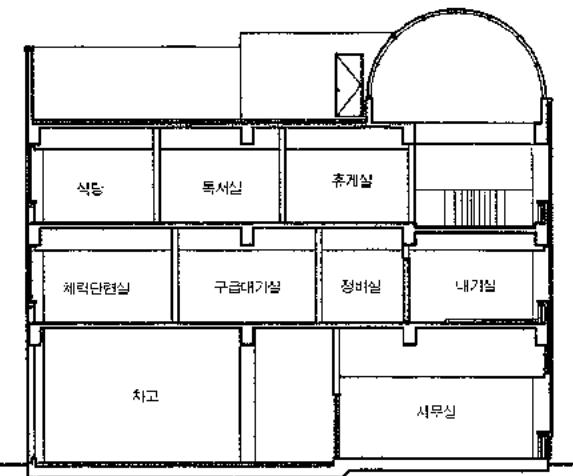
정면 출입구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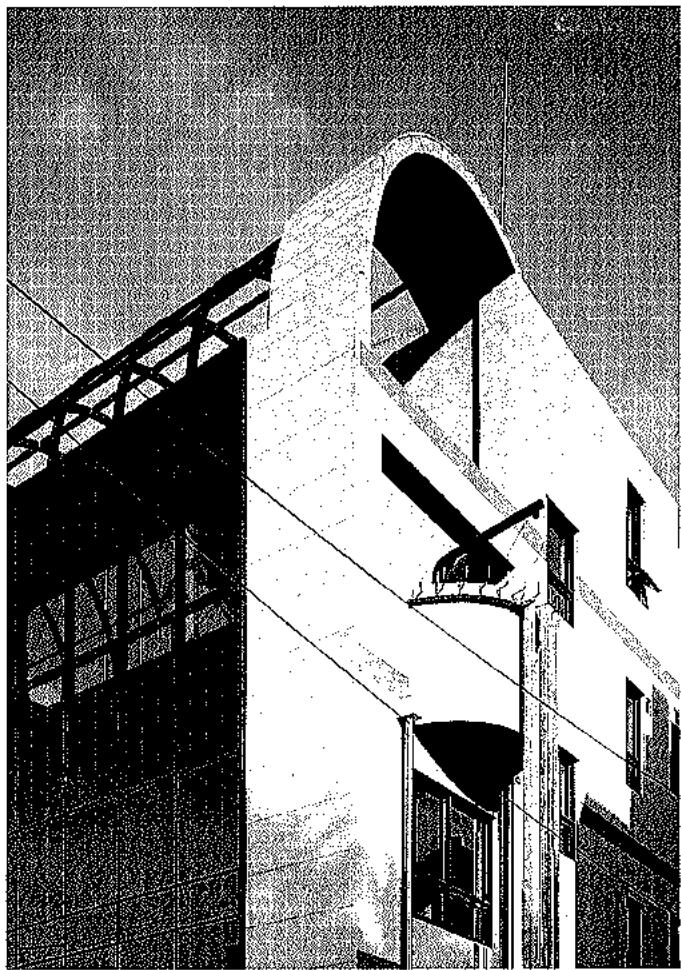
우측면도



정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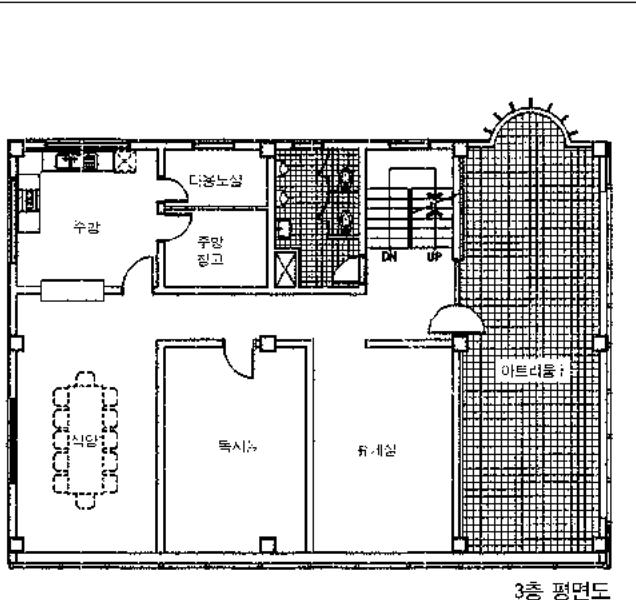
소방파출소! 빨간 불자동차를 연상케하는 근린공공시설물인 이태원소방파출소 신축설계참여를 통보받았을때 색다른 감회를 가졌던 기억이 난다. 빨간색의 건물을 만들어볼까, 아니면 화재가 무섭다는 이미지의 근엄한 건물을 만들어볼까하며, 이런저런 구상을 다듬어 이 계획안을 제출하여 3개 사무소안중 용산소방서 자체심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하게 되었다.

이 부지는 조사한 결과 1987년 이태원지구 도시설계 당시에는 소방파출소를 예전하고 쇼핑객들과 유흥객들이 휴식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보행자에게 제공하며, 이 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남과 휴식과 축제행사를 할 수 있는 공공장소로 활용하고, 국제적인 쇼핑거리에 필요한 관광편의시설을 세울 계획이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기존가압 펌프장 건물을 넘겨둔 채, 이태원 소방파출소건물만 철거하고 신축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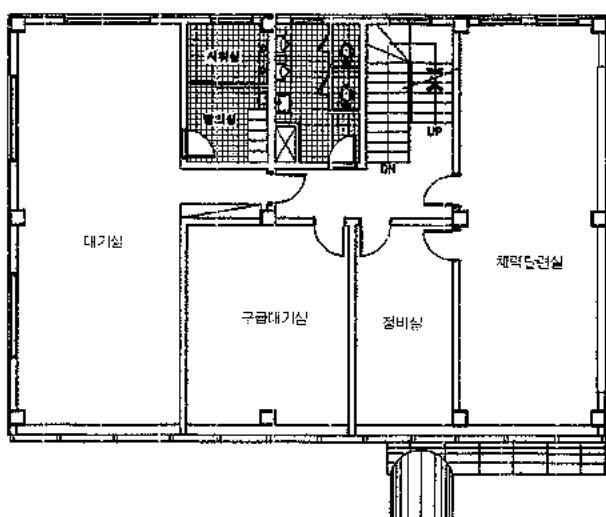
설계의 주안점은 규모는 작지만 이태원이라는 기로의 특성(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쇼핑과 유흥가) 및 여건에 어울리며 소방서라는 이미지가 한눈에 인지될 수 있고 기존 관공서 건물의 구태함에서 벗어나도록 전면을 반사유리로(커튼월)처리하면서 소방서 고유번호인 119를 유리색의 차이로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4시간 불철주야로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의 휴식 및 대기시간을 좀더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후생복리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화재의 구급·구조활동을 신속·원활하도록 하였다.

공사비 예산부족으로 3층 아트리움의 지붕마감(반사유리)을 할 수 없었던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으며, 이 공사를 위해 설계에서부터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용산 소방서의 서광석 서장님과, 장비계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그간 잦은 설계변경과 적은 공사비로 끝까지 공사를 잘 마무리 해준 (주)신세계 토건과 열심히 감리를 담당했던 민준기 직원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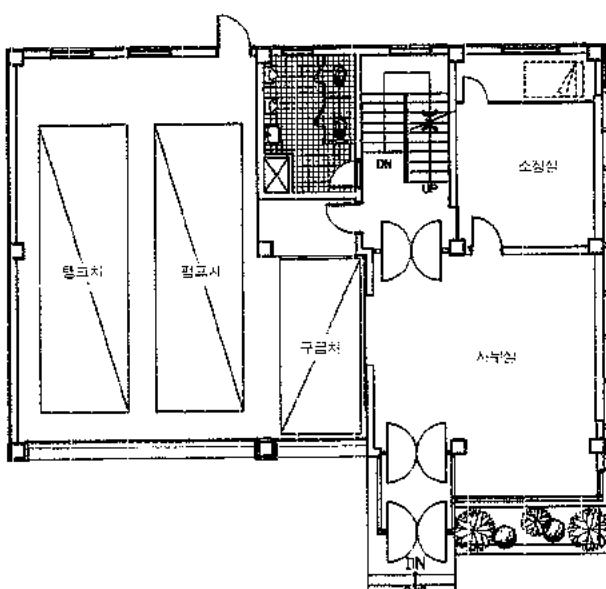
끝으로, 이 작은 건물이 무질서한 이태원 가로변의 건물군속에서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었으면 한다.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장안빌딩

Chang-An Building

문성운 /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도사  
Designed by Moon Seong-Woon



위치 / 서울 성동구 용답동 119-7의 10필지

대지면적 / 940.08m<sup>2</sup>

연면적 / 4,994.83m<sup>2</sup>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 지하2층, 지상7층

용도 /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설계 / 이종훈, 김영호, 이은경

Location / 119-7, Yongdap-dong, Seongdong-gu, Seoul

Site Area / 940.08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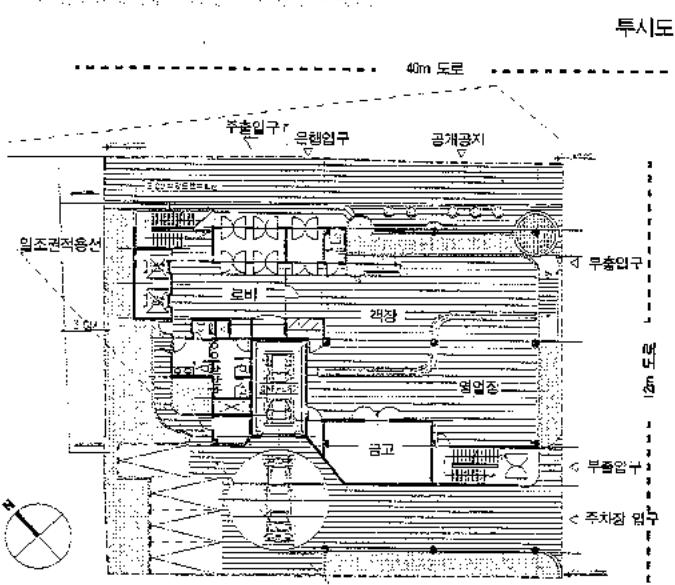
Gross Floor Area / 4,994.83m<sup>2</sup>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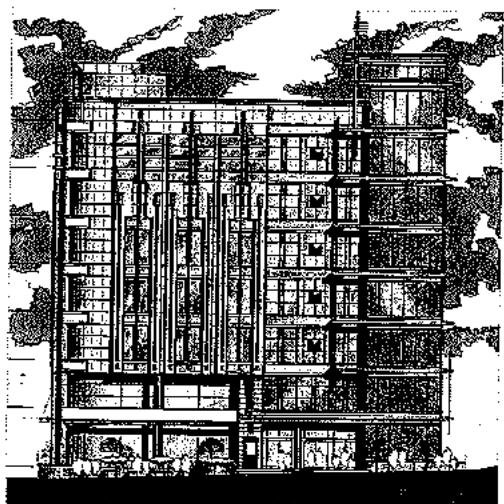
Bldg. Scale / 2 Stories Below Ground, 7 Stories Above Ground

District / Business, Neighborh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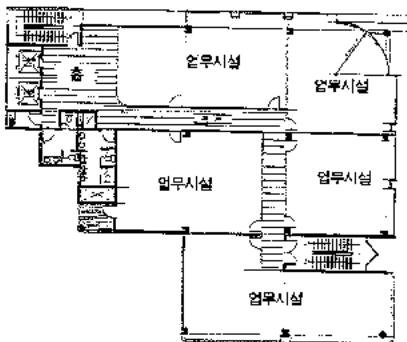
Project Team / Lee Chong-Hoon, Kim Young-Ho & Lee Eun-Ky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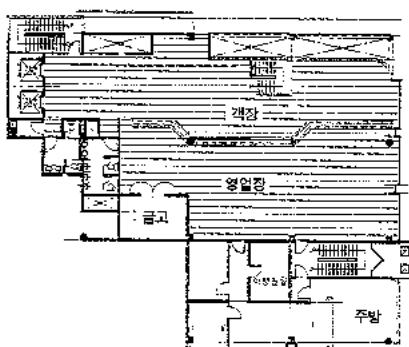
배치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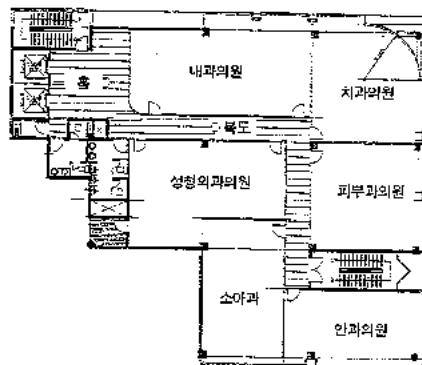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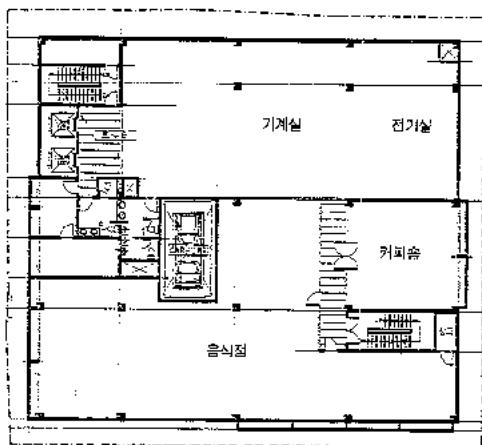
4~7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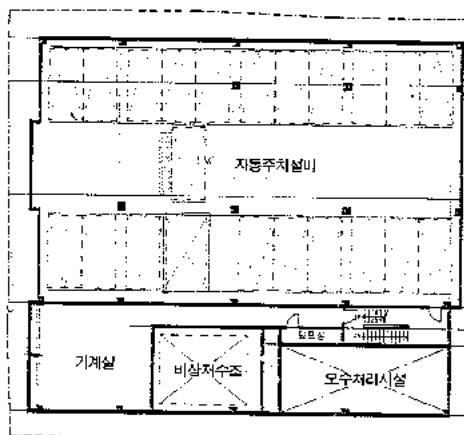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지하2층 평면도

현장을 뒤로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평소의 습관과는 달리 클래식도 틀었다가 재즈도 틀었다가 요즈음 유행하는 가요, 랩… 이것저것 들어본다.

영동 대교를 지날쯤 되어도 마음속에는 방금 전의 현장에 세워 놓아야 할 괴중한 숙제의 해답이 쉽게 풀려지질 않는다.

환갑을 지내신 건축주의 확고한 의견과, 지나칠 정도의 고전적인…, 나름대로 의도를 표현해야 될 내 자신의 견해 차이가 너무 커기 때문이다.

장안평 중고차 매매 시장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주변 환경과 비교할 때 준공 후 건축물은 너무 뛰어도 안되고, 너무 처져도 안된다는 것이 본인의 계획 첫 의도였다.

따라서 우선 외장재는 주변 환경과 가장 쉽게 조화될 수 있는 돌과 유리를 사용하기로 했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모던 클래식으로 풀어 나갔다.

하지만 건축주는 유리와 돌의 사용을 상당히 거부하는 입장으로서 이를 설득하느라 한동안

애를 태웠다.

그곳에 80년대초 강남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타일 건물을 이곳에 또다시 세운다는 것은 억울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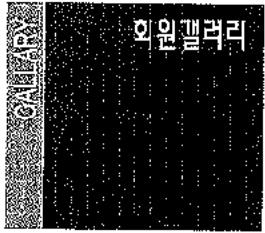
지하층은 예식장 피로연과 연계되어 식당이 들어오고 1·2층은 은행이 들어선다. 3층은 의원, 그리고 기준층은 업무 시설을 설치하였다.

지하철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주변 환경정리와 함께 작지만 충분히 지역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겨울(40F), 이상은 / 예탑종합건축사사무소

지난 명절 성묘때  
산자락 밭을 지나면서 느꼈던 기억에서  
겨울이 정지되어 있는것 같은  
차가움과 신선함을 그리려 했다.



# 겨울

Winter

김석환 / 건축사사무소 터·울  
by Kim Seok-Hwan

들녘은 뱃가죽을 드리운채로  
무거운 침묵을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인생의 길목에서 또다시  
텅빈 들판을 지나가야 합니다.

온수원사사 하얀 살갗이  
싸늘한 바람에 움츠리며  
여윈 가지에 밤새내린 서리가  
맑은 햇살에 이슬되어 반짝이고  
쉬지않고 걸어보아도 빈 들판만 보입니다.

풀잎처럼 시들어간 추억들  
흰눈이 흘날리고 낙엽마져 묻혀버리면  
전설처럼 꿈이되어 피어나겠지요.

인적드문 동네에는 겨울도 길어  
사립문도 여러날 달혀있고  
눈보라 몰아쳐 문풍지 떨려도  
화톳불가에 피어나는 따스한 온기같이  
살랑바람이 훑냄새 실어올때에  
기도처럼 희망이 느껴지겠지요.

사로트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간파했다.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절망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절망  
절대적인 외로움과 두려움에서 오는 절망

한해, 두해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절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깨닫기 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연유한다.

어느 공식적인 모임에서 한 비평가가 왜 건축을 하느냐고 물었다. 그 비평가가 기대하는 답은 아마도 건축의 계몽적인 측면, 건축가로서 우리가 사회에 해야하는 의무 등을 환기시키는 것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었으리라 여겨진다.

한편 그 질문은 왜 사느냐고 묻는 류의 우스꽝스러운 질문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절진 껌처럼 내 의식에 달라붙어서는 좀처럼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씹은 후 오물이 되어버린 불쾌한 끈적임과 씹기 전의 향기에 대한 기대가 껌에 동시에 천착되어 있듯 그 질문의 양면성은 삶이 전혀 반대 상황에 있을 때에도 불쑥불쑥 고개를 들

이별었다.

불혹의 나이에 직업 선택의 여지가 바늘 구멍만할때 왜 그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도대체 얼마만한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일까?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것일까 혹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것일까?

어렸을 적 왜 사는냐는 질문에 대해 유치한 철학적 사유의 결과로 생존과 생활의 의미를 편가름하던 실력으로 이 질문에 답을 해도 결과는 똑같다.

### 끌·없·는·절·망

삶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에 왜 사느냐는 질문을 회색시킬 수 있지 만 건축은 내가 선택했기에 왜 하느냐는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려야 하는 것일까?

그러나 건축을 선택할 당시 건축에 대한 그럴듯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거의 없다.

나 역시 그런 평범한 인간중의 하나였다.

일차적으로 왜 건축을 해왔냐 하면 열렬결에 선택한 건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건축을 해왔다. 당구도 잘치는 놈이 더 재미있어 한다고 건축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그 주위를 들러싼 신화를 배웠고 그 깊이와 난해함에 겉갑을 수 없이 빠져 들었다.

한참 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때는 이미 벗어날 수

# 왜 건축을 하느냐고 묻거든

If You are Asked the Reason of Doing Architecture

이필훈 / (주)태우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Pill-Hoon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아픔과 절망감을 알지조차 못하는, 건축을 출세의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또내기 이루들이 자신의 편협하고 납작한 건축관을 순수함으로 가장하기 위해 그렇게 쉽게 왜 건축을 하느냐고 물을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단순하고 용감한 질문에 돈카호테 같은 답을 할 수 밖에 없다.

'힐리만자로의 표범처럼 고고하게 신위에서 일어 죽으려고 건축을 한다.'

그렇게 일어 죽으려고 계속 미끄러지기를 하고 있다"고

없는 높속에 온몸이 빠져 있었고 해는 한참 저물어 있었다. 그런 나에게 왜 건축을 했냐고 물지 않고 왜 건축을 하냐고 물으면 그 질문의 현재성 때문에 정확히 대답할 말이 없다.

지금 건축을 하는 이유는 분명 이때까지 건축을 해 왔기 때문이고 앞으로 계속 건축을 하는, 아니 해야하는 이유는 높속에 빠져있어 달리 할 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높속에는 건져먹을 뺑부스러기들이 조금은 남아있어 당분간 죽어죽을 걱정은 없다.

사실 왜 건축을 하느냐는 식의 질문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화두이다. 그러면 그 질문은 자신속에 포장되어 있던 위선적인 건축가의 모습을 여지없이 부숴 뜨릴 것이다.

그것은 남에게 함부로 던질 질문이 못된다. 그 질문이 담고 있는 절망감은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할만큼 무겁기 때문이다.

자신의 건축에 대한 생각과 이상을 전개하기 위한 '여는 말' 쯤으로 그 질문을 시작했다면 그 사람의 건축철학은 물어볼 필요조차 없다. 그는 분명 왜 건축을 하는지에 대해 말로 풀어 떠들만한 깊이의 사고 밖에는 가지지 못했을 테니까.

사실 왜 건축을 하느냐하면 아니, 정확히 왜 건축 비슷한 것을 하느냐하면 진짜 건축을 하기 위해서이다.

## 미·묘·러·지·기

건축을 향해 기어올라갈 때마다 미끄러지는 나 자신의 무능과 무력함에 대한 절망.

치유할 수 없는 절망은 높과 뺑부스러기 등의 외부적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 도사리고 있다.

건축을 왜 하느냐고 쉽게 묻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축은 어느 정도의 높이에 있을까?

눈높이 쯤, 허리높이, 혹은 발 밑에?

건축을 한손으로 붙잡고 막 휘둘러 사회와 도시에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건축위에 올라타서는 이리저리 뛰어다녀 부자도 되고, 책도 내고, 스타도 되고—

나에게 그렇게 높은 존재로 군림하는 건축과 그들이 아는 건축은 같은 건축일까?

어차피 종교의 가장 큰 이상적 주제와 유행가의 주제도 '사랑'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존재한다.

중심성이 상실된 세계, 고귀함·우아함의 통념이 깨진 세계, 진짜와 가짜가 비빔밥처럼 뒤범벅되어 있는 세계에서 건축은 어떤 형식으로 어떤 높이로 존재하는 것인가? 실제로 존재는 하는 것일까?

만일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럽게 오염된 이 바닥에서 건축은 이미 사라져 버린다면 왜 건축을 하느냐는 질문은 얼마나 코미디이며 나의 오르려는 몸짓은 또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진지한 질문과 진지한 몸짓이 한없이 웃기는 것으로 변한 사회.

## 키·치

건축에도 키치가 난무한다.

건설적인 아방가르드는 어느덧 사라지고 표피에 달라붙으면 모습 바꾸기를 계속하는 키치.

듣기싫은 유행가를 계속 들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안에서 중얼거리게 되듯 그리는 선 속에서 언뜻언뜻 그 모습을 들어내는 수많은 건축적 키치들.

예술형식이 감각적 물성 혹은 물신성을 그 존재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표피적 변화에 어느 부분 민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건축에는 삶·희망의 베키기가 아닌, 죽음·절망의 베키기가 스며들고 있다.

그렇게 건축이 질식해가고 수없는 유사건축이 생성되기에 오히려 건축을 휘두르고, 올라타기가 훨씬 쉬워졌고 정말 아무나 건축을 껌 씹어대듯 씹고 또 뱉어 내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아픔과 절망감을 알지조차 못하는, 건축을 출세의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뜨내기 아류들이 자신의 편협하고 납작한 건축관을 순수함으로 가장하기 위해 그렇게 쉽게 왜 건축을 하느냐고 물을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왜 건축을 하느냐고 다시 물을 자신이 있다면 다시 물어 보아라.

그렇다면 그 단순하고 용감한 질문에 돈키호테 같은 답을 할 수 밖에 없다.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고고하게 산위에서 얼어 죽으려고 건축을 한다."

그렇게 얼어 죽으려고 계속 미끄러지기를 하고 있다"고.

# 건축제도의 정상화 방향

Normalization of The Architectural System

박순종 / 건축사사무소 예지  
by Park Soon-Chong

모든 것의 해결점은 원리원칙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세금을 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현장조사검사업무를 직접수행하거나 이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정당한 수수료를 주고 용역을 시켜야 한다. 설계, 감리자는 설계, 감리비를 준 건축주를 위하여 설계도 잘하고 현장에 나가 설계의 이치, 공법의 이치를 설명 지도하는 감리일을 잘하여야 하며, 건축감독은 감독비를 준 건축주를 위하여 자재와 기능인력에 관하여 시공자를 감독하고, 시공자는 공사비를 준 건축주를 위하여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 낼때에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 건축사 협회가 이러한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는 건축제도 개혁을 하지 않으면 후세의 건축사들에게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 건축제도를 순리대로 되돌려야 한다.

중학교 사회교과서를 보면 현대국가론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하기위함이라고 적혀 있다.

우리나라 헌법도 이를 기본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축법에서도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 현장조사, 착공검사, 중간검사, 건물사용검사업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러한 공적이고 막중한 “건축현장조사검사” 업무를 중소규모 건물에 한하여 개인 사업자인 당해 설계, 감리건축사에게 용역계약도 없이 무보수 강제로 잘못 대행시키고 있다.

설계, 감리건축사는 예술작품도 추구하지만 우선적으로 개인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자이기에 이러한 공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데는 적합치 않으며 커다란 부작용이 따르게 된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과 경쟁이 있듯이 치열한 업무주 경쟁을 하는 건축사들은 경쟁적으로 건축주에게 건축허가를 잘 받아주고 건물 사용검사도 잘 받아주어야 계속 설계일을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품, 용역에는 대가가 있는것이 세상 이치인데 이미 건축주로부터 설계, 감리비를 받은 설계, 감리 건축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무보수 강제로 건축주의 위법을 조사검사하라 하고 또한 감리를 잘못 하였다 하여 처벌한다고 해서 위법부실건축물이 없어질 리가 없는 것이다.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대로 한다면

첫째,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민의 세금을 받고 건축현장조사검사업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둘째, 설계, 감리건축사는 건축주의 설계, 감리비를 받고 건축주를 위하여 설계를 하고 글자 그대로 건축의 이치를 따져 보아주는 감리를 하며, 셋째, 건축감독은 건축주의 감독비를 받고 자재 기능인력에 관하여 시공자를 감독하고, 넷째, 시공자는 건축주의 공사비를 받고 성의를 다하여 건물을 지어주는 이와같은 근본적인 원리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삼풍도 무너지고 위법부실건축물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현장조사검사업무를 당해 설계, 감리건축사에게 대행시켰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당해 건축사가 보호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금물이라 할 것이며 위법부실건축물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설계, 감리건축사가 설계, 감리비를 주는 건축주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며 건축주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이치 일 것이다. 예를 들면 건축현장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대신하여 건축주에게 무엇은 법위반이고 무엇은 안된다 라며 시정을 시켜보려고 하지만 되돌아 오는 말은 “소장님하고는 일 못 하겠습니다”.라는 말뿐이니 어찌 생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건축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도 자기건물 자기가 시공하고 감리비를 감리건축사에게 주었는데 도움은커녕 “안된다”는 소리와 감시만 당하려고 하겠는가? 불공정거래도 이와같은 불공정거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현장조사검사업무를 용역계약도 없이 설계, 감리건축사에게 대행시키는데 이는 마치 남의 손으로 코를

풀려는 것과 같아 오히려 다음과 같이 일부 행정대서적  
인 건축사에게 악용만 당하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도로여건 등으로 안되는 건축허가 받아주기, 건축허가  
전 착공 목인하기, 따라서 중간검사 시기도 넘기고 서류  
상으로만 중간검사하기, 미준공 상태에서 건물사용검사  
받아주기, 다음 설계변경을 고려하여 위법부실건물을 사용  
검사 받아주기, 정당한 수수료외의 준공비 받고 유능한  
양 떠버리기, 설계수집상과 동업하여 건축허가 남발하  
기 등으로 건축가적인 건축사의 설자리는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건축사들이 “건축현장조사  
검사” 업무를 맡없이 대행하는 이유는 위의 부작용과 같은  
눈앞의 이득 때문이며 솔직히 허가비 준공비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 편하고 행정서  
사직 건축사 돈안드는 식의 제도가 장기적으로는 모두  
를 못살게 만드는 것이며 크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런데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현장조사검사”  
업무를 당해 설계, 감리건축사에게 대행 시키는 이유는

첫째, 건축공무원이 모자란다. 둘째, 봉급체계상 고급  
기술자를 확보할 수 없다. 셋째,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와 관련된 부정으로부터 공부원을 격리시켜야 한다. 넷  
째, 예산을 절약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알고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현장조사검사업무를 당해  
건축사에게 무보수 강제로 시키고 처벌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우리나라 헌법을 찾아보면,

첫째, 헌법에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아니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건축사들은 시공자가 아님에도  
건축주+시공자 대신 위법부실공사의 책임을 지고  
숙명처럼 처벌을 감수하고 있다.

둘째, 헌법에 강제노역을 아니받을 권리가 있다. “건축  
현장조사검사” 업무를 무료로 대행시키는 것은 강제노  
역이라 할 것이다.

셋째, 헌법에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아니할 권리가  
있다. “건축현장조사검사” 조서는 아무래도 당해 건축사  
자신에게 유리하게 쓰게 되기 마련인데 나중 감사에 적  
발되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처벌을 받으니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는 결과라 할 것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설계, 감리건축사도 사람인 이상  
자기에게 유리하게 건축현장조사검사업무를 쓰도록 업  
무를 대행시키고는 다시 전시효과로 행정처벌을 하는  
사이 우리나라의 건축문화와 준법정신은 실종되고 위법  
부실건축물만 양산된다 할 것이다.

자기의 고객인 건축주의 위법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  
게 보고하지 않으면 불교지죄 아닌 불교지죄로 처벌을  
받는다. 건축사들은 헌법에 보장된 인권조차 포기하며  
얻은 것은 영세한 사무소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며  
2등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감리를 잘못 하였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어야 함  
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리건축사를 배임죄로 다스  
리지 못하는 것은 감리비를 준적이 없기에 배임죄가 성

립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감리 잘못하였다고 말  
할 사람은 건축주 밖에 없다.

감리, 감독, 건축현장조사검사업무를 모두 감리라고  
부르며 모든 책임을 감리건축사에게 지우는 제도는 국  
가적으로도 득 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감리, 감독, 건축  
현장조사검사의 정의와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건축물은 필수적으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여 완성  
되는 것으로 설계나 공사를 잘못하면 처벌을 받아 당연  
하지만 감리는 시공행위도 아니고 필수가 아닌 선택행  
위임에도 감리가 모든 책임인 양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  
잘못된 일이다. 건축주+시공자는 대신 벌을 받아 주는  
사람이 있으니 마음대로 위법부실공사를 한다 할것이  
다. 마치 범법자 대신 변호사를 처벌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설계, 감리건축사는 건축에 있어서 최고의 건축기술을  
비탕으로 창조적인 예술작업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  
다.

이렇게 창조적인 작업에 끊임없이 몰두하여야 하는 건  
축가적인 건축사가 하급건축기술자도 충분히 할 수 있  
는 자재, 기능인력에 관하여 시공자를 감독하는 일에 수  
시, 상주, 책임감리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시장, 군수, 구  
청장의 건축현장조사검사업무를 대행한다는 것은 국가  
적인 두뇌의 손실이라 할 것이다.

“감리는” 글자그대로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받고 건  
축의 이치를 설명하는 행위이며,

“감독은” 건축주로부터 감독비를 받고 건축주를 위하  
여 시공자의 자재 인력 공법을 감시감독하고 건축주가  
시공자인 경우 감독은 필요없으며,

“건축현장조사검사업무”는 국민의 세금을 받고 건축  
법의 목적인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공인이 건축물  
을 조사 검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의 해결점은 원리원칙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세금을 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현장조사검사업무를 직접수행하  
거나 이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정당한 수수료를 주  
고 용역을 시켜야 한다.

설계, 감리자는 설계, 감리비를 준 건축주를 위하여 설  
계도 잘하고 현장에 나가 설계의 이치, 공법의 이치를  
설명 지도하는 감리일을 잘하여야 하며,

건축감독은 감독비를 준 건축주를 위하여 자재와 기능  
인력에 관하여 시공자를 감독하고,

시공자는 공사비를 준 건축주를 위하여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 낼 때에 좋은 사회가 될것이다.

우리 건축사협회가 이러한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는 건  
축제도개혁을 하지 않으면 후세의 건축사들에게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프로젝트 만남**

92년 10월 중순쯤 우연한 기회에 건축주가 주도하는 문화재단에 인천출신 문화예술인들 자문회의를 가질 기회가 있었다.

-내가 그곳에 왜 있어야 했는가는 자금도 의문이지만 대부분 어쭙잖은 표정과 모습들, 각 장르별 특성 만큼이나 또 명확하게 모인 목적과 방향이 불분명 해서 각기 평소의 넋두리 같은 얘기만 오간 것 같다.

그후 한달 후 느닷없이 건축주로부터 자문을 받을 일이 있다고 방문해 줄 것을 연락 받았다. 얘기인즉 비교적 공기가 좋고 조용한 곳에 살집을 지을 계획이라며 내놓은 몇장의 청사진을 보게 됐다. 얼핏 보기에도 그 계획안은 대지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건축주의 살아온 연륜이나 생활습성을 담을 수 없는 것 같아 보여, 넘자시 몇마디 조언(?)

해준 덕에 그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하고 짧은 기간에 설계할 기회가 주어졌다.

**옥련동 다천장**

Ongnyeon-dong Dhachun Residence

**송광섭 / 종합건축사사무소 흰  
by Song Kwang-S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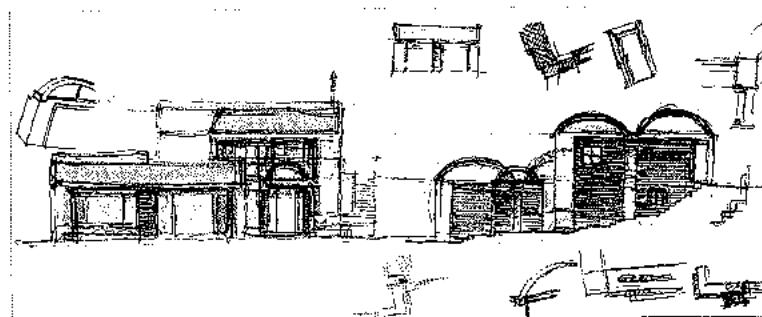
**장소와 며무는 생각들**

-건축주 입장에서는 설계와 집 짓기는 나름대로의 급한 사정이 있었다. 하지만, 설계와 시공의 완성도가 있으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한편으론 내 어릴 때 자주 가 보았던 그곳의 석양 노을을 떠올리고, 늘 회색빛인 바다와 갯벌, 스잔하게 부는 솔숲을 기억해 내었다.

아무튼 인천에서 제일 풍경이 좋다는 송도는 어쩌다가 이유모를 집들과 단세포적인 음식점과 환락의 타운으로 변하고 있었고, 어느곳이든 도시와 환경이 너무나 쉽게 황폐화하는 현실을 짜증스럽게 지켜보면서, 자신의 작업도 자책하며 자괴감에 빠진다.

-그런데도 또 그 갯벌을 매꿔서 신시가지를 조성한다고 한다.- (또다시 추악한 도시가 또하나 생길텐데 말이다.)

이런 저런 생각중에도 그 좋던 풍광을 되살리고, 조금이라도 장소가



회복될 수 있는 집이 지어지면 좋겠다는 생각과 노을진 바다와 바람, 무채색 갯벌의 반짝임, 뒷편에 있는 청량 산을 배경으로 흘러내린 작은 능선과 그 너머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초가 마을이 자꾸만 어른거렸다.

아무튼 이 해거름지는 언덕배기에서 노을진 바다와 맞닿은 하늘을 안아 올릴 수 있고, 옛 풍광과 기억을 어떤 장치와 틀로 되돌리는 작업을 해야하는 일이었다.

갯벌에 밀려오는 파도와 산세의 흐름이 만나는 이곳을 어떻게 정착시켜야 하고 정박해야 하는가? 그 아스라하게, 마음속에 새겨진 아름답던 장소성을 어떻게 회복 할 수 있을까?

무슨 거창하게 건축적 사유가 어쩌고, 자기 혼란에 빠진 단어의 나열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정제되지도 될것도 같지 않은 건축적 사고와 이회가 무능해진 자신에게 혼란스러움만 가중시킨다.

아무튼 무심하게 존재하고 주변에 뛰지않는 집이면… -(건축주의 의견도 크게 보이지 않은 집, 남의 화제꺼리가 안되는 집이었으면 하는 생각과 바람이었다.)-

구체적으로 터 경계에 자리잡고 있는 잘 생긴 소나무를 살려내는 일, 앞뒤도로의 차가 9m나 되는 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도시설계에 이리저리 질려 나가고, 잘 이해되지 않는 법규적용, 건축주의 전통 차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 옛 살던 시골집 정취와 그가 살았던 소중한 기억을 담아 내는일 등등…

### 작업의 가정과 전제

◇ 대문과 현관은 남향과 동향으로 배치하여 陽의 기운을 갖도록 하자.

- (그러나 4, 5m의 레벨차를 극복하며 올라가는 부담이 있다.)-

◇ 앞 뒤 도로에서 모두 1층집 같이 보이도록하여 시각적 부담을 없애자.

◇ 평면 형식은 전통가옥에서 보이는 “ㅁ”자 형태로 하고, 가운데 비워놓는 마당을 만들자.

마당은 모든방에서 보고 느끼고 채울 수 있는 빈 마당으로, 계절적 변화와 느낌, 햇빛과 달빛이 차 있으면 어떨까?

◇ 터 경계에 있는 잘생긴 소나무 밑은 후정을 만들고 화계를 쌓아 목단을 심고, 그 후정은 식당과 연계되어 야외 식생활을 할 수 있고, 바닥은 돌과 돌 사이, 사이에 잔디가 살아나게 하자.

◇ 전통다실은 현관옆에서 만나 손님방과 같은 사랑채 역할도 하고, 그 방은 좌식생활의 시각적 즐거움을 갖게 하는 장치를 하자.

◇ 지붕의 형태는 박공보다는 파도같이 둑근지붕이 중첩되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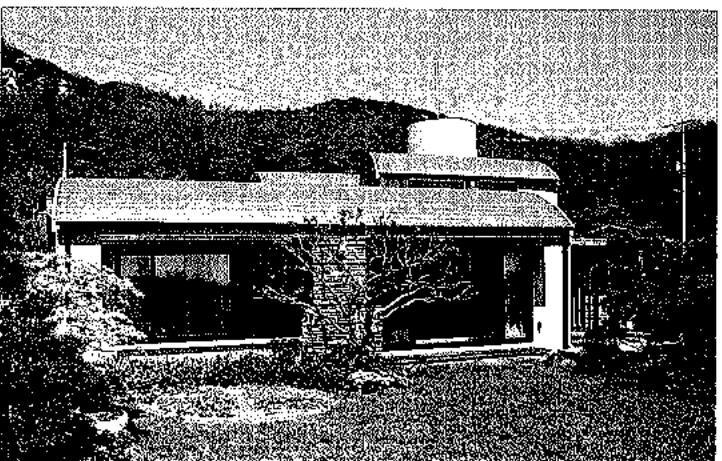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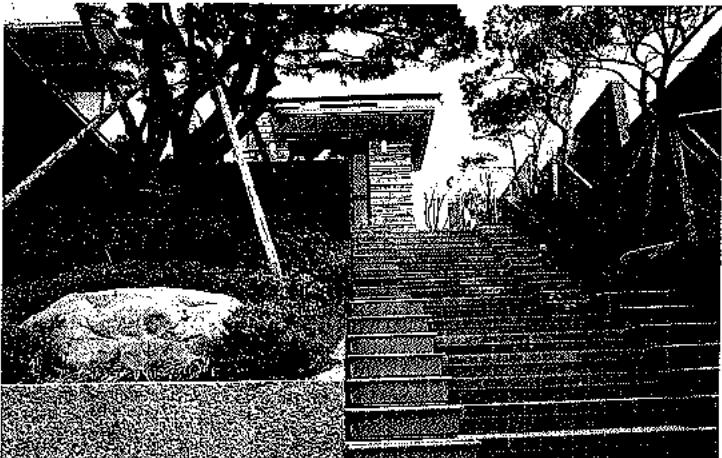
지붕이 반복되는 리듬과 비례가 좋다면 기하학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둑근지붕의 반복은 방배동 빌라에서 시도해 보았던 경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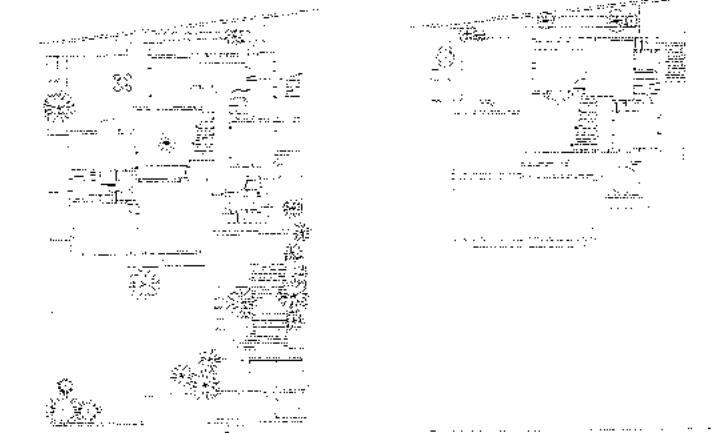
그렇다면, 그 계단은 넓고 시각적 부담이 없이 오르내리는 기쁨으로 치환시키고 그 주변을 숲숲으로 만들고, 그 밑으로 통과하게하면 어떨까?

그나무 밑은 산나리, 돌단풍, 전달래가 피는 비탈진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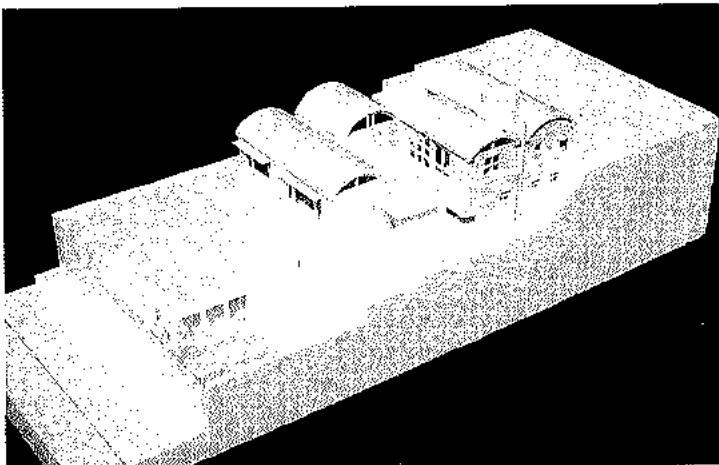
배치도





1층평면도

2층평면도



덕으로 만들면 어떨까?

- (실제 조경 과정에서 그 잔잔한 생각은 소멸되고 말았다.)-

외벽은 수수하고 처바른 느낌이 없게 드라이비트 같은 걸로 마감하고, -(현데 너무 가볍지 않을까?) - 일부 벽면은 논현빌라에서 시도했던 제주석을 일부 쌓고 수평 줄눈이 도드라지게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다. 등등…

- 저기 서쪽 한편에 아일훈씨가 설계한 붉은 색조의 금속 지붕이 있는 운율체가 보인다.-

이러 저러한 생각들, 부스러기 같은 주설거림을 어떤 틀에 끌까?

내문에서 뒷문까지 레벨차를 이용하여 시작과 끝을 페는 통과 과정을 선상에 놓고 그 흐름에 이 잡다한 것들을 불러 모은다면…

### 계획안과 건축주와의 만남

4.5m를 오르는 솔숲의 넓은 계단과 현관 앞의 작은 마당에서 다실 앞 키작은 나무를 만나고 담 사이 공간으로 시선이 흐른다.

현관에 들어서면 슬쩍 뒷마루와 햇빛담간 빙 마당이 보이고, 투시도적 효과를 내는 사선진 직선계단과 완자 난간. 그 옆에 사랑방같은 다실이 매달린다.

넓고 좁아지는 계단을 오르면 아들내외의 공간과 만나게 된다.

그곳에서 한번 정체시키고, 후면 현관과 연계되어 흐름이 이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생각이 별스러운 것은 아닐테지만, 연속된 통과 여정은 시지각적 변화가 있는 길의 속성을 이야기하게 된다.

그 과정 중에 일상적인 주거생활에 필요한 방들은 빼어 있거나, 불거지고 접하게 된다. 그 통과 과정에서 중요 매개체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뭘보고, 뭘 느끼고, 뭘 얻는가 하는 것은 순전히 그들 몫이다.

아무튼 부랴부랴 평면 스케치와 스터디 모델을 가지고 미팅, - 왜 지붕이 둥글게 됐는가? 남들이 뛰랄까? 과연 긴 복도가 괜찮으나?

빈마당은 왜 필요한가? 등등… 의문과 질문들.

건축주의 취향을 은근히 부추기고, 다실생활과 그방의 성격, 코너진 맨아래 벽면의 긴장, -(이런 기법은 일본 건축에서도 더 리얼하게 보이며 잘 쓰여진다.)

그창을 통해 보이는 작은 매화나무, 오죽, 키작은 서부 해당화, 놓쪽 작은 창을 열면 산수유 나무 등의 성감을 얘기하고, 빈마당에 멋진 매화나무가 제격이라고 사기 (?) 치고, -(정말로 나중에 매화나무를 심게되었다.)-

어렵사리 그 계획안에 동의하게 만들었다.

건축주가 자란 유교적 집안 배경이 그집을 이해하는 것도 같고, 재미날 것도 같고, 하지만 여태껏 살아온 아파트 생활과 보고 들은 고정관념이 자꾸만 뒷덜미를 잡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았지만, 결정적으로 며느리의 현대적 미의식과 상상력이 그 안을 결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공사 과정과 그 뒤편의 뒷두리  
그 다음해…

2월 중순부터 공사시작-(공사준비가 불충분하여 시작부터 차질이 생겼다.)

사무실 조실장이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레벨 차에서 오는 엄청난 토량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부분적으로 진행해야 할 공사의 번거로움이 밀목을 잡고, 철근, 레미콘 파동으로 꽁꽁대고, -하지만 비교적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설계자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고, 미비된 설계 보완도 해결하며 집을 만들어 가는 성취감이 즐거웠고, 건축주의 전폭적인 믿음도 설계자와 조실장이 일에 몰두하게 하는 힘이 되었고, 흥미있게 현장을 지켜보면서 진행되는 신바람나는 작업이었다. 또 한편으로 아주 열심히 감리, 감독하는 직원이 대견해 보였다.

장마가 지나고, 그 더운 여름날이 지나면서 공기가 조금씩 늦춰졌다.

때문에 결국 불행하게도 건축주중 한분이 그 집에 입주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분 때문에 집을 마련해야 했었고, 서둘렀던 일이었다.)

한동안 죄스러운 생각이 우울하게 만들었다.-(무리하게 집을 지으면 안된다고 처음부터 설득했기에 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다.)-

어렵사리 건물이 완성되어가고, 건축주의 만족스런 농담이 오가고, 마지막주 진입부에 심을 소나무를 구하려고 서울시내 농장을 다 뒤지고, 빼나 괜찮은 나무를 발견했을 때 즐거움, 배화나무, 무화과나무, 호랑가시나무를 전라도에서 밤새 공수하던 일 등등... 즐거운 추억꺼리가 되었다.

완성후에 반추해보는 생각들-그집은 건축적 어휘가 과연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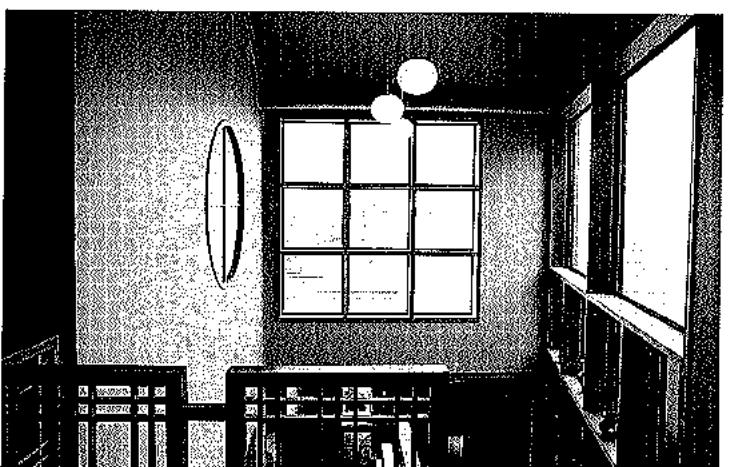
집의 완성도가 날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까? 총체적인 일에 매달려 본질적인 접근과 사고가 너무 감상적으로 흐르지는 않았나? 또한 여태 매달린 작업이 결국은 시각적으로 다행화된 평면적 체험이 아니었을까?

몇가지 주절거린 얘기는 어줍잖은 투정에 가깝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들. 그것이 진물인가(?) 건축인가(?) 하는 물음이 부끄럽게 느껴진다.

허나, 각실에서 바다의 모습은 설계시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상큼하게 기득히 담겨오는 기쁨도 맛보았고, 2층 방의 둑근 고창이 담아내는 청량산의 능선과, 어느 곳에서나 좋은 풍경을 가둬놓은 시각적 흥겨움에 그나마의 부끄러움을 털어버린다.

-한바탕 1년동안 신명나는 푸닥거리를 한 것 같은 시원함이 가득 남는다.-

그러나, 서해의 노을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름답고, 한잔 술이 아련하고, 해거름 언덕도 예전 그대로 나름이 없었다.



동측 입면도



## 한국의 건축가—정인국(2)

Korean Architect, Cheong In-Kuk  
학자 건축가 정인국

박길룡 / 국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Park Kil-Ryong

### 1. 모더니즘의 시대인

정인국이 갖는 한국 건축에서의 가치,  
이복에서의 소년기, 일본 유학기, 넓은  
합리적 사고와 깊은 정서의 세계

### 2. 학자 건축가 정인국

홍익대학교에서 건축 교육, 신건축문화연구소, 모더니즘의 시기, 강명구·  
엄덕문·김종업과의 조우, 건축가협회  
장

### 3. 정인국의 자작 중흥기

한국적 모더니즘의 변이, 제3세대, 제  
3세계 건축에 주목함, 강의실에서 만  
남, 서양건축사·근대건축론·현대건  
축론에서의 시대관

### 4. 한국성의 모색

민족박물관의 교훈, 문화재 위원, 한국  
건축 원형의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  
국목조건축양식론」

### 5. 정인국 건축의 궁극성

한국건축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 UIA  
총회, 정인국이 궁극적으로 도모하고  
자 한 것, 병환

## 모더니즘의 건축시대

광복 후 곧이어 엄습하는 정치적 혼돈과 한국동란을 겪는 50년대를 벗어나고, 수복 서울은 모든 것을 세로이 시작한다. 건축계에 있어서도 1950년대 전반의 시기가 무위의 시간이라고 하였던 바에 비해, 50년대 후반은 어느정도 문화적 비전을 찾게 된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전재의 복구사업과 도시 재건에 여유를 돌리게 되는 것이다. 물론 경제는 미국과 유엔의 원조에 절대 의존적이며, 정치 역시 순탄하지가 않아 60년대의 군사정부를 불가피하게 하지만, 문화의 인식이 어느정도 대중과 전문영역에 스미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서울은 그의 재건을 서두르며 당시의 중견 건축가들이 사무소의 개설을 서두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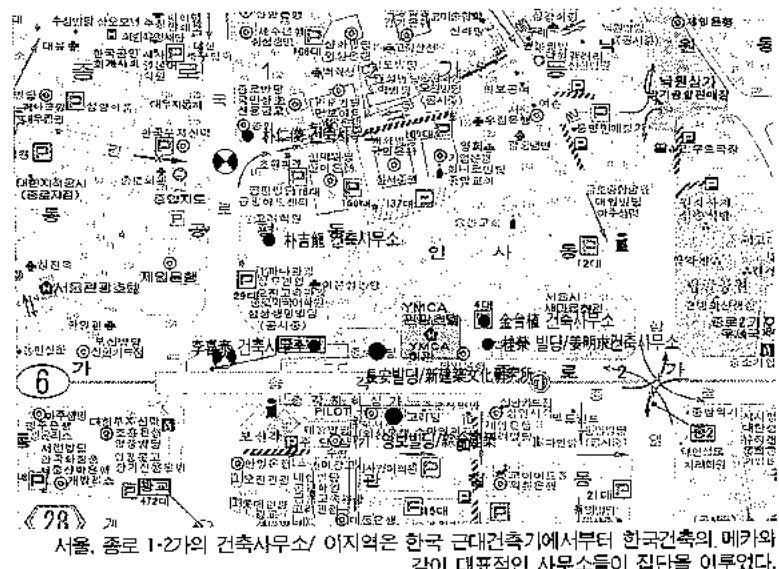
서울의 자리적 경계가 아직은 4대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였지만, 건축계의 코어를 이루는 것과 같이 건축 사무소들은 종로1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1953년에는 李天承과 金正秀에 의해, 해방후 건축사무소로서는 가장 견실한 구조로, 「종합건축」이 설립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중견 건축가들의 협동체계로서 사무소의 구성은 큰 강점을 가져 대형 프로젝트는 상당한 기간 동안 「종합건축」에 독점되다시피 하였다.

### 신건축문화 연구소

1954년에는 다른 하나의 중견건축가 그룹인 [신건축문화연구소]가 서울시 종로구 장안빌딩 3층에 설립되었다.

鄭寅國은 嚴德紋, 金熙春, 裴基塗과 함께 이 사무소 작업의 중심이 되며, 구조에는 金昌集, 咸性權과 협동하였다. 설계진은 元正洙, 李允衡, 劉熙俊, 朱京在 등으로 구성되는 집단체제이다. 소장의 명의는 정인국이 하고 있었으며, 인하공과대학 기계공학관 (1955), 공군사관학교 (1955), 홍익대학 본관 (1957), 서울 중부시장 (1958), 충주비료공장 주택 (1959), 미우만 백화점 (1959), 국립중앙관상대 (1960) 등이 이 사무소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1957년 5월 4일 장안빌딩 21개 사무실 소설되고 말았다. 그해 「신건축문화연구소」의 체계는 몇개의 개별적 조직으로 분화된다. 공동적인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며, 구성원들의 강한 개성을 정인국, 엄덕문, 김희춘, 김창집, 배기형 등은 그 이후의 개별화된 관도를 만드는 것이다.

배기형은 「構造社」로 독립하고, 험성권이 한양대학교로, 정인국, 엄덕문은 홍익대학으로 중심을 옮기게 된다.



## 건축의 사회. 교육. 예술화 활동

### 홍익대학 미술학부 건축과

1946년 국립대학으로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가 해방 후 대학 교육을 시작하였다. 한국동란 중에서는 피난 수도 부산에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수복 후 공능 캠퍼스에서 교육을 재개하였다. 1949년에 漢陽대학교 건축공학과가 인가를 받고(1942년 東亞高等工科學院 설립, 1948년 한양공과대학), 1951년 全南대학교, 1952년에는 朝鮮대학의 공학부 건축과(1946년 光州夜間大學園으로 인가)가 개편되며, 1952년에는 嶺南대학교와 忠南대학교, 1953년 釜山대학교 등에 건축과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1954년에는 홍익대학교가 건축미술과를 설립한다.

홍익대학은 처음 서양학과, 동양학과, 조각과의 미술학부로 출발한다. 홍익대학이 미술학부 안에 건축미술과를 설립하게 되는 것은 당시 홍익대학의 조각가 尹孝重 교수가 가졌던 건축예술에 대한 개념과 역할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처음 건축학과의 구성을 맡게된 엄덕문은 이미 평양대학에서 교수직의 경험이 있던 정인국을 초치하고, 미술대학의 체계에서 학과의 내용을 갖추고 교육을 시작한다. 이때까지 정인국은 대한중석 공무부 상동지사에 재직하고 있었다. 그 이듬해에는 미국에서 돌아온 강명구가 합세하고 김창집이 구조부문을 맡았다. 이즈음 정인국 교수는 홍익대학 건축학부의 교육적 개념을 크게 7가지로 정리하여 소개한다.

1. 창조하는 역군의 빌굴
2. 선진 외국의 우수한 건축과 한국 건축에 관한 세밀한 지식의 전수
3. 건축을 구성하는 기능과 조형, 기술과 표현, 전반에 걸친 훈련
4. 건축설계 과정과 의장연습을 강조하는 연마 프로그램
5. 교내전과 국제전 출품을 통한 학생 상호간의 협동과 자율 정신 배양
6. 종합예술로서 건축을 위한 자매 예술인 회화, 조각, 공예 등 타학과와의 유대
7. 도시계획과 실내외장의 이수



그리스의 역사현장에서 정인국 교수/1960



강의실에서의 정인국 교수



서울에 정착한 후 정인국교수의 가족/1965년 우이동

그는 위와 같은 건축교육의 이상을 '건축 기술보다 조형예술-새로운 공간, 새로운 이미지'라는 표제에서 전갈하고 있었다.<sup>1)</sup>

현재의 건축교육 제도와 내용은 일제의 잔재를 담습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 건축가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였다. 그는 건축이 기술로부터 왜 독립되어야 하며 조형예술로서 인식이 필요한가를 설파하였다. 그것이 보다 총체적인 학문의 뜻이기 때문에 하바드가 대학원에만 건축과정을 두는 뜻을 밝혔다. 이와 같은 교육 목표는 그 커리큘럼의 구성에서 실천의 모습을 보인다.

### 홍익대학교 建築美術學科 교과과정 (1958년 까지)<sup>2)</sup>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필수	제도	4	제도 도학 건축계획A 의장연습 형태색채학 실기	8 4 4 2 2	제도 건축계획B 의장연습 도시계획	10 2 6 2	설계제도 계획각론 의장연습 의장론	12 2 2 2
	서양건축사	4	서양건축사	4	동양건축사	2	근대건축론	2
	서양미술사	4	서양건축사연습	2				
	문화사	4						
	구조역학	4	일반구조법 건축구조학 건축개료학	4 4 4	구조역학 架構論 철근콘크리트 구조학	4 4 4	철골구조학 설비 시공학	4 4 4
	국어	6			외사강독	4		
선택과목	영어	8						
	독어	2						
	국사	4						
	철학	4						
	자연과학개론	4						
선택과목	체육	2	체육	2	일반구조 조경학 건축개료 계획원론 공예사	4 4 4 2 4	동양미술사상	2
	문화개론	2						
	의장연습	4						
	체육	2						

1) 홍대학보 /건축학부 소개 /요약

2) 한국현대건축총람/1995/한국건축가협회



1965년도 서울시문화상 시상/정교수의 뒷자리가 부인 安戴淳 여사

위의 구성 내용을 보면, 우선 1학년 신입생부터 건축의 문화적 인식을 체득케 하고자 서양미술사, 문화사, 서양건축사를 만나게 한다. 2학년부터는 이미 강도높은 디자인 과목의 이수를 기하고 있다. 서양건축사와 서양건축사연습은 일련 보자르 교육의 단면을 보이며, 의상연습 외에 형태·색채학을 독립시켜 필수로 이수하게 하였다. 상대적으로 구조 및 건축기술과목의 제한이 뒤따라나, 구조, 재료, 설비, 시공의 고른 교육체계를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또한 필수과목의 비중이 큰데 비해, 선택과목의 여유가 비교적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선택과목에서도 의장연습, 공예사, 동양미술사상을 포함시켜 당시 홍익대학의 디자인 지향의 교육개념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알게 한다.

1955년의 홍익대학 건축미술과 제1회 전시회가 주택전으로 장안빌딩에서 개최되는데 주로 소형 주택계획의 내용이었다. 이 전시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전시회로 기록된다. 매년 6월에 열리던 이 전시회는 전년도에 신입생을 받은지 1년 만만의 일로 건축학과 2학년생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정인국, 엄덕문 교수의 지도로 서 건축교육의 디자인 지향성을 당시의 건축교육계와 공공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최초의 건축전시회인 만큼 지도교수의 노력도 각별하였고, 1:5 모형을 중심으로 한 작품은 내장 목수의 협조를 받아야 할 만큼 적극적인 입체적 전시기법이었다. 미술대학 교수들도 벽화를 그려준다든지, 조각을 장식하여 주며 관심을 기울였다. 홍익대학의 교육체계 중 또 하나 특징은 그 후 설치되는 도시계획과의 연계이다. 도시계획과는 주로 朴炳柱 교수에 의해 주도되며, 羅相紀 교수가 건축과 도시의 두 영역을 잘 연계시킨다. 정인국 교수가 건축 영역에 도시를 포섭하는 것은 후배인 나상기 교수가 도시계획으로 연구를 전향하는데 영향을 주며, 그 후 그를 홍익대학의 교육·연구체계에서 연계체계가 되게 하였다.

1970년대까지 홍익대학 건축학과의 졸업전은 도시계획학과와 협동전시회의 내용을 자주 가졌다. 정인국 교수는 건축학회와는 관계가 없었는데 비해 비교적 건축

가협회에는 깊이 개입되어 간다. 그것은 아마 건축학계의 폐쇄적인 아집보다는 건축가 집단의 이기성이 더 견디기 쉬웠는지 모른다.

#### 韓國建築作家協會 창설과 건축의 예술화 운동

1957년에는 현재의 「韓國建築家協會」의 전신인 「韓國建築作家協會」가 창설된다. 창립회원은 李天承, 鄭寅國, 金熙春, 金台植, 裴基瀝, 姜明求, 嚴德敘, 金正秀, 朴學在, 金重業, 洪淳五, 羅相振, 李喜泰, 金明徽의 14명이었다. 이에 앞서 1950년에 창설된 大韓建築學會가 건축의 학술과 기술 계발의 역할이었던 데에 비해, 건축작가협회는 건축의 예술지향적 개념을 천명하는 양태를 볼 수 있다.

즉 建築人의 時代的, 社會的 共同意識의 形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국가사회를 위한 문화적 사명감과 건축인의 권익 수호를 위한 기구의 필요성이 절감되어, 時代에서 建築家의 役割과 진로의 모색, 國際交流와 時代的 想潮의 形成, 建築人相互 親睦 圖謀 가 목적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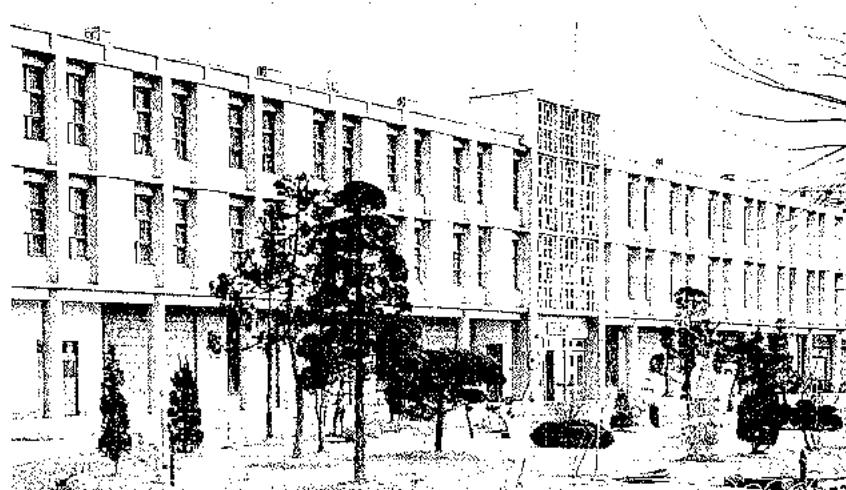
이 「韓國建築作家協會」라는 명칭은 1959년 2월 제3회 정기총회에서 「韓國建築家協會」로 개칭되는데, 이때 까지의 회장직은 李天承이 맡게 된다.

초대회장 이천승에서부터 2대 김윤기(1959-60), 3대 김재철(1960-64)에 이르며 정인국은 3대부터 부회장을 지낸다. 그로서는 1962년에서 1965년 까지의 일이다.  
3)

1962-64년 부회장이던 김희춘은 다음 4대인 1964-66년에 회장으로 추대되고, 정인국은 부회장을 연임한다. 건축가협회는 이때부터 부회장직을 지낸 사람에서 다음 대의 회장을 천거하는 것이 관례이었다. 그러나 1966년부터 정인국은 1974년에 회장으로 추대될 때 까지 약 10년간 건축가협회와 소원(疏遠)해지는 일이 생긴다. 건축가협회의 출범과 함께 건축의 예술화 기운은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건축부를 신설하는 일에서 대중적 접근을 앞당기게 되었다.

3) 한국 건축가협회 역대 회장단

대	임기	회장	부회장
1	1957-59	李天承	
2	1959-60	金九基	
3	1960-62	金在哲	
	1962-64	金在哲	鄭寅國, 金熙春
4	1964-65	金熙春	鄭寅國, 宋政求
5	1965-66	宋政求	裴基瀝, 李東衡
	1966-68	宋政求	裴基瀝, 金東珪
6	1968-70	裴基瀝	姜明求, 金重業
7	1970-72	嚴德敘	金台植, 羅相振
8	1972-74	崔昌金	金壽根, 韓鼎燮
9	1974-76	鄭寅國	韓鼎燮, 李海成
10	1976-78	金壽根	韓鼎燮, 李海成
11	1978-80	韓鼎燮	李海成, 李承雨



홍익대학교 본관/서울/1957/전체적으로 횡적인 비례 속에 현관을 중심으로 하는 대칭이 이루어진다. 다시 1층의 필로티가 깊은 흡연을 만들며, 2층 이상의 몸체를 가볍게 들어올린다.

건축의 예술자향적인 의지를 갖는 여러 건축가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전에 건축부 설립을 주장하고 주관처인 미술협회의 협조를 구하였다.<sup>4)</sup>

마침 사진도 한국미협을 통하여 국전 가입 운동을 하고 있던 때이므로 이 두 분야는 회의 때마다 경쟁하게 되었다. 사회적인 인식에서 건축이 예술로 인정받기에는 열악한 형편이었고, 예총의 회의 분위기에서도 건축은 '청부업자의 일'로 비하되는 일조차 있었다.<sup>5)</sup>

건축가협회가 결성되기 이전, 건축계의 유일한 단체인 건축학회의 분위기는 기술분야에 기울여져 있었다. 당시로서 건축은 대한미술협회의 한 분과로 가입하고 협조를 구하는 길밖에 없었다. 여기에서는 尹孝重, 金煥基의 힘입은 바가 크다.<sup>6)</sup>

그리고 이들은 홍익대학에 미술학부에 건축과를 신설하는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겪어 제4회 1955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부터 건축부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당시의 大韓美協의 임원은 위원장에 鄭相鳳, 부위원장에 李鍾禹, 金仁承이 맡았다. 상임위원은 金煥基, 李馬鉅, 李應魯, 尹孝重, 姜明求, 李大承, 李完奭, 李鳳商 등이었고, 위원으로는 朴商玉, 金景承, 李惟太, 金正炫, 千鏡子, 朴魯壽, 孫應星, 李俊, 金在奭, 嚴德紋, 朴學任, 鄭寅國이 있었다. 건축은 기술과 산업의 가치에 예술적 의미를 중첩시키는, 매우 늦었지만 쉽지 않은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大韓民國美術展覽會에 건축부가 신설되어 왔으나 官 주도의 행사이므로 건축예술의 사회화 활동에는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순수 민간단체인 건축가협회 자체의 활동을 모색하던 중 1962년 12월 건축가협회 주최로 「現代建築作家展」을 열게 되었다. 당시 김재철회장과 정인국, 김희춘부회장을 비롯한 건축인의 노력으로 회원작품부, 신인공모부, 해외작품부로 구성하였다. 이 행사는 이후 1982년도 건축가협회가 「대한민국건축대전」을 주최하며 건축대전의 초대작가부와 종복을 피하기 위하여 16회를 계속하고 중단된다. 여기에서는 매년 회원들의 작품과 함께 외국의 현대건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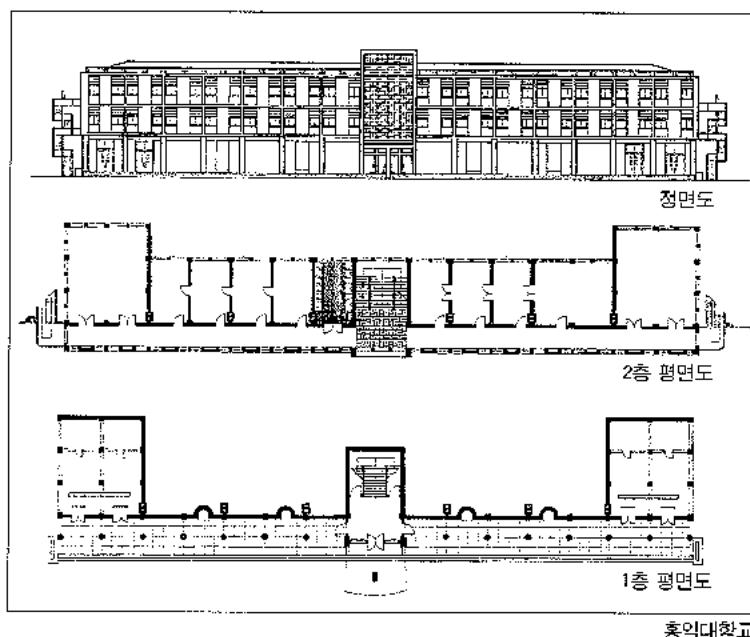
서울 수복 후 건축계의 새로운 사회정비를 기하여 정인국 교수의 사회성도 어느 정도 창착되어 갔다. 이러한 건축의 교육과 사회활동의 한편 그의 건축개념은 칠저한 합리주의를 천착(穿鑿)하고 있었다. 그러한 합리주의 사고는 최소한 60년대 초까지 한국건축 전체를 지배하는 것으로 보인다.

## 합리주의의 건축 시대

정인국은 1954년 人韓重石會社을 퇴임하고, 홍익대학 교수직으로 서울에 올라와 안착한다. 1955에는 仁荷工科大學 建設 책임을 맡으며, 仁荷工大 機械工學館(인천 /1954), 仁荷工科大學 寄宿舍(인천 /1955)를 설계한다. 인하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와 같은 교사건축은 그 기능적 속성 때문에 합리적이다. 인하공과대학 기계공학관은 알미늄 루버와 블록에 의한 그릴을 형태요소로 구사하면서 합리적인 구성 속에 절제된 수사를 유지한다. 특히 조각가 尹孝重의 브론즈 작품이 정면에 배시브한 벽면을 장식케 하는 것은 그의 건축적 정서를 크게 돋는다. 이러한 기법은 홍익대학 본관에서도 나타난다. 空軍本部廳舍(서울 /1955), 空軍士官學校(서울 /1955)는 신건축에서의 작업이 된다. 공군본부 주최로 1955년에 실시된 공군본부 청사 건축설계도안 현상은 지명현상으로서 수복 후 처음 실현을 본 현상경기이었다. 5개의 응모작품 중 김정수, 이천승(종합건축)의 안이 당선되고, 2등—정인국, 기작—엄덕문, 강명구, 이광노의 작품을 선정하였으나, 정인국, 엄덕문, 김희춘(신건축)에 의해 실시되었다. 실시된 건축은 철근콘크리트조로 3층 건물에 연 3,398평의 규모를 횡으로 확장한 합리주의의 조형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당시로서 매우 규모있고, 비중있는 작업이었다.

### 홍익대학교 본관(서울 /1957)

이 교사는 홍익대학교 초기에 건립되어 본관 및 교실 기능을 담았다. 벽색의 단아한 조형 속에 1층부에 회랑을 갖는다. 주간마다 알코브 스페이스와 벽조각을 갖는 이 회랑공간은 서향이므로 오후의 햇살을 받으면 그림자가 정적을 반든다. 전체의 평면은 중앙계단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며 편복도 형식으로 횡적 비례를 취하였다. 수평성이 필로티가 만드는 그림자의 리듬, 적절한 장식성이 유지되나 편능의 절제가 단아한 품격을 이룬다. 이 홍익대학 본관에 이르는 정인국 교수의 조형은 낭만적 기미를 내포하면서도 뚜렷한 합리주의 경향이다. 대체로 건축의 표현은 무조적이지 않으나, 매우 확실한 기능적 순응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당시로서의 구조, 재료, 그리고 건축의 기술적 한계가 기본적으로 건축성을 제한하였을 것이나, 여기에 건축적 품격을 흐트려트리지 않고 온화한 낭만성과 합리성의 의사를 궁정



4) 특히 문총 상무이사이었던 엄덕문과 강명구 등은 이 문제에 큰 접두을 보인다.

5) 특히, 고희동

6) 尹一巳 /한국현대미술사 (건축) /1978 /국립현대미술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합리주의 의사는 국립중앙관상대(서울 /1959-60) 이후 직접적인 국제주의 경향으로 이어진다. 1960년대 세계 건축의 상황은 이미 국제주의 경향에서 일탈하여 지역적 표현에 몰두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한국건축이 국제주의로부터 일탈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정인국 교수 자신이 극명하게 비평하던 상황이다. 그러나 이즈음까지 그 자신 역시 사고와 실천 간에 모순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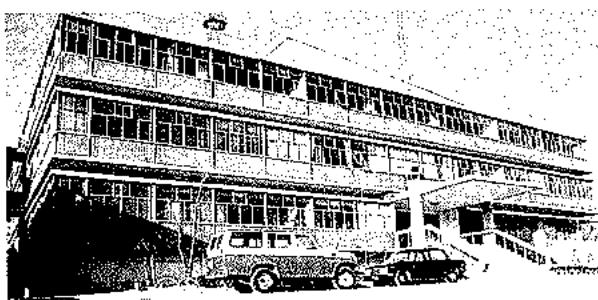
#### 국립중앙관상대 /기상청(서울 /1959-60)

60년대 초의 기능주의 건축으로서 국제주의의 스타일의 전형을 보인다. 내부 거더에서 내민 슬라브 사이에 유리와 커튼월을 삽입해 전체적으로 3층의 메스가 유리상자로 정갈하게 정리되었다. 지하층을 들어올리고 유리블럭을 써서 지하의 체광을 해결하는 전체의 경량감을 더한다. 상자과의 본체에 독립적인 전면계단과 옆의 수직 캐뉼레버 계단이 부가되는 것도 그러한 순수하고도 단순한 주체를 강조하고자 함이다. 내부 공간은 가운데가 오픈된 홀을 중심으로 4면에 기능실들을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밝고 가벼운 공간감을 얻는다.

#### 조흥은행 본점(서울 /1963-66)

조흥은행 본점(서울 /1963-66)은 이천승, 강명구, 김중업, 박춘명, 유영근의 합작이나, 정인국 교수로서는 국제주의를 정리하는 작업이 된다. 유영근씨는 건설본부를 맡고 있었으나, 나머지 5인의 건축가의 합작이라는 형식은 작가들의 이상이 합치되는 공유체로 보기 어렵다. 어떻게 보면 유명한 5인방이 어떤 뚜렷한 전략 없이 모인 모양을 보인다. 그리고 본점의 화재로 바쁜 상황에서 설계기간도 매우 촉박하였다. 이러한 작업조건에서도 유니버설하게 건축의 표현이 흐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조흥은행 본점은 다분히 레버하우스와 같은 조형이다. 다만 이 작품은 저층부의 중량감과 고층부의 경량감을 대립시키는데에서 구분된다.

당시 건축기술의 환경에서는 새로운 알미늄 커튼월이 외파에 구사되는데, 원시적인 공정으로나마 東洋鐵鋼工業주식회사가 미국 ALCOA사와의 기술제휴로 착색 알미늄 쉬트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표면처리의 기술적 어려움이 극복되지 못하여 균질한 색상을 만들지 못하였으나, 유리와 알미늄 스팬드럴의 커튼 월은 당시 광고 - 읊지로 입구 일대가 참신한 타운 스케이프를 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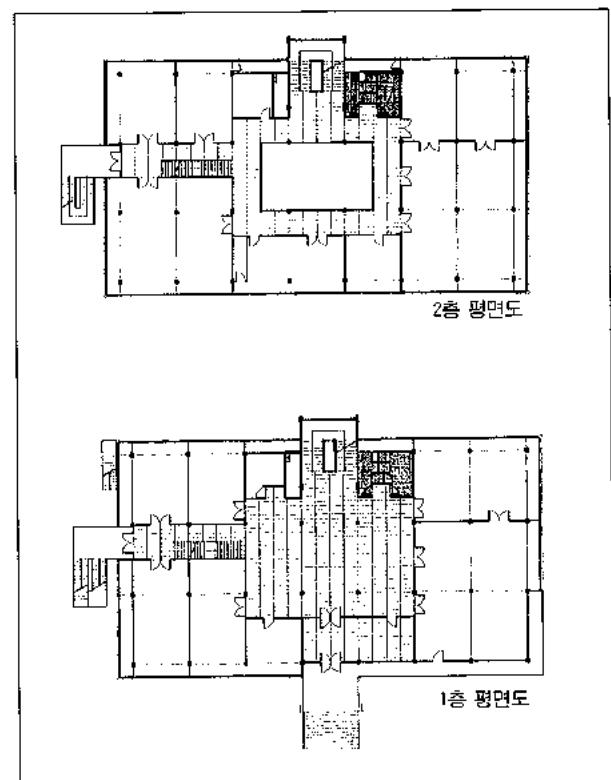
국립중앙관상대/서울/1959-60/합리주의의 조형 속에 커튼월의 단순미가 형성된다.

게 하였다. 보행자 레벨에서 시작되는 저층부의 구성이 특별하다. 이 건축은 청계천로 측의 각각에 위치하는 특성 때문에 서울 도심의 중요한 비스타가 된다. 건축의 배치는 저층부를 직교하지 않는 도로선에 따르면서 도시공간의 질서를 잡아준다. 고층부의 단조로운 메스로서 시작과는 달리 친화력 있는 요소들을 근접 시작에 마련하고 있다. 이는 가벼운 유리의 박스를 얹게되는 화강석을 주조로 한 기단의 역할과 같은 것이다. 고층부는 단순한 입방체로서 평면은 철골·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6 \times 7.2\text{m}$ 의 기둥 배치로서 당시 구조성의 한계를 보인다.

이와 같은 국제주의의 파급은, 당시의 한국건축계가 보편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일제시대 말기에 양식적 건축에서 합리주의로 전이되던 경험(상공장려관 /서울 /1929, 적십자사 경성지부 /서울 /1933, T字屋 /서울 /1937, 旭ビル딩 /서울 /1938 등)에 연속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금속제 커튼 월은 새로운 모던문화에 절대적인 수단이 되었다. 정인국은 그외에도 미우만 백화점(서울 /1959 /신건축문화연구소)을 커튼 월로 수직적 조형을 이루며, 강명구는 조적조에 목조 Joist를 쓸 때 그의 표장은 커튼 월을 구사하여 계영빌딩(서울 /1954)을 만들었다. 신신백화점(1956 /종합건축), 우남회관(1957 /종합건축), 국제극장(1957 /종합건축), 성모병원(1958 /종합건축), YMCA중앙회관(1960 /종합건축) 등은 최소한 60년대 까지 시대를 지배하던 조형 수단이었다.

1958에는 국회의사당이 남산의 이승만박사 동상 주변으로 대지가 선정되고, 현상설계가 개최되었다. 정인국은 심사를 맡았는데 여기에서 朴春鳴, 金壽根, 康炳基라는 신 일본유학파의 건축가들을 불러들이게 되는 등기가



국립중앙관상대

이루어지는 것이다.<sup>7)</sup>

그리고 분명히 이 프로젝트는 당시의 한국건축이 당면한 건축의 시대성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였다. 1960년 11월 UNESCO 「國際造形藝術協會」 국제총회(오스트리아 비엔나)에 鄭寅國, 姜明求가 화가, 조각가와 한국 대표로 참석하였다.<sup>8)</sup>

이 총회의 주제는 '建築과 美術의 復活'로서 세계 건축계와 직접 조우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회의를 마친 후 정인국과 강명구는 프랑스, 영국, 암스텔담, 이태리, 그리스, 풀루갈, 뉴욕, 하와이 등을 답파하는 40일간의 구미건축 여행을 갖는다. 이북에서 월남한 정인국으로서는 첫 歐美 建築 여행이다. 이 기회에서 정인국은 서구 건축의 정수를 목도하게 된다. 아마 서구 전통의 문화적 충격과 역동적으로 전이되어 가는 시대정신을 체험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구미 여행의 체험은 그의 「서양건축사」(교육문화사 /1967)와 「근대건축론」(문운당 /1965)의 집필과 그의 제3시기인 낭만적 모더니즘의 시기에 직접 결부된다.

1963년 3월 대한건축학회에서 강연회가 개최되는데, 여기에서 정인국은 '建築樣式 發展의 週期性에 대하여'에 관한 주제로 강연한다.<sup>9)</sup>



조흥은행 본점/서울/이천승+정인국+김종업+박준영+유영근+조흥은행신축본부/1963-66/경량의 고층부가 대립적 효과를 도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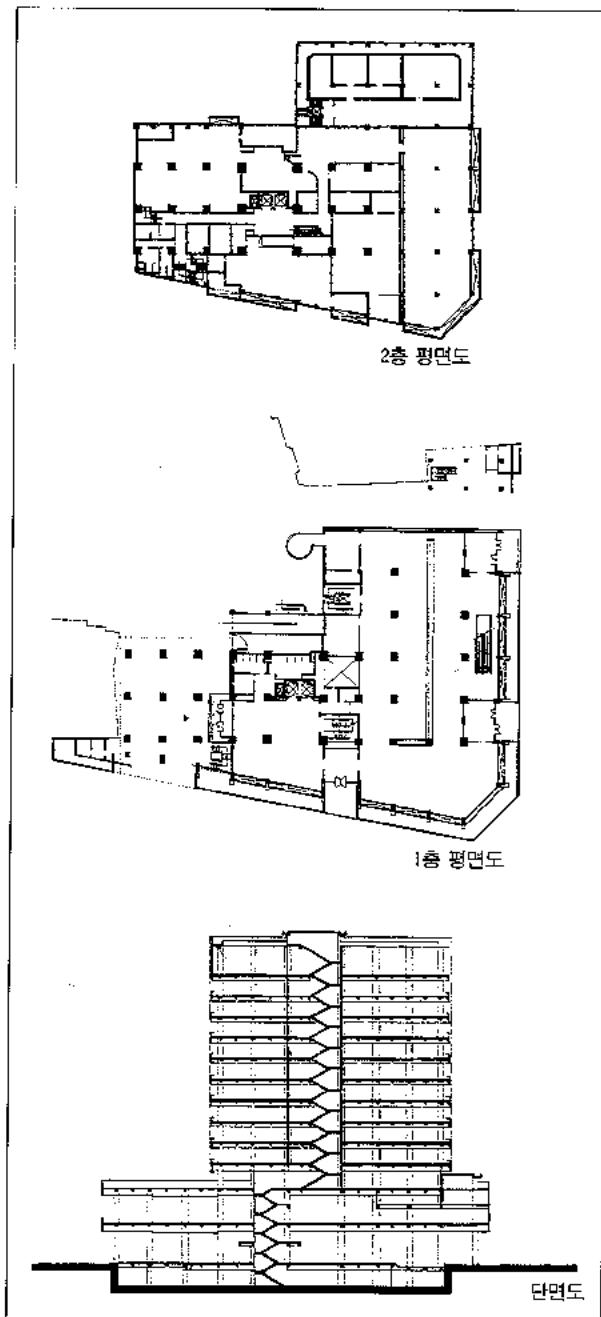
이 정인국 교수의 '건축양식의 발전의 주기성과 이원성'이라는 명제는 벨프린의 사고에의 동조로 이해된다. 그는 강의실에서 고전과 바로크의 주기적 변동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곧 자신의 낭만적 경향에 들어섰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60년대 후반까지 한국의 합리주의를 일탈하며 낭만적 기운으로 기울어져 간다. 이러한 그의 변이(變移) 상황은 다음 1970년대에서 그의 건축적 황금기로 기술하게 할 것이다.

7) 당선작 朴春鳴+金壽根+康炳基+鄭炯+鄭錦泰

심사위원 : 金允基, 李天承, 金舜河, 李榮來, 金重業, 申무성, 洪鶴義, 鄭寅國, 姜明求, 金植寅

8) 姜明求, 30년 沿革 /他文化와의 관계, [建築], 1975.8.

9) 장소: 국립과학관, 주제 '근대건축의 동향에 대하여(劉應鑑)', 'F.L.Wright의 작품과 사상에 대하여(張燮)', '건축양식 발전의 주기성에 대하여(鄭寅國)', '현대건축 소론(金正秀)'



조흥은행 본점



## 중국 건축 여행(2)

The Travel of Chinese Architecture

고건축과 조경건축을 중심으로

박재환 / 건축사사무소 드성건축  
by Park Chae-Hwan

- 1) 여행에 참여하면서
- 2) 청 황제의 휴양지 : 피서산장
- 3) 대동시와 주변의 문화재  
: 운강석굴, 구룡벽, 응현목탑
- 4) 불교성지 오대산 : 남선사,  
불광사, 현통사, 탑원사, 현  
공사
- 5) 조경건축과 정원 : 류원, 풀  
정원, 서호
- 6) 그밖의 유물과 문화재 : 황  
산, 진사, 육화탑, 쌍탑사
- 7) 여행후기

### 불교의 성지 오대산(五台山)

太原에서 북동쪽으로 240km 멀어진 중국 불교 4대 명산의 하나인 五台山은 山西省 五台縣 東北部에 위치하고 있다.

5개의 높은 산 정상(東台, 西台, 北台, 南台, 中台)이 광활하면서도 평坦하다하여 五台山으로 이름지어진 이 산은 높은 봉들이 백두산 보다도 높은 해발 3,000m의 높이에 전체 산들레가 500리에 이르는 상상으로도 짐작하기 어려운 광대한 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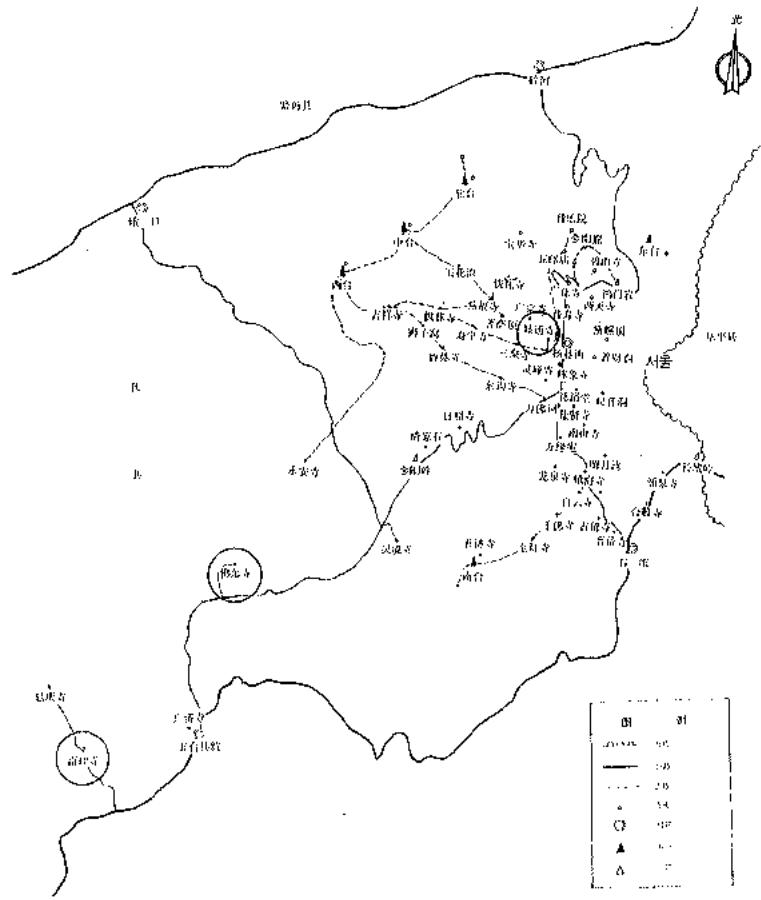
淸涼山이라고도 불리웠던 이 산은 험악한 산세를 가졌다기보다는 완만한 경사로 중첩되어 이어진 스케일이 너무나도 크며 올창한 나무숲들은 별로 없었지만 낮게깔린 잔디와 수목들로 수려한 풍경을 조성하고 있다.

聖地 五台山의 역사는 後漢시대인 永平 11년(AD 68년)에 최초로 이곳에 사찰이 건축됨을 시작으로 北齊(AD 550~577년)에는 이미 200여개의 사찰이 들어섰으며 隋, 唐兩代에는 불교가 가장 융성하였던 시대로 360여개의 寺廟가 있었는데 唐宋이래 인도, 일본, 조선, 인도네시아, 네덜 등 주변국가들로부터 많은 승려들의 왕래가 빈번하였던 곳이었다.

明代에는 티벳의 라마교가 이곳에도 전파되었기에 현재에도 라마교의 흔적을 볼 수 있다.

文殊보살이 거처한 곳으로 알려진 이 곳은 현존하는 사찰만도 47개 소가 되는 중국불교 4대 성지의 하나다.

다섯봉우리를 경계로 하여 봉우리 안쪽 부분을 台內, 바깥부분은 台外라 부르는데 台內의 중심부에 많은 寺廟들이 밀집되어 있고 台恢鎮



五台山 사묘 분포도

이라는 미율이 있다.

중국 最古의 목조 사찰인 南禪寺와 佛光寺는 台外인 南西쪽에 있고 樞處로 유명한 觀音寺, 塔院寺 등은 台內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 남선사(南禪寺)

太原에서 아침일찍(오전 7시30분경) 북쪽의 五台山을 향해 출발한 버스는 비포장된 지방도로를 부지런히 달려 약 2시간 30분만에 우선 五台山의 남서쪽 외곽지역에 있는 南禪寺를 찾을 수 있었다.

장마철이 지났지만 군데군데 퍨인 도로 때문에 일행 모두는 버스에서 내려 국도에서 벗어난 샛길의 언덕길을 약 20여분간 걸어 올라갔다.

깊은 산골은 아니지만 인가라고는 없는 언덕의 평지에 4면이 울남으로 둘러 싸인 南禪寺는 남측과 서측의 담장외곽은 아래로 높은 돌 축대가 쌓여 있는데 서쪽으로는 얕고 긴 내가 흐르는 계곡을 끼고 있고 남쪽으로는 무성한 과수림이 있다.

붉은 황토색의 칠이 오랜 세월 탓으로 뇌색하기도 하였지만 군데군데 벗겨졌고 더욱이 부분적으로는 회반죽 마감까지 떨어져 나가 풍화된 흙벽돌 벽체가 그대로 노출된 담장은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남측의 성문은 닫혀있어 바로 옆의 조그마한 열려진 샛문을 들어서니 마당을 중심으로 동측으로는 예전에는 梵房이었으나 지금은 관리인들의 숙소로 쓰이는 단층 건물이 있고 서측으로는 조그마한 중정을 중심으로 북측에 南禪寺의 正殿이 있고 正殿 앞 좌우로 동서 配殿이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고 문이 잠겼던 山門이 남쪽에 자

리잡고 있다.

5단의 계단위에 남향을 향해 배치된 正殿은 너비와 폭이 각각 3칸(11.32m×9.9m)인 작은 건물로 흙처마가 있는 팔작지붕으로 규모와 구조가 매우 단순하여서인지 날렵하면서도 소박한 인상을 갖게 한다.

唐代인 AD 782년에 重修되었다는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초로 南禪寺가 건립된 시기는 그 이전으로 볼 수 있어 이 正殿은 목조건축으로는 1200여년이 넘는 중국最古의 역사를 가진 사찰로 인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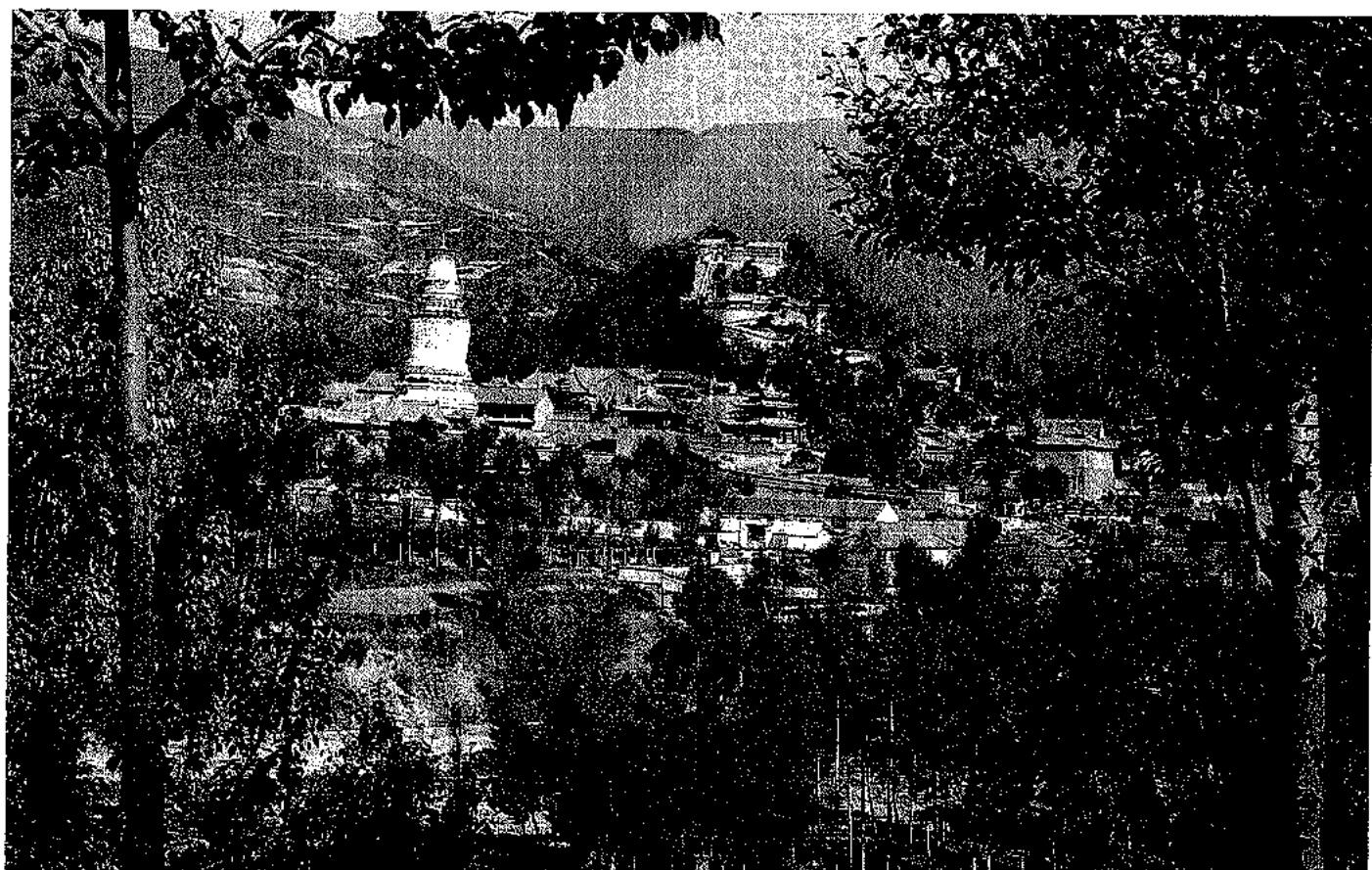
건물의 외부 4개의 모서리기둥은 상부가 건물안쪽으로 약간 기울어 세워져 있어 건물의 비례도 안정감이 있고 기둥상부의 힘차고 간결한 斗棋이나 正殿내부 천정에 노출된 보나 서까래 등의 목구조 양식은 唐代건축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특히 正殿 내부에는 布佛, 菩薩, 天王등 唐代의 塑像 여러점이 안치되어 있는데 조각품 모두가 보존상태도 양호할 뿐 아니라 몸체에 채색된 색깔도 선명하며, 모습들이 자연스럽고 얼굴표정도 풍부하여 당장이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느낌을 받았다.

위치가 외진 곳이고 규모가 작아서 찾는 이들이 거의 없어보이는 사찰이지만 1000여년이 훨씬 지난 唐代의 유물들은 고대 중국의 예술작품으로도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 토굴(土堦)

太原에서 五台山으로 향해가는 국도변에는 길 건너 양모막한 언덕밭이에 지금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 土堦들을 달리는 차안에서 종종 볼 수 있었다.



五台山 태화진

깎여진 언덕면에 벌집처럼 아취형으로 뚫려진 토굴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근래까지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

南禪寺를 둘러보고 되돌아 내려오는 참에 마침 길 건너 동쪽으로 언덕밑에 있는 토굴을 발견하게 되어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 현재 토굴에서 살고 있는 어느 할머니의 집을 내부까지 들어가 볼 수 있었다.

폭과 높이가 약 2.5m, 길이는 5~6m 정도의 토굴은 양지바른 남향이어서인지 내부가 생각보다 밝고 건조하였다.

입구가 되는 가운데 토굴을 중심으로 좌우에 위치한 토굴은 외부(남측)를 향하여 침실이 있는데 한쪽은 안쪽으로 간단한 취사도구들이 있는 주방이 방과 이어져 있고 반대편은 긴 방이 있었다.

2~4평 크기의 침실은 바닥에서 60cm정도 높여져 있고 벽면과 천정은 퇴색한 신문지로 마감되어 있고 천정의 형태는 아취형으로 외부에서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다.

약간의 살림도구들이 여기저기 놓여있고 지금은 혼자 살지만 한때는 많은 가족이 함께 살았었다는 말대로 빛 바랜 가족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다.

화장실과 농기구를 넣어두는 창고는 별도로 외부에 멀어져 협간식으로 되어있고 간단한 축사가 토굴처럼 파여 있었다.

토굴이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오히려 보온이 잘될 것 같아 보이는 공간이기에 21세기를 불과 몇년 앞둔 지금 이상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할머니야 말로 자연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자연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분이라 하겠다.

### 불광사(佛光寺)

南禪寺에서 다시 북동쪽으로 약 1시간 가량 올라가면 五台山 서남측 台外인 豆村의 산중턱에 佛光寺가 있다.

이곳도 南禪寺와 같이 외진 곳이지만 버스가 절 입구까지 돌아가며 버스에서 내리면 佛光寺라고 큼직하게 글씨가 쓰여진 障壁을 보게 되며 손질된 담장이나 자연석으로 포장된 절 입구의 도로 등은 남선사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장벽 뒤로 주출입구인 山門을 들어가면 규모가 큰 중정을 중심으로 하여 좌측으로 文殊殿이 있고 우측으로는 禪房과 관리실이 있다.

정면으로 몇단을 올라가서 후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측되는 부속건물들이 있고 이 뒤로 높은 축대를 쌓은 平台 위로 寺內의 主殿인 東大殿이 最後部의 가장 높은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

건물들은 산의 경사면을 이용한 배치로 主殿인 東大殿은 山門과 함께 동쪽에 위치하여 서향을 향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丰殿이 북쪽에 위치하여 남향을 면하는 형식을 벗어나고 있다.

東大殿은 중국내에 현존하는 最古의 규모가 큰 唐代의 목조건물로 大中 11년(AD 857년)에 건축된 것으로 南禪寺의 主殿과 함께 唐代의 오래된 목조사찰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정면 7칸 축면 4칸(34m×11.66m)의 大殿은 기둥 높이와 기둥간격이 거의 정방형에 가까워 건물이 매우 안정된 비례감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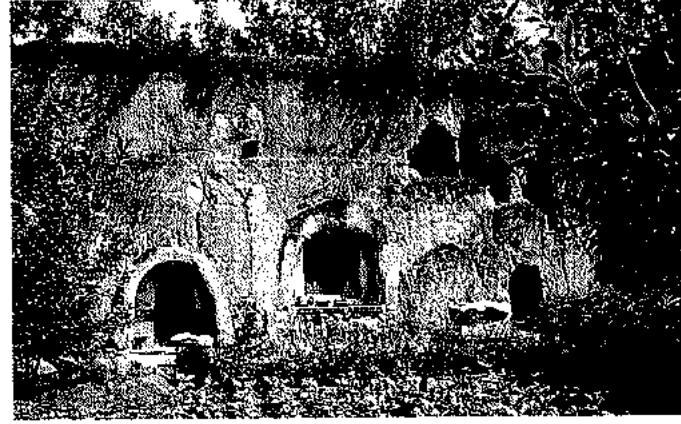
남선사 외관



남선사 正殿 내부



남선사 正殿



토굴주거

지붕처마밑의 包作들은 南禪寺의 斗棋들과는 달리 복잡하면서도 크고 힘차며 깊은 치마의 내밈은 장대한 包作에 의해 받쳐짐으로써 한층 두드러지며 지붕의 웅장함과 강렬함을 느끼게 한다.

大殿 내부 천정은 가운데의 우물천정을 중심으로 주위는 儒心斗棋으로 지지되어 있고 홀 내부에는 唐, 宋, 明代의 壁畫들을 배경으로 석가, 미륵, 아미타불, 문수보살상들이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안치되어 있다.

人殿 외부우측 후면에 조금 떨어져 인도풀의 刹師塔이 눈을 끌기도 하는데 大殿 앞마당에서 전방을 들러보면 가까이는 寺院의 건물 지붕들이 겹겹이 이어졌고 멀리는 3면이 퇴어진 시야로 얕으막한 들판과 연이은 산들의 경치가 평온하면서도 아름답기 이를대 없었다.

2개의 육각형 돌 비문이 서있는 중정을 앞에 두고 대문수전이 있고 그 뒤로 대웅보전과 무량전, 천발문수전이 경정들을 사이에 두고 연이어 배치되어 있고 좌우측에 前殿들이 나란히 마주보고 서 있다.

그리고 銅殿(만불전)과 장경전이 부속건물들과 함께 계단식 축대 위에 총총이 자리잡고 있다.

현통사에게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무량전과 銅殿이라 하겠다.

無量殿 또는 無梁殿으로도 불리우는 이 건물은 明代에 건축된 것으로 1, 2층이 아치형태의 문과 창문으로 구성된 중층의 팔작집으로 목조의 일반건물들인 것과는 달리 조적조의 구조지만 처마 부분의 정교한 斗棋은 목조 이상으로 섬세한 모습을 하고 있다.

殿內에는 거대한 불상이 중앙에 있고 특히 좌측으로는 5.7m 높이의 화엄경탑이 눈길을 끈다. 이 탑에는 청대

에 12년간의 기간이 걸려 제작한 80권 분량의 60여만 글자에 이르는 경전이 새겨져 있다.

무량전 뒤로 3단 높이의 축대에 매단마다 수평으로 긴 건물들이 있는데 첫단 중앙부분에 이 절의 명물인 청동으로 주조한 銅殿과 銅塔이 있다.

明代에 건축된 이 銅殿은 중층 팔작집의 형태로서 4.7m×4.5m 크기로 규모는 작지만 청동으로 일체를 주조하였으며 10반근의 銅이 소요되었다 한다.

창문과 문에는 각종 꽃무늬와 짐승들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고 殿内部에는 사자를 올라탄 문수보살의 동상이 있고 특히 벽면에는 萬尊佛이라 불리우는 조그마한 부처가 벽면 가득히 조각되어 있는데 헛빛의 반사로 신비스럽고 영롱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銅殿 외부 좌우로 明代에 함께 주조된 8각형의 13층 銅塔이 세워져 있는데 각기 다른 형태지만 塔身에는 전면에 걸쳐 수 많은 佛像들이 정교하면서도 빼빼하게 조각되어 있어 당시 청동 주조 기술의 높은 수준과 예술성을 볼 수 있으며 불교가 융성했던 사회상을 상상할 수 있었다.

#### 현통사(懸通寺)

佛光寺를 둘러보고 굽이굽이 높은 산중턱의 포장된 도로를 따라 五台山 台內의 중심지라 할수있는 태화진이 가까워 질수록 산 여기 저기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寺廟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늦은 점심을 먹고 휴식도 없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이 五台山 五代禪處의 하나인 懸通寺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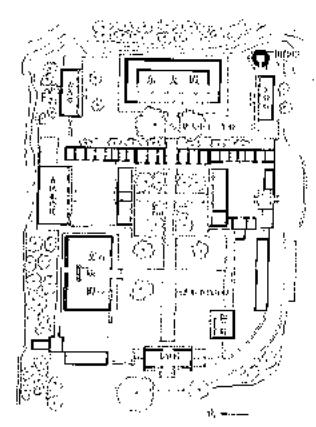
너무나 많은 寺廟들이 주위에 연이어 산재하여 있어



불광사 장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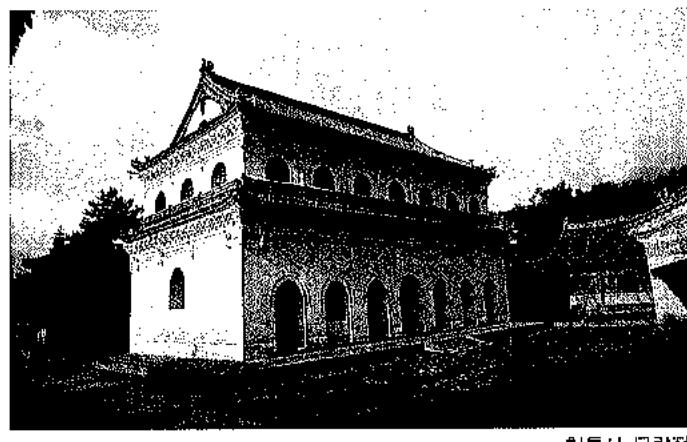
현통사 銅殿 외관



불광사 배치도



불광사 동대전 전경



현통사 무왕전

어느 절이 어느 절인지 쉽게 구분할 수도 없었지만 휴일인 일요일이고 마침 국제적 모임이 있는 행사기간이어서 선지 거리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넘쳐 훌렸고 길양쪽에 줄이어있는 상점과 길가에 좌판을 깔아놓고 호객행위를 하는 상인들의 악자지껄 떠드는 소리들로 도대체 정신을 차릴수가 없었다.

건립초기에는 五台山 최대의 사찰이기도 했던 현통사는 後漢시대에 최초로 건축되고 後魏孝文帝때 재건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12개의 큰 정원을 가지고 있어 花園寺로도 불려졌으며 唐太宗때 重修되어 大화암사로 개칭이 되었다가 明나라때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重建됨을 계기로 현통사로 바뀌었다 한다.

길가의 상점이 끝나는 막다른 곳에 지붕기와 사이로 풀이 듬성듬성 자란 3층 누각을 가진 종루의 이취문을 통과하여 우측으로 90°꺾여 들어가면 조그마한 마당이 나오며 이곳을 지나 절의 동측에 위치한 산문을 지나면서 경내로 들어가게 된다.

#### 탑원사(塔院寺)

현통사와 바로 이웃하여 남측에 위치한 이 절은 원래는 현재의 현통사와 하나의 사찰이었으나 隋後代에 분리가 되면서 탑원사로 불리웠다.

寺內의 중앙에는 탑신이 높고 웅장하며 순백색의 흰 탑이 서있는데 이 백탑은 주변의 많은 사찰과 환경속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서 우뚝 솟아있기에 이 불교 성지에서는 Landmark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의 아소카 왕에 의해 최초로 건립되었으며 현존하는 탑의 형태는 明代(AD 1573~1620년)에 重修된 것

으로 석가모니의 사리를 보관한 중국내 19개의 사리탑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탑의 기단은 정방형으로 주변의 길이가 83.3m나 되며 등근 몸체가 3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인도풍의 이 탑은 높이가 50m나 되기에 가까이 접근하여서는 스케일을 느낄 수 없다.

탑의 상부 5m 부분은 청동으로 중층의 구형이 올라가 있고 바로 밑으로는 직경이 8m가 되는 원형의 평판이 둘러 있는데 그 가장자리에는 200여개의 銅鐘이 매달려 있어 바람결에 따라 은은하면서도 아름다운 풍경소리를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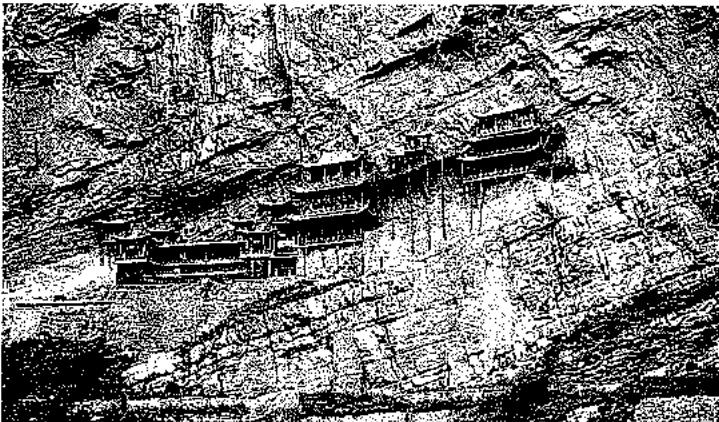
寺內에는 백탑을 중심으로 대웅보전이 전면에 있고 대장경각이 후면에 위치하고 있다.

백탑 후면에 위치한 2층 건물인 대장경각에는 회전이 되는 높이가 12m인 8각형의 33층 목각탑이 선반처럼 층층이 구성되어 있는데 매층마다 조그마한 불상과 불경들이 놓여 있고 漢, 鴻고, 티베트어로 쓰인 2만권의 경전이 서가에 촘촘이 쌓여 있다.

마침 山門 뒤 중정에서 부자가 함께 수 없이 옆드려 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의 자비가 충만히 내리기를 나 자신 기도해 본다.

#### 현공사(懸空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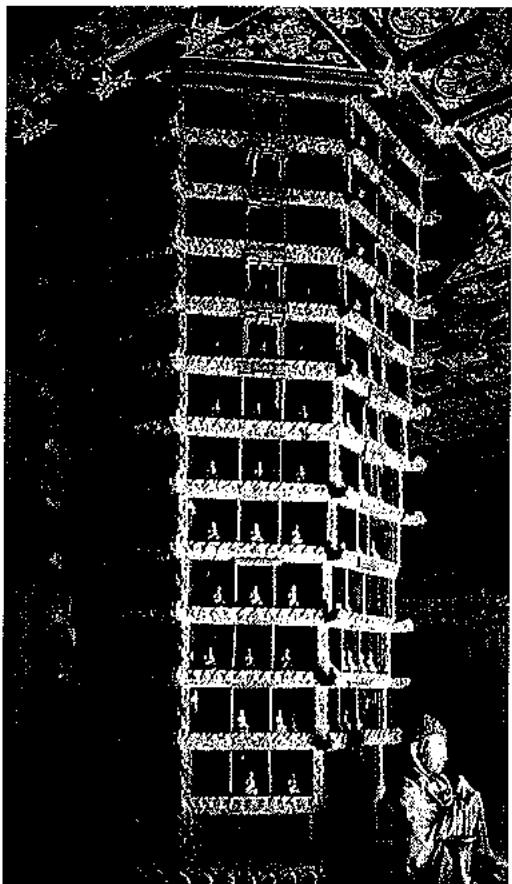
구보가 큰 사찰 하면 일반적으로 전망좋은 깊은 산골의 중턱이나 정상에 위치하며 평坦하게 조성된 대지나, 몇개의 기단으로 조성된 축대위에 건축된 것을 연상할 수 있고 건물 배치도 山門을 시작으로 대웅전에 이르기 까지 많은 건물들이 좌우대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 하겠다.



현공사 외관 사진



절하는 부자



탑원사 대장경각 내부

그러나 이 현공사는 일반적인 佛寺들이 편안한 터를 잡고 배치되어 건축된 것과는 달리 지상으로부터 70~80m나 되는 깊이지른 산 절벽의 중턱에 일부가 밭쳐 있고 일부는 매달리어 무리를 이루어 절벽에 붙어있는데 멀리서 절을 처음 관망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탄과 흥분감을 갖게 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1400여년전인 北魏 後期시대에 최초로 건립되고 唐, 金, 明, 清代에 이어서 重修된 이 절은 중국 5대 名川의 하나로 北岳이라 불리우는 山西省 恒山의 金龍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明代의 대 여행가인 徐霞客이 “天下 제일의 壮觀”이라 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이 절은 山門에서 五佛殿까지 16개의 용도를 갖는 작은 건물들이 1층 또는 3층의 중첩된 누각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건물은 높은 돌 축대위에, 또는 바위에 수직으로 지지된 옛가락같이 가느다른 통나무 기둥위에, 그런가 하면 바위벽을 수평으로 뚫고 캔티레바 구조로 뻗어 나온 보위에 얹혀 있는 건물들은 거의가 1면은 절벽의 바위면에 가려있고 3면이 돌출된 화랑으로 둘려 쌓여 있다.

전체 규모가 40칸 정도인 이 절에는 銅製, 鐵製, 泥塑, 石彫 등으로 제작된 80 여점의 神, 佛像들이 안치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건물작성에서 가장끌으로 최상층에 위치한 三教殿에는 석가모니, 노자, 공자의 各像이 1개의 실에 함께 안치되어 있는데 불교, 도교, 유교의 始祖가同一한 한 장소에 모셔있는 것은 중국에서도 드문 일이라 한다.

건물 아래 윗층을 연결하는 좁고 가파른 판자계단, 누각아래로 돌출된 발코니, 엉성하게 목재로 설치된 구멍뚫린 낮은 난간, 한 사람이 겨우 빠져 나갈 수 있는 미로 같은 연결 통로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긴장감과 공포심을 갖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 하중에 못이겨 난간이 부서지거나 않나 하는 두려움과 위를 올려다 보면 절벽의 돌들이 무너져내리면 이 절과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도 관광객으로 법석되는 절들을 분주하게 이구석 저구석 살펴보았다.

절의 건축양식이나 구조적 해석방법, 또는 예술적 가치를 떠나서도 왜 하필이면 이와같은 위치에 이 절을 지었는지 그 이유를 헤아려 보지만 쉽게 해답이 얻어지지 않는다.

1400 여년전 이 절벽에 절을 세운 중국인들의 모험심과 대담성은 어쩌면 이 절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승려나 이곳을 방문하는 佛者들로 하여금 현세를 초월한 시간과 공간에서의 삶을 느끼게 하려는 배려가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절벽 아래로는 진입하는 길을 사이에 두고 넓은 호수가 있는데 수면이 낮아 볼품이 없는 상태였지만 恒山의 상부에 설치된 계곡의 수문을 열어 만수위가 될 때에는 호수에 가득한 물과 주변의 산과 나무 등 자연의 풍경이 낮게 깔린 구릉에 갑싸인 인공의 절 모습과 한데 어우러져 신선이 노니는 세계가 바로 이곳이라는 안내자의 설명에 수긍이 가고도 남았다.



겨울철의 현공사



현공사 부분 상세



일행사진

## 배치구도—유교적 정연성

서원의 자리는 Landscape 차원에서 어느 다른 건축보다 우수하다. 빼어난 자연의 공간은 유학적 가르침이 마음 깊숙히 자리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자리에 학문의 장이 인위적으로 마련되나 결코 기술적인 처리로만 마감되지 않고 지극히 유교적 순리에 자연이 곁들여져 조영의 규범이 탄생된다. 하나 하나 건축이 앉혀질 때 그 대지는 건물과 함께 하나의 영역을 설정해 특별한 의미를 갖고자 노력한다.

서원의 배치개념은 서원의 성립과정에서 이미 밝혔듯이 「묘(廟)」와 「학(學)」이 사회적인 필요성에 의해 합치되어 서원이 된것이기 때문에

배치의 전체 양상은 사당이 있는 「묘(廟)」의 구역과 강당(講堂)과 제실(齊室)을 갖춘 강학구역(講學區域)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 두 구역이 서원건축의 핵심(核心)을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부차적인 구역이 뒤따라 전체적으로 서원의 경역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역분화는 관학이었던 향교건축과 동일한 것으로서, 이는 서원과 향교가 같은 학교건축으로서 제향(祭享)과 강학(講學)의 기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했던 당시의

## 한국 유교건축의 재조명(6)

A Study on the Confucian Architecture in Korea

서원건축(3)

김지민 / 목포대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by Kim Chi-Min

## 1. 머리에

## 2. 향교건축

향교건축(1)

향교건축(2)

## 3. 서원건축

서원건축(1)

서원건축(2)

서원건축(3)

## 4. 재실건축

## 5. 가묘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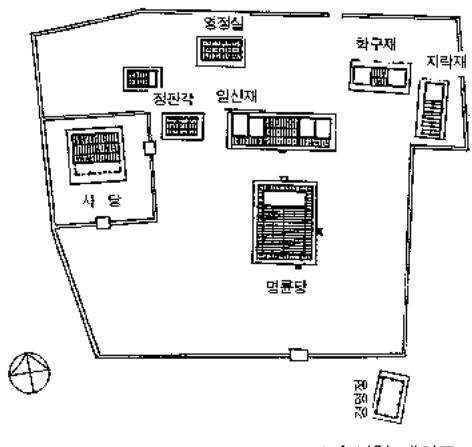
## 6. 정려건축

## 7. 맷음

사회적인 요구가 건축적으로 현상화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 부적인 조영면에 있어 서원건축은 향교건축보다 다소 자유스런 면이 있고 규칙성도 떨어진다. (축(軸)의 설정, 지형에 따른 구역설정, 건물 조합 등). 이는 서원의 본래 성립 목적이 사문(斯文)의 진흥과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지방의 사람이 중심이 되어 세운 사학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건립 시기별 뚜렷한 건물배치 및 공간구성의 변화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향교건축에 비해 서원건축은 어느 정도의 건축 변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향교가 관학인 이유도 있으나 시 종일관 유교사상에 심취된 위정자들이 건축의 주체였던 관계로 건축에 형식적인 요소가 많았던 반면에, 서원은 설립초기의 목적과는 달리 사회적인 변동으로 인하여 서원의 기능도 따라 변했기 때문에 자연히 건



도산서원 典敎院(강당). 보물 제 210호로 지정된 정면 4칸·측면 2칸의 팔작집이다. 흔하게 볼 수 없는 짹수 칸 구성이다. 전면 좌우의 동·서재와 함께 다소 균형한 선비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유학의 가르침과도 같이.



소수서원 배치도

축적인 측면에서도 그 변화가 온 것으로 생각한다.

서원건축의 기본적인 배치구도를 살펴보면 서원건축은 입지한 지형(평지, 경사지)이나 건립시기, 기타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전면에 강학구역(講學區域)을 두고 후면에 제향구역을 두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형식으로 일관되어 항상 묘구역이 후면에 위치한다. 그리고 건물의 기본배치 모습은 일정한 중심축을 설정하여 그 축선상에 전면으로부터 정문(평대문 내지 솟을삼문, 또는 누각), 강당, 내삼문, 사당 순으로 배치하였으며, 강당 전면에는 좌우 대청으로 재실을 두었다. 그리고 제기고와 장판각, 그리고 고사, 교직사 등은 관련 주건물(사당, 강당)주변에 적절히 배치하였다.

전체를 가로지르는 중심축 설정은 건축에서 강한 구심점을 갖는다. 이는 유교의 질서체계에 걸맞는 건축기법으로 보통 비중이 있는 건물을 축선상의 마지막에 두어 위계성을 상부로 높여간다. 일반적으로 경사진 산록에 자리잡은 서원의 「전학후묘(前學後廟)」 배치개념은 이러한 유교적 정연성이 잘 드러나 있는 기법이라 하겠다.

한편 서원건축의 배치기법은 향교건축과 비교될 수 있는 한가지로 큰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즉 향교건축은

평坦한 지형을 교지로 택할 경우에는 「전묘후학(前廟後學)」의 배치기법으로 향교를 조영하였으며, 경사진 지형을 택할 경우에는 그 지형을 2~3段으로 정지(整地)한 후에 서원건축과 동일한 방법의 「전묘후학(前廟後學)」의 배치형식으로 구역설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배치기법은 거의 모든 향교에서 건축의 규범으로 지켜졌는데 이는 제향공간(文廟)를 중요시한 유학자의 사고(전·후와 상·하의 개념으로 표현되는 유교적인 계층적 질서)가 건축계획에 그대로 표출된 현상이라 하겠다. 이러한 기법은 아울러 한국전통건축의 공간의 위계성(位階性)과도 일치한다.

다음으로 서원건축의 구체적인 배치 변천과정을 논하기 전에 우선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배치체계 고찰은 당시대의 역사·문화적 사실에 기초를 두고 더 가까이는 서원의 제도적 성격과 연관하여 살펴보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한 개개 건축물과 함께 전체적인 건물군의 조성시기 고증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서원건축은 중종(中宗)38년(1543년)에 시작되어 거의 서원설립이 보이지 않는 순조 전까지 불과 250여년의 짧은 역사를 지녔고 특히 고종 5년(1868)의 서원 훠철(毀撤)로 인해 전국의 6백여개 서원 중 불과 47개소만 남는 등 그 역사적인 변화폭이 커었기 때문이다. 47개 서원중에도 황해도와 평안도에 10곳이 있어 사실상 해석이 어렵고, 또한 경기도에 위치한 많은 서원들은 몇 곳을 제외하고 병화로 소실(燒失)되어 새로 이건(移建)내지는 증건된 서원으로서 원형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실제 연구의 주 대상이 되는 서원으로는 표1에서 제시한 것처럼 20여곳도 안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건축의 배치형식 및 건립시기별, 지역별 변천 사실 등을 확실히 규명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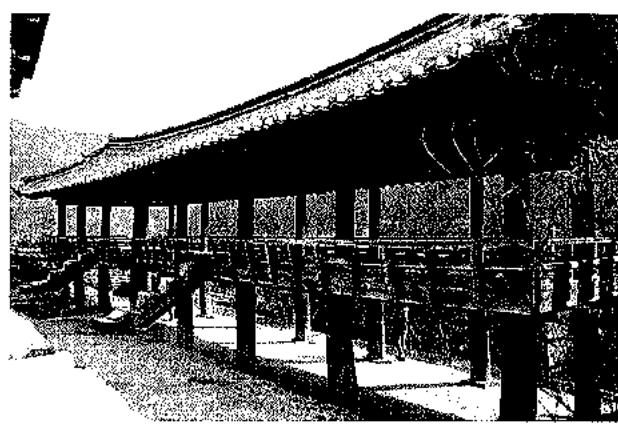
1868년 당시 훠철되었던 서원들은 현재까지도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그 수 또한 수백에 이르고 있으나 그러한 유적들을 조선시대의 서원건축으로서 연구의 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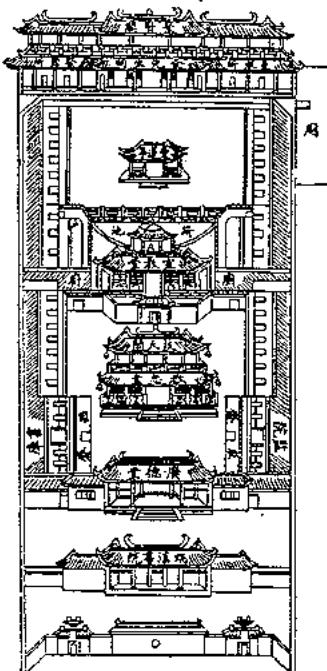


3



2

1. 李德馨 선생을 주벽으로 모시고 있는 경기도 포천의 龍淵書院 사당. 이 서원은 1691년에 창건되었고 그 이름에 賜額書院이 되었다.
2. 강학구역 한쪽 모퉁이에서 바라본 병산서원 만대루. 앙상한 뼈대같이 보이는 7칸의 이 긴 건물은 병산서원이 갖고 있는 큰 자랑이다.
3. 병산서원 전면의 아름다운 山河가 만대루 2층 마루까지 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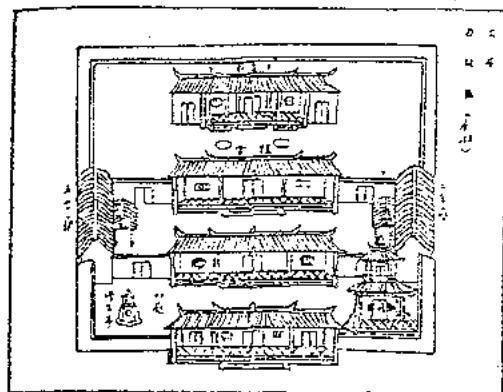
중국 雲石書院 배치모습  
(자료 : 한국 서원 교육제도 연구)

상으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다. 단순히 입지의 변경이나 건축구성의 변화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서원설립의 사상적, 사회적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적들도 나름대로의 가치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계획도 필요하리라 본다.

조선시대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紹修書院)은 우선 입지한 곳부터 사찰터로서 불교문화공간

이 유교문화의 중심공간으로 바뀐 특수한 입지환경을 갖고 있으며 건축배치의 공간구성 등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원건축의 기본유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축의 설정 없이 강학을 위주로 강당과 재실 등이 불규칙하게 경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당은 별도의 담장으로 구획되어 경내의 좌측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진입과정도 일정치 않으며 부속공간의 설정도 애매하게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배치형태는 서원건축의 시창기(始創期)에 꾸며진 특수한 건축구성의 한 예라 하겠다.

16세기 후반, 즉 명종과 선조대에는 서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 발전을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로 명종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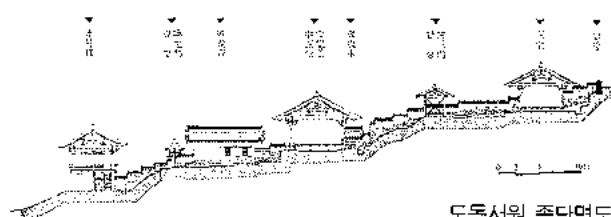


중국 文石書院 배치모습  
(자료 : 台湖的 書院建築)

는 17개소, 선조대에는 특히 사림계열이 정치의 주도권을 쥐게 된에 따라 60이 넘는 서원의 건립이 있었다. 이 시기의 서원은 강학기능이 우선이었던 시기로 건축에서도 일정한 유형이 등장하게 된다. 당시의 건축현상을 살펴볼수 있는 현존 유구(遺構)로는 경상도에 위치한 남계(濫溪) · 서악(西岳) · 옥산(玉山) · 도산(陶山) · 도동(道東) · 병산서원(屏山書院) 등인데 이중의 남계(濫溪) · 서악서원(西岳書院)은 퇴계(退溪)가 찬시(讚時)를 보낼정도로 관여한 서원이기 때문에 특히 주목된다. 왜냐하면 당시 서원의 건립과 보급에 있어 퇴계(退溪)의 역할은 대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이산(伊川) · 이동서원(易東書院)등에는 서원기(書院記)를 자율만큼 건립과 운영이 깊이 관여하였는데 현존 유구들은 대원군의 서원 해철령(毀撤令) 이후 새로 중건, 원형을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원기(院記)에 의한 것 같으면 이산서원(伊山書院)은 총 32間 규모의 서원이었다고 한다. 이 당시 서원설립의 주체자 즉, 유학자는 건축주인 동시에 건축가였으므로 그들의 서원관은 건축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어렵게도



돈암서원 靜嘗堂: 3면 모두가 서원스럽게 뺏마루로 연결되어 있다.  
돈암서원은 沙溪 金長朱을 모신 서원으로 한때 정계를 주름잡던 기호학파의 보금자리였던 곳이다. 이 서원의 창건은 1634년이다.



동동서원 종단면도



돈암서원 사당 공포



돈암서원 응도당 공포

그들의 건축학적인 기록은 거의 없다.

이 시기의 배치특성은 주로 경사지형을 택해 공간의 분화 및 계층적 질서가 확연히 드러난다. 즉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동·서재로 나누어 지는 재실은 강당 전면에 정대칭으로 자리하여 강당과 함께 공간의 구분이 더욱 명확하게 구분된다.

강당과 함께 동·서재, 루각(또는 삼문)이 함께 어울려져 형성된 방형의 중정은 서원건축의 핵심적인 공간이고 이율러 유교적 의례의 사고가 깊이 사려있는 곳이기도 하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 강당과 재실은 건물의 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배치개념도 종적인 상하관계를 절대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방형의 중정은 학문의 허(虛)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근엄한 유학경전(儒學經典)의 질서개념이 잘 스며들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직된 교육공간은 전면의 자연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누각이 있어 공간의 묘미가 더 한층 우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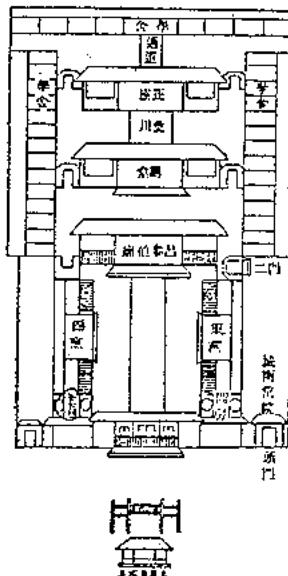
축(軸)의 설정도 거의 직선축을 이용하여 공간의 질서를 한 방향으로 유도하였으며 이로인해 특히 경사지에 입지한 서원의 경우 공간의 상승적 위계성이 더욱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부속건물들의 배치는 제향과 교육의 기능을 쉽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소의 편리성에 따라, 즉 제기고는 사당 근처에, 장판각 등은 강당 주위에 일 반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부속공간의 설정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서원의 정문으로 누각을 건립하기도하고 (监溪·道東·筆岩書院 등), 다른 방법으로는 별도로 외삼문 등의 정문을 세우고 누각이 안쪽으로 들어서 강당 전면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玉山·西岳·蔚山書院 등). 이로 인해 외삼문과 누각사이에는 자연히 과정적 공간이 형성된다.

이상과 같은 배치구조는 사실상 한국서원건축의 전형이라 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살펴볼 17·18세기에 건립된 서원의 건축사실과도 어느정도 비교되어 진다. 선조

시대부터 발전을 보이기 시작한 서원제도는 계속해서 17세기, 즉 光海君, 仁祖, 孝宗, 懸宗대에도 서원의 건립이 수적으로도 상당한 증가를 보인다. 그러다가 숙종(肅宗) 연간에는 최고조에 달해 무려 한 도(道)에 80~90곳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 때에는 이미 서원제도에 혼란이 와 향사(享祀)의 기능이 주가 되기도 하고 명칭도 사우와 혼동되어 사용되는 시기가 되었다. 따라서 건축의 형태에서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현재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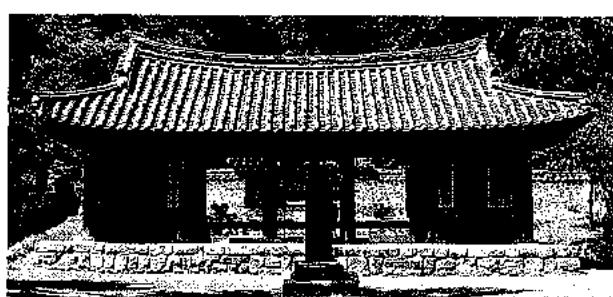
양상을 고찰할 수 있는 유적으로는 둔암(遜岩)·심곡(深谷)·노강(魯岡)·덕봉(德峰)·용연(龍淵)·홍암(興岩)서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건축 현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유형과 일축선상의 주요 건물배치에는 변화가 없으나 건물구성 및 배치에 있어서는 그 이전의 건축들과 차이를 보인다. 특히 교육공간내의 건물조합 방법이나 그 규모가 달리 나타난다. 우선 제향구역(祭享區域)이 넓어지므로 해서 비례적으로 강학구역(講學區域)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동·서재가 강당의 후면인 제향공간 쪽으로 배치되기도 하고 덕봉(德峰)·홍암서원(興岩書院)·필암서원(筆岩書院)(1590년 창건이나 1672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 같은 곳은 건립동기와 규모로 봐서 특별한 예이기는 하나 동·서재와 함께 강당의 정면도 제향공간 쪽으로 향하게 배치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공간의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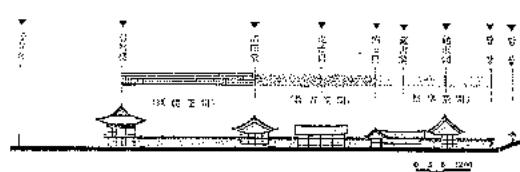
중국 潤州 城南書院 배치도습  
(자료 : 한국 서원교육제도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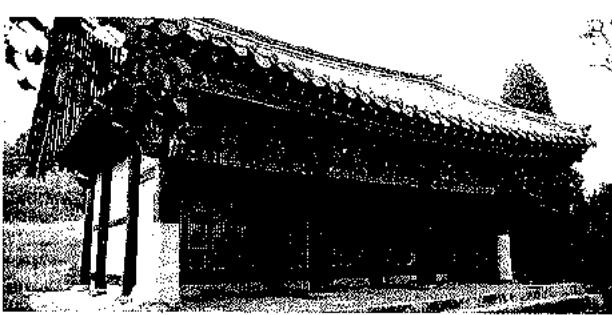
魯岡서원의 제향구역 출입은 다른서원과 달리 문이 세개로 분리되어 있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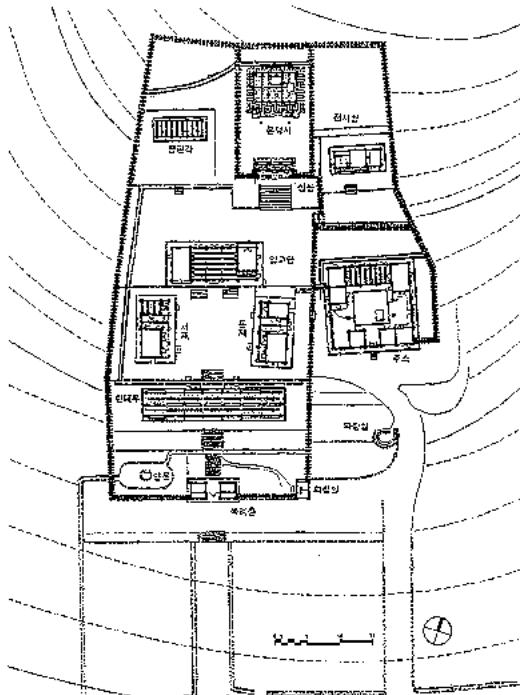
정면 5칸·측면 2칸의 武城서원 강당. 중앙으로 대청을 드리고 그 양측면으로 방을 꾸민 전형적인 강당구조를 취하고 있다. 다른 서원과 달리 대청 후면까지 공간을 열어 두었다. 이 서원은 광해 7년(1615)에 건립된 호남지역의 큰 서원중의 하나로 孤雲 崔致遠을 주 벽으로 모시고 있다.



필암서원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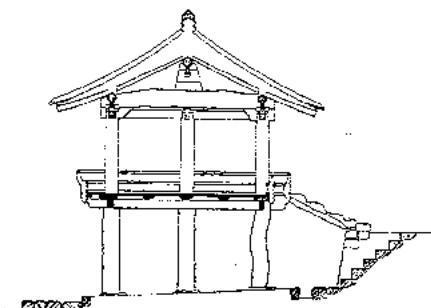


魯岡서원 사당. 1675년에 창건된 서원으로 八松 尹煌선생을 주벽으로 모시고 있다. 前退를 개방한 정면 3칸의 맞배집이다.



병산서원 배치도  
(자료: 윤신대 건축과)

은 제향과 교육공간이 바로 문 하나 사이로 연결되어 있어 각 공간의 독립성이 약하게 나타난다. 또한 둔암(遜岩) · 심곡(深谷) · 용연서원(龍淵書院) 같은 곳은 재실(齋室)의 건축여부마저 확인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해도 위치가 애매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당후재(前堂後齋) 형은 시기적 관점으로 보면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같은 유교건축인 향교건축의 경우 시기에 관계 없이 오히려 지역적으로 그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가령 전라도 경우에는 전당후재(前堂後齋)형으로 모두 일관되고 경상도 경우에는 그 반대로 전재후당(前齋後堂)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충청과 경기, 그리고 강원 지역에서는 두 가지 유형이 혼재되어 나타



병산서원 晚對樓 단면도

나고 있다. 향교의 조영규범을 크게 준용하였던 서원인 만큼 좀 더 종합적인 배치체계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서원기능상 중요한 지원시설이었던 장판각(藏板閣)이나 제기고 등도 건축에서 많이 제외되었고 16세기의 건축에서 많이 보였던 누각의 조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서 당시 서원 건축의 한계점을 다시 엿볼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원 전면에서 나타났던 과정적 공간의 형성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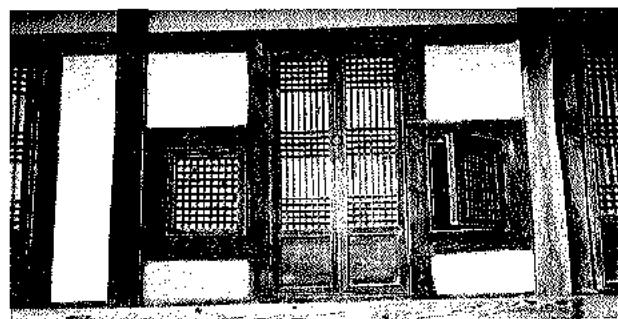
19세기인 순조(純祖) · 현종(憲宗) · 철종(哲宗)代에는 사실상 서원의 건립이 소수에 불과했고 또한 1868년의 훼철령(毀撤令)에 의해 모두 철폐되었기 때문에 사실을 고찰할 만한 유적이 없다. 다만 복원된 몇몇 서원으로 자료화는 할 수 있으나 신빙성은 없다. 그러나 그 당시의 건축 역시 서원제도의 쇠퇴로 인해 단지 사당과 강당만으로 구성된 단순한 형태의 건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형식은 20세기에 들어 복설(復說)된 수많은 서원들이 오직 사당과 강당, 그리고 내 · 외삼문만을 갖추고 있는 건축양상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16세기 중엽에 한국 최초로 세워진 소수서원(紹修書院)의 건축특성에서부터 19세기까지의 서원 건축 배치구조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나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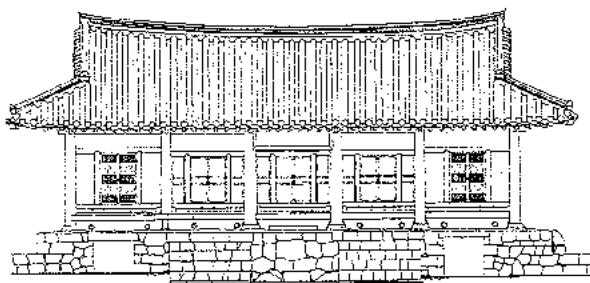
4. 목판보관을 위해 건립된 도산서원 장판각. 정면 3칸 · 측면 2칸의 10평이 조금 넘는 팔작집이다. 벽체는 사방 모두 판벽으로 되어 있고 내부는 우물마루를 깔았다. 습기방지를 위한 배려이다. 전면 상인방 위로는 통풍을 위한 살창을 내었다.
5. 도산서원 龍雪精舍의 장호 출입문 옆의 작은 창이 인상적이다. 이런 창은 전남지역의 민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6. 병산서원 立教堂 대청마루와 架構모습. 꾸밈없이 단순한 5椽구조로 꾸며져 있다. 청량한 선비의 학문적 자세를 읽을 수 있다.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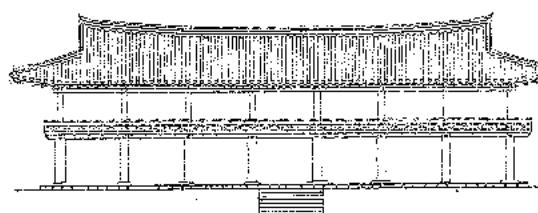


병산서원 立教堂(강당) 입면도  
(자료 : 을산대 건축과)

타났듯이 비록 짧은 서원건축의 역사이지만 제도의 변화에 따른 건축의 양상을 어느정도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고찰한 한국 서원건축의 배치와 외부공간 구조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향교건축과 기본 구조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는 비록 관학과 사학, 그리고 제도적인 차이점은 있으나 근본적으로 묘학동궁(廟學同宮)이라는 구조적인 동질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수백년이 앞선 향교건축이 서원건축의 배치와 구조에 끼친 영향력에 대하여는 크게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더 나아가 중국인 서원건축도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아 한국의 서원건축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 서원의 효시인 백운동서원이 중국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모방하여 설립된 사실로 봐도 그렇고, 퇴계(退溪)도 중국의 서원제도를 찬양하고 그 제도를 조선에서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의 「상침방백서(上沈方伯書)」에서 밝혔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중국의 서원건축 모습을 배치도를 통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대(宋代) 조경(肇慶)의 단계서원(端溪書院)은 「전학후묘(前學後廟)」배치, 직선축 이용, 재실의 대칭성, 서원 전면의 과정적 공간형성 등 한국 서원건축의 기본 구조와 크게 다를바 없다. 다만 한가지 중국에서는 제향과 강학구역의 양측에 「과랑(過廊)」 또는 「과청(過廳)」



병산서원 晚對樓 입면도

이라고 일컫는 일종의 회랑(回廊)이 보이는데 이러한 구조는 한국의 서원건축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1766년에 창건된 문석서원(文石書院)은 노경서원보다 규모는 작으나 배치의 기본양상은 같다. 그러나 호주(湖州)의 성남서원(城南書院)은 한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전묘후학(前廟後學)」의 배치구조로 되어 특히 주목된다. 또한 사당 전면에 향교건축에서만 건립되는 동·서무가 있고 재실도 강당의 후면에 세워진 사실도 역시 주목되는 부분이다. 중국의 서원건축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좀더 체계적인 이론정립과 현장답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구조와 의장–절제된 검소성의 극치

서원의 건축양식은 전반적으로 소박하고 간결하며, 일정한 통일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사찰 및 관아건축과 크게 비교되는 것으로서 서원건축은 사찰건축의 종교성, 관아건축의 권위성 등과는 다르게 오로지 학문연구를 위한 건축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한적한 산림 가운데 은거, 잠수(藏修)하려는 뜻으로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건축에서도 특별한 꾸밈이 없고 주위의 자연과 잘 어울리는 조형미를 찾아볼 수 있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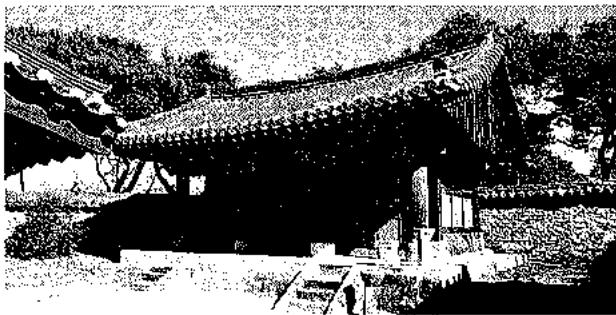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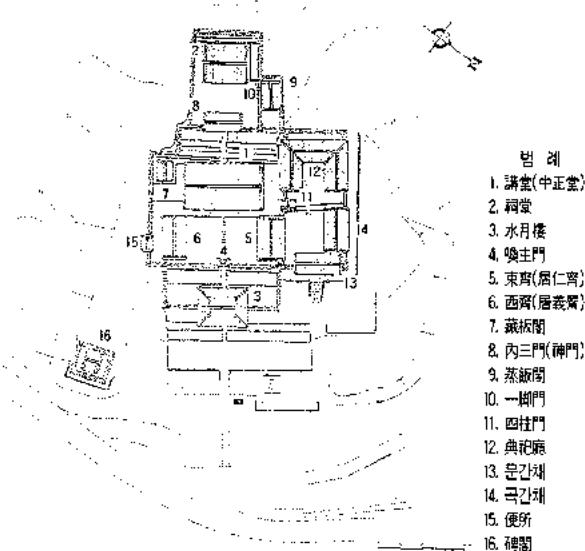


9

7. 남계서원 강학공간.
8. 남계서원 사당. 前退를 둔 정면 3칸·측면 1칸 반의 맞배집이다.
9. 무성서원 정문으로 건립된 정면 3칸·측면 2칸의 루각. 絃歌樓란 현판이 걸려있다. 서원 자체가 완전히 평지에 입지한 관계로 지형차를 이용한 루 건축의 문치를 찾아보기 어렵다.

8





도동서원 배치도(자료: 세한건축사무소)

한 검소한 생활환경을 장려했던 유교사상(儒敎思想)은 서원의 조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건축의 주체였던 유학자 자신 모두가 유교사상에 심취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서원내의 주요건물에 대한 구조와 의장요소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당(祠堂) : 건축의 규모는 정면 3칸에 측면은 2칸 내지 3칸이 대부분이며 평면형은 모두 장방형으로 되어 있다. 이중 상당수의 서원에서는 측면의 앞쪽 1칸을 반 칸규모의 퇴간(退間)으로 처리하여 개방시켜 계향의식 시 편리하도록 꾸몄다(소수(紹修) · 필암(筆岩) · 도산(陶山) · 남계(瀘溪) · 흥암(興岩) · 용연(龍淵) · 심곡(深谷) · 덕봉서원(德峰書院) 등). 이러한 평면계획은 유교 사당건축의 특징으로서 향교의 대성전(大成殿)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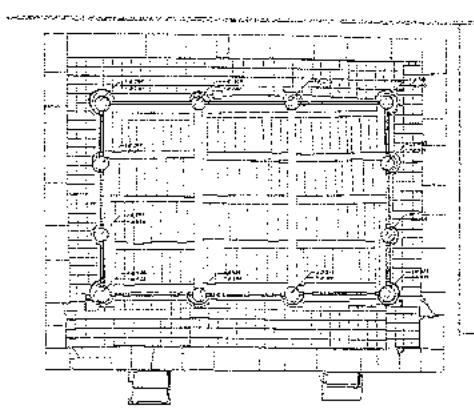
서도 주류를 이루고 있다.

건물내부는 통문(通間)으로 대부분이 우물마루를 깔았으나 최근에 시멘트 몰탈로 보수, 마감한 서원도 간혹 있다(필암 · 덕봉서원 등). 기단은 모두 석축기단으로 축조형식(築造形式)은 다듬들 바른층 쌓기가 대부분이고, 전면의 건물 협간(挾間)쪽으로는 석계(石階)를 두었다. 초석은 다듬은 원형초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기둥 역시 원주를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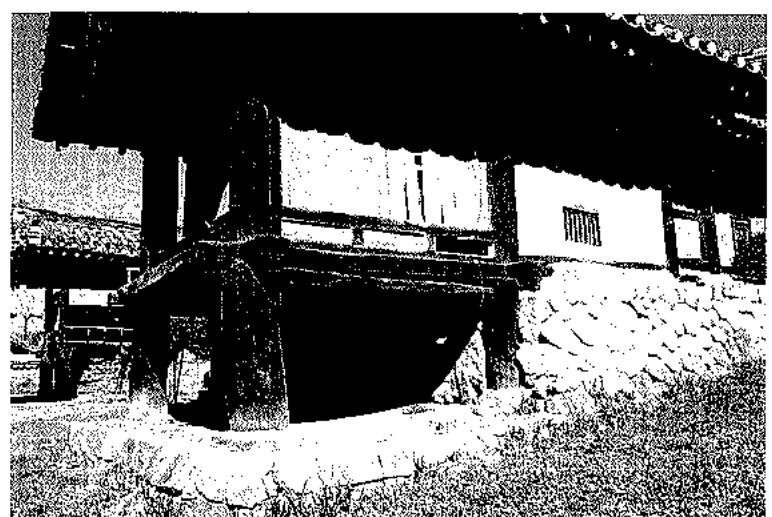
공포는 익공식이 주류를 이루고 주심포식은 도동서원(道東書院) 등 몇 곳에서만 나타난다. 다포식은 찾아볼 수 없다. 결코 화려하지 않은 유교의 절제된 조형미가 잘 드러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창방과 주심도리의 장혀사이에는 화반(花盤)을 배치하였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간략하게 소루(小累)받침만을 두었다. 기구는 전면으로 퇴간(退間)을 둘 경우에는 1고주 5량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고주 5량으로 꾸며 대부분이 단순한 5량기구를 취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전면 고주 위치에 벽체와 창호(窓戶)가 설치된다. 대량 위로는 동자주를 놓아 종보를 걸고 그 위로는 판대공을 주로 놓아 종도리를 받게 했다. 도리는 주로 굴도리를 사용하였다.

창호는 전면에만 설치하여 내부를 가능한 폐쇄적인 공간으로 꾸몄다. 그러나 일부 서원(도동서원)에서는 측면 상부에도 창을 내기도 하였다. 창호의 구성은 주로 쌍여닫이 띠살문으로 되어 있으나 골판문내지 판장문을 설치한 서원도 있다(옥산 · 도동 · 병산서원 등). 살림집이 아닌 폐쇄적인 사당건물에서 띠살문을 설치하는 것은 격(格)에 맞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20세기에 들어 복원된 서원들도 대부분 띠살창호로 구성되어 있다. 필암서원(筆岩書院)의 사당은 귀갑살 창호로 되어 있어 또한 주목된다.

지붕은 대개 맞배지붕으로 양 박공면에는 풍판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팔각지붕으로 된 서원도 간혹 있다(남산서원). 처마는 주로 겹처마로 꾸몄다. 천장은 대부분이 연등천장이다.



도동서원 사당 평면도



남계서원 동재. 2칸 규모의 맞배집으로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해 1칸은 밖으로, 한칸은 누형 대청으로 꾸몄다.

• 강당(講堂) : 건물의 규모는 단층으로 정면 5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4칸인 경우도 소수(紹修) · 도산서원(陶山書院) 등에서 보이고, 3칸인 심곡서원(深谷書院)도 있다. 평면구성은 중앙으로 대청을 꾸미고 양측 끝으로는 1칸 규모의 온돌방을 배치한 형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경우 전면으로 반칸 퇴(退)를 두어 뒷마루를 설치하기도 한다. 소수(紹修), 도산서원(陶山書院)은 한쪽으로만 온돌방을 배치하기도 하였다.

기단(基壇)은 단층 석조기단으로 형식은 여러형식이 보이나 다듬돌 바른층 쌓기가 비교적 많이 나타난다. 초석은 막돌초석과 다듬은 돌초석이 거의 비슷하게 보이며, 기둥도 방주(方柱)와 원주(圓柱)가 고루 보인다. 특히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 전면의 퇴주(退柱)는 원주로 하고 나머지에는 방주가 놓인다.

공포는 사당과 마찬가지로 익공약식이 많고 주심포식(도동 · 노강서원 등)과 민도리구조(병산 · 도산 · 덕봉서원 등)도 간혹 보인다. 기둥머리는 대부분이 창방으로 결구되고 그 위로는 소로 내지는 화반이 일반적으로 배치된다.

가구(架構)는 대부분 5량구조로 되어 있다. 전면으로 퇴간을 두어 뒷마루가 설치될 경우 중앙 대청부분은 1고주 5량형식으로, 양측의 온돌방 부분은 2고주 5량형식으로 꾸민곳이 많다. 대량은 상당히 큰 휜재를 사용하였으며 그 위로 동자주를 놓고 종량(宗樑)을 올렸다. 종량(宗樑)위로는 판대공이나 과련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게 했다.

창호는 온돌방은 띠살문으로, 그리고 대청의 후면은 판장문(板長門)을 설치하고 전면으로는 띠살이 들어 열개문을 달았다.

지붕은 사당과 달리 맞배지붕은 몇 곳에서만 보이고 (도동 · 필암서원 등) 대부분이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 처마는 대부분이 홀처마이다.

• 동 · 서제(東 · 西齋) : 유생들의 기숙처인 관계로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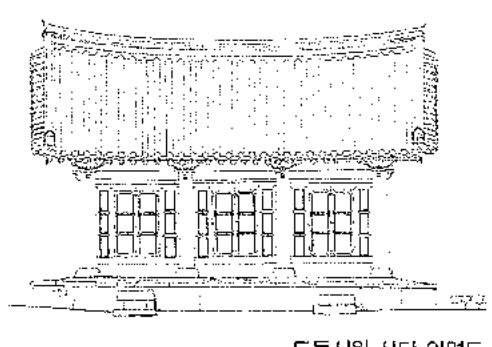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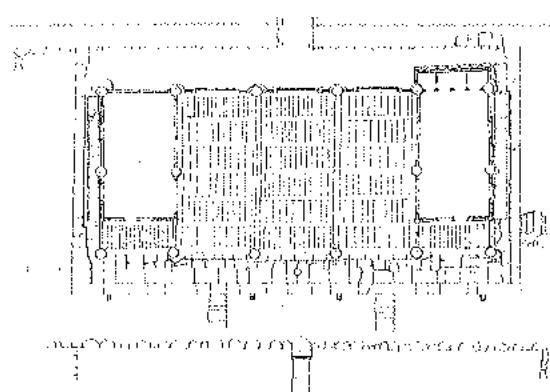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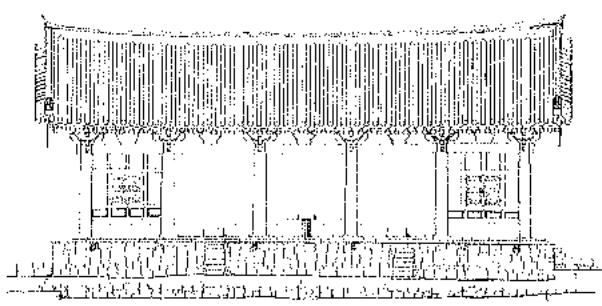
림집 형식 가깝게 건축되었다. 규모는 전면 3칸, 측면 1칸 정도이며 전면으로 뒷마루를 설치할 경우 반칸이 더 나간다. 평면형식은 안쪽으로 모두 온돌방을 설치한 경우도 있고 한쪽 끝으로 부엌, 또는 중앙으로 1칸 대청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유형으로 되어 있다. 가구(架構)는 3량형식이 대부분이며 구조는 민도리집 양식으로 되어 있다. 지붕은 홀처마 맞배지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누각(樓閣) : 주로 16세기에 건립된 서원에서 현존하고 있는 건물이다. 규모는 서원의 정문으로 건립된 경우에는 정면 3칸, 측면 2칸이 일반적이고 (남계 · 두성서원, 필암서원은 측면 3칸), 외삼문과 강학구역(講學區域) 사이에 별도로 누의 특성을 살려 건립된 경우에는 규모가 커져 병산서원과 옥산서원 같은 곳은 정면 7칸, 측면 2칸이 된다. 평면형식은 정문으로 건축된 누각(樓閣)은 1층 전면에 환장문을 달아 출입문으로 이용하게 하였고 2층은 주로 마루를 깔고 사면을 개방, 그 주위에는 난간을 설치하였다. 강학구역 측면에 건립된 누각(樓閣)도 비슷하나 옥산서원(玉山書院)만큼은 2층 양측으로 온돌방을 설치하여 특히 주목된다.

기둥은 대부분이 원주(圓柱)를 사용하였고, 가구(架構)는 5량식으로 꾸몄다. 공포는 익공식이나 병산서원(屏山書院)의 만대루(晚對樓)는 민도리식으로 되어 있다.

지붕은 주로 팔작지붕이나 옥산(玉山)과 서악서원(西岳書院)만은 맞배지붕으로 꾸몄다. 처마는 서악(西岳)과 병산서원(屏山書院) 등이 홀처마이고 대부분은 겹처마로 되어 있다.

• 장판각(藏板閣) : 목판의 보관 등 주로 기능위주로 건립되었다. 건물 규모는 정면 2~3칸, 측면 1~2칸으로 맞배집이다. 구조는 막돌초석위에 방주(方柱)를 세운 3량형식의 민도리집 구조이다. 내부 바닥은 습기방지를 위해 마루를 깔았으며 벽체는 통풍을 위해 판벽으로 처리한 건물이 많다.





## 1. 개요

로데즈(Rodez) 시는 프랑스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클레르몽 페랑(Clermont-Ferrand)시와 남부 교통의 중심지인 나르본(Narbonne)시와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로데즈 대성당을 방문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미 본지 해외건축단에서 소개한 바있는 꽁끄(Conques)의 쟁뜨 푸아(Saint-Foy) 수도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옛날의 루에르그(Rouergue)지방의 옛수도인 로데즈는 매우 다른 두 지역, 즉 석회질의 건조한 평원과 흙밭 농사에 적합한 습한 언덕의 경계에 있으며 언덕 꼭대기에 있는 성벽같은 육중한 대성당은 먼곳에서 볼 때 어떤 위엄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또한 견고하게 높이 솟아있는 첨탑은 섬세하게 투조세공을 한 덕택으로 특이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으며 위치적 조건으로 인해 대성당은 자연스럽게 도시의 중심지가 되었다.

중세기에는 두 세력이 시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가장 세력있던 주교들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고 백작들은 소유자로 큰 마을을 지배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두 지역은 높은 성벽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두 지역간의 경쟁으로 여러 세기 동안 싸움이 끝일 날이 없었다. 양리(Henri)4세가 즉위하고 로데즈의 백작령은 군주국에 병합되자, 주교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주교직위와 함께 로데즈의 백작작위를 취득하고 그들의 문장에 백작마크를 삽입했다. 왕정복고(1814-1830)시대에 로데즈는 프랑스 전체에서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던 살인 사건의 무대가 되기도 했었다. 나폴레옹 시대 나폴레옹의 지지자였던 검사 휴알데스(Fualdes)는 루이 18세에 의해 해임을 당했다. 1817년 3월의 어느 날 아침 그의 시체가 강물에 떠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그는 친구중 유명한 왕당파 두 사람에게 살해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살인 사건과 관련된 소송은 로데즈와 알비에서 전개되었으며 극적인 사건도 많았다. 로데즈는 그동안 살인을 공모했던 곳, 정치적 이해의 상위등이 오랫동안 세인의 화제거리가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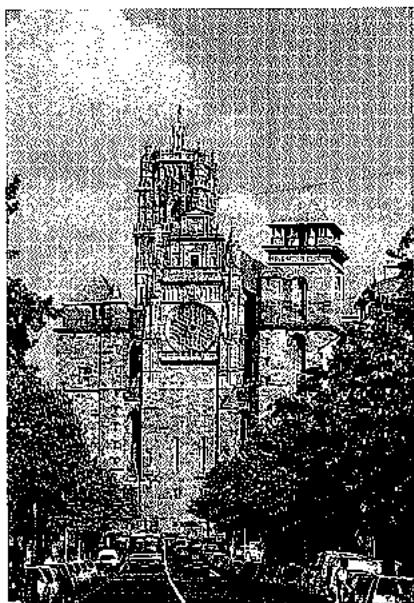
# 프랑스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 (10)

Catholic Church & Monastery Building in France  
Rodez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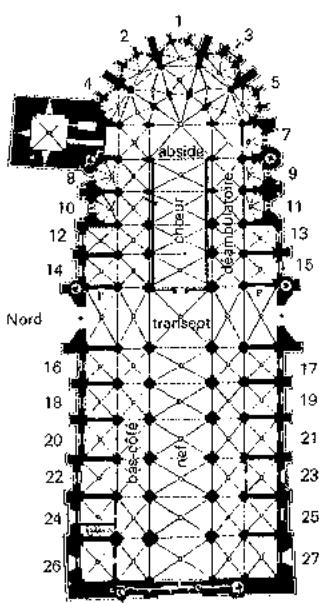
박효순 / 한국예-지기술연구소, 공학박사  
by Park Hyo-Soon

1. 알비의 쟁뜨-뻬실성당
2. 꽁끄의 쟁뜨-푸아수도원
3. 랭스의 노트르담성당
4. 몽-쌩-미쉘수도원
5. 쟁-넥테르성당
6. 아미앵성당
7. 쟁-마르땡-까나구수도원
8. 오명성당
9. 샤르트르성당
10. 로데즈 성당

고 백작들은 소유자로 큰 마을을 지배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두 지역은 높은 성벽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두 지역간의 경쟁으로 여러 세기 동안 싸움이 끝일 날이 없었다. 양리(Henri)4세가 즉위하고 로데즈의 백작령은 군주국에 병합되자, 주교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주교직위와 함께 로데즈의 백작작위를 취득하고 그들의 문장에 백작마크를 삽입했다. 왕정복고(1814-1830)시대에 로데즈는 프랑스 전체에서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던 살인 사건의 무대가 되기도 했었다. 나폴레옹 시대 나폴레옹의 지지자였던 검사 휴알데스(Fualdes)는 루이 18세에 의해 해임을 당했다. 1817년 3월의 어느 날 아침 그의 시체가 강물에 떠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그는 친구중 유명한 왕당파 두 사람에게 살해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살인 사건과 관련된 소송은 로데즈와 알비에서 전개되었으며 극적인 사건도 많았다. 로데즈는 그동안 살인을 공모했던 곳, 정치적 이해의 상위등이 오랫동안 세인의 화제거리가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대성당의 정면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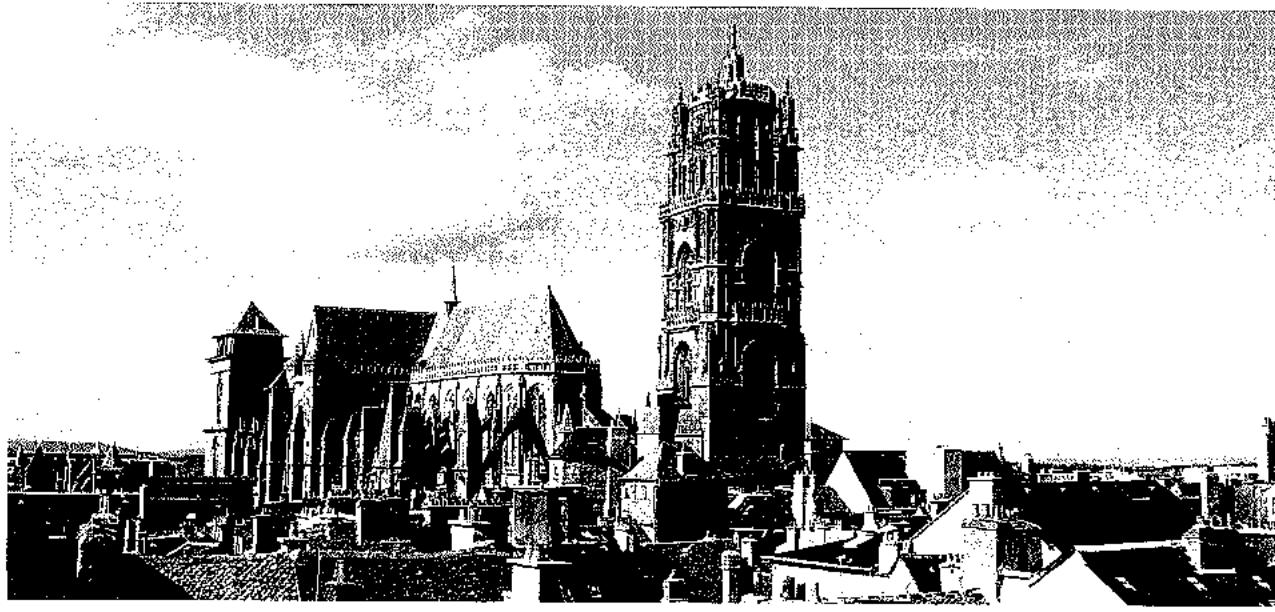
## 2. 성당의 기원

대건축의 기원은 언제인가? 초대 주교로 알려진 아망(Amans)성인이 살았던 4세기 후반 부터인가? 5세기에 대성당이 존재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성당 가까운 곳에 항상 있었던 세례당이 5세기에 건립되어 클레르몽의 주교였던 시두안 아폴리내르(Sidoine Apollinaire)에 의해 축성되었기 때문이다. 카톨릭교도였던 프랑크족과 아리우스파의 교도였던 켙탱(Quintin)성인은 여러번 교구에서 피난을 했다. 그는 성당을 확장케했으나 이는 대성당이 아닌 도시밖에 있는 묘지 속의 성당이었다. 반대로 516년 부터 로데즈의 주교였던 달마(Dalmas)에 의해 시행된 공사는 주로 대성당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가 여러번 미화하려 했던 공사는 581년 그가 생을 마칠때까지 미완성인채 남아 있었다. 그 이후 이 건물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남아 있는 자료는 없으나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내전에는 네 제단이 있었으며 카롤링 왕조때의 건축방식으로 한 제단위에 세 제단이 있었다고 한다. 로데즈 교구 역시 샤를르 마르텔(Charles Martel)의 아들들이 즉위하므로써 행한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그때부터 대성당에 소속되어 성당에 속한 집과 경내 회랑에 기거하는 교회참사회원들이 생기게 되었다. 9세기와 특히 10세기에 수도원과 마찬가지로 대성당들을 거의 완전히 재건축했는데 꽁꼬(Conque)성당과 로데즈 성당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 19세기에 유물을 발굴했을 때 조각된 돌, 기둥머리, 원기둥의 머리판, 울타리 포석 등 10세기 건축에 사용되었던 많은 돌이 나왔으며 이 모두는 프나이유(Fenaille)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때 전기 로마네스크 양식의 가장 중요한 작품 가운데 하나로 약 천 년 경에 다듬어진 흰색 대리석의 제대가 성당 내부에서 발견되었다. 이 제대는 1276년 1월 후진이 붕괴되어도 깨어지지 않도록 더 높여 세워 홍예와 궁륭이 새로 건립되는 거의 200년 동안 미사집전에 사용되었다.

## 3. 성당건축의 역사

로데즈(Rodez)의 현재 대성당은 13세기 말의 마지막 작품으로서 프랑스 남부지방의 대성당들은 랑그독(Langue d'oc)지방을 다스렸던 까페(Capet)왕권의 영향력 하에서 공사가 시작되었다. 로데즈의 주교 레이몽드 깔몽 돌트(Raymond de Calmont d'Olt)가 1277년 5월 25일 새성당의 초석을 놓을 무렵 클레르몽(Clermont), 리모쥬(Limoges), 툴루즈(Toulouse), 나르본(Narbonne), 알비(Albi) 그리고 카르까손(Carcassonne)성당들의 공사는 이미 시작되었다.

1274년 활동적이고 후덕했던 레이몽 드 깔몽 돌트(Raymond de Calmont d'Olt)주교는 공사가 빨리 진척되기를 원하여 1277년 5월 22일 초석을 놓아 주교임기가 끝날 때까지 약 20년간은 바위위에 기초공사를 하고 방사형의 후진을 건립했으며 내진의 두 트라베와 후진 주위에 5각형의 작은 제단 11곳을 건립하기도 하였다. 1298년에 레이몽 주교가 죽은 후 15세기 중엽까지 공사는 매우 느리게 진척이 되었는데 이러한 이유는 1317년 로데즈의 신임 주교로 부임한 바브레(Vabres)는 세주교 저택을 건립하고 또한 로데즈 교구의 소유지를 점령하여 주교 소득의 1/4을 가로채면서 재정을 궁핍하게 하였으며 아울러 1340년 이후 농산물의 갑작스런 생산량 감소로 기근이 들었고 1348년 저 유명한 페스트의 칭궐과 백년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14세기말에는 사제들의 수입은 반으로 줄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성당의 자금을 관리하던 교회참사회원들은 필요한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세기 후반 불완전한 형태이기는 하나 정방형 토대위에 나부赚钱가 종들을 받치는 구조의 종루가 건립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었다. 이와같이 어려운 시기는 1440년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10년전인 1430년 로데즈의 주교는 오베르뉴 사람인 기욤 드 라 뚜르(Guillaume de la Tour)로 폐허가 된 코르비에르(Corbiere)탑을 재건하고 살스 큐랑(Salles-Curan)성의 건축을 시작한 후 그는 로데즈의 노트르담 성당 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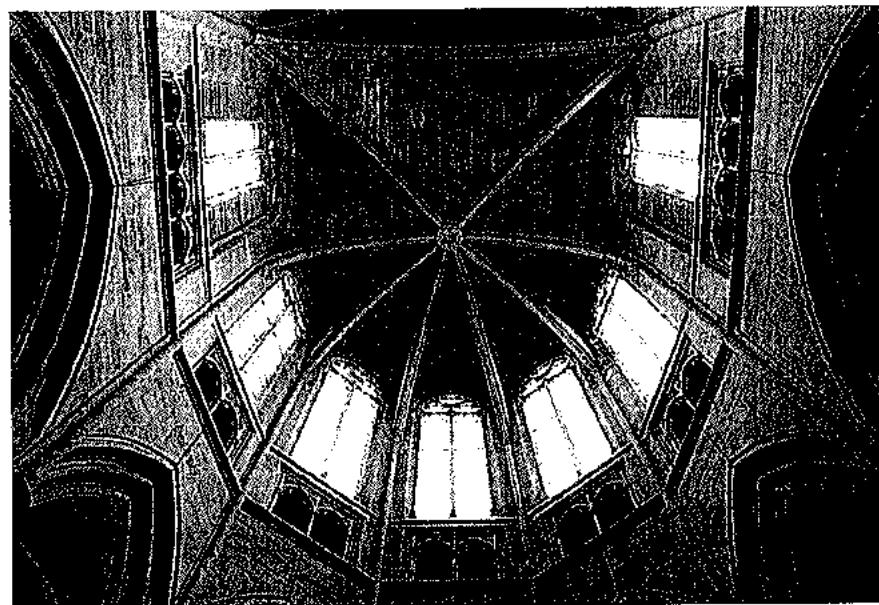
전경

를 다시 하게 했다. 1448년 10월 25일 부르고뉴 지방 사람으로 유명한 조각가였던 자끄 모렐(Jacques Morel)과 성당의 남쪽 정문 공사를 하기 위해 맺은 계약서를 보면 그 작품의 용장함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108점의 입상으로 장식한 매우 높고 중세기의 새로운 양식을 나타내어 후일 플랑브와양 양식(화려한 고딕 양식)으로 구분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1449년 12월 31일 미장공인 레이몽 돌라(Raymond Dolhas)와 그의 아들 제로(Geraud)와 함께 내진의 세번째 트라베의 궁륭건립 계약을 맺어 공사를 하게 되었다. 1468년에서 1465년 사이에는 정문과 내진의 마지막 기둥들을 건립하고 1465년에서 1466년 사이에는 중앙회중석의 기둥들을, 1470년에서 1474년 사이에는 중앙회중석 옆에 있는 작은 제단들과 연결되는 기둥들을 건립했다. 서쪽에 있던 주교저택을 허물어뜨린 후 중앙회중석의 네 트라베와 정면의 탑공사를 위해 기초 공사를 했다. 내진과 좌우익랑 공사가 끝난 1468년부터 베르트랑 드 살랑퐁은 자체하지 않고 쥐베(Jub : 내진과 중앙회중석 사이의 높은 수랑)를 건립하기 위해 훌륭한 조각가였던 피에르 비기에(Pierre Viguer)에게 부탁하였다. 그러나 1510년 4월 28일 발생한 화재로 종루가 전소되고 종들이 녹았지만 기적적으로 대성당 주변의 집들은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다. 주교는 화려한 성당에 어울리는 새 종루를 들로 재건축하기로 결정하고 생 루 드 타른(Saint-Rome-de-Tarn) 출신의 젊은 건축가 앙투안 살방(Antoine Salvanh)에게 일을 맡겼다. 1513년부터 베르나르 앙토니(Bernard Anthony)의 후임자로 그는 많은 일꾼들을 지휘하여 본래 목적했던 바의 종루 건립을 해나갔다. 1529년 11월 1일 프랑수아 테스팽이 생을 마칠 당시 종루는 이미 석달전에 완공되었고 서쪽 정면은 대형 원화창으로 장식을 했으며 북서쪽 정면의 탑과 같은 높이의 서쪽 정면의 두 탑 꼭대기에는 세송이 백합모양의 문장을 넣어 마무리 공사를 끝냈다. 중앙회중석에는 골조를 지탱하는 벽을 만들어 주고 측랑과 작은 제단들은 중앙회중석처럼 궁륭으로 처리를 했다. 이렇게 하여 여러번에 걸친 공사중단에도 불

구하고 그 무렵 로데즈 성당은 250년 전에 작성한 설계도에 따라 매우 표본적인 양식으로 거의 완공되었다. 1793년 봄부터 1794 여름까지는 치유할 수 없는 재난의 시기였다. 대혁명 기간동안 남쪽 정문과 마찬가지로 북쪽 정문도 완전히 파괴되고 주교들의 횡화상은 불행이도 제거되거나 훼손되었다. 또한 주제단을 둘러싸고 있던 원주의 청동과 프랑수아 테스팽 주교의 무덤을 덮었던 청동판을 대포로 만드는데 사용되었으며 종루역시 공화주의자들의 희생물이 되었으나 텁만은 무사했다. 그후 정부 소유가 된 로데즈 성당은 이끼가 테라스를 덮고 불완전하게 연결된 포석에서는 누수가 흐르는 등 너무 황폐하여 1808년 토목국의 기술자는 보수공사가 시급하다고 제언을 하였다. 그러나 약 100년동안 테라스를 여러 다른 혼합물로 반복하여 시멘트로 처리하여도 비가 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건축가들은 진단했다. 별도로 북원공사를 하던 골조부분은 17세기 이후부터 공사를 하지 못했지만 침하되고 있는 부분들은 보수공사를 해야만 했다. 1821년 지붕을 이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고르게 잘라지지는 않았지만 두껍고 단단한 석반석으로 바꾸었다. 또한 유리창을 견고하게 지탱해주지 못하는 창문의 돌장식도 보수를 했다. 유리창의 스테인드 글라스 역시 거의 모두 파괴되어 19세기 내내 다른 스테인드 글라스로 교체시켰다. 14세기에 제작된 스테인드 글라스의 몇몇 부분이 겨우 남아 요셉 성인의 작은 제단을 장식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외부의 많은 부조, 난간, 첨탑, 등근지붕이 도과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잔구멍이 많은 사암의 경우 악천후에 매우 민감하고 결빙기에는 사암이 갈라져서 판에서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조각이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재료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의 건축가 에티엔느 부아쏘나드(Etienne Boissonade)는 철골과 붉은 일산화납이 든 모르타로로 훼손되는 사암의 풍화작용을 막는데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내부의 벽과 궁륭 그리고 측랑의 모든 장식들은 모두 훼손되고 흥예의 리브는 대부분 없어졌다. 부아쏘나드는 상태가 나쁜 둘은 덧입히기로



내진과 중앙회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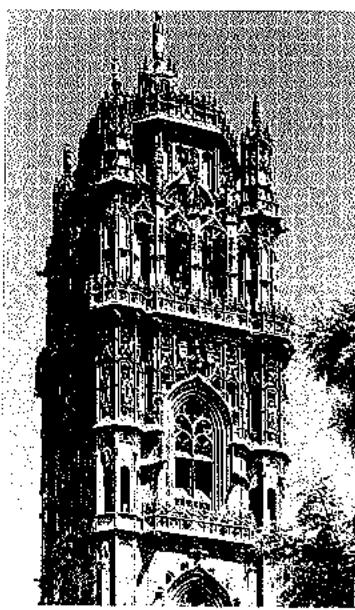
내진의 첫번째 트라베

결정했으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그는 벽돌을 쌓아들고 비슷한 색으로 혼합한 모르타르를 바르고 철로 지탱하여 궁륭의 리브를 재건축했다. 1823년 7월 8일 로데즈의 주교 라몽 라랑드(Ramond-Lamande)는 대성당을 완전히 새로 개조하기로 결정하고 내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16세기의 것으로 주제단에 있던 약 4m길이의 제대는 주교저택의 마당으로 옮겼고 흰색 대리석으로 된 토대의 장식들은 상점의 진열대에 놓았다. 건축가는 르네상스 양식의 간막이벽은 손대지 말도록 건의했으나 고집불통의 주교는 그의 권고를 받아들이 않았다. 이에 놀란 부아쏘나드는 라파엘 성인의 작은 제단을 다시 건립하고 간막이 벽의 나머지 부분을 보존하고 주교의 요구에 따라 철로된 그릴을 놓았다. 후진의 뒤 후진 주위의 통로에 있던 가스뚱 드 꼬론의 무덤(1301년에 제작)이 거추장스럽다고 하여 그것을 쪼개어서 제거했다. 쥐베(중앙회중석과 내진 사이의 높은 주랑)와 성직자석도 위치를 바꿀 운명에 치했으나 종교법무부 장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실행하지 못했다. 그후 프레이씨누(Frayssinous)주교의 개입으로 로데즈에는 작은 제단인 “푸아(Foy)성녀의 순교”나 “아버지자를 눈뜨게 한 토비”와 같은 수준 높은 작품으로 성당 내부를 장식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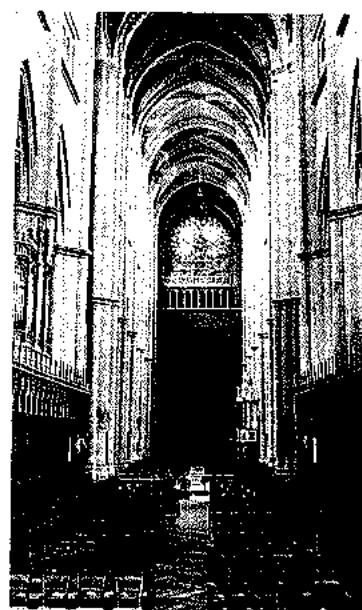
#### 4. 외부

##### 4-1 설계 개요

로데즈 성당은 클레르몽 페랑(Clermont-Ferrand) 대성당과 나르본(Narbonne) 대성당을 설계한 장 테상(Jean Deschamp)에 의해 설계되었다. 이 성당들의 공통점은 후진 주위에 방사형의 작은 다섯개의 제단이 있는 것과 튀어나오지 않은 좌우익랑이 두 부벽사이에 있고 부벽에 계단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과 트리포리움을 연장하여 높은 창을 낸 점이다. 또 외부에는 축랑과 작은 제단의 궁륭위에 테라스를 건립하고 벽날개를 만든 것이 공통점이다. 전체길이 107m, 폭 36m인 대성당은 프랑스 남부지방의 대성당 중 큰 성당에 속한다.



종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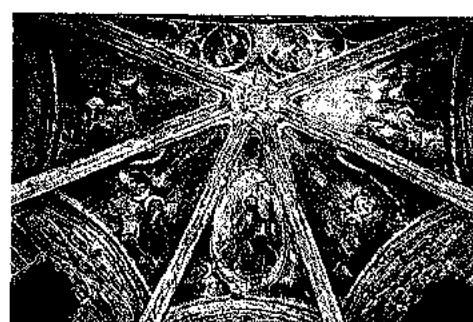
중앙회중석

##### 4-2 남쪽 익랑의 정문

석회암을 잘라 조각한 것으로 15세기 후반에 제작되었다. 1448년 기욤 드 라 뚜르는 자끄 모델(Jacques Morel)에게 교회참사회원들의 묘지로 마련되었던 대성당의 공동묘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새 정문의 건축을 맡겼다. 공증된 참고문헌을 보면 “예술가가 제시한 현대적 설계도에 따라 이미 시작한 공사를 계속해서 완성한다”고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대성당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리옹(Lyon) 대생의 조각가이며 금은 세공사였던 모렐은 1425년 뜰루즈에 정착해 살다 1459년 앙제(Anger)에서 생을 마쳤다. 1444년 이전에 북쪽 정문의 공사를 하기 위해 처음으로 루에르그 지방에 왔던 그는 몇년 후 남쪽 정문의 장식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108점의 입상 제작을 약속한 그는 그 후 8년간에 걸쳐 공사장에서 작품을 제작했으나 1456년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정문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교와 교회참사회원들은 티보 소니에(Tlbaut Sonier)에게 남쪽 정문 공사를 위임했으며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수의 입상을 제작하여 문을 완성했다. 프랑스 혁명 당시 남쪽 정문의 입상들은 혁명당원들의 망치질에 무참히 깨어져 오늘날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모렐이 설계한 도면에 따라 플라브와 양식으로 흰색 석회암을 사용하여 매우 화려하게 제작한 부분 뿐이다. 사암으로 된 두 부벽사이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원주위로 깍은 아치로된 문 상부의 아치줄이 있고 그 위로 매우 화려하게 조각한 등근창이 있다. 맨 바깥쪽 아치줄의 아치는 세 꽃잎 장식으로 장식했다. 뾰족한 박공은 당초무늬로 장식했으며 끝에는 꽃을 입체감 있게 조각하여 마무리지었으며 그 위로 작고 우아한 원화창이 있다. 상인방 위에는 불꽃 모양의 쇠시리를 넣은 직사각형 불록을 놓았고 상인방 위쪽의 합각 벽 중심에는 대형 십자가가 있다.

##### 4-3 북쪽 익랑의 정문

주교 저택의 문이라고도 불리우며 석회암과 시암으로 15세기 후반에 제작되었다.



대칭축의 작은제단 궁륭의 벽화

기욤 드 라 뚜르가 주교로 재직할 당시 좌우익랑의 공사는 시작되었으나 마무리는 그의 후임자 베르트랑 드 살랑꽁(Bertrand de Chalencron)이 주교로 있을 때였다. 자체, 크기, 일반적인 형태에서 좌우익랑의 두 정문은 매우 다르지만 같은 시기에 완성이 되었다. 꽃장식 기둥머리가 있는 가느다란 네 원주가 깎은 아치의 동근 리브를 받쳐주고 있고 그 사이에 상인방과 합각벽을 싸고 있는 세줄의 아치줄이 있다. 벽감속에는 입상들이 있었으나 프랑스 대혁명 때 혁명당원들에 의해 제거되었으며 벽에 조각되어 있는 고부조 작품들은 그들의 힘으로 제거할 수 없었으므로 심한 망치질을 하여 현재는 작품 속의 인물이나 묘사장면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합각벽에는 성모마리아의 대관식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 하늘에는 별들이 점점이 있으며 매우 높은 두 닫집 아래 마리아와 그리스도는 나란히 앉아있다. 그들의 양쪽에는 두 천사가 무릎을 끊고 있으며 그 위로 두 아기천사가 구름 위에 있다. 두 닫집 사이에는 세번째 아기 천사가 성모마리아에게 쪽을 왕관을 그리스도에게 내밀고 있다. 상인방의 원쪽에서 오른쪽을 보면 성모영보 예수의 탄생, 동방박사들의 경배, 그리고 예수를 사원에서 봉헌하는 장면이 조각되어 있다. 마리아와 예수가 탄생한 후 한달 동안의 사건들을 조각해 놓은 것으로 보아 상인방 아래 문사이의 벽에는 아기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마리아의 입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의 위쪽 가장자리에는 네 명의 아기 악사 천사들로 장식했다.

#### 4-4 측랑

1470년에서 16세기 초까지 건립된 것이다. 측랑의 앞에서 뒤쪽으로 가면서 홍예머릿돌을 보면 총대주교의 십자가와 함께 기욤 드 라 뚜르의 문장이 있고 그 다음 홍예 머릿돌에는 로데즈의 명사 조지 비구루(Georges Vigouroux)의 문장, 1501년부터 로데즈의 주교였던 프랑수아 데스탱(François d'Estaing)의 문장이 있다. 건물의 여러 다른 부분의 연대를 추정하는데 매우 유익한 홍예 머릿돌에 있는 문장이나 스테인드 글라스 또는 외부벽에 있는 문장들은 15세기의 것이다. 그전에는 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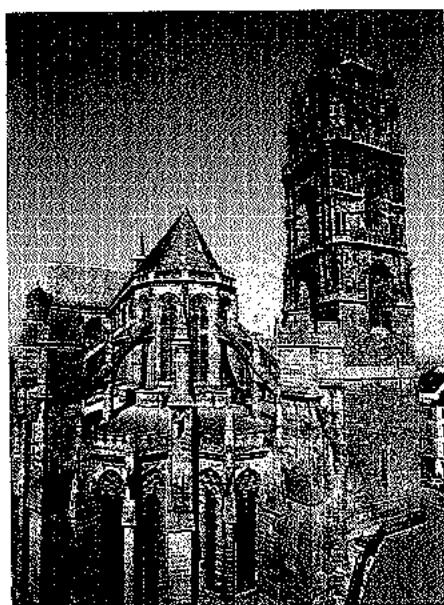
예 머릿돌을 꽃, 동물, 그로테스크 모티브로 조각을 했다.

#### 4-5 후진

1277년에서 1300년 사이에 건립되었으며 방사형의 작은 제단들이 후진 주위에 있고 북쪽 축면에는 14세기 말과 1512년에서 1526년 건립된 종루가 있다. 좌우익랑부터 매우 경사진 곳에 있는 후진은 돌로된 8개의 토대위에 건립되어 있다. 지하는 기둥과 기둥사이에 벽을 만들어 기둥을 이어주므로써 건물의 내구성을 높였다. 후진은 로데즈의 채석장에서 운반해온 분홍색 사암을 질라 건립했다. 결이 곱고 부드러운 석회암은 두 정문과 내부를 장식하는 집기에 사용했다. 후진의 작은 제단들 사이에 위치한 대형 부벽들은 후진 주위회랑의 궁륭을 받쳐주고 벽날개와 함께 후진 궁륭의 압력을 지탱한다. 두터운 부벽의 두께는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얇아진다. 두터운 부벽사이에는 당초무늬 장식의 첨탑으로 끝을 마무리한 작고 얇은 부벽이 둘씩 있어 작은 제단의 궁륭을 받치고 있다. 모든 부벽은 세변으로 된 홍예문 모양의 장식으로 건립되었다. 작은 제단들의 입구 기둥 위쪽에 중간기둥을 세워 벽날개는 두단계로 만들어 부벽에 작용하는 압력을 경감시켰다. 부벽의 바깥쪽에 구멍을 뚫어 웅크리고 있거나 쑥 내민 형태의 상상의 동물 모양 석누조를 만들고 비나 눈녹은 물이 수직도관을 통해 지붕에서부터 용이하게 흐를 수 있도록 했다. 조각을 한 난간 위로는 쇠시리를 넣은 배내기가 벽을 장식하고 있다. 지붕은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내진 좌우익랑 중앙회중석은 매우 높고 경사가 심하게 진 골조위에 로데즈의 석반석으로 지붕을 덮었다. 측랑과 작은 제단들의 지붕은 사암으로 된 포석으로 완만한 테라스를 만들었다. 이런 지붕 양식은 프랑스 북부지방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장 대성이 건축한 프랑스 남부지방의 건축 특징이다.

#### 4-6 종루

1513년에서 1526년 사이에 사암으로 조각을 해서 제



후진



남쪽 측랑의 테라스

작했는데 후진의 북쪽에 대성당과는 별도의 위치에 있는 종루는 중세 말기의 플랑브와양 양식(화려한 고딕양식)으로 장식되어 있다. 종루의 아래 두 층은 정방형으로 두텁고도 장식없는 벽으로 한면의 길이가 3m에 달한다. 그 위에 있는 8각형의 세층은 위로 올라가면서 장식과 부조세공이 점점 많아져 꼭대기 채광탑에서는 절정을 이룬다. 꼭대기 채광탑 위에는 성모마리아의 입상이 있다. 맨위의 두 층에는 난간이 있고 지표면에서 종루 맨 위의 테라스까지의 높이는 80m 이상이며 나선형 계단에 의해 테라스로 갈 수도 있다. 크로비 일이나 네잎 모양의 홍예문 모양 장식과 뾰족한 낙공, 그리고 당초무늬의 첨탑 장식이 셀 수도 없이 많다. 네번째 층의 네 모퉁이에 있는 망루의 벽감 속에는 열두 사도들이 세 명씩 조각되어 있고 그 위에는 향로를 든 천사들이 성모마리아 주위에 있다. 세번째 층에는 비스듬한 배내기 바로 위쪽에 성인들의 입상이 있다.

## 5. 내부

### 5-1 내진의 성직자석

1478년에서 1488년까지 제작된 것으로 나무를 조각해서 만들었다. 앙드레 숄피스(André Sulpice)는 주교를 위한 특별석과 높고 낮은 성직자석의 제작을 맡았다. 교회참사회원들이 선택했던 모델은 베지에(Béziers)성당의 내진과 같은 것이었다. 숄피스는 그가 모집한 일곱명의 조각가들과 함께 일을 하게되면 8년이면 제작을 끝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숄피스가 모집한 조각가 가운데는 그가 1473년 빌프랑슈 드 루에르그(Villefranche-de-Rouergue)의 샤르트뢰즈 수도회성당의 성직자석을 함께 제작했던 비기에(Viguerie)가족이 있었다. 숄피스는 로데즈의 성직자석을 1488년에 끝낼 수 있었고 얼마 후 그는 생을 마쳤다. 현재 남아있는 성직자의 수는 높은 성직자석이 62석, 중세의 낮은 성직자석이 14석, 그리고 성직자석의 오른쪽 끝에 있는 주교의 특별석이 1석 있다. 높은 성직자석의 위를 장식하고 있는 의자등받이 살은 1872년 신고딕양식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대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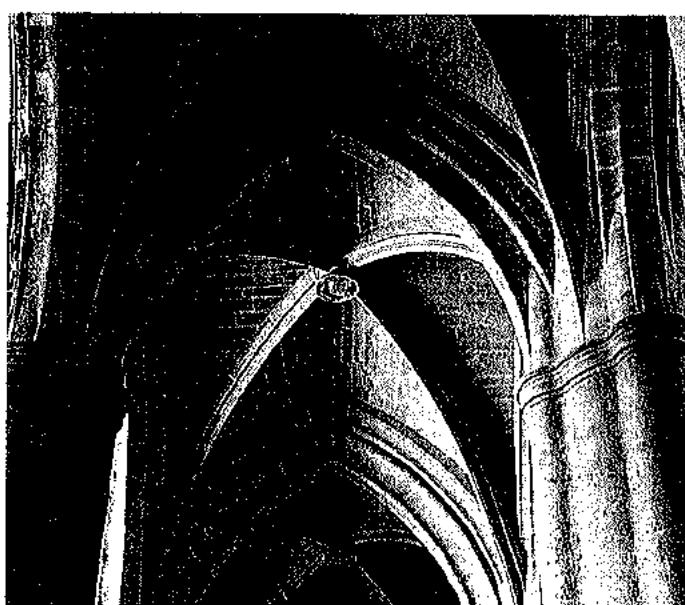
여 현재까지 남아 있다. 중세의 낮은 성직자석 14석을 제외한 나머지 낮은 성직자석은 17세기의 양식으로 제작하여 대체한 것이다. 주교석은 다른 성직자석 보다 더 화려하며 맨 위에는 높은 첨탑이 있고 그 끝에는 한 천사가 있다. 조각된 인물들은 네 측면에 있어 쉽게 눈에 띄지 않으나 조각술이 매우 뛰어나다. 빛이 들어오게 된 의자옆 창구는 화려한 나뭇잎의 와형장식들로 장식되어 있고 맨 위의 와형장식에는 한 천사가 단지를 잡고 있는데 단지 아래에는 한 사람이 아래쪽 와형 장식위에 서 있다. 주 제단 쪽에 있는 의자옆 창구중 왼쪽의 것은 초기경의 모자를 쓴 제롬(Jérôme)성인이 사자를 잡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사자의 발에서 가시를 뽑아주고 그를 길들였다고 한다. 오른쪽의 작품은 교회참사회원들이 지켜야하는 계율을 만든 오귀스탱(Augustin)성인이다. 중앙회중석 쪽에 있는 의자옆 창구에는 천사 가브리엘과 성모마리아의 작은 입상이 있다. 그 아래에는 두 순교자가 있다. 왼쪽에는 에티엔느(Etienne)성인이 있고 오른쪽에는 로랑(Laurent)성인이 있다.

### 5-2 중앙회중석과 내진

중앙회중석과 내진은 13세기에 공사를 시작하여 16세기에 완공했다. 고딕양식으로 건립되었으며 프랑스 대혁명기간 동안 훼손되어 19세기에 복원공사를 했다. 예전에는 기둥사이를 간막이 벽으로 완전히 막고 중앙회중석과 내진사이에 높은 주랑이 있어 중앙회중석과 내진이 완전히 분리 되었기 때문에 “성당속에 성당”이라 불리우는 교회 참사회원들의 내진이 있었다. 중앙회중석과 내진 주위에는 작은 제단들이 27실이 있다. 성유골에 경의를 표하러오는 많은 순례객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보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성당내부를 특별하게 꾸몄다. 복원공사를 할 때에는 간막이 벽이나 쥐배(중앙회중석과 내진 사이의 높은 주랑)가 장애물이 되기도 했지만 중앙회중석 안쪽에 세운 대형 설교단은 이때 제작했다. 천사들이 둘러싼 반향판의 왕좌위에 십자가를 든 한 여인이 앉아있고 그녀앞에는 두 천사가 계약판 형태의 구약과 신약성서를 들고 있는 모양으로 석



내진의 세번째 트리베



북쪽 측랑의 궁륭

고를 바로고 금색을 칠했다. 이 대형 설교단은 뚜루즈 사람 부르스떼(Broustet)가 1835년 조각한 것으로 미학적인 면에서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천박한 것으로 비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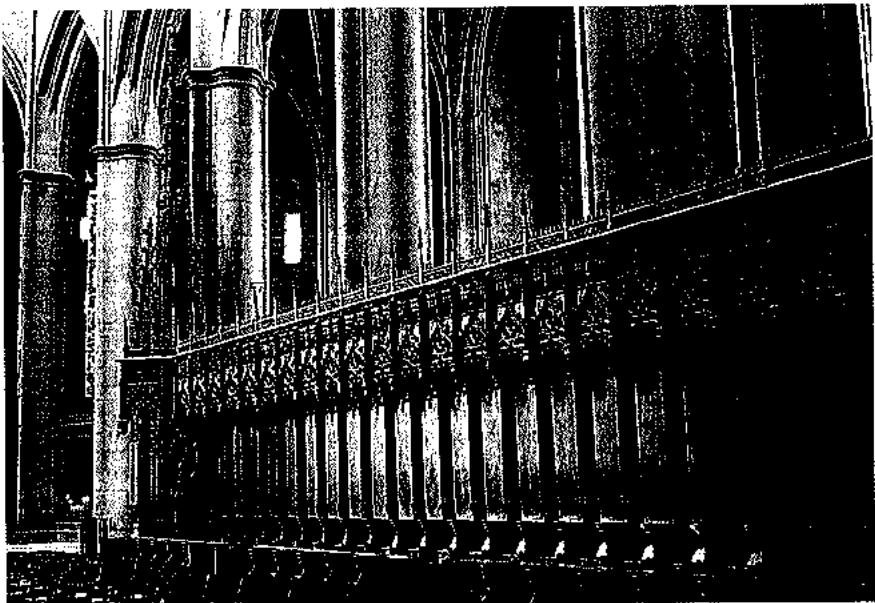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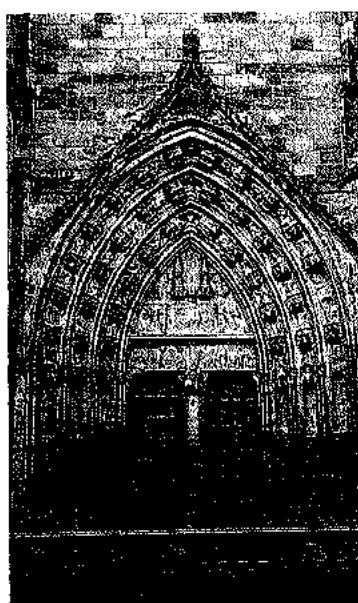
### 5-3 대청족의 작은 제단에 있는 제대

이 제대는 길이 2.31m, 폭 1.4m, 두께 0.17m로 흰색 대리석을 잘라 조각한 것이다. 1662년에 제작된 것으로 작품 가운데 있는 인물들과 가장 자리의 장식 모티브를 다색으로 채색한 것이 특징이다. 로데즈의 제대는 9세기에서 11세기에 걸쳐 제작된 프랑스 남부지방의 여러 제대들과 재료와 장식에 있어 유사한 특징이 있다. 가장 유사한 것으로는 10세기에 제작된 제론(Gerone)과 에로(Herault)의 제대가 있다. 그리이스 산의 대리석관과 유사한 이 제대의 대리석을 분석한 결과 약 10세기경 고대의 작품을 재사용하여 제대를 만들었다고 추정된다. 특히 제대의 가장자리를 비늘무늬의 띠로 장식한 것은 로마네스크와 비잔틴 양식을 결합한 양식으로서 기독교도들의 지배하에 있던 스페인 기독교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961년에서 1004년 까지 로데즈의 주교였던 되스데디(Deusdedit)라는 이름과 제대의 양식 그리고 고지리학의 기록의 의한다면 이 작품이 10세기 말의 작품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제대를 받쳐주던 지지대의 흔적을 판석위에서 볼 수 있다. 즉 프나이유(Fenaille)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위음 장식과 종려나무 잎 장식으로 조각된 흰색 대리석 기둥머리와 8각원주에 꼭 맞게 정방형 공간을 남겨 두고 각 모퉁이에 쇠시리가 설치되어 있다. 원주 속에는 흠을 파서 제단의 받침돌 장식을 이루고 있는 석판이 지탱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는 이 장식의 일부분만 남아 있는데 한손에는 성서를, 다른 한 손에는 지구를 들고 왕좌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의 저부조 작품으로 흰색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이 저부조 작품은 10세기에 제작되었고 원주와 기둥머리는 11세기에 제작되었으나 얼마 사용하지 못하였다. 1525년 프랑수아 대스팽 주교가 재임시 대리석제대를 돌로된 제대로 대체했다. 대리석으로된 장식과 지지

대는 1825년까지 그 자리에 있었으며 16세기부터 이 제대는 벽속에 장식처럼 설치하여 놓았다. 대청축의 작은 제단의 전속 신부들은 1662년 방사형의 후광으로 둘러싸인 아기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마리아와 깨끗함을 상징하는 백합을 들고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있는 두 천사를 채색하게 했다. 질베르 드 깡또브르(Gilbert de Cantobre)주교가 1348년 축성한 이 작은 제단은 깡또브르의 작은 제단으로 불리운다.

### 5-4 내진의 첫번째 트라베(기둥과 기둥사이의 공간)

한쪽은 내진쪽으로 다른 한쪽은 후진쪽으로 향해 있는 두 원주가 박혀있는 둥근 형태의 굵은 기둥들이 다섯면이 있는 후진의 벽을 받쳐주고 있다. 같은 형태의 다른 네 기둥은 내진의 두 번째 트라베가 되며 세 번째 트라베부터 중앙회중식 안쪽의 트라베까지는 기둥들이 첫번째와 두 번째 트라베의 그것보다 훨씬 굵고 작은 원주가 4개 박혀있다. 기둥머리는 없지만 단순한 띠 모양으로 쇠시리를 넣어 꺾은 아치로된 아케이드의 첫단임을 나타내었다. 같은 띠 모양의 쇠시리가 궁륭의 아치가 시작되는 부분에도 있다. 후진처럼 5각형의 벽이 있는 후진주위의 작은 제단의 기둥은 벽속에 박혀 벽과 이어져 있으며 가느다란 세워주가 기둥을 장식하고 있다. 이 가느다란 원주 위에는 일사귀 모양이 있는 기둥머리가 있고 그 위로는 후진 주위 회랑의 궁륭쇠시리가 있다. 성당의 남쪽, 정방형의 작은 제단이 오각형의 작은 제단과 이어지는 곳에 둥근 기둥이 하나있다. 쇠시리를 넣은 매우 단순한 토대들은 모양이 다른데 이는 공사가 재개될 때마다 모양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뾰족아치의 교차점 위에 건립된 고딕식 궁륭은 삼각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모든 흥에 머릿돌을 완벽하게 맞추어 견고한 것이 뾰족아치의 특징이다. 가느다랗게 자른 건축용 돌은 궁륭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궁륭의 압력을 분할되어 기둥과 외부의 벽날개에 작용한다. 첨두의 중심에 있는 흥에 머릿돌에 아치의 지선들이 모여있으며 반원형의 후진이 있는 아치의 여섯지선과 내진 아치의 두 지선이 첫번째 트라베



를 가로지르고 있다.

### 5-5 내진의 세번째 트라베

기욤 드 라 투르(Guillaume de la Tour) 주교는 1449년 12월 31일 벨퐁탈(Villecomtal)의 두 미장공 레이용돌라(Raymond Dolhas)와 그의 아들 제로(Geraud)에게 성당의 세번째 트라베 공사를 맡겼다. 체결한 계약서 상에 기둥, 벽널개, 부벽, 아치, 트리포리움, 창문과 궁륭이 모두는 이미 먼저 건립한 것과 모든 점에서 같아야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기둥은 그전에 건립한 것보다 더 굵고 네원주가 기둥속에 박혀 있는 형태로 바꾸었으며 그외 나머지는 변화없이 같은 형태로 만들었다. 즉 측랑 위에 있는 트리포리움의 토대는 같은 띠 모양의 쇠시리를 넣어 두드러지게 하고 트리포리움의 창구는 돌 또는 넛씩 만들었으며 트리포리움 위에 있는 창문은 둑근 쇠시리를 넣어 구분을 지었다. 후진 창과 내진의 첫 번째 트라베의 창은 맨 윗부분을 크로버 무늬나 네잎모양으로 장식했다. 세번째 트라베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모두 최근에 제작했다. 내진과 중앙회중석의 마지막 트라베에 있는 창의 곡선 장식은 화려한 고딕양식이다. 창에서 돌로 쌓은 부분은 처음 공사할 당시의 것으로 프랑스 남부지방의 고딕 양식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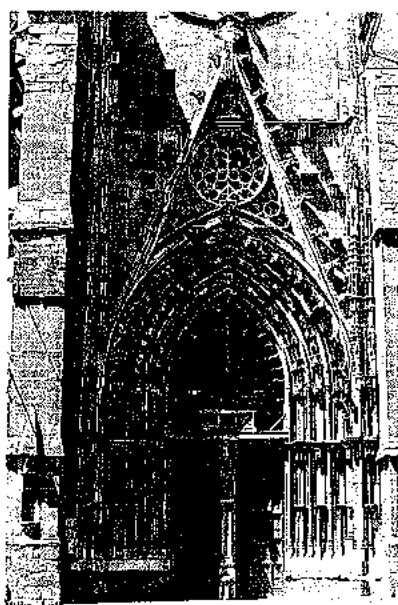
### 5-6 세풀크르(Sepulcre) 성인의 작은 제단 간막이 벽

간막이 벽과 제단 그리고 제단뒤의 장식 벽은 1523년 석회암을 조각하여 채색한 것으로 교회 참사회원들이었으며 작은 제단의 설립자였던 가이야르 루(Gaillard Roux)가 재정부담을 하였다. 제단의 위에는 그리스도의 주검을 무덤에 안치시키는 장면이 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염포를 잡고 있으며 중앙에는 성모마리아가 두 여인의 부축을 받으며 서 있고 그 양옆에는 가시관을 든 사도요한과 긴 머리를 한 마리 마들렌느가 있다. 일곱인물의 위에는 성작과 해면, 십자가, 그리고 창과 가시관 등 수난의 도구들을 든 세 천사가 있다. 그리스도의 주검을 무덤에 안치시키는 장면위에는 부활의 장면이 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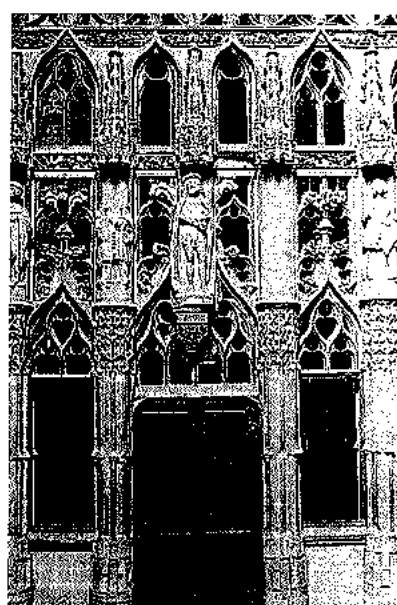
있다. 원쪽에는 지옥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찾으러온 그리스도가 있고 처음으로 나오는 영혼은 아담과 이브이며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무릎을 꿇고 있는 마리 마들렌느에게 발현한 장면이다. 그는 정원사의 삽을 들고 있고 마리 마들렌느는 정원사와 그리스도를 혼동하고 있다. 오른쪽에는 사도 토마에게 발현한 그리스도를 표현해 놓았다.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토마에게 그리스도는 발현후 사라졌고 토마는 무릎을 꿇고 있다. 세번째 층에는 염포를 두르고 무덤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묘사해 놓았다. 그의 주위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신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빌라도의 호위병들이 지키고 있다. 그리스도의 양쪽에 있는 빌라도의 호위병은 부활의 빛때문에 눈이 부셔 팔로 눈을 가리고 있고 중간에 있는 호위병은 길게 누워 있다. 본래는 측면의 벽기둥에 베드로 성인과 바오로 성인 그리고 프랑수아 성인의 입상이 있었다.

### 5-7 내진과 중앙회중석 사이의 높은 주랑

1468년에서 1478년 까지 제작된 것으로 석회암을 조각해서 제작했다. 이 주랑은 교회 참사회원들이 앉아 있던 내진과 신자들이 앉던 중앙회중석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했다. 13세기부터 대성당에 내진과 중앙회중석을 건립했으나 17세기 말부터는 신자들이 미사를 더 잘드릴 수 있도록 없앴다. 교회 참사회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진과 중앙회중석 사이의 높은 주랑은 오랫동안 대성당안에 보존되어 있었으나 대부분은 내진의 간막이 벽처럼 없앴다. 로데즈의 내진과 중앙회중석사이의 높은 주랑은 복잡한 리브가 있는 섬세한 궁륭과 높은 첨탑으로 장식한 기둥의 조각은 찬탄할 만하다. 그러나 두 정문을 본떠서 조각한 중요한 장식은 프랑스 내혁명 때 파괴되었으며 벽감에 있던 38점의 입상은 제거되었다. 양식에 있어서 남쪽 정문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미루어 비기에가의 일원의 지휘하에 같은 그룹의 조각가들이 제작했다고 추정된다.



남쪽 정문



성모의 작은제단의 간막이 벽



율리보동산의 작은제단의 장식벽

### 5-8 대형 파이프오르간

북쪽 악랑에 있으며 파이프 오르간 틀은 1628년에서 1631년 사이에 호두나무로 조각했다. 파이프 오르간 틀의 높이는 20.5m로 와령장식 꽃장식, 아라베스크 무늬, 괴인면, 어린천사와 입상들이 단순한 건물에 생기를 부여하고 있다. 9그룹의 파이프 오르간의 음관이 있는 작은 파이프 오르간 틀의 중앙 작은 탑에는 교회참사회의 상징인 왕관을 쓴 성모마리아가 있고 오른쪽 작은 탑에는 아망(Amans)성인, 왼쪽 작은 탑에는 마르티알(Martial)성인이 조각되어 있다. 이들은 초기의 복음전도자들로 교구의 수호성인이다. 작은 파이프 오르간 틀 위에는 장식판이 9점 있고 그 위에 대형 파이프 오르간 틀에는 작은 탑이 다섯점 있다. 4점의 작은 탑은 첨탑으로 된 파라미드가 있으며 한점의 작은 탑에는 천사가 끝을 장식하고 있다. 양쪽 끝에 있는 작은 탑 위에는 천사가 교회 참사회의 문장이 있는 방패꼴 문장을 들고 있다. 중앙의 작은 탑 끝대기에는 천사들에 들려싸여 승천하는 성모마리아가 있다. 파이프 오르간 틀의 윗부분은 초록색과 빨간색 그리고 강렬한 색으로 채색하던 흔적이 있다.

### 5-9 대청축의 작은 제단 궁륭의 그림

성모영보의 작은 제단 또는 깡또브르(Cantobre)의 작은 제단으로도 불리운다. 1340년에서 1348년 사이에 제작되었다. 이 작품은 복원하지 않은 것으로 모르타르(회반죽)위 벽화위에 그려진 벽화로서 1986년에 17세기부터 벽화위에 덧칠한 세종의 석회를 걷어내면서 발견되었다. 벽 맨꼭대기에 있는 아치에도 채색한 흔적이 있다. 하늘을 상징하는 짙은 푸른색의 바탕위에 다섯 인물이 고딕식 궁륭을 점유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노랑색 웃옷과 보라색을 띤 짙은 뺨간색 망토를 걸치고 앉아있다. 그는 왼쪽 무릎에 성서를 펴놓고 오른손으로는 축복을 하고 있다. 복음사가들이 그리스도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그리스도의 오른쪽에는 천사와 함께 있는 마태오성인, 루가성인이 있고 왼쪽에는 독수리와 요한성인, 사자와 마르크성인이 있다. 그림을 그런 화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탈리아

인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 남부지방의 화가가 그렸다고 추정한다.

### 5-10 올리브 동산의 작은 제단의 장식벽

석회암을 조각하여 채색한 것으로 15세기 말에 제작되었다. 계세마니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하느님에게 십자가의 형벌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했다. 그리스도의 위쪽에 하느님의 홍상이 있고 그 아래에는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한 천사가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네명의 아기천사는 슬픔과 두려움, 땀과 피, 애원등 그리스도의 고통을 나타내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그 아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세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잠들어 있다.

### 5-11 작은 제단에 있는 스테인드글라스

13세기 말에서 14세기에 제작된 부분과 19세기에 제작된 부분이 있다. 유리창의 윗부분에는 아기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나란히 둘있다. 왼쪽의 작품이 13세기 말에서 14세기에 제작된 부분이다. 아래의 스테인드글라스는 왼쪽에 검을 든 바오로 성인, 오른쪽에는 열쇠를 쥐고 있는 베드로 성인을 나타내었고 같은 형태의 닫집아래 두 성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작품의 연대는 같다고 추정된다.

### 5-12 아버지의 눈을 뜨게한 토비이

고블랭 직물 공장에서 벽걸이용 장식 용단으로 만들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1715년 앙투안 쿠아펠(Anyoine Coypel)이 제작했다. 그 시대에 인정 받던 화가 앙투안 쿠아펠은 18세기 초 두 점의 대작을 제작했다. 왕궁의 에네(En e)주랑을 장식했던 작품으로 지금은 루브르와 몽펠리에(Montpellier)박물관에 보존되어 있고 또 한 작품은 베르사이유의 작은 제단의 궁륭을 장식한 것으로 지금도 그곳에 있다. 짊은 토비이는 라파엘 천사와 함께 오랫동안의 여행에서 돌아온다. 그는 라파엘 천사의 권고에 따라 그가 잡은 큰 물고기의 담즙을 사용하여



교회참사회원 제의실 문



북쪽의 마지막 작은제단과 축랑위의 특별석

늙은 아버지는 곧 시력을 되찾는다. 단순한 장식, 연한 색조의 옷과 인물들의 극적인 몸짓등으로 그 순간의 감정을 잘 묘사하고 있다. 명암과 색조는 양투안 쿠아펠이 플랑드르 화가들의 영향을 받은 것을 나타낸다.

### 5-13 과달루페의 성모마리아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제작된 유화이며 도미니트 수도회 선교사 라코스트(Lacoste)신부가 로데즈의 자코뱅(Jacobins) 수도원을 장식하기 위해 1683년 멕시코에서 가져온 작품이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위 아래가 많이 축소된 상태로 내진과 중앙회중석사이의 높은 주랑 아래에 있었다. 19세기 중엽 실행한 복원작업으로 본래의 크기를 되찾게 되었다. 성모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장미꽃 장식은 복원 작업 때 넣었다. 내진과 중앙회중석 사이의 높은 주랑을 성당에서 제거한 후 1873년 현재 이 작품이 있는 인도의 성모마리아의 작은 제단에 설치되었다. 1988년 한번 더 실행한 복원작업으로 생생하고도 밝은 본래의 색을 되찾게 되었다. 아기천사가 받치고 있는 초생덜위에 성모마리아가 서있다. 점점이 별모양이 있는 큰 망토를 입고 왕관을 썼으며 두 손을 모으고 눈을 아래로 고정시키고 있다. 금빛 후광이 성모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다. 긴 웃은 르네상스 양식의 금빛 모티브로 장식되어 있는데 이와 똑같은 그림의 복사본이 1531년 멕시코의 한 농부에게 성모마리아가 발현한 터에 건립한 과달루페의 대성당에도 있다. 유럽에도 이 그림의 복사본이 여럿 있으며 가장 오래된 복사본 중에 두 점은 로마에 있다.

## 6. 맷음말

12세기 일 드 프랑스(Ile-de-France : 파리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의 도 이름)에서 창안된 고딕양식의 건축술은 빛 속에서 그 웅장함을 표현하는데 손색이 없다. 즉 고딕양식 건축의 특징인 넓은 면적, 현기증이 날만큼 높은 궁륭, 넓은 창이 있는 벽으로 균형이 잡혀 있으면서도 비약적인 것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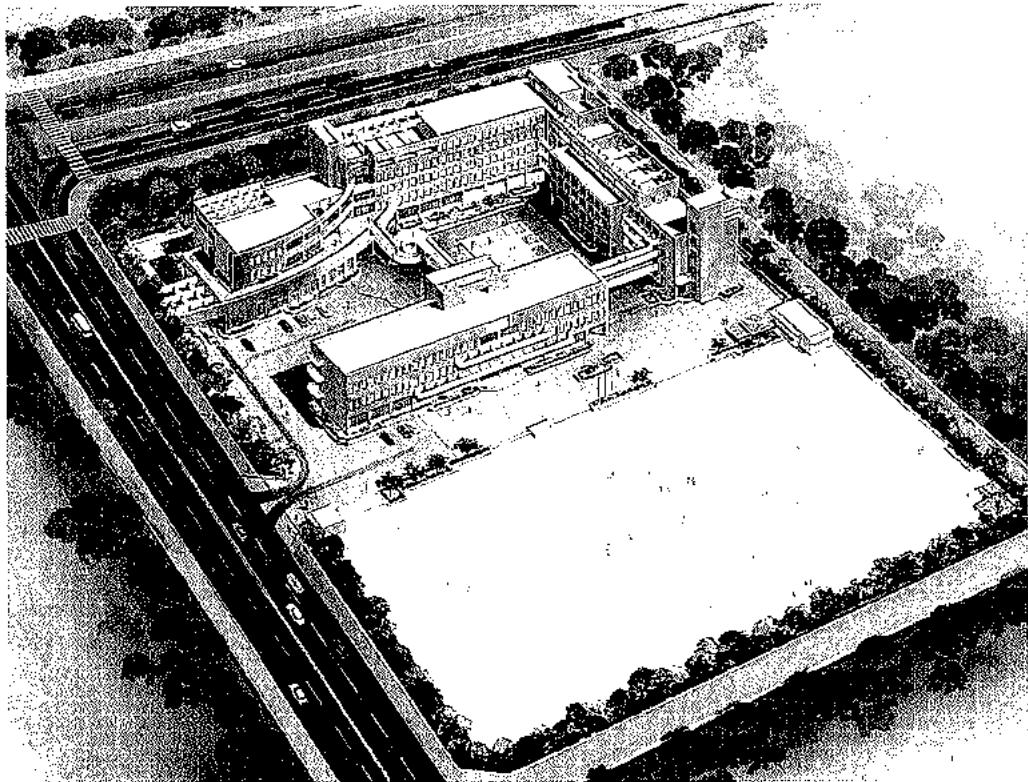
징의 양식을 바탕으로한 로데즈의 대성당은 역시 웅장하고 대담한 기법을 적용하여 13세기 말의 마지막 작품으로서 손색이 없는 성당으로 꼽힌다. 이 성당은 또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성당인 클레르몽, 리모쥬 그리고 나르본 성당보다 훨씬 단순하고 거친 외부에서 루에르그(Rouergue : 프랑스 남부의 옛 지방이름)지방의 배타심을 볼 수도 있다. 성당은 요새도시의 정상에 있는 붉은 사암과 옛날에는 성벽에 포함되어 있던 정면의 장식 없는 큰 벽은 약간 육중한 성체의 외양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종루는 후진의 북쪽에 전체적으로 매끈한 정방형 토대위에 견고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투조세공을 한 고딕양식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상 대성당의 크기와 섬세한 건축술을 보려면 먼저 안으로 들어가야한다. 대성당의 초대 역사학자이며 고문서 학자인 비옹 드 말라바뉴(Bion de Marlavagne)는 1880년 행정상의 서류끝에 “만일 우리가 성당 깊숙히, 특히 특별석에 서서 후진을 바라본다면 내진의 방사상 고딕아치와 긴 창문들 그리고 가느다란 원주들이 발산하는 아름다움에 사로잡힌다. 성당내부는 빛으로 가득차 있으며 수평선은 없고 모든 것은 수직이며 모두가 올라가기벼운 느낌이 든다. 그러나 장식은 건물의 완성과는 부합되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 이 성당의 주요한 결점이라 할 수 있다. 필요한 조각, 입상 그리고 회화의 도움을 무시한 채 건축되어 장식은 거의 소용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건물은 매우 차고 생냉이 없는 것 처럼 느껴진다”고 서술했다. 이와 같이 성당 건물의 간결함에 대해 루에르그 사람들처럼 차고 엄하다고들 하지만 이 엄격함은 과란 만장한 역사인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 많이 증폭되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수호천사의 작은 제단의 장식벽



족랑의 난간과 석누조



조감도

## 동명중학교

Tongmyeong Middle School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새로 세워질 동명중학교 건축설계 현상공모에 따라 지난해 12월 19일 총 7개사무소에서 작품이 제출된 결과 류가람건축(대표 류연창)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했다. 이번 현상설계 경기는 학교는 학생들의 생활공간으로 동시에 교사가 관찰 지도하는 가운데 학생 개개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장소가 되어야 하므로 학습형태와 사용자의 요구와 활동에 의해 다양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면서 융통성, 확장성, 다목적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치뤄졌다. 기작으로는 위드(대표 이병구)건축안이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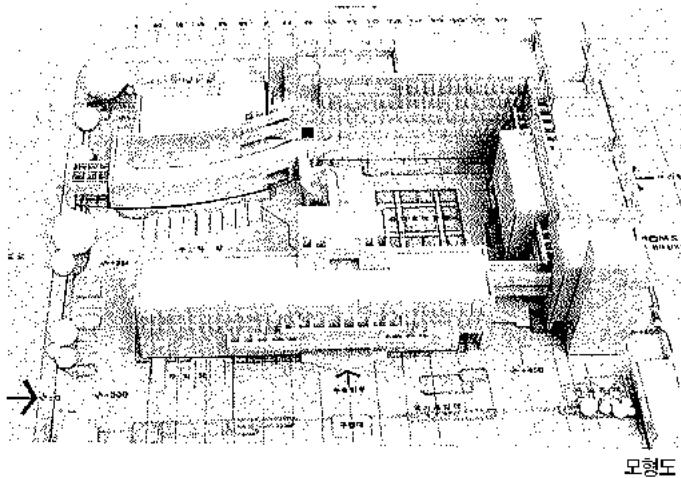
### 당선작

#### 류가람건축 (대표 류연창)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상무테크 개발자구)  
지역 · 지구 / 학교시설자구  
대지면적 / 13,487㎡  
건축면적 / 3,492.98㎡  
연면적 / 8,387.77㎡ (피로타 1,435.35㎡)  
건물규모 / 지하1층, 지상 5층  
주차대수 / 45대(지체부지유용 5대포함)  
조경면적 / 1,841.69㎡  
구조방식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요외장재 / 적벽돌 차장쌓기, 애틀리 본타  
일

###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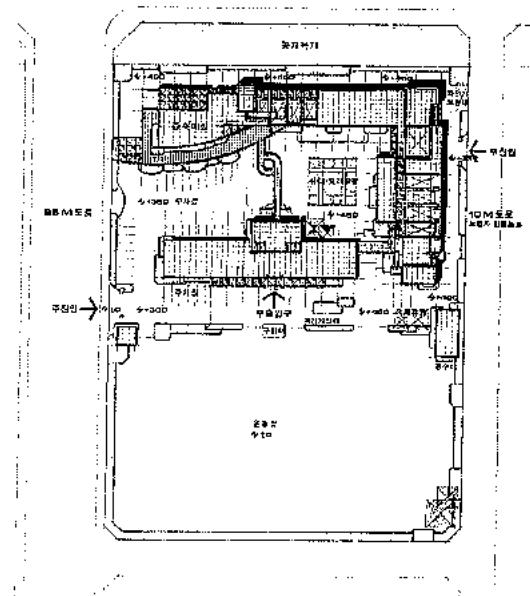
- 대지의 형태가 주는 방향성에 맞추어 매스의 분절·결합(피로티, 브릿지등)에 의하여 직교시킴으로서 중정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피로티 도입으로 자연통풍 및 채광등을 유도한다.
- 진입은 주변상세계획의 차량 출입부분과 보행자 출입부분 지정에 따라 주출입구를 차량 출입 허용부분인 25m도로(서측)에서 이루어지게 하였으며 부출입구를 보행자 출입허용 부분인 10m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중정부분이므로 피로티를 두어 자연스럽게 내부공간과 연결되도록 한다.
- 운동장은 도로의 남측에 위치 시켜 교사정면이 남향이 되게 하고, 전면건물의 피로티와 브릿지를 통하여 증정부분의 휴게공간과 연계된다.
- 일조 조건의 극대화를 위해 남측건물은 저층으로 계획하고 충분한 인동간격을 유지한다.
- 대지의 4면이 도로에 접하므로 수목으로서 완충대를 형성 하여 도로소음에 대비한다.
- 차후 증축에 대비한 증축부는 후면건물 서측에 식당과 옥상 정원으로 브릿지로 자연스럽게 연결 증축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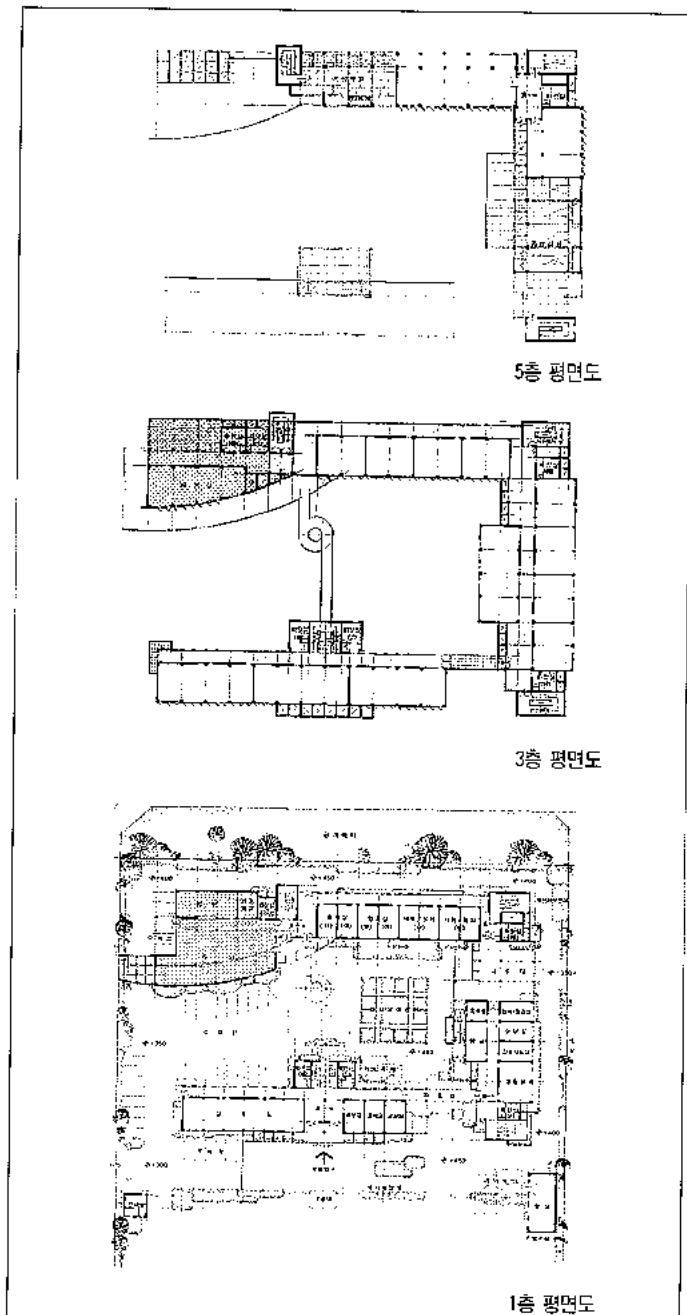
모형도



1층 평면도



배치도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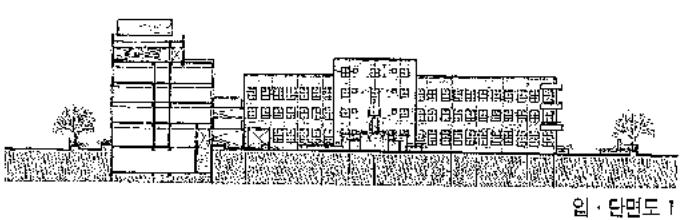
## 기능 및 동선계획

- 기능별 조닝은 1층에 관리·보건위생·편의시설 등을, 일반교실은 2, 3, 4층에 학년별로 하고, 특별교실은 주로 남측전면부 관리 Part와 같은 동에서 뒤어서 계획하고 일부 특별교실만 서측 및 일부 중축부분에, 5층부분은 도서실로 계획한다.
- 1층부분은 피로티 도입으로 중정부분을 구심점으로 운동장과 중정, 부출입구(보행자출입구)와 중정으로 연결하여 자연스런 동선을 유도하고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 건물 상층부의 옥상정원은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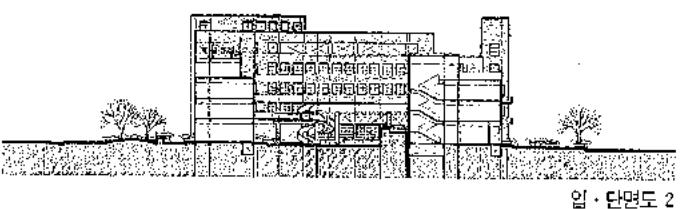
실 등 기타 내부공간과 연계시켜 다양한 동선을 유발하고 이용자에게 친근감과쾌적함을 제공한다.

- 모듈에 의한 평면 개념은 모든 기능실에 기변성 및 웅통성을 부여하고 대부분의 실을 편복도 형식을 채택하여 자연환경(일조·채광·통풍)과 부합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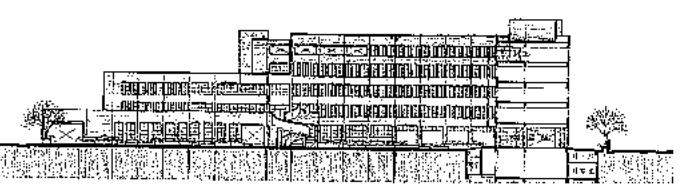
- 차량과 보행자동선은 분리하여 앞동과 뒷동을 잇는 브릿지를 매개점으로 차량허용구간의 주출입구쪽에서 주차장 및 주차동선을 해결하고, 부출입구쪽에서 보행자 동선이 주로 이루어지게 하여 동선의 혼잡을 방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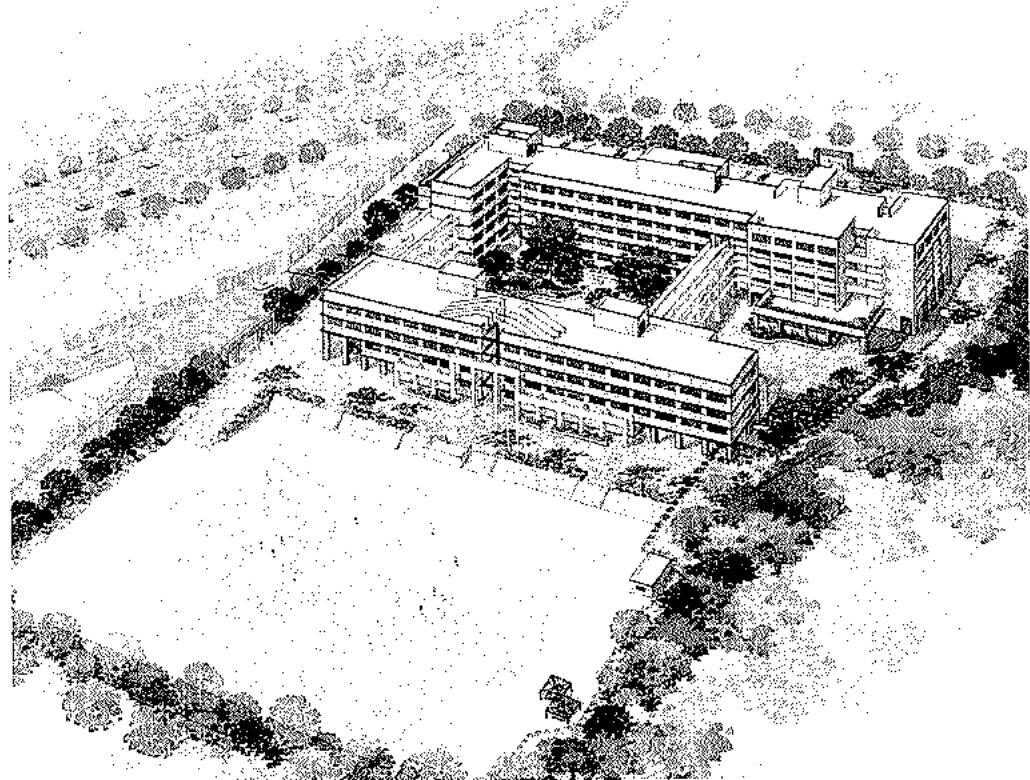
입·단면도 1



입·단면도 2



입·단면도 3



조감도

## 상무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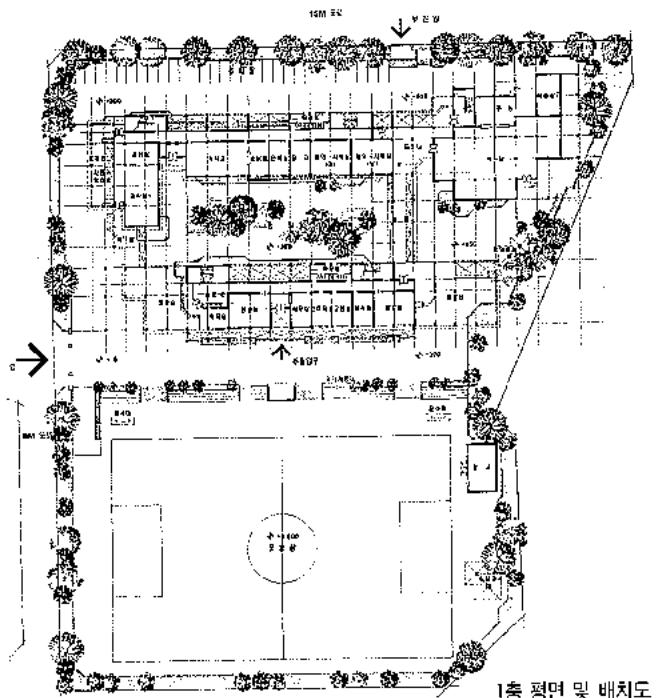
Sangmoo High School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새로 세울 「상무고등학교」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프러스건축(대표 조두상)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95년 12월 23일 발표했다. 이번 현상설계경기는 사회환경과 경제적 상황 그리고 교육시스템의 변화 등에 따른 교육환경개선 요구에 부응하고, 장차 열린 학교로서 가변성 있는 공간계획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장소로 계획되어져 총 6개 사무소에서 참여했다. 기작으로는 신이건축(대표 신안준)안이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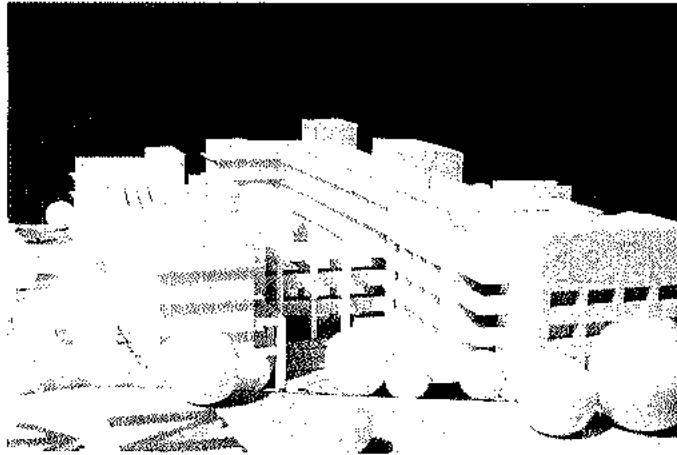
### 당선작

프러스건축  
(대표 조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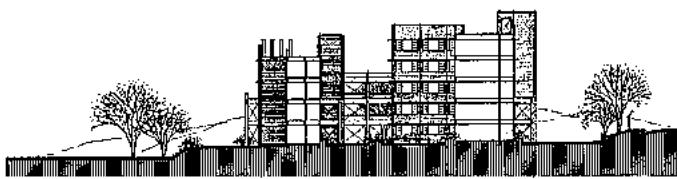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상무택지  
개발자구(1지구)내  
지역, 지구 / 학교시설지구  
대지면적 / 14,519.00㎡  
건축면적 / 2,868.01㎡  
연면적 / 11,859.66㎡  
건물규모 / 지하1층, 지상 5층  
주차대수 / 40대  
조경면적 / 2,210.89㎡  
구조방식 / 철근콘크리트 리멘조  
주요외장재 / 적벽돌 치장쌓기, 예복시 본타  
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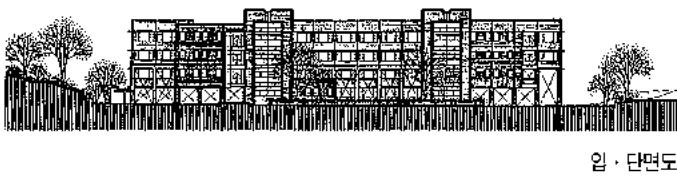
1층 평면 및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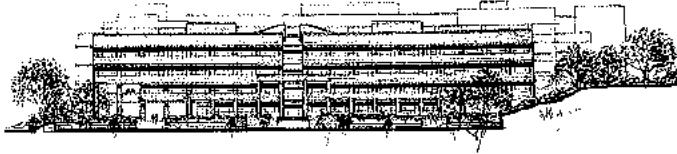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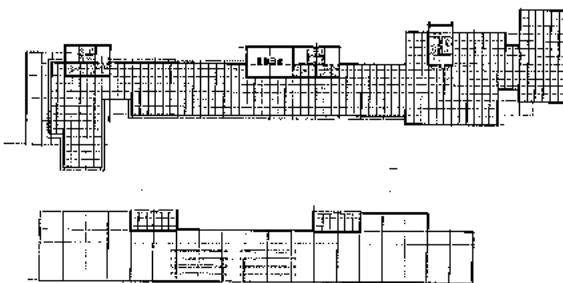
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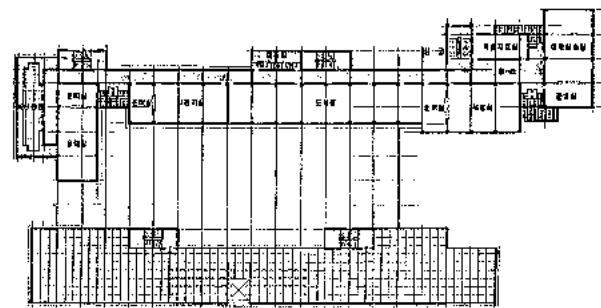
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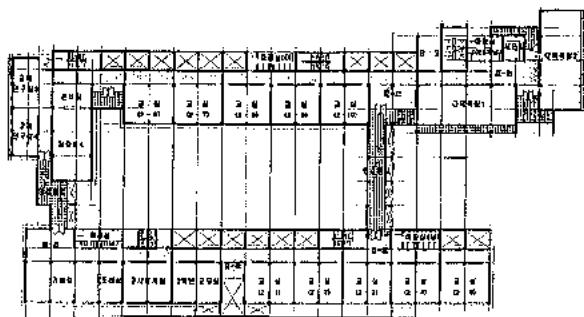
입면 스케치



지붕 평면도



5층 평면도



3층 평면도

## 배치계획

- 도시적 맥락에 의해 대지형태가 주는 방향성에 맞추어 기본적으로 매스의 분절, 결합(피로티, 브릿지등)에 의하여 직교식 킴으로써 중정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피로티도입으로 중정부분의 자연통풍 및 채광을 유도 한다.
- 대지주변의 서측 및 북측도로의 계획자반고를 감안할 때 대지 레벨과 일치되는 서측도로 중간부를 주진입으로 설정하고 북측 부진입은 약 2m 정도 레벨차를 계단으로 처리한다.

- 주차장은 건물 후면의 이격거리(도로소음방지)를 이용하여 북측에 설치한다.
- 운동장은 대지남측에 진입로를 끼고 위치하며 전면건물의 피로티를 통하여 중정부분의 휴게공간과 연계한다.
- 일조조건의 극대화를 위한 충분한 인동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남측건물은 저층(4층)으로 계획한다.
- 북측 도로에 접하는 부분은 수목으로 완충대를 형성하여 도로소음을 대비한다.
- 권장시설 및 증축시설을 한 기능으로 묶어 수평증축의 확장

성에 대비한다.

## 기능 및 동선계획

- 기능별 조닝은 1층에 관리, 보건위생, 편의시설 등을, 2·3·4층에 일반교실군을 5층 및 각 층일부에 적절한 특별교실과 도서실을 계획한다.
- 1층부분은 피로티를 적극 도입하여 중정과 연계시켜 오픈성을 확보하고 동선의 연결을 원활히 하며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 모듈에 의한 평면 계획으로 장차 열린학교(Open School)에 대비하여 모든 기능실에 기변성 및 융통성을 부여하며 편복도형식을 채택하여 일조, 채광, 통풍 등을 유리하게 한다.
- 차량 및 보행자 동선은 진입시 분리하여 동선의 혼잡을 방지 한다.
- 생활관과 식당, 샤워·탈의실을 수직 수평적으로 연계하여 각실을 다목적으로 공동사용이 가능케 한다.
- 교무실은 학년별로 설치하여 학생과 교사와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유도한다.

## 아카시아 건축교육위원회

김지덕 / 본 협회 국제위원장

1995. 11. 24~29일까지 싱가폴 웨스틴 스텐포드 호텔에서 제8차 아카시아포럼이 개최되었다. 우리 협회에서는 김지덕 국제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정근 국제위원회 자문위원, 오근석, 백경국 국제위원회과 '95한국건축문화대상 학생부문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각각 수상한 한선정, 홍만식 학생 등 6명이 공식대표로 참석하였다. 여기에서는 금번 행사 가운데 11. 24~25일까지 양일간 개최되었던 제16회 아카시아 이사회 주요 협의사항들을 의제별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1. 주요업무 보고

아카시아회장의 인사말과 싱가폴건축사협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아카시아 명예서기의 회의 안전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1994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5회 이사회 회의록 승인, 아카시아 명예회계의 전년도 예산집행 현황보고, 각 회원국 협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순으로 시작되었다.

### 2. 사업계획 추진현황

아카시아의 추진사업에 대한 담당회원국 협회의 업무보고가 있었다. 맨처음 말레이지아건축사협회와 싱가폴건축사협회로부터 아카시아 정보센터 및 아카시아 기록보존에 관한 사업추진계획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아카시아 북'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협회의 보고가 있었다. 특히 우리 협회에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아카시아에서 염원해 오던 '아카시아 북' 발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나 각 회원국 협회의 구입신청 부진으로 인하여 총 발행부수의 절반도 판매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 결과, 각 협회에서 의무적으로 100부씩 구입하도록 결의되었다.

이어 말레이지아의 Jimmy Lim은 본인이 주관하여 발행하고 있는 계간지 'ARCASIA'의 출판현황 보고와 함께 자료의 부족으로 동 책자 발간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으니 각 회원국 협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제8차 아카시아 포럼

## 제8차 아카시아 포럼

ARCASIA FORUM 8

김지덕 / 본 협회 국제위원장  
이정근 / 본 협회 국제위원  
백경국 / 본 협회 국제위원  
한선정 / 서울대 건축학과  
홍만식 /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by Kim Gi-Duck, Lee Cheong-Kyun, Baek Kyung-Kuk, Han Son-Cheong & Hong Man-Shik

### 3. 건축설계용역에 관한 국제윤리규약 철회 반대결의

금번 이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할 수 있는 워크샵에서는 GATTS문제, 정보망 구축문제, 협작설계를 위한 공동계약 문제 등을 집중토의하였으며, 특히 국제건축가연맹(UIA) 수석부회장인 Ghia Kok Leong과 UIA 건축사업무위원회 공동서기인 Zhang Qinnan으로부터 95년 11월 2일 18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UIA 실무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고받았다.

UIA 실무위원회는 1987년 UIA 이사회 및 총회에서 승인되고 채택되었던 “건축설계용역에 관한 국제윤리규약”이 실효성이 없고 무용한 것이며 GATTIS(서비스 협약에 관한 일반협정)의 조항과도 위배되므로 철회되어야 하며, UIA 제1지역부터 제4지역까지 각 지역별 회원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윤리규약중 관련조항을 집약하여 어떠한 하나의 원칙을 만들어 대체하자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아카시아 이사회는 동 규약의 제정배경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고 각 회원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사들이 다른 국가에까지 그들의 업무영역을 활발히 넓혀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결의하였다.

- 아카시아이사회는 1994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5회 아카시아 이사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 규약의 조항이 GATTS(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조항과 일치한다고 판단한다.

- UIA실무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비논리적이고 근거가 없으며, 특히 비효용성이라는 것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으므로 동 규약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은 UIA 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 건축설계에 관한 국제윤리규약을 철회하고 각 회원국에서 적용되는 윤리규약중 관련조항을 집약하여 어떠한 원칙을 정하자는 세안은 공정성이 없으므로 동 규약은 전세계적인 치침서로서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 아카시아 이사회와 아카시아 지역내에 있는 모든 UIA 회원국은 건축설계 용역에 관한 국제윤리규약의 철회를 강력히 반대하고 UIA가 동 규약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도록 촉구한다.

상기와 같이 건축설계용역이란 건축전문가의 활동이지 부역이나 장사와는 엄격히 구별된다는 점을 분명히 재확인하고 15개 회원국 협회 대표가 동 규약을 재확인 재천명한 것이다.

### 4. 연례행사 개최

필리핀건축사협회로부터 1994년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6차 아시아건축사대회 개최에 따른 성과보고가 있었고 싱가풀건축사협회는 금번 제8차 아카시아포럼에 대한 준비과정 및 행사내용 소개가 있었다. 이어 1996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예정인 제7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준비상황 보고가 있었으며, 1997년 제9차 아카시아 포럼 개최지로는 신일본건축가협회(JIA)의 제안을 받아들여 일본으로 결정하였다.

### 5. 아카시아건축상 추진

필리핀건축사협회로부터 1994년 개최된 아카시아건축상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가 있었고, 이어 1996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7차 아시아건축사대회와 병행 개최될 아카시아건축상 운영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아카시아건축상 준비위원장 선임은 인도네시아건축사협회에 위임하였고, 심사위원 선정은 1994년 제정한 아카시아건축상 운영규정에 따라 회원국 및 비회원국, 건축인 및 비건축인, 각 지역별 배분 등을 통해 일부 위원을 선임하고 나머지 위원은 주최측 협회에 위임하였다.

### 6. 회원국 가입신청 협의

아카시아건축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금번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필리핀 건축사협회로부터 지난해 개최된 아시아건축학생챔피언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 베트남 및 네팔에서 신청한 아카시아회원국 가입에 관한 협의사항에서는 아카시아 회장단에 위임하였고, 호주건축사협회의 지속적인 가입 요청에 대하여는 이미 불가 결정이 확정된 시안이므로 더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하되, 이러한 신규회원 가입문제와 비회원국 단체와의 교류문제 등에 관해서는 아카시아 실무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 7. 기타사항

일부 회원국 협회에서는 본 협회의 ‘건축사’ 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매월 빠짐없이 보내주는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으나 지면에 영문설명이 없기 때문에 작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각 작품마다 간략한 영문설명을 삽입해 주기를 건의하였다.

끝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본 협회에서는 협회의 기능과 역할 변화를 통해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건축기술의 개발 및 보급, 국제 건축정보 교류등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의 건축사들이 아시아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더 나아가 세계적인 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1세기의 아시아 도시들

이정근 / 본 협회 국제위원

### 1. 들어가는 말

이번 8차 아카시아 포럼은 11월 27일부터 29일 정오 까지 이틀 반 동안 열렸다. 예년에는 행사를 이틀간으로

구분	발 표 자	주 제	국 가 / 소 속	비 고
27일	Tuan Abdul Ghani Othmar	21세기의 아시아 도시들	싱가폴	개막 연설
	Khoo Tang Chye	동남아의 도시화 현상	싱가폴 도시재개발 국장	발제 강연
	Tunney Lee	중국의 도시화 전략	홍콩대 교수	주제 발표
	Soon Chunhua	새로운 세기의 도시문화	중국 건축부 계획국장	"
	Ren Koolhaas	도시와 Cybernetics	노들암UNA 소장	"
	Shigeru Itoh	일본 동경대 교수	일본 동경대 교수	"
28일	Sharat Das	세계화의 영향 - 뉴델리	인도 건축사협회	"
	Zheng Jinman	중국 연안도시의 발전	북부자부이사	"
	Shigeru Itoh	하이테크 도시를 넘어서	중국 건축학회 부회장	"
	Dr. Ismeth Abidin	SIJORI 성장 삼각주 계획	일본 동경대 교수	"
	Parid Wardi Sudin	SIJORI 개발 전략	인도네시아 건축사협회	"
29일	Tay Kheng Soon	SIJORI 개발에서 자연과 도시화의 갈등	말레이시아 대학 교수	"
	집단회	좌장 Tay Kheng Soon	싱가폴 건축사	"

잡는데 이번에는 싱가폴 건축사협회에서 의욕을 보이는 것 같다. 첫날 오전은 개막행사와 발제강연이 있었고 하루반에 걸쳐 참석한 청중들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포럼 발표내용에 대한 토의를 거쳐 그 요약을 발표하였다. 흔히 그렇듯이 발표자들간에 주제에 대한 사전의 의견 교환 등 교감을 거친 후 발표내용을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발표내용을 어떤 범위 안으로 모은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발표자들은 각자 성의있게 준비하였어도 청중의 편에서 발표내용들을 받아들여 줄거리를 만들기에는 그리 쉽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통상적으로 국제적인 학술발표회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에 데이 캘순의 좌장으로서의 역할은 놀라웠다. 발표자들의 발표내용과 발표하는 방법의 개인적인 특성들 그리고 청중들의 태도와 반응을 주시하며 포럼의 흐름을 잘 이끌었고 임기응변으로 완급을 적절히 조절하였다. 그리하여 청중의 관심이 이완되지 않고 지속되도록 하였으며 마무리 토론에서도 발표자와 청중사이에 효과적으로 매개 역할을 하였다. 특히 마지막날은 행사의 리듬을 잘 살려서 모두가 참여하여 합의점을 도출토록 하여 끝마감까지 의욕과 호흡이 살아 있도록 하였다.

## 2. 발제 강연

개막연설과 발제강연의 내용은 아시아의 도시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적 특성을 부각하고 다가오는 세기에 새로이 도전받고 있는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은 각각 독특한 깊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지만 거의 모두 식민경영의 지배를 감수하며 그 영향을 흡수해야 했다. 그러나 식민지배가 끝난 후 급속한 경제규모의 팽창과 그에 따른 제도시화 현상의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범세계적인 추세가 21세기를 향하여 이들 아시아의 도시들이 지구의 경제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홍콩, 동경, 싱가폴 등이 도시의 하부구조와 도시구조로 볼 때 다가오는 시대를 위해 아시아의 다른 도시에 대해 표본적 모형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싱가폴 도시의 연혁과 발전계획을 소개하였다. 한정된 좁은 땅을 가진 관계로 간척사업으로 넓힌 땅에

새로운 도시축을 건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싱가풀의 사회주택제도는 한국에 비해선 한참 앞서가고 있다. 이들은 주택 부족률이라는 양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의 단계는 이미 넘어섰으며 어떻게하면 다양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고 페직한 주거공간을 공급하는가 하는 생활공간의 질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회 주택의 국가 공급체계에 따른 획일적인 답습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주택 공급에서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주택 수요자들에게 선택의 가능성과 넓혀 주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의 왜곡된 시장기능에 따른 주택 수급의 체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겠다. 싱가풀의 특징은 서양의 도시계획 기법을 과감하게 받아들여 동양 고유문화에 성공적으로 접속시켰다는 점이라고 하겠는데 독립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오랫동안 지녀온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월하지 않았나 싶다. 식민지 시대나 옛날의 차이나타운 등을 보존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도 이러한 뿌리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영국의 정원도시 전통을 이어받아서 아열대 기후에 어울리게 도시안에 공원과 숲을 많이 유지시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발제 강연을 들으면서 느끼는 점은 이 나라에서는 건축, 도시 등의 전문가가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깊숙히 관여하면서 경험을 축적하여 사회의 변화와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축가와 도시계획가들이 사회를 위해서 충분히 제몫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시아 도시들의 공통적인 특성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며 아시아 도시들을 그 예로 들고 있는데 그 어느 단계에도 한국의 도시들은 거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사실은 잇따라 발표되는 다른 연사들의 주제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단지 서울이라는 이름이 가끔 걸치례로 다른 도시들의 예에 끼워질 뿐이다. 발표자들의 의견의 한계가 그 이유라고 말할 수도 없지는 않지만 그 보다는 서울이나 그 밖의 한국의 도시가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아시아 권역에서도 인지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한다. 그들과 그 만큼 교류가 없고 교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도 되며 우리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의 도시가 다른 문화권에 내놓을 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정체성 있는 집합적 삶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어떤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 3. 아시아 도시들의 당면 과제

아시아의 도시들이 각각 독특한 깊은 문화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사한 역사적인 발전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같이 21세기를 코앞에 놓고 대처하는 자세는 같을 수가 없다. 각각 경제 발전의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정치제도와 국민들의 정서가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개방경제체제로의 전이과정에서 일고 있는 급속한 도시화, 도시와 농촌간의 인구이동, 산업인구 구성의 급격한 변화등 우리 사회가 30년전에 거쳐간 도시 산업화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

는 듯하다. 그들의 당면 과제는 이러한 변화의 완급을 조절하며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하며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 부수되는 여러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인도의 발표자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공산체계의 붕괴 이후 세계적으로 풍미하고 있는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한 국제관계 정립의 문제이다. 한국 사회에도 이미 불어닥친 시장개방과 국제화 또는 세계화 정책이 그들 도시경제와 도시민에 마치게 될 장·단기적인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종래에는 인도의 뉴델리가 국제도시로 진입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그의 낙관론의 근거는 인도 사람들의 균면성, 민주정치 체제의 전통, 영어의 사용, 풍부한 자연자원 등을 들고 있다. 아마도 그들의 거대한 인구를 오랜 역사와 전통의 규범에 묶어두고 있는 사슬을 풀고 어떻게 국민들이 새로운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 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세계화와 국제화는 관념이 아니고 생활 실천의 현실이고 살아가는 방법이자 인식이기 때문이다.

이또 교수가 발표한 첨단기술과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도시의 내용은 아시아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앞서가는 일본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말해 준다. 도시산업사회화나 국제화 등의 문제가 아니라 첨단 기술과 정보사회화의 도래와 더불어 예견될 수 있는 도시 생활과 도시구조의 변화 등을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막연히 앞서서 미래의 세계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일본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징후들을 근거로 하고 있다. 개발된 첨단기술을 도시공간형성에 최대한 적용해서 기술의 제한 때문에 이를 수 없었던 도시문제들을 해결하고 또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적용한다. 도시에의 응용부문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바 거대 환경의 조성, 도시생활의 안전성 제고 및 환경의 쾌적성 증진 등이다. 컴퓨터 산업의 생활에의 광범위한 적용과 더불어 초래하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생활의 양식의 변화와 가상공간의 만연 등은 기존 사회응집력의 해체에까지 이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이 인공지능도시의 예견되는 악영향을 줄이고 도시를 조정 가능한 레벨에 머물게 하는 요체는 가족관계등 인간관계를 돋독히 하고 문화와 도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사회에서 사회응집력의 도구로 사회화 되었던 의식을 현대사회에서도 새로운 형태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접촉 교섭을 증진시키는 가상공간을 새로운 의식의 조직으로 도시공간에 부활시키는 게 미래 건축가의 중요 도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일한 아시아 권역에 속하면서도 사회의 발전단계에 따라 도시에 대한 관심사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홍콩대학의 Tunny Lee 교수와 건축가 Rem Koolhaas는 아시아 도시들에 대한 상황적 판단과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 매우 대조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Tunny Lee 교수는 아시아 사회는 산업화 이전에 동일한 생산양식에 뿌리박은 사회조직과 종교에 근거해서 독특한 역사적 전통을 이루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

통사회의 생활공간 조직은 문화적 특색을 지녔는데 서구문화의 영향하에 식민화, 산업화 등을 거치면서 새로운 독특한 오늘의 도시를 이루했다는 것이다. 서구화, 산업화 등의 물결속에 지워져버린 것처럼 보이는 아시아 문화의 전통적인 삶이 아직도 저변에 살아 있다는 것이다. 날로 빠르게 변하고 악화되는 도시환경을 살 만한 도시로 만드는데는 서구에서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 아직 살아있는 고유한 전통문화의 맥락을 그대로 오늘 사회에 이어서 세계 도시문화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Rem Koolhaas는 아시아 사람들이 도시에서 전통가치의 재창출을 운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마치 다리를 절단당한 사람이 웃어버린 다리 때문에 앓는 병(phantom pain)과 같다라는 것이다. 오늘의 도시문제는 아시아에서의 특수한 발현이 아니고 인류문명사에서 발생한 인류공통의 보편성을 따는 이슈라는 것이다.

상업주의와 자본주의의 추구에서 상실한 정체성에 연연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것이다. 중심성의 상실에 대한 연민의 정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부구조 자체가 바로 도시라는 견해다. 도시의 정체성은 서로 다른 조경영역(landscape)에 의해서만 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경영역은 무정치적인 영역으로 근대주의의 이념이 얹혀 들어가는 곳이다. 하부구조는 도시전체를 하나로 묶는 것이어서는 문제가 있고 분리되고 나누어진 조각이어야 한다. 그래서 도시는 공항에 비유할 수 있는 바 무개성적이고 반복 생산적이다. 여기서는 정체성이 더욱 부담스러운 것이며 텅빈 중성적인 점이 이 공간의 유용성이라는 것이다.

#### 4. SIJORI 개발계획

마지막으로 발표된 3편의 논제는 SIJORI 개발계획에 대한 것이다.

SIJORI는 Singapore, 말레이시아의 Jobore, 및 인도네시아 Sumatra의 Riau 지역 명칭을 합한 것이다. ASEAN의 회원국인 이 세나라는 말라카해협과 싱가폴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이 세 지역을 통합된 단일 경제구역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199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측의 연사는 특별 경제구역으로의 개발의 당위성, 목표, 예상되는 경제지표와 효과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 세지역을 도로, 철도, 송유관, 케이블 등 하부구조 시설로 연결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테이 켙순은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한 전략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이론은 형태공간론(Spatial morphology)과 비교 유형학(Comparative built form typology)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근간에 빈번한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 도시의 하부구조에 대한 계량과 모형화 등에 집중하면서 정작 도시의 형태에 대한 고려는 빼져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도시의 형태란 오염과 탄산가스 발생에 연관된 생태학적인 관심에 관한 것이다. 그는 형태학을 공간기술에 있어서 정주공간의 구조와 계량기하학에 관한 것으로 정의하며 유형학을 건물 유형의 체계적 연구로 정의한다. 그의 세안은

열대지방에 적합한 탄산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는 밀집형의 도시 구조로서 이는 생태적으로 유연하며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시의 기준공간을 열대지방에서의 도보거리 한계인 400m를 반경으로 하는 고밀도 거대 구조로 상정한다. 이 기준공간 거대구조물들은 여러층의 데크로 연결하며 하부에 주차, 상부는 공동생활권으로 한다. 식수를 많이 해서 구조물의 경직성을 중화시키며 태양에너지를 도입하고 지역단위 동력발전으로 무공해 재활용 에너지를 공급한다. 전화통신과 컴퓨터가 각 지점들을 연결해준다. 모듈화된 배수체계가 유기능 지역에서 폐기물들을 재생한다. 이상적이지만 현재의 환경문제와 기술수준 등을 감안할 때 미래의 도시의 모델로서 충분히 실현성이 있다고 보아진다. 흥미있는 점은 녹세(green tax)제도로서 건축행위로 자연으로부터 털취한 수목량만큼의 세를 물리며 조경을 도입한 만큼 감세해 주는 것이다. 청세(Blue tax)제도는 건물이 강수량을 공공배수구에 버리지 않고 수용하는 만큼 세를 감면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도시모형은 SIJORI 지역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지역에서도 한번 시도해볼 만한 제안이다.

## 5. 집담회

29일 오전에는 각 발표자들간에 자유토론 및 청중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램 쿨하스는 그가 발표한 당시 청중의 일부가 그의 논리에 대해 강력한 반론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 추가 부연을 하였다. 청중의 반응은 렘이 제기한 아시아에서 아시아 정신이나 전통문화의 복귀를 강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중성적인 하부구조가 주도하며 조경영역이 생활공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가장된 새로운 식민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쿨하스는 환경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에는 이제까지 와는 다르게 우리의 도시환경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이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본 것이라고 밝혔다.

터니 리 교수는 국제화의 정책이 반드시 지역적인 전통적인 가치체계를 거스르지는 않는다고 견해를 밝혔다. 특히 고밀도화된 도시에 살고있는 오늘날 아직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는 의식들이 허다하게 지켜지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는 변화가 그렇게 빠른 것 만도 아니라는 것이다.

감상주의는 무력함의 증거이고 예리한 분별력은 생활의 힘력이 충만함을 암시한다. 이또 교수는 첨단기술 이상으로 보편적인 기술의 효율적인 응용이 중요하다고 보며 이에는 모형시험기술, 평가기술, 환경평가, 오염조절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보았다. 도시하부구조는 집중하기보다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9일 오전에는 청중들이 많이 줄었다. 이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토의해서 이를 요약하기로 하였다. 세 그룹의 좌장은 각각 홍콩의 Tunney Lee 교수, 중국의 Zhang Quinan 교수, 말레이지아의 Mohamed Eza가 맡았다.

- 터니 리 교수 그룹의 토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 건축환경에 대한 교육은 대학수준에서가 아니라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각 국간에 정보를 공유 교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자연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해야 한다.
  - 아시아 건축사협의회 역할의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면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 장 찌난 교수 그룹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첨단기술과 정체성의 문제가 공히 도시공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생태적인 면이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정체성과 역사성의 주제가 실무 및 교육과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 서양과 동양을 분별하는 아시아인의 감수성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 공동의 관심사를 연구, 전시, 출판하는 활동그룹이 필요하다.
- 모하메트 에자 그룹의 요약
  - 도시발전의 주동력은 정치적인 의지이다.
  - 정치력과 자본력에 의해 건축가의 역할은 제한받는다.
  - 생활공동체의 개발을 위해 기층민의 참여에 관심 가져야 한다.
  - 건축가들의 다른 전문분야와의 폭넓은 교류가 필요하다.
  - 아시아 도시들의 국제적인 위상과 역할에 대해 관심 가져야 한다.

## 6. 맺는말

포럼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에 이사회 및 포럼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위해 싱가폴 협회에서 마련한 싱가풀 주요점 둘러보기 행사가 있었다.

버스 3대에 분승해서 Bugis Junction이라는 첫 번째 답사지점에 도달해서 모두 내렸다. 이곳은 옛날 차이나타운에 해당하는 곳인데 3-4층 정도의 건물들을 재개발한 곳이다. 부숴버리고 용적률을 높여서 높은 건물을 짓지 않고 옛건물을 잘 보수 보완해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가를 만들었다. 집들의 양쪽 옆 사이 도로에는 유리지붕을 씌워서 보도공간으로 만들었다. 그 주위에 아직 재개발을 기다리는 원상태의 동네를 더 돌아보고 버스 있는 곳으로 와보니 아직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Bugis Junction안에 들어가 스케치를 하고 다시 버스 있는 곳으로 돌아오니 버스 3대는 이미 떠나버렸다. 첫 기착지에서 일행을 놓쳤으니 싱가풀 시내를 걸어나 보자하고 자유로운 새처럼 목표없이 이리저리 빨가는대로 구경하였다. 다음날에도 시간있는대로 대표단 일행인 학생들과 시내를 걸어 보았다.

비록 작은 면적의 땅덩어리이고 짧은 역사의 인간의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만 도시의 구석구석을 계획성 있게 가꾸어가고 있음을 금방 느끼게 된다. 높이 세우고 대지를 채우는 만큼 도시내에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조

경식수를 풍부하게 하였다. 물가 해안선이나 자연지세를 가능한 과과하지 않으려는 주의가 여실하다. 영국의 도시를 연상케하는 바가 있지만 정원도시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과감한 거대구조 도시의 실험적인 응용 등 진취성과 의욕이 돋보인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짧은 역사의 흔적들마저 귀하게 여기고 보전하려고 노력하고 투자한다. 그래서 자연의 생태적 리듬이 인간의 의지의 흔적으로 남은 역사의 캐속에 병존한다. 여기에 더하여 오늘의 삶의 활력과 진취적인 현대 문명의 생활방식을 도시속에 새롭게 모자이크하고 있다.

싱가폴이라는 도시가 결코 완전무결한 이상도시는 아니다. 그러나 이번 아카시아 포럼의 주제인 21세기에서의 아시아 도시의 역할과 전망에 대한 이를 반동안의 열띤 토의와 논쟁에서 드러난 결론적인 방향은 싱가폴의 숨쉬는 도시 공간속에 이미 암시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된다.

우리 사회의 경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도시가 깨끗하고 틀이 갖추어져 있다든가 하는 물리적인 양상도 양상이지만 그 보다도 그들이 그들의 생활환경을 어떻게 가꾸고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하는가 하는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아름답고 균형된 집합적 생활공간에 전혀 사람의 의도가 겉으로 표출되지 않는 예도 있다. 가령 한국의 자연부락처럼 자연에 순응하면서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규범이 사람들의 건축행위를 공통적으로 뛰고 있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개체 생활공간의 집합은 자연스런 균형과 질서감각을 스스로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규범이 사라진 오늘, 도시에서 생활공간의 구성에 대한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계획의 빈곤을 단적으로 보여줄 뿐이다. 국민소득은 높아지고 그만큼 생활공간의 조성에 투자되는 비용은 높아져도 도시의 모습은 점점 무질서와 혼돈의 미궁으로 빠지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

개인 소유의 단위 건조물의 범위를 넘어 질 높은 생활공간을 공유하고자하는 시민적 공감대가 우리사회에 존재하는지 묻고싶다. 좋은 공유공간을 우리 도시속에 가지고자 한다면 생활공동체 성원들이 그만큼 개인의 욕구를 자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민의 의지를 물리적 실체로서 구현할 수 있는 비전과 방법을 갖추고 있는지 자문해 보게 된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자신있게 답할 수 없다면 21세기의 우리 도시는 지금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포럼기간동안 아시아의 동료들이 보여준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도시에서 어떤 매력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계속 외면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 성원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질적으로 우수하고 아름답고 체적하고 사랑스러운 도시에서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건축인부터 우리 사회 성원들과 더불어 깨어나야 한다.

## 아카시아 건축 교육위원회(ACAE)

이정근, 백경국 / 본 협회 국제위원

1. 이번 아카시아 건축교육위원회(ACAE)는 1995년 11월 24일, 25일 양 이틀간에 걸쳐 싱가포르의 웨스턴 호텔 래틀시티 컨벤션 센터(Western Hotel Raffles City Convention Center)에서 15개국 중 몽고와 파키스탄을 제외한 13개국의 각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되었다.

회의는 ACAE 의장인 스리랑카 Laksman Alwis씨의 개회사와 함께 한국(KIRA), 중국(ASL), 말레이시아(PAM), 싱가폴(SIA), 태국(ASA), 인디아(IIA), 방글라데시(LAB), 홍콩(HKIA), 인도네시아(IAI), 필리핀(UAP) 등 많은 회원국이 참석했다.

이번 건축교육위원회(ACAE) 회의에 우리협회의 국제 위원으로는 이정근 위원이 참석했고, 국제위원 백경국 위원은 참관인으로 참석했다.

2. 아카시아 건축교육위원회(ACAE) 회의에서 토론된 주요 의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아시아 건축 학교들의 자료 수집
- (2) 건축과 대학 학장단들의 이사회 결성
- (3) 각 회원국으로부터 보고서의 표준양식 준비
- (4) 건축교육을 위한 UIA 교육현장
- (5) 1996년 7차 ARCASIA 대회(인도네시아 자카르타)

3. 각 의제별 토의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이사회 개최전까지 아시아 건축과 학교들의 최근 자료를 수집하기로 결정했다. 말레이시아의 P. Wardix 교수가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지원하였고, 또 6개월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하기로 했다.

(2) 건축 교육위원회에서는 ACAE 기구내에 건축대학 학장단의 이사회 결성을 할 필요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 이유는 ACAE의 회원들은 건축실무와 관련된 교육문제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는 전문교육기관으로 대변되는 반면, 건축대학의 학장단들은 교육학, 교육 이수과정 등의 교육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학교의 교육은 실무의 요구에 대해 절실히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건축교육위원회는 학생챔버리가 열리는 동안 참가 학생들에게 더욱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집행하고 있는 각국의 학교 학장단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로서만 계속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각 회원국 나라이로부터 한 명씩의 교육자를 초청하여 ACAE에 참석하도록 제안되었다.

(3) 각 회원국의 표준양식으로 작성된 내용을 건축교육위원회(ACAE) 회의 3개월 전까지 건축교육위원회 회장 앞으로 보내도록 하고, 그 이유는 의견안건 등으로 회람해 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4) 건축교육을 위해 제시된 UIA 현장의 초안이 건축

교육위원회에서 다루어졌는데 UIA 현장은 단지 안내서로서만 이용될 뿐 각 회원국의 건축교육 지침서로서는 이용되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다. 그리고 각국의 회원들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내년 1996년 1월 11~12일에 열릴 예정인 UIA 회의에 제시하도록 했다.

#### (5) 학생 건축 작품대회

① 작품의 주제와 PROJECT 명은 주최국에서 준비하도록 했다.

② 주최국에서는 1996년 3월 15일까지 학생작품대회에 관한 내용 설명을 각 회원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그 이유는 각 회원국 학교에서 학생작품대회에 준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이다.

③ 각 회원국에서는 챔보리대회에 참가시키기 위해 2명의 학생을 추천하기로 하고, 2명의 학생작품은 챔보리대회에서 전시하기로 했다.

학생의 여행비용은 각국의 관련된 협회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동안의 비용은 주체국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그리고 주최국에서 가능한 빠른 시기내에 각 회원국에게 챔보리의 준비 내용을 일리 주기로 했다.

건축가들, 학생들과의 만남, 그들의 진지한 생각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나라의 도시와 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겠구나…

호텔로 가는 공항 리무진버스에서 야자수가 우거진 밖의 경치를 보니 비로소 열대지방에 왔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창이공항은 싱가폴의 동쪽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물게 될 Raffles City내 Westin호텔로 가기위해 버스는 계속해서 쪽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계속 보이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도 같지 않은 고층의 집합주택들이었다. 싱가폴의 동쪽지역이 주거단지로 새롭게 개발되는 중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바로 7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전 지역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에서 나와 김포공항으로 왔는데 대조적으로 싱가폴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정반대의 아주 다양한 주거단지를 볼 수 있었다.

싱가폴은 아주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동쪽끝에서 도심으로 오는데 불과 30여분이면 충분하였다. 우리가 일주일동안 머물게 될 웨스틴 호텔은 사실상 Raffles City라는 73층의 호텔 1동과 지상 28층의 호텔 2동, 컨벤션 센터 및 각종 레스토랑이 있는 지상 7층의 포다움, 지상 42층의 오피스로 구성되어 있는 대규모 복합 캠플렉스의 하나였다. 싱가폴의 첫인상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창이공항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처럼 광장한 종합적 산물로 이어졌다.

방에 침을 풀고 곧장 회의장으로 내려가 ARCASIA FORUM의 등록을 했다. 마침 미리 등록하러 내려온 다른 나라 대표단들도 몇 분 있었다. 같이 오신 우리나라 대표자분들은 그들과 마차 아주 오랫만에 만난 친한 벗들처럼 반가워하며 인사들을 나누었다. 나는 국제회의에 온 각국의 대표단들이 이처럼 허물없이 인사를 나누고 정겨워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 ARCASIA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다음날부터 싱가폴에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다.

각국의 대표단들이 참가하여 아시아 각 나라의 건축활동 제반에 대하여 의견을 교류할 뿐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때론 아시아의 불이익에 대해 성명서도 쓰는 ARCASIA의 Council Meeting은 첫 이틀동안 행해졌다.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분분하여 결론이 모아지지 않을 때는 즉각 회장이 임시휴식을 공고하여 회원들끼리 삼삼오오 자유롭게 무리를 지어 자연스러운 토론의 장이 된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도 본 받아야 할 민주적인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ARCASIA에서는 기성 건축가들보다도 건축학도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ARCASIA이사회와 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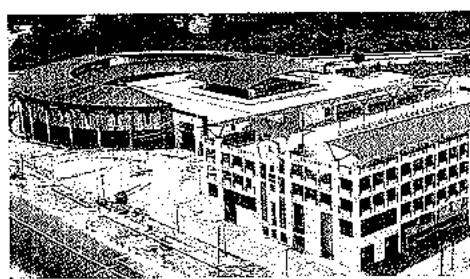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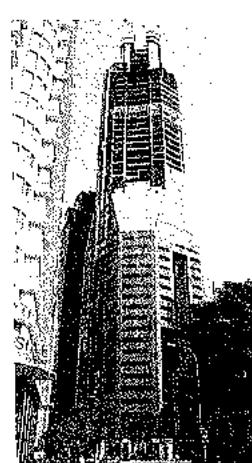
## ■ ARCASIA FORUM을 다녀와서

한선정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3학년의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 기말고사와 보고서, 그리고 최종설계를 하느라 정신없이 보내고, 비로소 지난 12월말 싱가폴에서의 ARCASIA FORUM이라는 하루하루가 소중했던 경험들을 정리할 시간이 주어졌다.

어느덧 또나시 겨울이 시작되고 있는 11월23일 아침, 추운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도착한 곳은 평균기온이 26도를 웃도는 싱가폴의 창이공항이었다. 마침 싱가폴은 11월과 12월이 열대기후중 제일 살기좋은 雨期에 속해 적당히 더운 정도였다. 처음 도착했을 때도 매일 한번씩 내리는 비가 공항을 촉촉히 적셔주고 있었다.

비행기안에서, 아니 그 전날 밤부터 여러가지 기대와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ARCASIA의 국제회의, 아시아의 여러



로 ARCASIA 교육위원회가 조직되어 따로 회의가 운영되고 마지막에 교육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을 이사회에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이사회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거론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온 대표단들은 실무 건축가를 겸비한 유명한 건축학과의 교수들이어서 그러한 논의들이 더욱 활발한 듯 싶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마지막 시간동안 오랫동안 행해졌던 서방국가의 설계회사들의 아시아의 침투에 대한 ARCASIA의 성명서의 작성이었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아시아에서 서방국가의 설계사무소가 건물을 설계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이때 각 나라는 자국의 설계사무소와 협동설계를 해야한다는 일종의 자기 나라의 건축설계사무소의 보호정책에서 연유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아시아의 정책에 대해 UIA에서는 자유무역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규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번 ARCASIA의 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고 UIA의 결정에 대해 강경한 성명서를 쓰기 이르렀다. 나는 이 문제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상황들을 검토해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아시아의 건축분야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필사적인 생존권을 앞에 둔 성명서를 작성하는 그 심각한 분위기를 느껴 볼 수 있었다.

이틀간의 ARCASIA의 Council Meeting이 끝난 다음날 싱가폴 건축사협회에서 싱가폴 답사일정을 잡았다.

처음으로 간 곳은 Bugis Junction이라는 쇼핑가였다. 그러나 이곳은 단순한 현대적인 쇼핑가가 아니었다. 옛날 싱가폴의 3층짜리 전통적인 건물을 약간 수리만 하 고 건물사이의 거리부분을 유리볼트로 덮어 만든 전통적인 건물을 충분히 새롭게 이용한 것이었다. 이 곳을 들러보면서 우리나라의 가회동이나 원서동의 한옥보존 지역이 생각났다. 꼭 이와같은 방식이 아니더라도 우리 나라도 아름다운 한옥을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닌 뭔가 좋은 방법이 있지 않았을런지.

그 다음에 간 차이나타운에서도 Bugis Junction에서 본 영국식의 3층짜리 건물들을 그대로 두고 예쁘게 정리만 하여 재래식 쇼핑가를 이루고 있었다. 이 두곳을 돌아본 뒤 싱가폴이라는 나라가 새로 만들어진, 초현대적인 고층빌딩 아니면 대규모의 쇼핑센터만 즐비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곳이 Singapore River 주변의 Clarke Quay나 Boat Quay 등에서였다. 물론 Singapore River는 한강과는 비교도 안 될만큼 작은 강이고 여름 장마에 범람하는 일도 없는 우리나라와 여려모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Clarke Quay나 Boat Quay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모두 싱가폴의 중심가임에도 불구하고 3층짜리 전통 건물을 그대로 두어 강 주변의 레스토랑, 카페 등의 관광지로 만들고 있다. 이 건물들은 대부분이 폭이 좁고 깊이가 깊어 건물의 중심에 light well을 두었다. 붉은 색 지붕과 흰 벽들이 이 아담한 건물들이 없었더라면, 온통 새로 지은 고층건물들만 있었더라면 이 얼마나 되돌릴 수 없는 일

이었을까.

싱가폴에 도착하자마자 본 하우징들을 직접 가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다. 싱가폴은 하우징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최근 이 나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하우징 단지인 Bisbarn Housing Estate와 Tampines Housing Estate을 보여주었다. 비록 안에 들어가면 주거의 유형은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하우징마다 각기 판이하게 다르고 동일한 하우징 내에서도 획일적 이지 않고 다양하고 인간적인 느낌을 주려 했다. 특히 거의 모든 하우징에 있어서 1층부분은 펠로티로 비워두고 공공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었다. 싱가폴은 일년 내내 기후가 좋기 때문에 어떤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임이 있을 때 이 1층의 부분을 이용한다고 한다.

Bisbarn Housing Estate에는 Elias Mall이라고 불리는 하우징내 상가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우리네 아파트의 간판으로 일색된 박스형의 상가와는 전혀 다른 것 이었다. 스컬형의 레벨차를 이용하여 활기있고 다양한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특히 연극이나 각종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꽤 여유있는 원형의 마당도 연결되어 있었다. 마침 그 원형의 야외극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인형극이 진행되고 있었고 원형극장내에 아이들과 엄마들로 꽉 차 있었다. 참으로 이 Elias Mall이라는 장소는 이 하우징내에서 사람들을 위한 성공적인 건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의 답사 코스 말고도 본인 스스로 틈틈이 싱가폴을 돌아다녔다. 이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뷔니 뷔니해도 Garden City였다. 곳곳에 넓은 녹지들이 펼쳐져 있고 사람들이 싱가폴의 어느 곳이든지 상쾌한 기분으로 걸어다닐 수 있도록 잘 계획되어 있었다. 거리의 신호등, 버스 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도 잘 디자인되어 있는 점도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기분을 좋게 했다. 물론 처음에는 혼잡한 우리나라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렇게 깨끗하고 모든 것이 잘 정리된 곳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참으로 해야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 다음 ARCASIA Forum이 3일동안 진행되었다. ARCASIA Forum은 한 주제에 대해 세계의 저명한 건축가와 건축학과 교수들이 견해를 발표하고 토론도 하는 유익한 장이다. 이번의 주제는 "Asian Cities in Asia's Century"로 21세기에는 급성장하는 아시아가 디어 세계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아시아의 서로 다른 도시들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 나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 속하면서도 아시아의 다른 나라와 도시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고 오로지 미국과 유럽의 건축에만 관심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포럼을 통해 아시아의 각기 다른 역사적 전통과 배경을 바탕으로 한 변화에 흥미를 느꼈고 특히 서구 세계보다 동질감이 느껴지는 아시아의 변화와 발전 계획에서 더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학술적 교류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ARCASIA Forum에 온 싱가폴 국립대학 건축학과의 학생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이번 여행에서 얻은 큰

홍만식 /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소득이었다. 싱가폴은 80%이상이 중국인이라 그들의 대부분이 중국계였는데 비록 언어소통이 쉽지않아도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라 신기하게도 표정만 봐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라서 건축 학과는 오직 싱가폴 국립대학에만 있다고 한다. 모두 5년의 학과 과정이 있는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실내 인테리어부터 시작하여 조경계획, 도시계획까지 프로젝트를 공부한다고 한다.

내가 아주 부러웠던 것은 이 친구들은 4년의 공부를 하면 5학년이 되기전에 1년의 해외여행의 기간을 준다고 한다. 건축학도들에게 졸업을 하기전 보다 견문을 쌓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훌륭한 교수님을 모시는 것보다도 더 좋은 교육이 아닐까.

이 친구들이 하나같이 나에게 물어 본 것이 졸업 후 취업을 하기가 쉽냐는 것이었는데 그들의 경우 나라가 너무 작아서 국제적이지 않으면 건설회사가 생존하기가 힘들므로 회사가 별로 없어 싱가폴안에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가까운 말레이지아나 홍콩의 회사에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

싱가폴친구들 중 여자애들이 남자애들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이었던 것도 인상적이었다. 남자애들은 대부분이 바쁘다고 하면서 여자애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여자애들이 우리를 안내해주고 같이 시간을 보냈다. 그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의 사진들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었더라면 좋았을 뻔 했다.

이렇게 해서 싱가폴에서의 일주일을 보냈다.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이해, 민주적인 ARCASIA 회의 방식, 싱가폴 나름대로의 전통건물의 보전과 도시환경계획, 하우징에 대한 지대한 관심, 그리고 적극적이고 친절한 싱가폴 친구들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과 아시아의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추억을 얻게 되었다. 세계여행이 아닌 가까운 싱가폴만을 다녀왔어도 우리나라와의 여러면을 비교하게 되고 더욱 생각이 깊어지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몇몇 신도시에 세운 그 엄청나게 많은 똑같은 아파트들을 도대체 어떻게 지을 수 있었는지 정말로 의아스럽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거문제 해결의 심각성을 실감했다. 물론 이 문제는 단순히 건축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에 해결의 어려움이 있다 는 것은 학생인 나도 잘 알고 있다.

건축은 그야말로 사회를 정직하게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신 건축사협회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이와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나라 건축의 미래가 더욱 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ARCASIA FORUM8에 참석하게 된 것은 나에게 있어서 참으로 운이 좋은 경우였다. 최우수상을 받은 학생이 1명인 관계로 참석 티켓이 1장 남게 되어 우수상 4명 중에서 선택받은 경우였고 군에서 제대하고 내년에 3학년 복학을 앞둔 나의 입장에선 데없는 기회이자 행운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학생 대표’라는 부담을 안고 참석하게 되는 경우라 약간은 긴장된 기분으로 첫 외국행을 하게 되었다.

첫날.

행사 일정에 있어서 포럼은 4일째부터 열리기로 되어 있다. 행사전 3일의 행사 일정엔 아카시아 이사회와 교육위원회가 병행 개최될 예정이었고 하루는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관광계획으로 짜여져 있었기에 나와 동행 학생은 포럼 시작전의 3일간을 조금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개회식행사에 참여 후 우리는 전날의 계획에 맞추어 대중교통과 도보로 싱가포르란 나라를 알기 위해 여러 장소를 답사했다.

빅토리아 양식의 우아한 건물인 대법원과 시청사, 고딕 양식의 건물인 생앤드류 교회, 빅토리아 양식의 유서 깊은 국립 박물관, 싱가포르 최대최고의 이슬람 사원인 술탄 모스크, 국립 도서관 등 싱가포르의 역사·문화·종교·사람 등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계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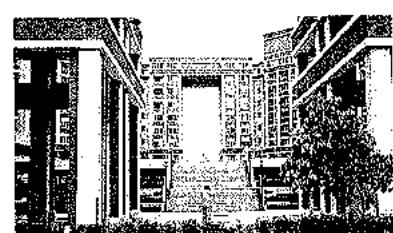
그러나 이렇게 주요 장소를 들면서 조금은 실망감도 없지 않았다. 초 현대적 건물군들이 즐비한 자유 무역항으로써의 발전된 모습뒤에 보이는 정신적 빈곤이라고나 할까. 길지 않은 역사의 싱가포르라 그런지 그 특유의 문화의 존재 보단 다민족 다종교가 나온 다문화적 요소를 너무나 상업화적 이미지로 변화시켜 버린 듯한 모습에서 현재 그들의 진정한 정신적 문화 양식은 어떤 것일까? 하는 의문을 놓기도 하였다.

둘째날.

오전에 우리에게도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아시아 회원국 간의 기성 건축가들이 서로의 건축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 증진을 하기 위한 자유스런 토론회였다. ARCASIA협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이 흥미있게 토론의 대상이 되면서 내 스스로가 알지 못했던 것들, 특히 앞으로의 미래를 짚어질 학생들에게 대한 여러 배려의 계획과 방법을 논할 땐 학생자

격으로 참석한  
나로선 참으로  
흥미의 화제가  
아닐 수 없었다.

회의 중간 중간  
에 있는 Tea Ti-



me엔 서로들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데 있어 짧은 영어 실력에 대한 안타까움을 유감없이 실감할 수 있었고 가장 아쉬운 것은 학생이 참여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어서 학생이라곤 나와 같이 간 학생들 뿐인 것이었다. 뒷날 포럼 개최날부터 현지 학생들과의 미팅이 있었지만 하였지만 좀 더 많은 또래의 학생들과의 만남의 기회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오후엔 이사회 회의 참여를 제쳐두고 우리는 '도시 속의 도시'로 말하는 컨셉트로서 구축 진행되고 있는 썬텍시티(SUNTEC CITY)라는 인공적인 도시공간을 가보았다. 한마디로 공간 스케일에서 압도당하는 느낌이었다. amusement시설, 쇼핑 시설, 음식 시설, 숙박 시설, 전시 시설, 국제회의 시설 등이 총 복합적으로 정비 개발되어 있는 거대한 인공도시로 구축되어 있었다. 그 많은 기능적 건물 시설들의 배치와 동선의 체계적 분리, 건물 내부의 대담한 보이드를 통한 자연 채광의 도입,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의 연결 공간의 마련, 내·외부의 공간적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자아내는 조경계획, 바닥장식에서 천장마감까지의 세세한 디테일, 전체적인 건물군들에 있어서의 디자인 등 모든 면에 있어 엄청난 규모임을 실감케 했다.

그러나 둘러보는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는 어딘가 모를 황폐감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있었다. 너무나 인공적, 물리적,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스케일에서 받는 인간적 스케일의 그리움이라 할까. 미래 우리 인간에게 있어 진정한 본질적 공간은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 하는 질문과 함께 숙소로 돌아왔다.

#### 셋째날.

공식 일정은 관광 계획에 따라 주최측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여러 곳을 둘러 보았다. Bugis Junction, China Town, 클라크(Clark)부두, HDB(Housing and Development Board)의 주거단지 등 여러 장소를 다니면서 싱가포르의 다양한 발전 모습들을 읽을 수 있었다.

Bugis Junction이란 곳은 특이하게 리노베이션한 지역이었다. 옛날의 슬럼화 되어 있던 주택가 지구를 개조해 특이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상업지구로 변모시켜 놓았다. 클라크 부두도 개조의 일환으로 된 장소였다. 과거 강가의 넓고 텅빈 창고 거리를 재개발과 함께 창고 등의 경관을 보전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한 상업지구 또한 사교의 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는 관광사업으로 기획구상된 개발이었다고 한다. 특히 HDB 주거단지의 방문에서는 싱가포르의 주택사업 계획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느낌을 받았다. 다양한 문화와 그에 따른 독특한 건물들의 계획, 주거 환경에 있어서의 녹지 정책, 민족 융화정책, 한 지역으로의 과다한 인구밀도 분포의 확산 등 모든 면이 고려된 종합적인 계획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대단위 주택 사업에 있어서도 주택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 주어져야 할 여러 가지 중 인간 삶이 중심이 되는 주거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아시아세기의 아시아의 도시들'이란 주제로 이루어진 포럼의 내용들은 참으로 흥미로웠다.

분명 21세기에 있어서 아시아는 세계의 중심으로 등장할 것이고 그와 더불어 발전되어야 할 많은 도시화의 프로젝트에 지적되는 문화적, 경제적, 지역적 문제들이 많은 다양한 지역의 사례와 함께 발표되었다. 오늘날 아시아의 현대화는 전세계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5년까지 전세계 메가시티 27개 중 17개가 아시아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 세계 최대의 빌딩이 쿠알라룸푸르에 지어지고 있는 것처럼 빠른 아시아의 도시화, 현대화는 흥미있고 도전적인 일들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이 유럽의 경우 200년이란 긴 시간에 이루어진 것에 비해 아시아는 향후 10년 정도의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분명 관심의 대상으로써 충분할 것이다.

문명의 발상지에서 출발된 수천년이란 긴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아시아 도시들이 형성해 놓은 독특한 문화적 특징들은 앞으로의 수없이 많은 발전적 요소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고 이러한 과거의 가치의 존재와 도시화 현대화란 미래를 앞둔 현시점에서 각 나라들은 새로운 개성있는 지역적 도시창조의 과제들을 다같이 안고 있었다.

한 선례로써 싱가포르의 도시 발전적 과정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 체계적 발전 모습이 꽉이나 인상적이었다.

싱가폴의 도시 재개발에 이어 근대화의 기점은 1819년에 상륙한 영국인 스텐포드 랫플즈경의 상륙에서 시작된다. 그는 이 땅을 동서무역의 거점으로 하고자 당시의 지배자 조흘 국왕 설턴으로부터 강력하게 할양조약을 받아 영국령으로 하고, 동인도 회사의 상사를 설립하여 개발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싱가폴은 동남 아시아 제일의 자유무역항으로, 아시아에서 영국의 해협 식민지 거점이 되었다.

싱가폴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65년에 말레이지아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다민족 도시 국가이다. 최근에 싱가폴은 종래의 자유 무역항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천기 국제공항의 개항, 정보통신 설비의 충실, 초고층 빌딩의 건설과 지하철의 단계적 개통에 의하여 근대적인 도시 국가로 변모하였다. 아울러 싱가폴 정부는 도시 활동을 24시간화하고, 국제 금융센터, 국제 컨벤션센터, 국제 관광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장기적인 도시 개발을 하는데 있어 공공센터와 민간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리고 민간 혈력소의 활용을 어떻게 구체화하여 가는가가 중요한 과제였다고 한다.

이에 싱가폴 정부는 1974년 이러한 도시 재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의 싱가폴  
도시 재개발 공  
사(URA)의 정  
식 발족과 더불  
어 체계있게 추  
진해 왔다는 것



이다.

도시 재개발에 있어서 전반적인 국가의 경제 상황을 인식한 뒤, 이 지역에 무엇을 언제 정비하여야 하는가 하는 시기·기능·용도 등을 설정하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간다는 추진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러한 계획 아래 「개성있는 현대 도시의 건설」이라는 컨셉트를 가지고 다민족의 전통을 되도록 남겨 살리려는 노력들과 함께 도시화의 과정을 거쳐왔다.

이같은 사례 발표를 들으면서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으로 생각되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을 떠올릴 수 있었다. 공공센터와 민간센터의 역할 즉, 정부와 시민 전문가가 진정 함께 해 나아가야 할 도시발전의 모습. 그러한 장소 마련과 아울러 제도적 장치 마련 또한 중요할 것이다. 나의 공모전 프로젝터인 「서울학 연구소」도 이러한 장소 마련의 일환이었다고 생각된다.

계속되는 「동아시아의 도시화」라는 주제의 발표에서는 현대 동아시아의 도시화 과정에 있어서 문화적 역사적 차원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발표였다. 아시아는 인간문명의 태동과 함께 도시의 생성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와 함께 형성된 독특한 지역적·문화적·역사적 현상들, 미래에 도시 발달의 전망과 방향 설정에 있어서의 이러한 가치들의 중요성을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의 발표였다.

「중국의 도시화 상황」 발표에 있어선 해안가 도시들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온 도시화가 점점 더넓은 지역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규모가 작은 도시들일수록 인구수적·규모적 성장의 폭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크게 발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재미있는 현상이었다.

중국에 있어서 해안 지방의 도시들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에 있어 새로운 도시화 탄생의 과정을 겪고 있는 중추적 역할의 지역들이다. 빠른 경제적 문화적 발달과 함께 이들 해안 도시들의 역할과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 나타나는 물질적 정신적 변화의 과정을 재조명해 보고 있었다. 각 지역들에 대한 보다 중요한 문제들의 존재와 또 다른 문제 발생의 가능성과 그 해결 방법들에 대해 그들 나름대로 연구 분석한 내용들이었다.

계속된 인도의 수도 뉴델리와 인도네이사의 수도 자카르타에 대한 발표사례가 있었는데 역시 나라마다의 도시화 과정에 따른 문제 상황과 그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들이 제시되면서 환경과 인간, 삶의 문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도시계획들을 고려하고자 했었다. 일본의 Beyond High-Tech City'는 과거 일본이 겪었던 한신 대지진의 재앙으로부터 얻은 경험을 통해 High-Tech의 절대적인 필수성을 자각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High-Tech는 도시화 과정에서 인간 삶의 안전과 편리함, 산업과 상업의 발전 등 다방면에서의 발전을 도모하게끔 하였다. 또한 이러한 High-Tech 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자의 필요성과 아울러 소프트웨어에서의 혁

신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다.

미래의 모든 도시화에 있어서의 Hihg-Tech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삶의 안전 시스템, 불시적인 재앙의 관리 및 정보화 수송기관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하게 그 쓰임새는 확대될 것이며 이것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기술적 지식은 계속 연구될 것이다.

이와 같이 ARCASIA FORUM 8을 참석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모든 도시화 계획에 있어서 그 속에 담긴 공통의 맥락은 도시화 계획이란 결국 제각각 문화를 달리하는 도시 주민의 삶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도시의 존재 양식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많은 경험이 된 7박8일 동안의 싱가포르 아카시아 포럼은 과연 내게 있어 어떠한 의미가 되었나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 우물안 개구리식의 사고에서 벗어나게 된 직접적인 체험의 계기가 되었다.

진정 내가 자라난 환경 속에서 형성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고픈 나 자신이었기에 내 스스로 사고의 틀을 더욱 크게 만들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 확대의 기회가 되었던 계기였다.

- 우리나라에 대한 진정한 애착이다.

단일 민족으로 이어진 오래된 역사, 그 깊은 역사와 더불어 형성된 훌륭한 문화, 4계절과 함께 주어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진정 그 이용 가능성의 요소가 너무나 많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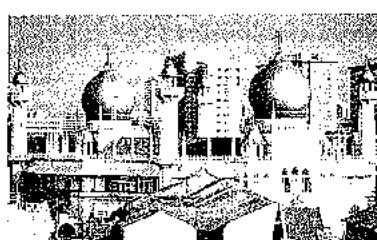
누군가 말하였던가 “건축은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동시대인들의 문화습성과 전통의 계승과 앞으로의 미래 지향적 비전의 표현이다. 즉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성의 동시 다발적 표현인 것이다.”라고, 이같이 현재 우리로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 환경에 대한 바른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직접 참여하게 만들며 보다 나은 도시 환경 창조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 목표에 있어서는 진정 인간 삶의 본질적 추구라는 진리 속에서 건축뿐 아니라 모든 환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진정한 변화란 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적 변화속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현실이라는 곁으로 나타난 모습들에 위축 받기보다는 진정 자신의 감추어진 보다 무한한 잠재력을 찾고 키워나갈 수 있는 대학생활이 되어야 하지 아닐까?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며 직접 체험으로 도전할 수 있는 삶은 패기가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우리 건축계의 비전 이자 자기 자신의 비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스스로에게 물어 본다. “나는 지금 무슨 목표를 갖고 생활하고 있나?”

해답은 없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직접 부딪쳐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싶다.

끝으로 같이 동행하면서 우리를 두 학생들에게 많은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46호, 96년 1월 18일)

## 개정이유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1995. 1. 5. 법률 제4919호 및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배치도, 1층 평면이 표시된 평면도, 입면도, 등 기본설계도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각층의 평면도·입면도 및 단면도와 구조도 등 세부설계도서는 착공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도록 함(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4의2).

나.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토지굴착공사로 인하여 가스·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함(제14조제3항).

다. 피난계단·방화구획·굴뚝·방화벽·방화문 등의 구조에 관하여 규정함(제26조의3, 제28조의2,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라. 건축구조기술사외에 건축구조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건축구조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및 건축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제1항).

〈건설교통부 제공〉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2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 법 제5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2.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3.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영 제9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으로,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①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

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별표2의 기본설계도서(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한다.

3. 법 제8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제7조 제1항중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을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방건축위원회”를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로, “영 제8조제2항 각호”를 “영 제8조제4항 각호”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건축조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중 “영 제8조”를 “법 제14조”로,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장등”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6항중 “시장등은 제1항 내지 제5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으로,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증”을 “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필증”으로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13조제1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가설건축물신고증”을 “가설건축물신고필증”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건축신고”를 “축조신고”로 한다.

제1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별표4의2의 설계도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통신, 상·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용검사에 관한 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로, “사용검사신청서와 이에 따른 사용검사필증은”을 “사용승인신청서와 이에 따른 사용승인서는”으로, “사용검사신청서에는”을 “사용승인신청서에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중 “영 제17조 제1항”을 “영 제17조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을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설계도서의 작성등) 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5

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도서의 관리)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세곱미터이상인 건축물(단독주택과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건축물안에 고정식 도서보관함을 설치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한 도서를 말한다)

2.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

3.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대장

제19조(감리보고서등) ①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들을 요청할 때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 또는 현장관리인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일지·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는 각각 별지 제23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의4서식에 의한다.

제1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영 제19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

## 부의 검토·확인

7.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확인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제1항중 “시장등에게 건축사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3호의 5서식”으로, “건축사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검증물사용검사 및 검사조사”를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사”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사용검사신청서(이하 이 조에서는 “신청서라 한다)”를 “사용승인신청서”로, “사용검사필증을”을 “사용승인서를”로 하며 동항제1호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중 “시장등”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단서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의 3 및 제28조의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 3(피난계단등의 구조) ① 영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안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마. 계단실의 옥내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바. 옥내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와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 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 및 부속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불박이

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안쪽에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안쪽으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층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방화구획의 구조)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급수관·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모르터 기타 불연재료로 메울것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땅펴를 설치할것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달힐 것

다. 달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제2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경사도는 1: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⑥영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3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의2내지 제3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굴뚝의 옥상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계단탑·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계단탑·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2.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미터이상 높게 할 것

3.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으로 건축물의 지붕속·반자외 및 가장 아래 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4.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3(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의 구조) ①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회구조로서 훌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자붕면으로부터 0.5미터이상 뛰어 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마터이하로 하고, 당해 출입문에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②제28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의4(방화문의 구조)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한다.

1. 끌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인 것

3.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을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한다.

1.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0.8밀리미터이상 1.5밀리미터미만인 것

2. 철재 및 망이 들어있는 유리로 된 것

3. 끌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내면에는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을, 옥외면에는 철판을 붙인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③방화문이 문틀 또는 나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문을 닫기 위한 철물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제87호·제98조 내지 제101호”를 “제85호·제96호 및 제97호”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5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①영 제91조의3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구조분야의 공학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건축구조분야의 공학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3. 건축기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②영 제9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토목분야 기술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지질조사

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3. 흙막이벽·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8조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①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표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일반이 보기쉬운 건축물의 출입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②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의 시정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첨문절차)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첨문예정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첨문사유 및 일시·장소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주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3조증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①영 제1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느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②제1항의 경우에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제1호의 시방서란증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제1호의 항목란증 “건축물의 인동간 거리”를 “인접건축물과의 거리”로, “용적률”을 “용적률”로 하고, 동표 제2호의 항목란증 “복도 폭”을 “복도 너비”로, “출구 폭”을 “출구 너비”로 한다.

별표 6제3호의 표증 “띄는 거리”를 “띄우는 거리”로 하고, 제6호증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8의 “계단 및 계단참의 폭”란을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란으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의 6.건축규제계획란증 “용적율”을 “용적률”로 한다.

별표 12의 작성자란증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증 “공사현장관리자”을 “현장관리인”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증 건축주명의변경 신고안내의 근거법규란증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행규칙”을 “건축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증 “32 용적율”을 “32 용적률”로, “50 용적율(%)”(기준포함)을 “50 용적률(%)”(기준포함)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안내의 근거법규란증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시공자”란을 “공사시공자”란으로 하고,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안내의 근거법규란 및 유의사항란증 “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도로폐지(변경)허가신청안내의 근거법규란 및 유의사항란증 “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증 “②사용검사일 년 월 일”을 “②사용승인일 년 월 일”

로 하고, ”건축주 또는 축조주”란을 “건축주”란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증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도지사등”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사업시행규칙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 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17조제2항증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증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②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증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사용검사대상”을 “사용승인대상”으로 하고 동항제10호증 “시공자”를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증 “사용검사”를 각각 “사용승인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증 “준공일자”를 각각 “사용승인일자”로, “시공자”를 각각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로 한다.

③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증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④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가목증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⑤소방법시행규칙증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단서중 “사용검사동의 대상”을 “사용승인동의 대상”으로, 동조 제3항 후단중 “사용검사”를 “사용승

인”으로 한다.

⑥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9호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으로 하고, 동조제17 항 본문중 “사용검사”를 각각 “사용승

인”으로 한다.

⑦도·소매업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한다.

(별표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기본설계도서(제6조제1항관련)

도서의 종류	도서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임 의	1. 개요(위치·대지면적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 규모 6. 인접건축물 현황
배치도	임 의	1. 축적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종·횡 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평면도	임 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5. 승강기의 위치
입면도	임 의	1. 2면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 마감재료
단면도	임 의	1. 종·횡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별표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도서의 종류	도서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배치도 각층평면도 각층입면도 각층단면도	임 의	건축허가도면외에 상세한 기재가 필요한 경우와 건축허가도면의 변경이 있는 경우(건축허가신청시 제출한 도면과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구조도 (구조안전확인 대상건축물)	임 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시방서	임 의	1. 시방내용(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함) 2. 흙막이 공법 및 도면
설내마감도	임 의	1.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소방설비도	임 의	1.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관서의 강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 소방관련 설비
건축설비도	임 의	1.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송강설비 등 건축설비
토지굴착 및 용벽도	임 의	1.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2. 흙막이 구조 3. 단면상세 4. 용벽구조

(별표10)

건축재료(제32조 관련)

1. 레디믹스드콘크리트
2.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3. 보통합판
4.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5. 옥내용 소형스위치
6. 배선용 꽂유접속기
7. 도어클로우저
8. 원통형, 튜뷸러형 및 상자형 도어록
9. 수도꼭지
10. 철동밸브
11. 복층유리
12. 보주경첩
13. 배관용 탄소강관
1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압출형재
15. 난방용 주철방열기
16. 난방용 강판방열기
17.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18. 경질 비닐 전선판
19. 강제 전선판
20. 프리텐션방식 고강도 콘크리트말뚝
21.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피시탈뚝
22. 도자기질 타일
23. 가단 주철제판 이음쇠
24. 600볼트 비닐 절연전선
25. 보일러 및 교환기용 탄소강 강판
26. 플로어링 보드
27.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판
28. PVC(비닐)계 바닥재
29. 비닐 석면타일
30. 팔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31. 합성수지 예열전 페인트(외부용)
32. 광명단 조합페인트
33. 조합페인트
34. 조합페인트 목재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35. 합성수지 예열전 페인트(내부용)

- |                             |                       |                                |
|-----------------------------|-----------------------|--------------------------------|
| 36.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 55. 유리면 보온재           | 77. 폴리팅밸브                      |
| 37.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            | 56.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 78.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
| 38. 경량기포 콘크리트페널             | 57. 누전차단기             | 79.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
| 39. 투명라카                    | 58. 배선용 차단기           | 80.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
| 40. 우드실라트 콘크리트              | 59.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 81.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
| 41.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 60. 나사식 강관제 판 이음쇠     | 82. 하이탱크용사이펀                   |
| 42. 알키드수지 바니쉬               | 61. 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관    | 83. 로탱크용 블립                    |
| 43. 스파바니쉬                   | 62. 주택용 분전반           | 84. 로탱크용 사이펀                   |
| 44. 슬레이트 및 기화용 페인트          | 63. 푸러쉬플레이트           | 85. 시멘트벽돌                      |
| 45.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광택에나<br>멜   | 64. 노오말랜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 86. 동 및 동합금 판이음쇠               |
| 46. 형광램프(일반조명용)             | 65. 박스(경질 비닐 전선관용)    | 87. 강관 용접식 플렌지                 |
| 47. 소켓                      | 66. 가야마나이프 스위치박스      | 88. 플로어휀지                      |
| 48.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판         | 67.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 89. 난방용 알루미늄 방열기               |
| 49. 강화유리                    | 68. 불밸브               | 90. 접합유리                       |
| 50. 일반배관용 강제맛대기 용접식판<br>이음쇠 | 69. 수도용 재수밸브          | 91. 아우트레트 박스                   |
| 51. 특수배관용 강제맛대기 용접식판<br>이음쇠 | 70. 주철밸브              | 92.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프<br>레스 이음쇠 |
| 52. 배관용스테인레스강관              | 71. 파이프행거             | 93. 폴리에틸렌 이음쇠                  |
| 53. 스위치박스 방열기               | 7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 94. 동 및 동합금플레이 판이음쇠            |
| 54. 암면 단열재 제품               | 73. 일반구조용탄소강관         | 95. 동합금 납땜 판이음쇠                |
|                             | 74. 일반구조용각형강관         | 96. 보통벽돌                       |
|                             | 75. 타티에혹시 수지도료        | 97. 시멘트블록                      |
|                             | 76. 벨로우즈형 신축관이음       |                                |

##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 업무수행신고 규칙

개정 건축사법(1995. 1. 5공포, 1995. 7. 1 시행)에 의하여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가 국내 개설 건축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임할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올해 1월부터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 협회에 위임된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 업무수행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우리 협회가 "외국 건축사 면허취득자 업무수행신고 규칙"을 제정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본 협회에 위탁된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 업무수행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의 신고) ① 본 협회 회장은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가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건축사면허 취득자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1. 면허(자격)증 사본

2.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2매  
4.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등록증 사본  
② 본 협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 신고내장 및 업무수행신고 현황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5일 이내에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필증 재교부) 본 협회 회장은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가 신고필증을 잃어 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신고) 본 협회 회장은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변경되어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 신고내장 및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 신고필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문서 보존기간)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 신고내장 및 관련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 신고내장-영구
  2.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 신고서-영구
  3.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5년
  4.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 변경신고서-5년
  5.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 업무수행신고 현황대장-영구
- 제6조(수수료)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 신고 업무에 따른 수수료는 건축사법시행 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의 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2만원
  2.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의 신고필증 재교부-2천원

### 부 칙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995년도 12월분 설계도서신고현황

## 종합평가

###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2월분 1천5백5십2만3천2백39m<sup>2</sup>보다 29.1%(4백5십1만6천55m<sup>2</sup>) 감소한 1천1백만7천1백84m<sup>2</sup>의 실적을 보임.

### 나. 전년동기비

####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단위/m <sup>2</sup> )			
		1994년도	1995년도	증 감	비율(%)
증가지역	서 울	2,417,242	4,851,304	2,434,062	100.7
	부 산	759,122	1,047,339	288,217	38.0
	대 구	594,331	749,073	154,742	26.0
	경 남	1,607,643	1,689,818	82,175	5.1
감소지역	인 천	1,269,505	330,571	(938,934)	-74.0
	광 주	673,090	287,817	(385,273)	-57.2
	대 전	491,317	222,355	(268,962)	-54.7
	경 기	3,068,520	601,296	(2,467,224)	-80.4
	강 원	417,275	224,083	(193,192)	-46.3
	충 북	609,648	294,397	(315,251)	-51.7
	충 남	717,473	103,777	(613,696)	-85.5
	전 북	1,292,806	202,095	(1,090,711)	-84.4
	전 남	483,253	97,248	(386,005)	-79.9
	경 북	1,037,808	227,601	(810,207)	-78.1
	제 주	84,206	78,410	(5,796)	-6.9
	합 계	15,523,239	11,007,184	(4,516,055)	-29.1

전년도 12월 누계 1억4천6백7만9천4백80m<sup>2</sup>보다 15.3%(2천2백3십2만4천6백26m<sup>2</sup>) 감소한 1억2천3백7십5만4천8백54m<sup>2</sup>의 실적을 보임.

### 다. 전월비

전월 11월분 9백8십9만2천3백24m<sup>2</sup>보다 11.3%(1백1십1만4천8백60m<sup>2</sup>) 증가한 1천1백만7천1백84m<sup>2</sup>의 실적을 보임.

####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

		(단위/m <sup>2</sup> )			
		11월분	12월분	증 감	비율(%)
단 독 주 택	685,643	697,053	11,410	1.7	
다 세 대 주 택	230,381	291,447	61,066	26.5	
연 립 주 택	123,617	180,670	57,053	46.2	
아 파 트	4,605,849	5,578,072	972,223	21.1	
근린생활시설	1,186,587	1,186,423	(164)	-0.0	
종 교 시 설	90,817	58,568	(32,249)	-35.5	
의 료 시 설	57,364	115,441	58,077	101.2	
교육연구시설	232,856	402,015	169,159	72.6	
업 무 시 설	410,910	444,867	33,957	8.3	
속 박 시 설	300,322	205,631	(94,691)	-31.5	
공 장	852,920	809,750	(43,170)	-5.1	
기 타	1,115,058	1,037,247	(77,811)	-7.0	
합 계	9,892,324	11,007,184	1,114,860	11.3	

####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12월분)

구 분	1994년			1995년			대 비			연면적 비 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 독 주 택	2,535	2,615	585,596	2,355	2,429	697,053	(180)	(186)	111,457	19.0	
다 세 대 주 택	651	706	309,043	614	638	291,447	(37)	(68)	(17,596)	-5.7	
연 립 주 택	116	119	287,425	84	113	180,670	(32)	(6)	(106,755)	-37.1	
아 파 트	227	1,194	7,766,601	157	511	5,578,072	(120)	(683)	(2,188,529)	-28.2	
근린생활지역	3,401	3,523	1,734,396	2,364	2,451	1,186,423	(1,037)	(1,072)	(547,973)	-31.6	
종 교 시 설	119	126	134,117	75	82	58,568	(44)	(44)	(75,549)	-56.3	
의 료 시 설	24	29	163,852	19	22	115,441	(5)	(7)	(48,411)	-29.5	
교육연구시설	169	229	445,162	106	110	402,015	(63)	(119)	(43,147)	-9.7	
업 무 시 설	137	149	565,503	114	132	444,867	(23)	(17)	(120,636)	-21.3	
속 박 시 설	173	188	245,586	109	118	205,631	(64)	(70)	(39,955)	-16.3	
공 장	972	1,437	1,629,714	630	836	809,750	(342)	(601)	(819,964)	-50.3	
기 타	1,468	1,820	1,656,244	894	1,052	1,037,247	(574)	(768)	(618,997)	-37.4	
합 계	10,042	12,135	15,523,239	7,521	8,494	11,007,184	(2,521)	(3,641)	(4,516,055)	-29.1	0=미어너스

### 용도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12월분)

구분 용도별	1994년			1995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43,183	44,060	10,097,457	41,821	42,645	11,030,212	(1,362)	(1,415)	932,755	9.2	
다세대주택	8,186	8,837	4,129,059	8,180	9,125	3,929,473	(6)	288	(199,586)	-4.8	
연립주택	1,157	1,402	2,176,990	1,221	1,316	1,839,798	64	(86)	(337,192)	-15.5	
아파트	2,349	9,868	59,582,004	1,867	6,141	47,673,281	(482)	(3,727)	(11,908,723)	-20.0	
근린생활시설	43,646	45,024	19,852,924	38,298	39,630	17,796,424	(5,348)	(5,394)	(2,056,500)	-10.4	
종교시설	1,456	1,677	1,273,841	1,258	1,422	993,063	(198)	(255)	(280,778)	-22.0	
의료시설	264	299	912,525	273	292	935,287	9	(7)	22,762	2.5	
교육연구시설	1,701	2,034	4,433,208	1,376	1,548	3,581,178	(325)	(486)	(852,030)	-19.2	
업무시설	1,409	1,524	4,765,872	1,291	1,365	5,818,691	(118)	(159)	1,052,819	22.1	
숙박시설	1,997	2,125	2,560,396	1,460	1,634	2,253,143	(537)	(491)	(307,253)	-12.0	
공장	10,398	15,377	16,135,574	9,673	13,081	14,017,108	(825)	(2,296)	(2,118,466)	-13.1	
기타	15,388	19,328	20,159,630	11,632	13,955	13,887,196	(3,756)	(5,373)	(6,272,434)	-31.1	
합계	131,134	151,555	146,079,480	118,250	132,154	123,754,854	(12,884)	(19,401)	(22,324,626)	-15.3	0=마이너스

###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12월분)

구 분 건축사회	1994년			1995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	1,229	1,256	2,417,242	1,893	1,895	4,851,304	664	639	2,434,062	100.7	
부산	789	879	759,122	622	929	1,047,339	(167)	50	288,217	38.0	
대구	1,126	1,189	594,331	1,059	1,119	749,073	(67)	(70)	154,742	26.0	
인천	270	327	1,269,505	314	334	330,571	44	7	(938,934)	-74.0	
광주	213	309	673,090	240	273	287,817	27	(36)	(385,273)	-57.2	
대전	246	293	491,317	198	201	222,355	(48)	(92)	(268,962)	-54.7	
경기	1,529	1,964	3,068,520	914	981	601,296	(615)	(983)	(2,467,224)	-80.4	
강원	501	608	417,275	384	399	224,083	(117)	(209)	(193,192)	-46.3	
충북	441	645	609,648	313	377	294,397	(128)	(268)	(315,251)	-51.7	
충남	426	453	717,473	186	186	103,777	(240)	(267)	(613,696)	-85.5	
전북	766	964	1,292,806	158	158	202,095	(608)	(806)	(1,090,711)	-84.4	
전남	503	594	483,253	202	242	97,248	(301)	(352)	(386,005)	-79.9	
경북	795	1,100	1,037,808	290	399	227,601	(505)	(701)	(810,207)	-78.1	
경남	1,001	1,313	1,607,643	608	842	1,689,818	(393)	(471)	82,175	5.1	
제주	207	241	84,206	140	159	78,410	(67)	(82)	(5,796)	-6.9	
합계	10,042	12,135	15,523,239	7,521	8,494	11,007,184	(2,521)	(3,641)	(4,516,055)	-29.1	0=마이너스

###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12월분)

구 분 건축사회	1994년			1995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16,620	17,130	21,140,628	18,866	18,946	31,356,368	2,246	1,816	10,215,740	48.3	
부산	10,727	12,315	10,162,558	10,451	12,563	9,038,554	(276)	248	(1,124,004)	-11.1	
대구	15,389	16,384	7,553,661	14,288	14,870	8,166,388	(1,101)	(1,514)	(612,727)	8.1	
인천	5,012	5,271	7,568,281	4,301	4,571	5,716,319	(711)	(700)	(1,851,962)	-24.5	
광주	3,958	4,708	5,650,596	3,319	4,215	4,191,176	(639)	(493)	(1,459,420)	-25.8	
대전	4,251	4,542	3,778,037	2,878	3,058	3,259,633	(1,373)	(1,484)	(518,404)	-13.7	
경기	22,069	27,056	33,413,452	20,671	23,123	21,608,810	(1,398)	(3,933)	(11,804,642)	-35.3	
강원	6,218	7,225	4,223,634	6,206	7,202	4,319,935	(12)	(23)	96,301	2.3	
충북	6,707	8,108	5,500,464	5,565	6,308	4,360,946	(1,142)	(1,800)	(1,139,518)	-20.7	
충남	5,709	6,118	11,489,046	4,551	4,869	6,025,793	(1,158)	(1,249)	(5,463,253)	-47.6	
전북	4,566	5,505	6,334,166	2,984	3,313	4,070,612	(1,582)	(2,192)	(2,263,554)	-35.7	
전남	5,740	7,189	4,736,695	4,215	4,977	3,070,134	(1,525)	(2,212)	(1,666,561)	-35.2	
경북	8,800	11,928	10,777,115	6,644	8,737	6,532,446	(2,156)	(3,191)	(4,244,669)	-39.4	
경남	12,462	14,942	12,534,264	11,113	13,063	11,062,988	(1,349)	(1,879)	(1,471,276)	-11.7	
제주	2,906	3,134	1,216,883	2,198	2,339	974,752	(708)	(795)	(242,131)	-19.9	
합계	131,134	151,555	146,079,480	118,250	132,154	123,754,854	(12,884)	(19,401)	(22,324,626)	-15.3	0=마이너스